

정책보고서 2021-00

발 간 등 록 번 호
00-0000000-000000-00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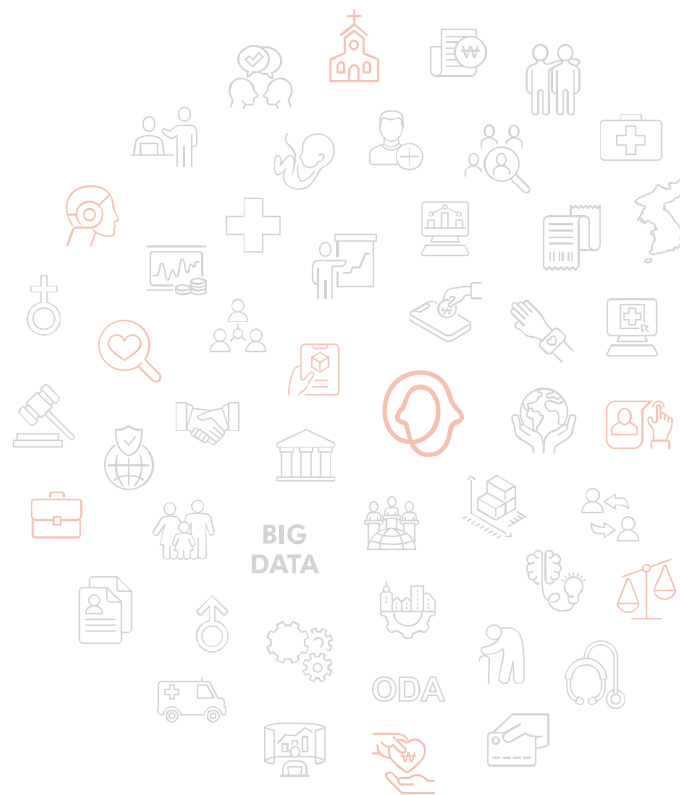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강신욱

이원진·이다미·한겨레·문성웅·이현욱·정현진·오하린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겨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문성웅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재정부과체계센터장
	이현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실장
	오하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주임연구원

제출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관과 용역계약(2021. 7. 14.)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
각지대 분석」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요약	1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5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0
제2장 분석자료 구축 및 현황	63
제1절 4대 보험 가입현황 자료	65
제2절 소득현황 자료	71
제3장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81
제1절 분석 자료와 행정통계와의 차이	83
제2절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 집단의 구분	93
제3절 분석 대상 집단의 설정	95
제4절 일자리와 소득 특성	100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115
제1절 이론적 검토	117
제2절 건강보험 적용 현황과 특성	123
제3절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129
제4절 소결	152
제5장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분석	155
제1절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7
제2절 분석 개요	160

제3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	161
제4절 소결	187
제6장 고용보험 가입실태 분석	193
제1절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의미와 적용	195
제2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구분	200
제3절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	208
제4절 근로자의 세부 집단별 고용보험 가입 실태	214
제5절 소결	217
제7장 3대 사회보험 가입실태 연계 분석	221
제1절 3대 보험 가입 지위의 연계와 유형화	223
제2절 특성별 3대 보험 가입 유형	228
제3절 세부 집단별 3대 보험 가입유형 비교	232
제4절 소결	236
제8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분석	239
제1절 분석 개요	241
제2절 분석 방법	242
제3절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	246
제4절 개인 단위 분석 결과	261
제5절 소결	276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1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	283
제2절 행정자료의 정책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함의	285
참고문헌	287

부록	289
[부록 1] 분석 테이블 레이아웃	289
[부록 2]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295
[부록 3] 성별/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	314
[부록 4] 고용보험 가입 실태분석	316
[부록 5] 3대 사회보험 연계 가입실태 분석	322
[부록 6]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327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개념적 구분	56
〈표 2-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테이블 각각의 2018년, 2019년 적용 현황 수	70
〈표 2-3〉 개인의 소득, 일자리 파약을 위해 활용된 자원원 특성	71
〈표 2-4〉 자원원별 건 수 및 단위	72
〈표 2-5〉 자원원별 파약 가능한 소득 유형	73
〈표 3-1〉 건강보험료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수(2019년)	85
〈표 3-2〉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인구 행정통계(2019년)	85
〈표 3-3〉 건강보험테이블 상의 가입자와 행정통계의 차이(2019년)	86
〈표 3-4〉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교(2019년)	88
〈표 3-5〉 고용보험부와 내역과 행정통계의 차이	89
〈표 3-6〉 산재보험부와 내역과 행정통계의 차이	90
〈표 3-7〉 각 보험별 부과 개월수별 분포(2019년)	92
〈표 3-8〉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 직군의 수	93
〈표 3-9〉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교 해당 인구수	94
〈표 3-10〉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교’ 해당 집단의 구성	95
〈표 3-11〉 3대 보험 결합테이블의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98
〈표 3-12〉 3대 보험 결합테이블과 인구총조사의 외국인 수 비교	98
〈표 3-13〉 3대보험 결합테이블 상의 연령대별 인구(내국인)	100
〈표 3-14〉 일자리 유형별 인구(전 연령)	101
〈표 3-15〉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소득 분포(2019년)	104
〈표 3-16〉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성별 평균 소득	106
〈표 3-17〉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평균소득 분포(15~89세, 2019년)	108
〈표 3-18〉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비율 (2019년)	109
〈표 3-19〉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평균소득(2019년)	110
〈표 3-20〉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평균 소득(2019년)	112
〈표 3-21〉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소득 있는 자 비율(2019년)	113
〈표 3-22〉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유소득자 평균 소득(2019년)	114
〈표 4-1〉 건강보험 사각지대 관련 주요 선행연구	120
〈표 4-2〉 의료보장 적용현황 (8월 기준)	123
〈표 4-3〉 의료보장 적용현황 (12월 기준)	123
〈표 4-4〉 성별 특성(2018년 8월)	124

〈표 4-5〉 성별 특성(2018년 12월)	124
〈표 4-6〉 성별 특성(2019년 8월)	125
〈표 4-7〉 성별 특성(2019년 12월)	125
〈표 4-8〉 연령별 특성(2018년 8월)	126
〈표 4-9〉 일자리 종사상 지위 분류별 의료보장 적용현황(2018년 12월)	127
〈표 4-10〉 일자리 종사상 지위 분류별 의료보장 적용현황(2019년 12월)	128
〈표 4-11〉 6개월 이상 체납자의 사각지대 현황	132
〈표 4-12〉 체납자 자료의 주요 변수와 내용	133
〈표 4-13〉 6개월 이상 체납자 개인별 전체 현황	134
〈표 4-14〉 납부의무자와 세대원 현황	135
〈표 4-15〉 개인 소득구간별 현황	136
〈표 4-16〉 성별 현황	137
〈표 4-17〉 연령대별 현황	138
〈표 4-18〉 의료보장 자격유형별 현황	139
〈표 4-19〉 종사상 지위 현황 1-근로성 소득 보유 여부	140
〈표 4-20〉 종사상 지위 현황 2-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는 그룹	141
〈표 4-21〉 종사상 지위 현황 3-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	142
〈표 4-22〉 미성년세대 현황	143
〈표 4-23〉 세대구성원 현황	144
〈표 4-24〉 세대 소득구간별 현황	145
〈표 4-25〉 납부의무자 성별 현황	146
〈표 4-26〉 납부의무자 연령 현황	147
〈표 4-27〉 납부의무자 체납보험료 구간별 현황	148
〈표 4-28〉 납부의무자 체납개월수 구간별 현황	149
〈표 4-29〉 납부의무자 종사상 지위 현황 1-근로성 소득 보유 여부	151
〈표 4-30〉 납부의무자 종사상 지위 현황 2-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는 그룹	152
〈표 5-1〉 국민연금 사각지대 관련 주요 선행연구	159
〈표 5-2〉 18~59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구분	161
〈표 5-3〉 본 연구에서 파악한 18~59세 인구의 공적연금 가입 규모	163
〈표 5-4〉 18~59세의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국민연금 행정통계와 본 행정자료의 비교	163
〈표 5-5〉 국민연금 가입 현황: 연령대별	165
〈표 5-6〉 국민연금 가입 현황: 성별/연령대별	166
〈표 5-7〉 연령대별 종사상지위 규모	169
〈표 5-8〉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172

〈표 5-9〉 성/종사상 지위별 평균 가입개월 수(미가입자 포함)	173
〈표 5-10〉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 여부	175
〈표 5-11〉 성별에 따른 소득자료 보유 여부	175
〈표 5-12〉 성/연령대별 미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 여부	177
〈표 5-13〉 성/소득구간별 현황	179
〈표 5-14〉 성/소득구간별 미가입자 현황	180
〈표 5-15〉 미가입자의 연령대/소득구간별 현황	182
〈표 5-16〉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2019년 기준): 전체	186
〈표 5-17〉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원) 이상 연중 미가입자의 특성: 종사상 지위별	186
〈표 5-18〉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원) 이상 연중 미가입자의 특성: 연령대별	187
〈표 6-1〉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에서의 일자리 유형 구분(연령대별, 2019년)	201
〈표 6-2〉 전체 인구의 종사상지위 분포(2019년)	204
〈표 6-3〉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비교(2019년)	207
〈표 6-4〉 취업자의 성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9
〈표 6-5〉 취업자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9
〈표 6-6〉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자(18~64세)	210
〈표 6-7〉 근로자의 근로소득 구간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18~64세)	212
〈표 6-8〉 노동소득 구간별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18~64세)	214
〈표 6-9〉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30개 집단(2019년)	215
〈표 6-10〉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30개 집단(2019년)	216
〈표 7-1〉 월별 3대보험 가입 유형(전 연령, 각년도 12월)	225
〈표 7-2〉 연간 가입 지위를 이용한 3대 보험 가입 유형(전 연령)	226
〈표 7-3〉 연령대별 3대 보험 가입 유형(연령대별, 2019년)	228
〈표 7-4〉 성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64세)	229
〈표 7-5〉 연령 구간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64세)	230
〈표 7-6〉 종사상 지위별 3대보험 가입 유형(18~64세)	231
〈표 7-7〉 노동소득 구간별 3대보험 가입 유형(18~64세)	232
〈표 7-8〉 근로자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 유형 비교(18~59세, 2019년)	235
〈표 8-1〉 사회보험 가입 변수의 조작적 정의	243
〈표 8-2〉 원천근로소득 테이블	244
〈표 8-3〉 분석 자료 구성	246
〈표 8-4〉 개인 단위 및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 변수의 조작적 정의	246
〈표 8-5〉 사업장 단위 종사자 수 분포	247
〈표 8-6〉 사업장 단위 남성 비율 분포	248

〈표 8-7〉 사업장 단위 평균 연령 분포	248
〈표 8-8〉 사업장 단위 평균 근무기간 분포	249
〈표 8-9〉 사업장 단위 평균 월소득 분포	249
〈표 8-10〉 사업장 단위 건강보험 가입률 분포	250
〈표 8-11〉 사업장 단위 국민연금 가입률 분포	251
〈표 8-12〉 사업장 단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분포	252
〈표 8-13〉 사업장 종사자 수와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3
〈표 8-14〉 사업장 남성 비율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4
〈표 8-15〉 사업장 평균 연령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6
〈표 8-16〉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8
〈표 8-17〉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0
〈표 8-18〉 개인의 성별 분포	262
〈표 8-19〉 개인의 연령 분포	263
〈표 8-20〉 개인의 근무기간 분포	263
〈표 8-21〉 개인의 월소득 분포	264
〈표 8-22〉 개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265
〈표 8-23〉 개인 성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6
〈표 8-24〉 개인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7
〈표 8-25〉 개인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9
〈표 8-26〉 개인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70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2018년, 2019년 건강보험 적용현황 자료 발체 쿼리	66
[그림 2-2] 일자리 유형 분류 단계	76
[그림 3-1] 테이블의 결합과 전체 분석 대상 집단의 설정	97
[그림 3-2] 3대 보험 결합테이블의 연령별 인구 및 누적인구비율(2019년)	99
[그림 4-1] 건강보험 체납자 DB 구축 과정	130
[그림 4-2]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분류 및 사각지대 규모	131
[그림 4-3] 체납자 DB 분석 내용	133
[그림 5-1] 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원인	158
[그림 5-2] 본 연구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구분: 예시	162
[그림 5-3] 국민연금 가입 현황: 연령대별	167
[그림 5-4]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규모	168
[그림 5-5]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171
[그림 5-6] 성/종사상지위별 평균 가입개월 수(미가입자 포함): 대분류(상), 소분류(하)	173
[그림 5-7]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 여부	176
[그림 5-8] 전체 미가입자 가운데 소득자료 보유 비율: 성/연령별	178
[그림 5-9] 성/소득구간별 현황: 소득자료를 보유한 미가입자	180
[그림 5-10]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연령대별 소득 현황: 기준소득월액 하한(31만원) 기준	182
[그림 5-11]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연령대별 소득 현황: 200만원 기준	183
[그림 5-12] 소득자료 보유자의 가입상태별 소득 현황	185
[그림 6-1]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분포(2019년 8월)	196
[그림 6-2] 일자리 유형과 종사상 지위 구분	203
[그림 6-3] 복수의 종사상 지위로 구분된 일자리 유형	205
[그림 7-1] 연령별 3대 보험 가입 유형(2019년)	227
[그림 7-2] 자영자 중 '의료보장'과 '의료+연금'의 격차가 가장 큰 집단(18~59세)	234
[그림 8-1] 사업장 종사자 수와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3
[그림 8-2] 사업장 남성 비율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5
[그림 8-3] 사업장 평균 연령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7
[그림 8-4]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59
[그림 8-5]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1
[그림 8-6] 개인 성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6
[그림 8-7] 개인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8

[그림 8-8] 개인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68
[그림 8-9] 개인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71
[그림 8-10] 개인 성별 및 사업장 남성 비율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272
[그림 8-11] 개인 연령 및 사업장 평균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273
[그림 8-12] 개인 근무기간 및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274
[그림 8-13] 개인 월소득 및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275

부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1-1〉 건강보험테이블 레이아웃	289
〈부표 1-2〉 연금테이블 레이아웃	290
〈부표 1-3〉 고용보험테이블 레이아웃	290
〈부표 1-4〉 산재보험테이블 레이아웃	291
〈부표 1-5〉 소득 일자리-개인단위 테이블 레이아웃	292
〈부표 1-6〉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 레이아웃	293
〈부표 1-6〉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 레이아웃(계속)	294
〈부표 2-1〉 건강보험료 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수(2018년)	295
〈부표 2-2〉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인구 행정통계(2018년)	295
〈부표 2-3〉 건강보험테이블 상의 가입자와 행정통계의 차이(2018년)	296
〈부표 2-4〉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교(2018년)	297
〈부표 2-5〉 각 보험별 부과 개월수별 분포(2018년)	298
〈부표 2-6〉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소득 분포(2018년)	299
〈부표 2-7〉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8년)	300
〈부표 2-8〉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9년)	304
〈부표 2-9〉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평균소득(15~89세, 2018년)	308
〈부표 2-10〉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비율 (15~89세, 2018년)	309
〈부표 2-11〉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평균소득(15~89세, 2018년)	310
〈부표 2-12〉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평균 소득(2018년)	311
〈부표 2-13〉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소득 있는 자 비율(2018년)	312
〈부표 2-14〉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유소득자 평균소득(2018년)	313
〈부표 3-1〉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2019년 기준): 남성	314
〈부표 3-2〉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2019년 기준): 여성	315
〈부표 4-1〉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8년)	316
〈부표 4-2〉 남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8년)	317
〈부표 4-3〉 여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8년)	318
〈부표 4-4〉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9년)	319
〈부표 4-5〉 남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9년)	320
〈부표 4-6〉 여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9년)	321
〈부표 5-1〉 특성 집단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59세, 취업자, 2019년)	322
〈부표 6-1〉 개인의 사업장 단위 종사자 수 분포	327

〈부표 6-2〉 개인의 사업장 단위 남성 비율 분포	327
〈부표 6-3〉 개인의 사업장 단위 평균 연령 분포	328
〈부표 6-4〉 개인의 사업장 단위 평균 근무기간 분포	328
〈부표 6-5〉 개인의 사업장 단위 평균 월소득 분포	329
〈부표 6-6〉 사업장 종사자 수와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329
〈부표 6-7〉 사업장 남성 비율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330
〈부표 6-8〉 사업장 평균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331
〈부표 6-9〉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332
〈부표 6-10〉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333



요약

제1장 서론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주로 개별 사회보험 중심으로 이루어짐.
 - 개인이나 가구 단위의 미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을 추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임.
 - 각 보험별 차이는 있으나 주로 ‘법적, 제도적’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로 구분하여 분석함.
 - 최근 들어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로 개별 사회보험 공단의 자료를 이용함.
 - 4대 보험의 가입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자료의 연계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많다는 점,
 - 전수 자료가 아닌 표본 자료를 이용하는 점에 따른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전체 인구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 및 소득 정보를 개인 식별키를 이용하여 연계·분석함.
 - 실질적으로 전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관심 대상 집단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용이함.
 - 대규모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세분화한 집단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제2장 분석자료 구축 및 현황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현황 자료와 피보험자들의 소득 자료를 활용하였음.

1.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

□ 자료원

-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 개별 고지 보험료 자료를 활용함(2018년·2019년).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민연금(직장, 지역),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받은 개별 고지 보험료를 활용하여 사회보험 가입여부의 대리변수로 활용함.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료 구축 현황

- 건강보험 가입현황은 매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 공무원·교직원 여부)을 구분하였음.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 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내는 통합징수 대상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매월 말 기준 개별 부과 고지 대상자를 가입자 대리변수로 활용함.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현황은 매월 말 기준으로 자격(미가입, 가입)을 구분하였음.

-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구분의 공무원·교직원 여부 및 외국인 자를 추가하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피보험자 자격 유무와 활용함.

- 건강보험가입자를 제외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고지 대상자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각 보험의 피보험자와 일치하지 않은 한

계가 있음.

-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자진신고 사업장 및 연납(분기납) 사업장의 경우도 해당 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 피보험자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요약 표 2-1〉 4대 사회보험 가입현황 최종 자료 구축 현황

분류	테이블 명	테이블 모집단 정의/행 수
4대보험 가입현황 테이블	건강보험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부여된 개인 (‘18)52,836,058 (‘19)53,082,331
	연금(직장, 지역)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연금(직장, 지역)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 (‘18)21,571,895 (‘19)22,090,072
	고용보험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 (‘18)13,177,493 (‘19)13,693,492
	산재보험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산재보험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 (‘18)13,002,082 (‘19)13,518,6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산재보험 테이블〉, 각년도.

2. 소득현황 자료

□ 자료원

- 전 국민의 소득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한 건강보험공단 부과자료를 사용함 (2018년·2019년).

- 원천자료원에는 종합소득자료, 원천근로소득자료,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사업자 등록, 근로내역확인서, 특수고용직, 공적연금자료 등이 존재함.

4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요약 표 2-2〉 개인의 소득·일자리 파악을 위한 자료 현황

(단위: 권)

자료 출처	자료명	연도/자료원 건수		주요 변수
		2018년	2019년	
국세청	종합소득	19,403,801	21,325,691	소득구분코드(이자·배당·근로·사업 소득 등), 소득, 업종 등
	원천근로소득	19,038,037	19,484,781	자료구분코드(신고소득), 소득종류코드(근로소득), 소득
	일용근로지급명세서	49,220,529	49,208,379	근로연월, 근로일수, 소득, 업종
	사업자등록	10,868,274	11,295,846	개업일, 폐업일
고용정보원	근로내역확인서	3,004,538	18,799,362	근로연월, 근로일수, 소득, 직종
근로복지공단	특수고용직	668,847	699,975	업종, 입직일자, 이직일자
5대 공적연금기관	공적연금	4,340,577	4,681,606	연금구분(노령·장애 등), 연금지급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	6,630,000	7,206,487	소득, 근무월수

□ 소득자료 구축 현황

○ 각 자료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득 유형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며, 분리과세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득*, 주택임대소득*, 일용근로소득이 파악됨.

- 금융/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2019년부터 부과대상 소득으로 포함되어서 2019년 자료에만 포함됨.

〈요약 표 2-3〉 자료원별 소득 유형 현황

자료명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1-2천)	주택임대소득(1-2천)	일용소득
종합소득	●	●	●	●	● (사적)	● (‘19년)	● (‘19년)	
원천근로소득			●					
보수총액신고			●					
공적연금					● (공적)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근로내역확인서								●

- 소득자료는 개인단위 소득자료와 개인-일자리(사업장 기준)단위 소득 자료로 2개의 데이터 셋으로 구축됨.
- 개인 단위 데이터는 소득 원천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집계하여 자료를 구축함.
 - 개인-일자리 단위 데이터는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집계하여 자료를 구축함.
 - 개인단위에서는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됨.

[요약 그림 2-1] 소득 자료 구축 현황



제3장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 건보공단 각 테이블의 가입자(부과 대상자)는 개별 보험 공단 행정통계 상의 가입자 수와 차이가 있음.
- 2019년 기준 건강보험은 월평균 약 25만 명, 국민연금은 43만 명, 고용보험은 약 266만 명, 산재보험은 700만 명 이상의 차이가 있음(건보공단 테이블의 부과자 수가 더 적음).
 -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 공단이 보험료를 자체 부과하고 건보공단이 통합하여 부과하지 않음으로 인해 건보공단의 테이블에 포함되지 않는 가입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특히, 각 사회보험 테이블과 행정자료의 차이는 사각지대를 과다추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함.
 - 두 자료의 차이가 크고 차이의 원인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재보험은 분석에서 제외함.
 - 건보와 의료급여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 국민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건강보험테이블>을 중심으로 분석함.

〈요약 표 3-1〉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교(2019년)

(단위: 명)

월	연금테이블				행정통계 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차이		
	직장연금 부과(A)	지역연금 부과(B)	직장및 지역연금 부과(C)	계(D)	사업장 가입자 (E)	지역(소득신 고)+임의+임 의계속(F)	계 (G)	직장연금 (H=A-E)	지역연금 (I=B-F)	계 (J=D-G)
1	13,262,501	4,746,804	18,803	18,028,108	13,777,621	4,753,169	18,530,790	-515,120	-6,365	-502,682
2	13,415,189	4,702,398	24,942	18,142,529	13,837,812	4,727,666	18,565,478	-422,623	-25,268	-422,949
3	13,370,638	4,685,271	23,261	18,079,170	13,836,173	4,709,031	18,545,204	-465,535	-23,760	-466,034
4	13,506,075	4,667,390	22,037	18,195,502	13,957,204	4,690,467	18,647,671	-451,129	-23,077	-452,169
5	13,600,149	4,647,733	31,982	18,279,864	14,014,313	4,685,507	18,699,820	-414,164	-37,774	-419,956
6	13,611,919	4,649,102	30,129	18,291,150	14,028,375	4,685,465	18,713,840	-416,456	-36,363	-422,690
7	13,657,901	4,650,574	29,456	18,337,931	14,058,676	4,683,102	18,741,778	-400,775	-32,528	-403,847
8	13,692,058	4,647,613	28,580	18,368,251	14,090,484	4,684,310	18,774,794	-398,426	-36,697	-406,543
9	13,665,018	4,638,795	27,211	18,331,024	14,103,712	4,667,280	18,770,992	-438,694	-28,485	-439,968
10	13,736,210	4,623,302	29,324	18,388,836	14,125,764	4,654,988	18,780,752	-389,554	-31,686	-391,916
11	13,738,529	4,606,915	22,688	18,368,132	14,188,108	4,635,968	18,824,076	-449,579	-29,053	-455,944
12월	13,724,994	4,781,588	25,670	18,532,252	14,157,574	4,781,995	18,939,569	-432,580	-407	-407,317
월평균	13,581,765	4,670,624	26,174	18,278,562	14,014,651	4,696,579	18,711,230	-432,886	-25,955	-432,668
연간1회이상	17,132,751	5,761,075	189,192	22,062,887						

주: 행정통계의 F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 및 임의 계속가입자를 합한 값임.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는 제외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테이블〉, 201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2019년 국민연금통계〉, 2019년.

8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요약 표 3-2〉 고용보험부와 내역과 행정통계의 차이

(단위: 명)

월	2018년			2019년		
	고용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C=A-B)	고용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F=D-E)
	고용보험 부과자(A)	순수피보험자 (B)		고용보험 부과자(D)	순수피보험자 (E)	
1	10,209,976	12,826,336	-2,616,360	10,658,085	13,328,191	-2,670,106
2	10,328,421	12,948,805	-2,620,384	10,814,084	13,443,756	-2,629,672
3	10,367,243	12,996,438	-2,629,195	10,868,376	13,524,735	-2,656,359
4	10,508,900	13,110,891	-2,601,991	10,990,478	13,632,086	-2,641,608
5	10,552,567	13,151,192	-2,598,625	11,047,065	13,685,649	-2,638,584
6	10,572,417	13,176,226	-2,603,809	11,062,555	13,708,056	-2,645,501
7	10,588,668	13,196,979	-2,608,311	11,071,004	13,743,470	-2,672,466
8	10,616,243	13,230,609	-2,614,366	11,105,822	13,778,419	-2,672,597
9	10,662,162	13,301,210	-2,639,048	11,121,257	13,812,955	-2,691,698
10	10,716,427	13,374,499	-2,658,072	11,195,869	13,888,570	-2,692,701
11	10,786,674	13,447,383	-2,660,709	11,242,093	13,927,473	-2,685,380
12월	10,823,924	13,432,497	-2,608,573	11,245,159	13,864,138	-2,618,979
월평균	10,561,135	13,182,755	-2,621,620	11,035,154	13,694,792	-2,659,638
연1회 이상	13,177,493			13,693,4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테이블〉, 각년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표〉, 각년도.

〈요약 표 3-3〉 산재보험부와 내역과 행정통계의 차이

(단위: 명)

월	2018년			2019년		
	산재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C=A-B)	산재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F=D-E)
	산재보험 부과자(A)	적용근로자 수(B)		산재보험 부과자(D)	적용근로자수 (E)	
1	10,011,848			10,452,470		
2	10,121,395			10,589,125		
3	10,161,423	18,283,363	-8,121,940	10,640,810	8,511,468	-7,870,658
4	10,287,197			10,765,047		
5	10,338,976			10,831,693		
6	10,358,936	18,751,289	-8,392,353	10,849,704	18,547,800	-7,698,096
7	10,365,639			10,860,509		
8	10,401,352			10,892,550		
9	10,338,976	18,866,813	-8,527,837	10,908,344	18,371,773	-7,463,429
10	10,358,936			10,985,092		
11	10,365,639			11,036,944		
12월	10,401,352	19,073,438	-8,672,086	11,040,285	18,725,160	-7,684,875
월평균	10,292,639	18,743,726	-8,451,087	10,821,048	18,539,050	
연1개월 이상	13,002,082			13,518,6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테이블〉, 각년도.
근로복지공단, 〈공단통계현황〉, 각년도 분기별 자료.

- 각 사회보험의 가입여부를 판정할 때 연간 월 1회 보험료를 부과 받은 자를 가입으로 간주함.
- 연 단위로 가입 지위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소득 및 일자리 유형 변수가 연단위로 정의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또한, 보험료 부과 개월 수는 12개월이 약 60%이며, 5개월 이하 부과된 자는 20% 미만인 점에서 연 단위의 파악이 가입 지위를 과잉 추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사용된 테이블과 행정통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함.
 - 즉, 본 연구에서의 사회보험 가입자는 ‘(건보공단의 보험료) 통합부과 대상자’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며, 다른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가입자’ 또는 ‘적용대상자’와 구분되는 개념임.
 - 두 자료 사이의 가입자 수 차이가 큰 산재보험은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함.
- 건보공단의 <연금테이블>에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보험테이블>의 ‘공·교’ 구분항목을 이용하여 특수직역연금 해당여부를 추정함.
- 2019년 기준 공무원+직업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수는 약 171만 명이며, ‘공·교’ 대상자 중 피부양자를 제외하면 약 159만 명임.
- ‘공·교’로 구분된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후 분석의 목적에 따라 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험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가입자로) 간주할 것임.
-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전체인구는 ‘각 연도 12월에 건강보험 부과 또는 의료급여 수급 지위를 갖고 있었던 인구’로 정의함.
- 연 중 출생,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인한 인구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분석대상 전수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정의된 전체 인구의 규모는 2019년 약 5,261만 명으로 <인구총조사> 상의 인구에 비해 약 83만 명 많음.
- <건강보험테이블>에 포함되는 외국인의 수는 정책적 변화에 크게 영향 받으므로, 이러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외국인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외국인을 제외한 분석 대상 전체 인구는 2019년 약 5,140만 명이며, 연령대별 구성은 <요약 표 3-4>과 같음.
- 각 테이블의 결합과 전체 분석 대상 집단의 정의는 [요약 그림 3-1]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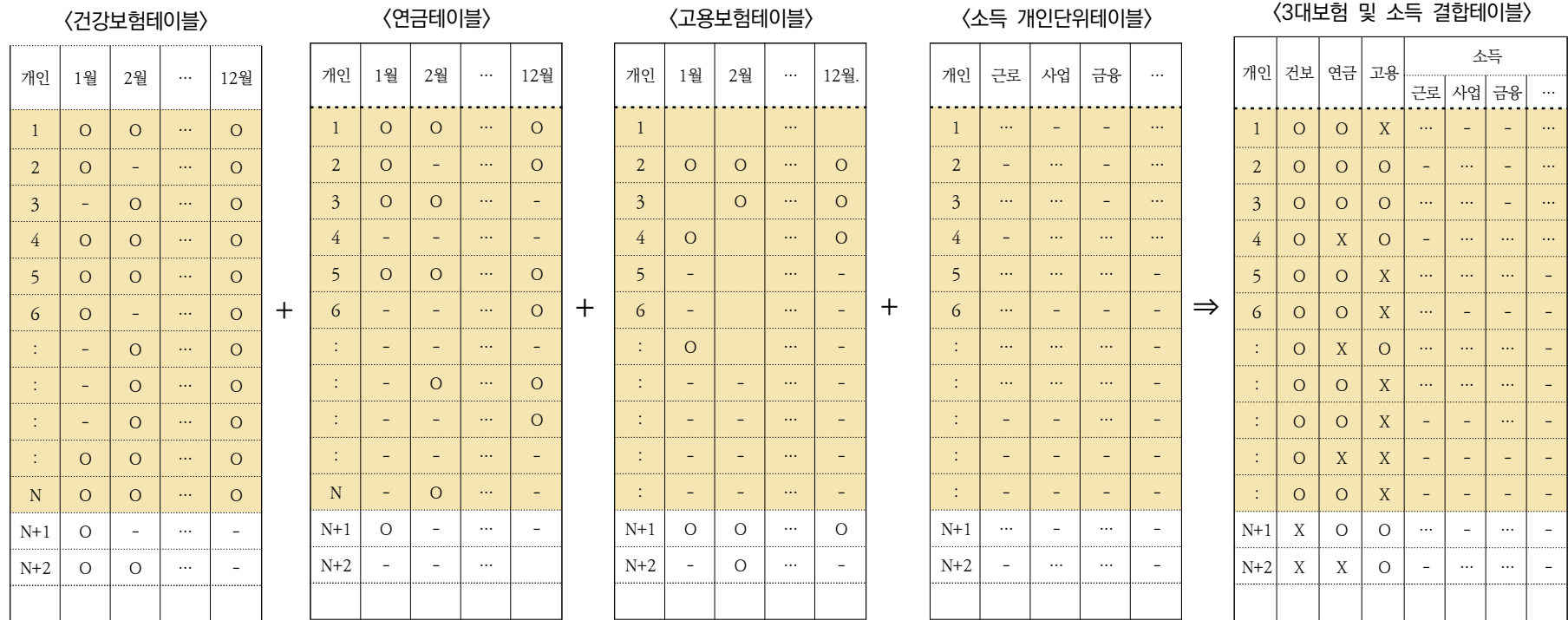
<요약 표 3-4> 3대보험 결합테이블 상의 연령대별 인구(내국인)

(단위: 명, %)

연령대	2018년		2019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0~14세	6,160,103	12.0	6,466,684	12.6
18~64세	37,073,782	72.2	37,016,864	72.0
0~17세	7,618,758	14.8	7,924,507	15.4
18~64세	35,615,127	69.3	35,559,041	69.2
65세 이상	8,136,520	15.8	7,911,886	15.4
계	51,370,405	100.0	51,395,434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 각년도.

[요약 그림 3-1] 테이블의 결합과 전체 분석 대상 집단



주: 사회보험별 테이블의 O는 부과기록이 있음을, -는 부과 기록이 없음을 의미함.

결합테이블 사회보험란의 O는 연 1회 이상 부과 기록이 있음을, X는 연간 1회의 부과 기록도 없음을 의미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분석 대상 전체 인구에 대해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을 이용하여 파악한 일자리 유형과 소득 분포는 다음과 같음.

○ 2019년 기준 일자리가 없는 개인의 비율은 40.9%이며 일자리 1개는 인구는 39.4%임.

- 일자리가 있는 인구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집단임(12.9%).
- 전체 연령대의 일자리 유형 분포는 <요약 표 3-5>와 같음.

<요약 표 3-5> 일자리 유형별 인구(전 연령)

(단위: 명, %)

일자리 유형	2018년		2019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일자리 없음	21,599,332	42.0	21,039,555	40.9
소득 있음(근로, 사업소득 이외)	1,973,934	3.8	2,041,986	4.0
소득 없음	19,625,398	38.2	18,997,569	37.0
일자리 1개	19,941,931	38.8	20,268,558	39.4
(근로)2년 이상 근무	6,474,736	12.6	6,604,494	12.9
(근로)1~2년 근무	2,173,659	4.2	2,446,436	4.8
(근로)6개월1년 근무	1,072,348	2.1	1,222,647	2.4
(근로)6개월 미만 근무	973,407	1.9	1,004,813	2.0
(근로)미분류	20,443	0.0	24,800	0.1
일용근로자	3,062,434	6.0	2,683,418	5.2
법인고용주	271,937	0.5	268,766	0.5
개인고용주	3,388,142	6.6	3,406,707	6.6
자영업	2,429,841	4.7	2,534,571	4.9
특고	74,984	0.2	71,906	0.1
일자리 2개	7,599,822	14.8	7,769,740	15.1
일용근로자+자영업	954,327	1.9	953,017	1.9
(근로)6개월 미만+일용근로	878,156	1.7	993,905	1.9
(근로)2년 이상+ 자영업	797,488	1.6	775,408	1.5
(근로)1~2년 +(근로)6개월 미만	502,241	1.0	381,543	0.7
개인고용주+ 자영업	504,368	1.0	590,648	1.2
일자리 2개 그 외	3,963,242	7.7	4,075,219	7.9
일자리 3개 이상	2,229,320	4.3	2,317,581	4.5
계	51,370,405	100.0	51,395,434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소득 항목은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019년만), 사적 및 공적 연금소득, 임대소득(2019년만), 기타 소득 등임.

- 이 항목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항목들을 재구성함.

- 근로소득 = 상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노동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2019년만 포함)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소득원천별 통계량(평균, 중위값, 분위수 등)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소득이 있는 집단(유(有)소득자로 지칭)과 전체 집단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적절함.

- 전체 분석대상 인구의 소득분포를 보여주는 주요 통계량은 〈요약 표 3-6〉과 같음.

14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요약 표 3-6〉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소득 분포(2019년)

(단위: 천 원, %)

소득	구분	비율(%)	평균	p10	p20	p30	p40	p50	p60	p70	p80	p90
상용근로소득	전체		18,462	0	0	0	0	0	158	16,440	29,963	55,382
	유소득자	40.1	46,077	6,000	12,893	19,622	24,000	29,900	37,624	48,092	65,065	99,790
일용근로소득	전체		1,505	0	0	0	0	0	0	0	0	800
	유소득자	13.3	11,338	231	581	1,069	1,800	2,700	3,650	6,150	12,558	34,618
근로소득	전체		19,967	0	0	0	0	0	4,680	19,600	32,466	59,455
	유소득자	47.7	41,879	2,430	7,037	14,400	21,000	26,418	34,205	44,870	61,500	95,422
사업소득	전체		2,759	0	0	0	0	0	0	0	10	3,800
	유소득자	20.3	13,562	80	410	1,090	2,190	3,650	5,760	8,990	14,600	28,270
노동소득	전체		22,726	0	0	0	0	2,545	9,926	21,745	35,240	63,296
	유소득자	57.8	39,317	1,680	4,423	9,430	16,350	22,835	30,062	40,562	56,694	90,618
금융소득	전체		286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0.3	93,304	20,901	23,120	26,080	30,200	34,851	43,160	56,891	86,010	164,300
임대소득	전체		12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0.4	3,028	520	1,000	1,560	2,040	2,520	3,104	3,840	4,800	6,400
사적연금소득	전체		6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0.1	6,860	1,650	2,380	3,180	3,940	5,060	6,380	7,290	8,400	13,120
공적연금소득	전체		724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8.9	8,107	1,672	2,279	2,839	3,423	4,142	5,115	6,767	10,319	22,207
연금소득소득	전체		731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9.0	8,156	1,673	2,281	2,841	3,427	4,148	5,127	6,797	10,383	22,380
기타소득	전체		69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3.1	2,216	20	60	80	130	220	380	740	1,810	4,890
총소득	전체		23,754	0	0	0	349	3,940	11,620	23,031	36,699	64,452
	유소득자	62.0	38,333	1,825	4,140	8,230	14,860	22,050	29,270	39,375	54,865	88,083

주: 유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얻는 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1. 건강보험 사각지대 관련 선행 연구

-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다만 건강보험의 자격 상태 및 건강보험의 보장에 따른 의료이용 제한으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 신영석 외(2006), 신영전(2009), 신현웅(2009), 김제선(2001), 박일수(2013) 연구에서는 건강보험료 체납과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이용 제한을 받는 계층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계층으로 구분하였음.
- 신영전(2009) 연구에서는 자격에 있어서 의료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주민등록 미발급자, 쪽방 거주자, 노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 또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계층으로 구분하였음.
- 신영웅(2009), 김제선(2011), 박일수(2013) 연구에서는 체납자와 본인부담으로 인한 의료이용을 제한 받는 계층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의료이용을 제한받는 계층, 그리고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계층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계층으로 구분하였음.

2. 건강보험 사각지대 규모 및 특성

- 건강보험 사각지대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제한)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체납자 중 급여제한을 받는 자를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정의함.
 - 건강보험 사각지대 =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 (분할납부 유지자 + 미성년 세대 중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 등이 없는 자)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요약 그림 4-1]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개요



□ 건강보험 사각지대 규모

- 건강보험 사각지대 규모는 1,974,096명(2018년), 1,759,294명(2019년)으로 분석됨.

〈요약 표 4-1〉 건강보험 사각지대 규모

(단위: 명, %)

연도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A)	분할 납부자 (B)	미성년 세대 (C)	건강보험 사각지대 (=A-B-C)
2018	2,275,848	301,299	453	1,974,096
	(100.0)	(13.2)	(0.02)	(86.7)
2019	2,228,399	168,788	317	1,759,294
	(100.0)	(21.0)	(0.01)	(78.9)

□ 건강보험 사각지대(개인)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 42.7 ~ 43.2세이며, 소득은 10,025 ~ 11,869천 원으로 분석됨.

- 연령은 40~49세와 50~59세 구간 비중이 48.1~48.9%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19세 이하 연령대에서도 약 10% 정도 발생함.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881,258명(44.6%, 2018년), 774,684명(44.0%, 2019년)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음.

- 자격측면에서는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가 다른 자격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성 소득이 있는 그룹이 없는 그룹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격차가 크게 나타남.
 - 근로성 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일용근로자, 개인고용주, 자영업에 종사자들이 다른 근로형태에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세대)

- 건강보험 사각지대 세대 단위 규모는 1,482,900세대(2018년), 1,356,919세대(2019년)로 분석됨.
 - 1인 가구 세대(81.7~83.1%)들이 다른 세대 가구 구성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체납 세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세대(33.6~34.0%)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득이 낮은 세대에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놓이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 분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37.5~38.7개월 체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납부의무자 중 50~59세 구간과 40~49세 연령 구간(56.2~58.0%)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체납대상자들의 평균 체납보험료는 1,486~1,497천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납기간과 비례하여 체납 보험료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법률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개인 및 세대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한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상자들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중 특히 일용근로소득자 및 1인 개인 사업자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 근로형태가 이전의 전통적인 근로형태보다는 비정형 근로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체납보험료, 체납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체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동시에 급여 제한 기간도 증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된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함.

제5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분석

□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2019년 12월 기준, 18~59세에 속한 인구 가운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1,537,553명)를 제외한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하였음.
- 동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총 30,303,660명이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13,362,794명, 지역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를 합산한 지역가입자는 4,24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는 17,610,605명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추정을 위해 미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함.
 - ① 2019년 12월 기준, 당월 미가입자('12월 미가입자(A)'), ② 2019년 1~12개월 간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연중 미가입자(B)')

[요약 그림 5-1] 본 연구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구분: 예시

구분	2019년												가입상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	○	○	○	○	○	○	○	○	○	○	○	×	12월 미가입자 (A)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	×	×	○	×	
e	○	○	×	○	×	○	×	○	×	○	×	×	
f	×	×	×	×	×	×	×	×	×	×	×	×	연중 미가입자 (B)
g	×	×	×	×	×	×	×	×	×	×	×	×	
h	×	×	×	×	×	×	×	×	×	×	×	×	
i	×	×	×	×	×	×	×	×	×	×	×	×	

주: 가입 ○, 미가입 ×

- (A), (B)를 합산한 전체 사각지대 규모는 12,693,055명으로 추산되며, 동 연령대 인구의 41.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나타냄.
- 이 중 동 기간에 최소 1개월 이상 가입이력이 존재하지만 분석 기준시점이 12월 미가입자는 2,825,866명, 12개월 간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

지 않은 미가입자(‘연중 미가입자’)는 9,867,189명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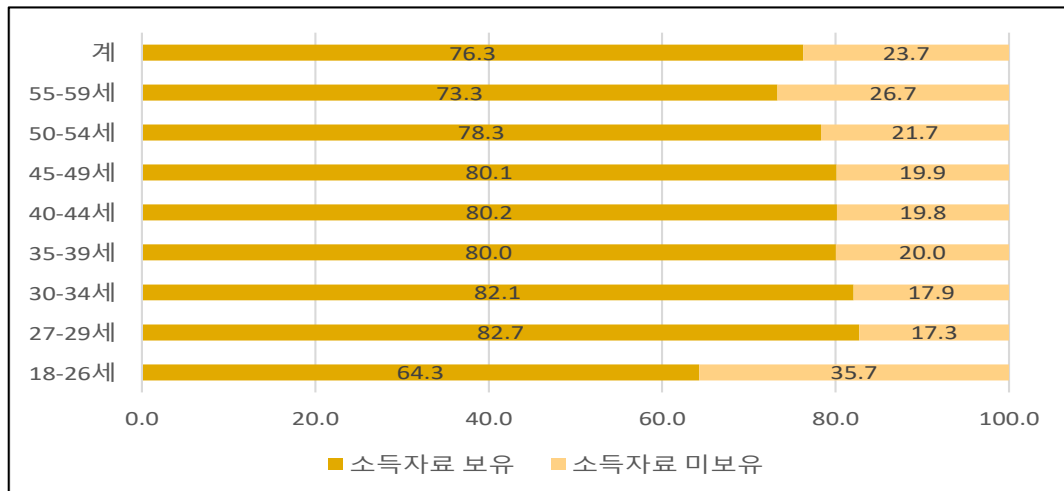
○ 각 연령대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은 50~54세에서 68.7%로 가장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18~26세(25.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다만, 20대 중후반 이후 점차 높아지던 가입률은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55~59세로 접어들면서 66.8%로 소폭 하락함.

○ 가입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업장가입자 비율은 감소하며, 특히 45세 이후 지역가입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요약 그림 5-2] 국민연금 가입 현황: 연령대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 전체 임금근로자의 73.5%가 사업장가입자, 2.5%는 지역가입자, 24.0%는 미가입자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중 미가입자 비율(10.3%)이 다른 종사상 지위와 달리 12월 미가입자(13.8%)보다 낮음(미취업자와 자영자는 연중 미가입자 비율이 훨씬 크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미가입률은 73.7%에 달하고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69.3%가 연중 미가입자로 나타남.

○ 미취업자 691.2만 명 중 86.4%(597만 명)가 미가입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연중 미가입자로 나타남.

○ 자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지역가입자이나, 고용주가 아닌 자영업자는 55.1%(195만 명)가 연중 미가입자로 나타남.

〈요약 표 5-1〉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자			계
			(소계)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사업장가입자		12,295	12,879,940	12,478,514	401,426	470,559	240,248	230,311	13,362,794
		0.18	73.46	83.02	16.04	8.03	10.36	6.51	44.10
지역가입자		929,144	434,941	205,763	229,178	2,883,726	1,776,072	1,107,654	4,247,811
		13.44	2.48	1.37	9.16	49.23	76.59	31.30	14.02
미가 입자	12월 미가 입자	105,525	2,422,226	1,849,413	572,813	298,115	48,340	249,775	2,825,866
		1.53	13.81	12.30	22.89	5.09	2.08	7.06	9.33
	연중 미가 입자	5,865,817	1,796,310	497,347	1,298,963	2,205,062	254,392	1,950,670	9,867,189
		84.85	10.25	3.31	51.91	37.65	10.97	55.13	32.56
전체		6,912,781	17,533,417	15,031,037	2,502,380	5,857,462	2,319,052	3,538,410	30,303,66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12개월 간 평균 가입기간은 6.8개월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에서 가장 높으며(10개월), 자영업자(4.0개월), 일용근로자(2.7개월)와 미취업자(1.6개월)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평균 가입기간은 7.4개월로 여성(6.1개월)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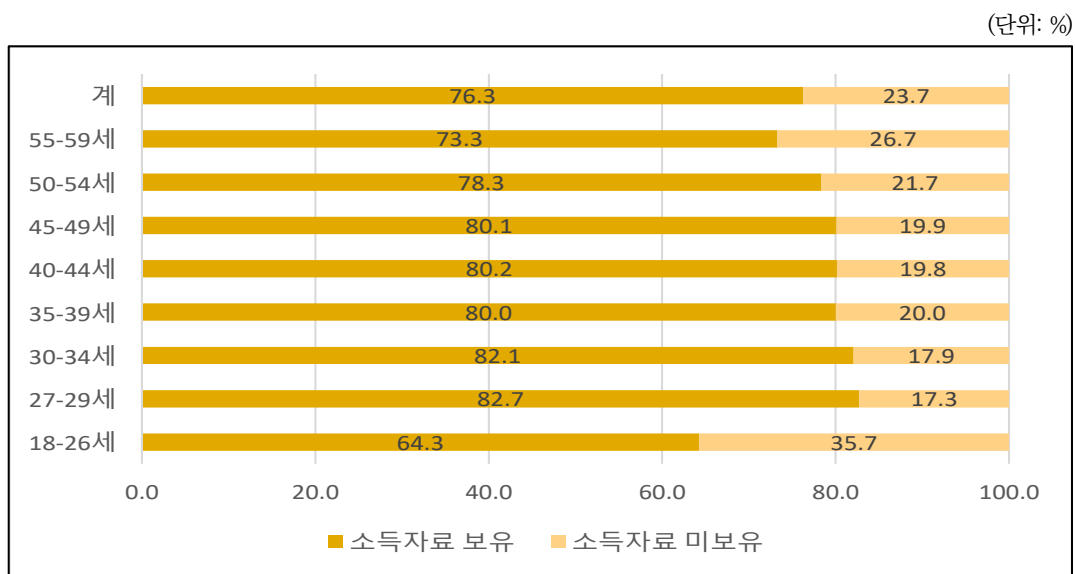
□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소득 현황

○ 18~59세 인구의 76.3%인 2,311.4만 명이 소득자료 보유자, 23.7%(718.8만

명)은 소득자료 미보유자로 파악되고 있음.

-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율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18~26세에서 64.3%(371.3만 명)로 가장 낮고, 50대에 접어들면서 감소 추이를 나타냄.
- 27~49세 연령대에서는 80% 가까이가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5-3]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 여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블>/<연금데이터블>/<소득 개인단위 데이터블>의 결합데이터블, 2019년.

□ 소득자료 보유 여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 미가입자 가운데 소득자료 보유 비율은 27~29세(59.5%)에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져 은퇴를 앞둔 55~59세는 44.8%로 크게 하락함.
- 18~26세까지는 여성의 소득자료 보유 비율(55.8%)이 남성(49.6%)보다 높으나, 이후 역전되어 27세부터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 비율 차이는 더 커짐.
- 소득자료를 보유한 미가입자(648.2만 명)의 43.6%는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

월액 하한(31만 원)보다 낮으며, 여기에는 여성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음.

- 27~29세 미가입자의 39.7%는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 소득구간에서 미가입자 비율은 점차 낮아짐.

〈요약 표 5-2〉 성/연령대별 미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18-26세	27-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계
전체	남	2,357,153	403,650	425,125	438,364	428,340	523,311	531,133	567,152	5,674,228
	여	1,943,573	386,365	658,377	874,040	795,264	824,366	749,540	787,302	7,018,827
	계	4,300,726	790,015	1,083,502	1,312,404	1,223,604	1,347,677	1,280,673	1,354,454	12,693,055
소득 자료 보유	남	1,169,453	241,005	255,515	265,815	253,375	301,109	302,139	311,923	3,100,334
		49.6	59.7	60.1	60.6	59.2	57.5	56.9	55.0	54.6
	여	1,083,637	228,792	338,659	393,862	354,170	366,279	321,491	295,104	3,381,994
		55.8	59.2	51.4	45.1	44.5	44.4	42.9	37.5	48.2
소득 자료 미보유	남	2,253,090	469,797	594,174	659,677	607,545	667,388	623,630	607,027	6,482,328
		52.4	59.5	54.8	50.3	49.7	49.5	48.7	44.8	51.1
	남	1,187,700	162,645	169,610	172,549	174,965	222,202	228,994	255,229	2,573,894
		50.4	40.3	39.9	39.4	40.8	42.5	43.1	45.0	45.4
소득 자료 미보유	여	859,936	157,573	319,718	480,178	441,094	458,087	428,049	492,198	3,636,833
		44.2	40.8	48.6	54.9	55.5	55.6	57.1	62.5	51.8
	계	2,047,636	320,218	489,328	652,727	616,059	680,289	657,043	747,427	6,210,727
		47.6	40.5	45.2	49.7	50.3	50.5	51.3	55.2	4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특성

- 연중 미가입자(986.7만 명) 가운데 13.9%(137만 명)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자료 보유자의 가입상태에 따른 소득 비교

- 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가입자에서 기준소득월액 하한 미만에 속한 비율이 매우 높고, 100만원 미만에 속한 비율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단, 고소득 미가입자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원) 이상인 미가입자는 42.4만 명으로 해당 구간의 지역가입자(12.8만 명)와 비교할 때 규모가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소득자료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득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며, 실제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미만 비율은 28.1%로 낮지 않음.
- 소득자료가 부재함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규모는 96.5만 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1.8%를 차지함.

〈요약 표 5-3〉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2019년 기준): 전체¹⁾

(단위: 명, %)

구분		계	미가입자		가입자	
			12월 미가입자	연중 미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체	계	30,303,660	2,825,866	9,867,189	13,362,794	4,427,811
	소득자료 미보유	7,188,834	109,910	6,100,817	12,721	965,386
	소득 자료 보유	소계	23,114,826	2,715,956	3,766,372	13,350,073
			100.0	100.0	100.0	100.0
		31만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하한)	3,890,047	429,010	2,395,734	141,865
			16.8	15.8	63.6	1.1
		3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289,854	286,892	413,995	174,974
			5.6	10.6	11.0	1.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364,591	575,445	388,078	660,448
			10.2	21.2	10.3	4.9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212,740	689,934	208,790	2,640,362
			18.2	25.4	5.5	19.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504,228	280,610	82,942	2,899,309
			15.2	10.3	2.2	21.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227,860	132,379	58,301	1,928,383
			9.6	4.9	1.5	14.4
		400만원 이상 486만원 미만	1,274,047	74,705	41,061	1,105,961
			5.5	2.8	1.1	8.3
		486만원 이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4,351,459	246,981	177,471	3,798,771
			18.8	9.1	4.7	2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1) 남녀를 각각 구분한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은 부록(〈부표 3-1〉, 〈부표 3-2〉)을 참조할 것.

□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

- 본 장에서 실시한 분석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이력 및 소득자료 보유 여부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소득자료 보유 여부 및 실제 소득수준에 따라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자료 미보유율과 미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크레딧 확대가 가입기간 확대 및 수급권 확보에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음.
- 미가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취업 청년층과, 일용근로자는 소득자료 보유율이 낮다는 측면에서 가입제고가 어려운 집단으로 파악됨.
 - 27~34세 청년층의 경우, 소득자료 보유율이 높고,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입을 하지 않는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납부예외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동 연령대에서 저소득으로 인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후 가입을 유지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급여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반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본 행정자료에서는 일용근로자 가운데 연중 미가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2년부터 월소득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실시간 소득파악(RTI)이 가능해진다면 이들의 가입률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자영자 가운데 미가입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의 소득수준 역시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는 사각지대 완화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저소득 청년, 저소득 자영자 등 미가입 저소득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려면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곧 은퇴를 앞두거나 시작되는 55~59세의 가입률이 하락하는 것은 이들 연령 집단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자 또는 미취업자로 노동시장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무엇보다도, 소득발생 시점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가입 규모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음.

제6장 고용보험 가입실태 분석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서는 적용대상자의 구별이 선행되어야 하나 <고용보험테이블>의 특성 상 적용 대상자의 분명한 식별에 한계가 존재함.
- <고용보험테이블>과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에는 종사 사업장의 업종, 종사자 규모와 가입자의 가입이력과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의 항목이 제공되지 않음.
 - 따라서 적용 대상 업종과 사업장 규모 등을 이용한 적용 사각지대 분석이 어려우며, 급여 사각지대 분석이 불가능함.
- 따라서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세부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임.
 - 종사상 지위는 일자리 유형과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구분함.
 - 가입 상태는 통합부와 대상 여부와 건강보험 ‘공·교’ 여부 및 직장가입자 정보를 이용함.
- 일자리 유형과 소득정보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는 과정은 [요약 그림 6-1]과 같으며, 이에 따라 구분된 종사상 지위의 규모와 분포는 <요약 표 6-1>과 같음.
- 종사상 지위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다른 방법으로 구분됨에 따라 각 집단별 규모에서도 차이가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의 경제활동 의사, 구직활동 여부, 근로계약 조건, 기타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사상 지위를 판별함.
 - 본 연구에서는 결합테이블에 연간 일자리와 소득을 이용하여 파악함.
 - 그 결과 결합테이블에서는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취업자 중 근로자의 비중이, 근로자 중 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요약 표 6-2>).

[요약 그림 6-1] 일자리 유형과 종사상 지위 구분



〈요약 표 6-1〉 전체 인구의 종사상지위 분포(2019년)

(단위: 명, %)

경제활동상태 구분	전체연령		15세 이상		18~64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근로자	23,441,578	45.6	23,439,954	52.2	21,374,447	60.1
상용근로자	18,895,752	36.8	18,895,510	42.1	17,835,776	50.2
일용근로자	4,545,826	8.8	4,544,444	10.1	3,538,671	10.0
자영자	6,914,301	13.5	6,900,124	15.4	5,964,876	16.8
고용주	3,386,414	6.6	3,384,452	7.5	2,779,392	7.8
자영업자	3,527,887	6.9	3,515,672	7.8	3,185,484	9.0
미취업	21,039,555	40.9	14,588,672	32.5	8,219,718	23.1
계	51,395,434	100.0	44,928,750	100.0	35,559,041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요약 표 6-2〉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비교(2019년)

(단위: 천명, %, %p)

경제활동상태	인구(천명)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			취업자 대비 비율		
	건보 (A)	경활 (B)	차이 (= A-B)	건보	경활	차이 (%p)	건보	경활	차이 (%p)
임금근로자	23,440	20,440	3,000	52.2	45.9	6.2	77.3	75.4	1.9
-상용근로자	18,896	14,216	4,680	42.1	31.9	10.1	62.3	52.4	9.9
-임시근로자		4,795	-4,795		10.8	-10.8	0.0	17.7	-17.7
-일용근로자	4,544	1,429	3,115	10.1	3.2	6.9	15.0	5.3	9.7
자영업자(무급가족제외)	6,900	5,606	1,294	15.4	12.6	2.8	22.7	20.7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384	1,538	1,846	7.5	3.5	4.1	11.2	5.7	5.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516	4,068	-552	7.8	9.1	-1.3	11.6	15.0	-3.4
-무급가족종사자		1,077							
취업자(무급가족 포함)	30,340	27,123	3,217	67.5	60.9	6.6	100.0	100.0	0.0
미취업(=실업+비경활)	14,589	17,381	-2,792	32.5	39.1	-6.6			
15세이상인구	44,929	44,504	425	100.0	100.0	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 2019년 기준 18~64세 취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약 52.0%로 나타남.

○ 취업자 중 남성의 가입률은 51.3%, 여성의 가입률은 52.8%임.

○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0~34세 연령구간에서 가장 높고, 다음이 25~29세 구간임.

- 30~34세 구간을 정점으로 그 이전 및 이후 구간에서는 가입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5.0%인데 상용근로자는 75.8%인 반면 일용근로자 10.3%에 불과함(〈요약 표 6-3〉).

〈요약 표 6-3〉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자(18~64세, 2019년)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구분	인구	가입자	가입률
근로자	21,479,109	13,956,319	65.0
상용근로자	17,940,418	13,591,666	75.8
일용근로자	3,538,691	364,653	10.3
자영자	5,860,214	259,771	4.4
고용주	2,674,952	12,591	0.5
자영업자	3,185,262	247,180	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고용보험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 근로자 가운데 가입률이 가장 높은 근로소득 구간은 연 2,000만~3,000만 사이의 소득계층임(78.1%).

-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연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연간 960만 원(월 80만 원) 미만인 계층으로 가입률은 37.8%임.

- 근로소득이 연간 4천 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유추가 가능함. 첫째는 고용보험 통계와 〈고

용보험테이블>의 차이를 초래한 자료상의 문제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고, 둘째는 실제로 고소득층에서 고용보험 가입유인이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임. 특히, 법인 기업의 고소득 임원이나 일용직 근로자 중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음.

〈요약 표 6-4〉 근로자의 근로소득 구간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18~64세, 2019년)

(단위: 명, %)

근로소득 (만원)	2019년			
	인구	구성비	가입자	가입률
960 미만	4,136,817	19.3	1,564,673	37.8
~2천	2,948,479	13.7	2,122,465	72.0
~3천	3,860,090	18.0	3,013,923	78.1
~4천	2,520,365	11.7	1,954,735	77.6
~5천	1,837,864	8.6	1,386,547	75.4
~6천	1,286,502	6.0	930,615	72.3
~7천	959,611	4.5	672,050	70.0
~8천	743,039	3.5	514,850	69.3
~9천	578,790	2.7	385,496	66.6
~1억	437,861	2.0	268,993	61.4
~1억2천	618,462	2.9	349,405	56.5
~1억5천	600,548	2.8	320,038	53.3
~2억	548,216	2.6	292,963	53.4
2억 이상	402,465	1.9	179,566	44.6
계	21,479,109	100.0	13,956,319	65.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근로자를 성,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 등에 의해 세부 집단으로 구분하였을 때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요약 표 6-5〉와 같음.

○ 가입자 비율 하위 30개 집단이 모두 일용근로자인 점을 볼 때 근로자 내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입률 격차가 집단 간 차이를 낳는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32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요약 표 6-5〉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30개 집단(2019년)

(단위: %)

순위	성별	연령대	종사상지위	근로소득(만원)	가입률
1	남	55~59	일용	1억2천~1억5천	3.0
2	남	50~54	일용	1억2천~1억5천	3.1
3	남	60~64	일용	1억~1억2천	3.1
4	남	55~59	일용	1억~1억2천	3.2
5	남	45~49	일용	1억2천~1억5천	3.3
6	남	50~54	일용	1억~1억2천	3.8
7	남	45~49	일용	1억~1억2천	4.4
8	남	60~64	일용	6천~7천	4.5
9	남	55~59	일용	8천~9천	4.6
10	남	55~59	일용	7천~8천	5.0
11	남	45~49	일용	~960	5.2
12	남	55~59	일용	6천~7천	5.3
13	남	50~54	일용	7천~8천	5.3
14	남	60~64	일용	5천~6천	5.3
15	남	50~54	일용	~960	5.4
16	남	40~44	일용	~960	5.6
17	남	55~59	일용	5천~6천	5.7
18	남	18~19	일용	~960	6.0
19	남	55~59	일용	~960	6.0
20	남	50~54	일용	6천~7천	6.0
21	남	35~39	일용	~960	6.6
22	여	18~19	일용	~960	6.8
23	남	50~54	일용	5천~6천	7.1
24	남	55~59	일용	4천~5천	7.6
25	남	30~34	일용	~960	7.7
26	여	35~39	일용	~960	7.9
27	남	45~49	일용	5천~6천	8.0
28	남	60~64	일용	4천~5천	8.1
29	남	60~64	일용	~960	8.1
30	남	20~24	일용	~960	8.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에 대한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소득파악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할 경우 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소득 1천 만 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7장 3대 사회보험 가입실태 연계 분석

- 이 절에서는 개인별로 3대 보험 가입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 3대 보험의 연계 분석을 통해 전 국민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영역별 비교가 가능하며,
 - 각 사회보험 가입 지위의 교차분석을 통해 개별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 확대, 가입 지위 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월별 가입지위를 이용할 경우 36개의 가입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이 때 인구수가 많은 주요 유형은 <요약 표 7-1>과 같음.
- 3개 보험의 연간 가입유형은 모두 8가지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민 의료보장(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4개로 유형화됨.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에는 대부분 의료보장에만 해당([요약 그림 7-1])함.
 - 18~64세 인구의 37.8%가 3개 보험 모두에 가입(<요약 표 7-2>)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높은 빈도는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인구(32.9%)이며, 의료보장+연금 가입 유형은 26.9%임.

〈요약 표 7-1〉 월별 3대보험 가입 유형(전 연령, 2019. 12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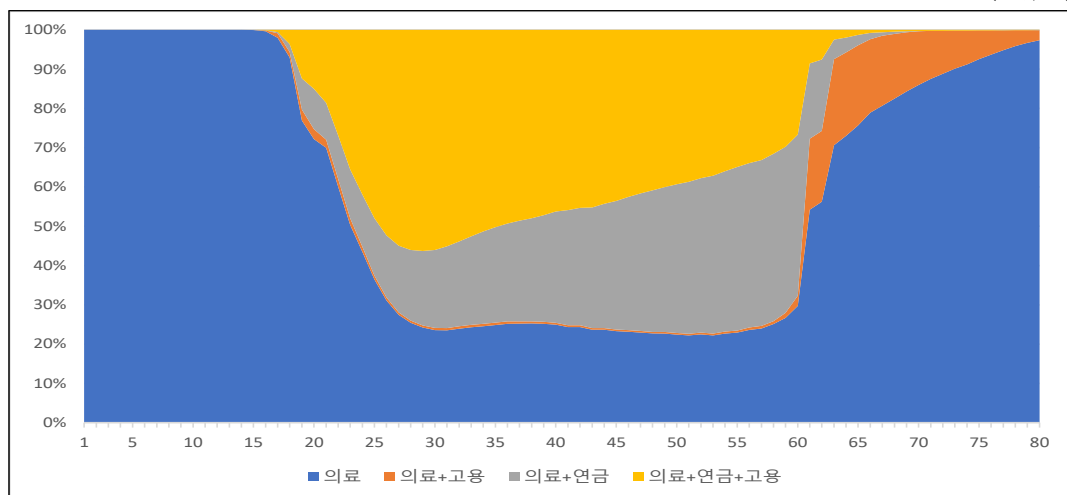
(단위: 명, %)

3대 보험 가입유형			인구	비율
건강보험/의료급여	연금	고용보험		
직장피부양			17,623,548	34.3
직장가입	직장	가입	9,241,870	18.0
지역세대원			5,499,522	10.7
지역가구주			4,329,741	8.4
직장가입	직장		3,834,689	7.5
직장가입			2,669,005	5.2
지역세대주	지역		2,007,178	3.9
직장가입		가입	1,394,219	2.7
지역세대원	지역		1,367,109	2.7
직장피부양	지역		1,112,522	2.2
의료급여세대주			1,044,706	2.0
의료급여세대원			360,691	0.7
직장가입피부양		가입	160,175	0.3
직장가입	지역		126,804	0.3
소계			30,793,597	5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요약 그림 7-1] 연령별 3대 보험 가입 유형(2019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요약 표 7-2〉 연령구간별 3대 보험 가입 유형(2019년)

(단위: 명, %)

3대 보험 가입유형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건강	연금	고용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의료보장			7,912,569	99.9	11,711,112	32.9	7,076,883	89.5
의료보장 고용			6,652	0.1	834,012	2.4	776,327	9.8
의료보장 연금			1,912	0.0	9,574,795	26.9	33,146	0.4
의료보장 연금 고용			3,374	0.0	13,439,122	37.8	25,530	0.3
계			7,924,507	100.0	35,559,041	100.0	7,911,886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종사상 지위별로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요약 표 7-3〉),

○ 18~64세의 근로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3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집단으로, 전체의 61.4%에 이릅니다.

- 상용근로자의 경우 모두 가입한 비중이 71.9%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집단의 비중이 53.1%이며, 의료보장 + 연금가입의 비중은 상용근로자보다 높음.

○ 자영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의료보장과 연금가입 집단이며(56.7%),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약 39.4%에 이릅니다.

- 의료보장 + 연금가입 집단의 비중은 고용주에서는 80.7%이나 자영업자에서는 36.6%에 불과함.

〈요약 표 7-3〉 종사상 지위별 3대보험 가입 유형(18~64, 2019년 연간)

(단위: 명, %)

	인구	의료보장	의료보장+ 고용보험	의료보장+ 연금	의료보장+연금 +고용보험
근로자	21,479,109	11.7	3.6	23.4	61.4
상용근로자	17,940,418	3.5	3.8	20.8	71.9
일용근로자	3,538,691	53.1	2.4	36.6	7.9
자영자	5,860,214	38.8	0.6	56.7	3.9
고용주	2,674,952	18.8	0.1	80.7	0.4
자영업자	3,185,262	55.6	1.0	36.6	6.8
미취업	8,219,718	84.3	0.3	15.0	0.4
계	35,559,041	32.9	2.3	26.9	3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노동소득 계층별로 살펴보면 3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연소득 3,000~4,000만 원 구간임.

-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집단이 80%를 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의료보장의 비중은 줄어들고 의료보장+연금의 비중이 증가함.

〈요약 표 7-4〉 노동소득 구간별 3대보험 가입 유형(18~64세, 2019년)

(단위: 만 원, 명, %)

소득구간 (만원)	2019년				
	인구	의료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100	10,489,376	82.0	0.6	16.6	0.7
100~200	990,435	57.5	4.5	29.0	9.1
200~300	855,500	46.7	4.3	35.8	13.2
300~400	768,577	38.0	4.1	38.1	19.8
400~500	677,952	33.4	4.0	40.6	21.9
500~600	578,720	28.2	4.5	39.8	27.5
600~800	1,022,793	22.8	3.8	41.2	32.3
800~960	709,999	17.7	3.8	40.3	38.3
960~1,200	960,090	13.6	3.8	37.9	44.6
1,200~1,500	1,134,888	10.4	4.3	35.0	50.3
1,500~2,000	1,744,507	7.6	4.1	31.1	57.1
2,000~3,000	4,160,850	4.2	4.0	22.6	69.2
3,000~4,000	2,741,878	3.8	3.2	23.0	70.0
4,000~6,000	3,362,703	4.4	2.3	25.0	68.3
6,000 이상	5,360,773	5.4	0.9	37.6	56.1
계	35,559,041	32.9	2.3	26.9	3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근로자 가운데 연금은 가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이나, 이 장에서는 〈고용보험테이블〉자료상의 한계로 인해 이 집단의 세부적 특성을 분석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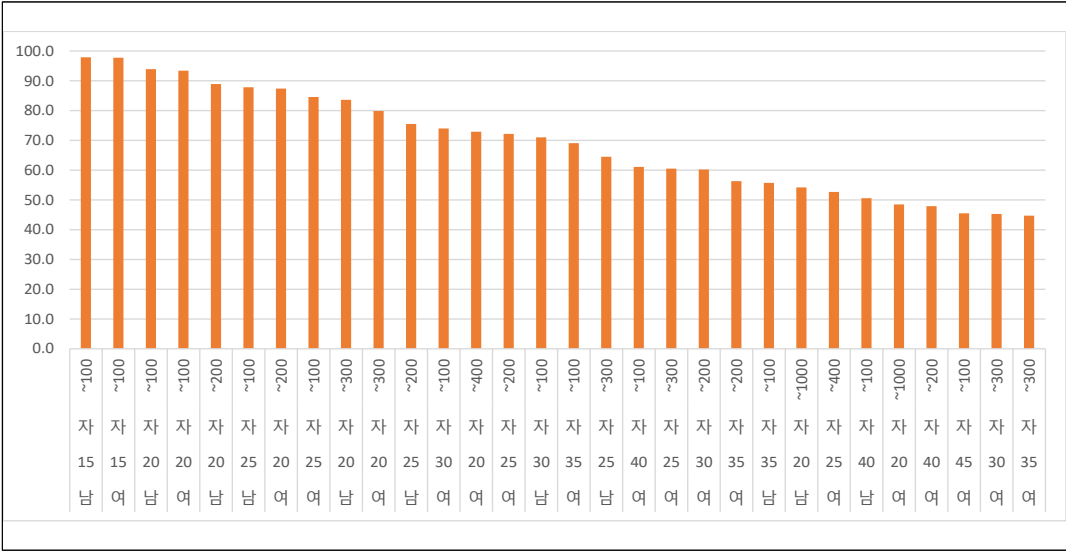
□ 18~59세의 자영자에 대해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유형과 ‘의료+연금가입’유형의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18~24세 연령구간의 저소득 자영업자 집단으로, 그 차이는 약 90%p 내외임([요약 그림 7-2]).

○ 차이가 큰 상위 30개 집단은 모두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이며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하에 분포함.

○ 이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연금의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이 연금 가입의 지속적 지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요약 그림 7-2] 자영자 중 ‘의료보장’과 ‘의료+연금’의 격차가 가장 큰 집단(18~59세)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제8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 분석 개요

- 이 장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실태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은 2019년 12월 건강보험료 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내국인으로 정의된 모집단 중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1개 사업장에 소속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1회 소득이 신고된 18~64세 원천근로소득자임.
 - 분석 대상은 12,462,628명이고, 이들이 속한 사업장 수는 1,349,019개임.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한정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였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

- 전체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7.0%, 88.9%로, 건강보험 가입률이 더욱 높았음.
 - 2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비율은 88.5%,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2.5%였음.

〈요약 표 8-1〉 개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97.0	88.9	2.5	0.4	8.6	88.5
1인 사업장	96.2	87.5	3.1	0.7	9.5	86.7
2인 이상 사업장	97.1	89.0	2.5	0.4	8.5	8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단위로 분석하면, 사업장 내 건강보험 가입률이 100%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9.6%,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0.7%였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보여줌.

□ 사업장 규모와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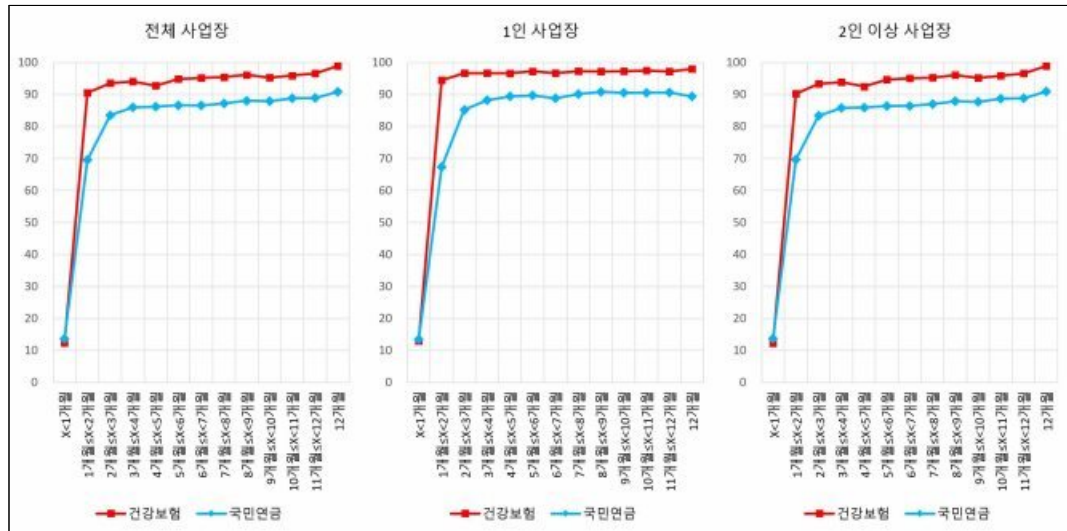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대체로 사업장 종사자 수가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

- 30대 초중반 이전의 저연령 구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18~24세, 25~29세, 30~34세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86.9%, 97.1%, 98.5%였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83.9%, 93.7%, 93.9%였음.
- 2019년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12.4%, 13.7%로 매우 낮았음.
 -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에서 2~3개월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급증하였고, 3개월 이상 구간에서도 대체로 연중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69.6%, 54.9%로 상당히 낮았음.
 -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요약 그림 8-1] 개인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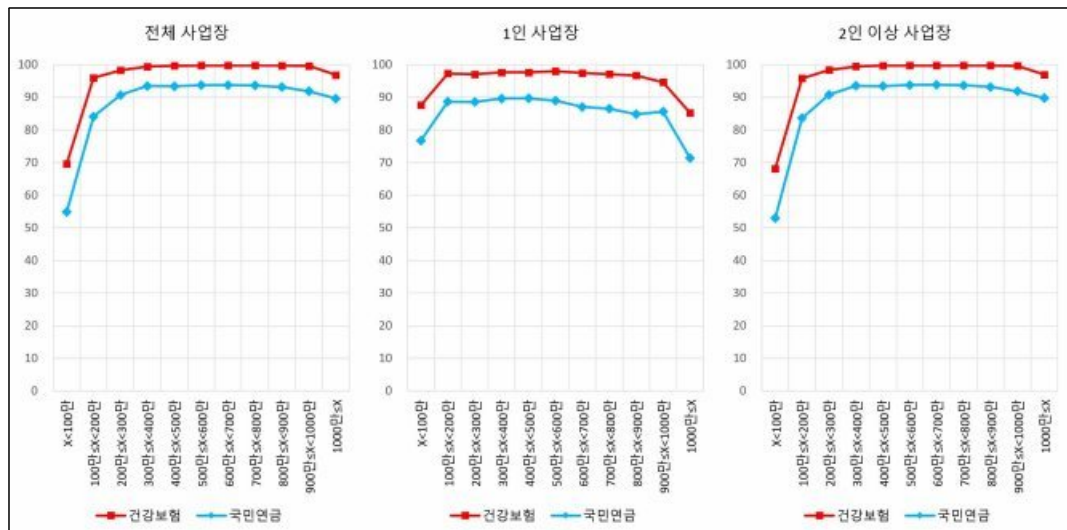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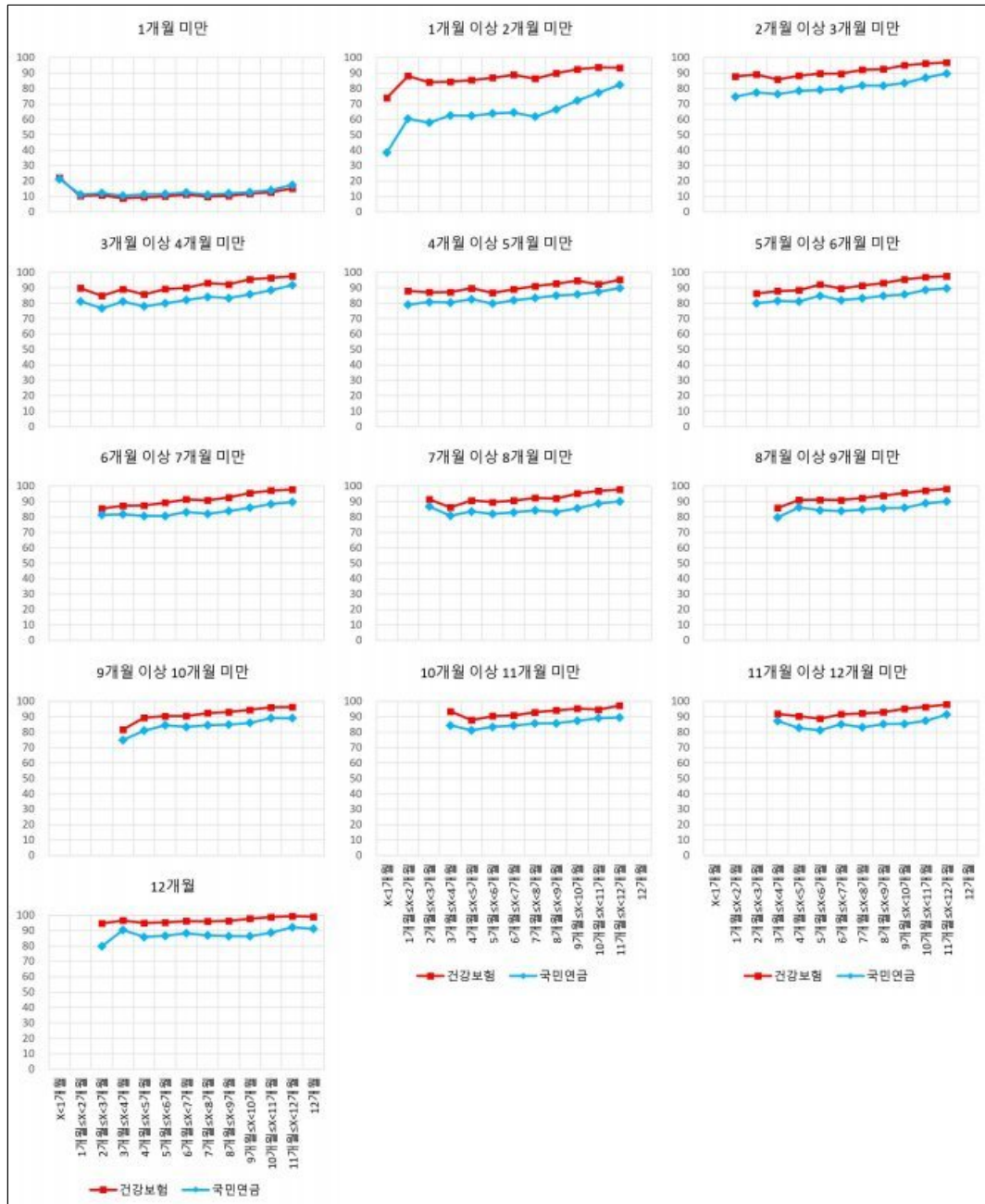
[요약 그림 8-2] 개인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요약 그림 8-3] 개인 근무기간 및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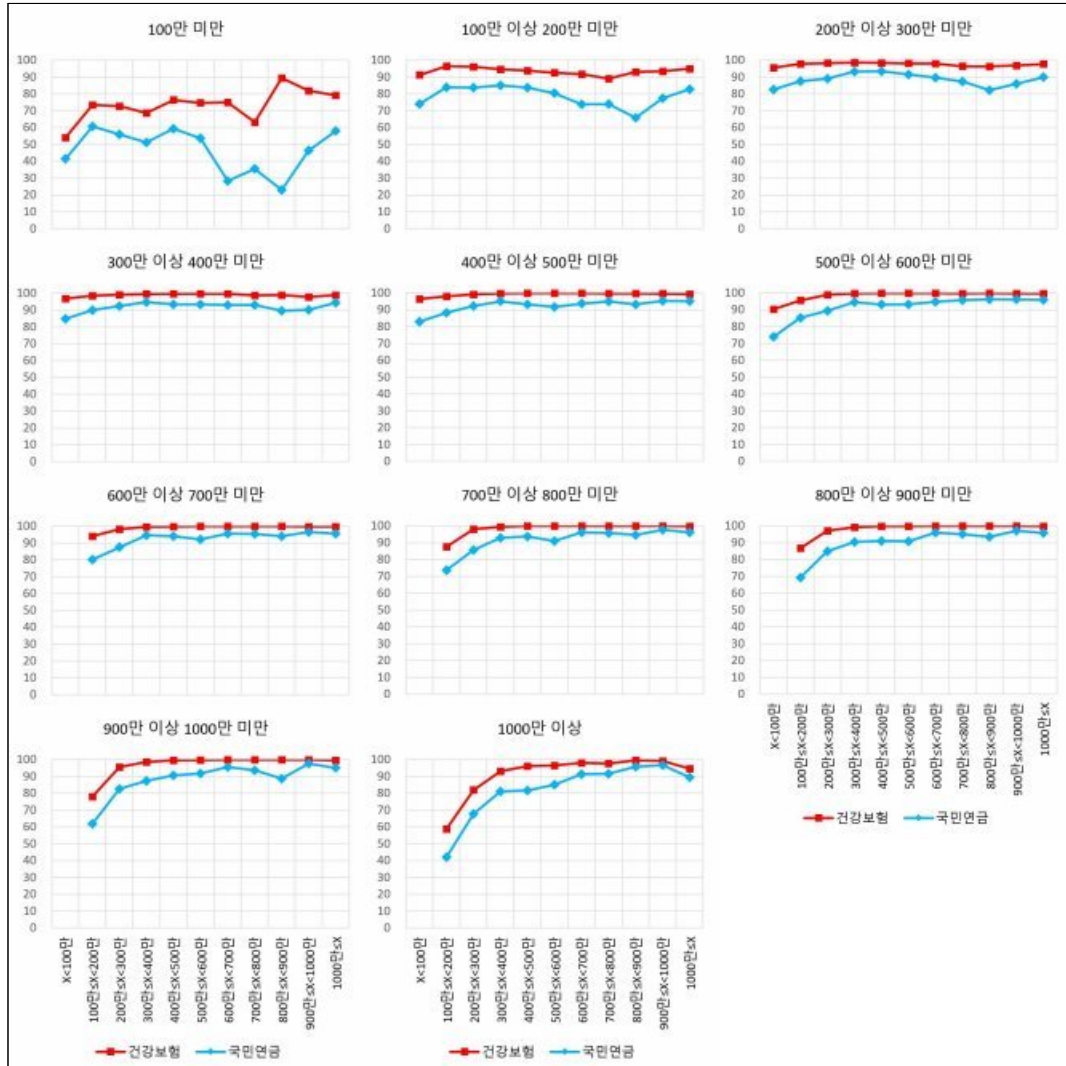


주: 그래프 제목은 개인 특성을, 가로축은 사업장 특성을, 세로축은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의미함. 사례 수가 100명 미만인 셀은 생략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데이터>/<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요약 그림 8-4] 개인 월소득 및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단위: %)



주: 그래프 제목은 개인 특성을, 가로축은 사업장 특성을, 세로축은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의미함. 사례 수가 100명 미만인 셀은 생략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데이터블>/<건강보험데이터블>/<연금데이터블>/<소득 개인단위 데이터블>의 결합데이터블, 2019년.

□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

- 개인의 연령을 통제할 때, 대체로 사업장 평균 연령이 10~20대에서 30~40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였고, 사업장 평균 연령이 30~40대에서 50~60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감소하

였음.

- 특히 개인이 18~24세일 때 사업장 평균 연령이 10~20대에서 30대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음.

○ 개인의 연중 근무기간을 통제할 때, 대체로 사업장의 평균 연중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특히, 개인의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일 때 사업장의 평균 연중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의 정적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 개인의 월소득 수준을 통제할 때, 사업장의 평균 월소득 수준이 낮을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패턴이 일부 관찰되었음.

-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평균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았음.
- 국민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개인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 대체로 건강보험 가입률과 유사하게 사업장 평균 월소득이 작을 때 가입률이 낮은 패턴을 나타내었음.

□ 분석 결과의 함의

○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 가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함.

○ 우선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등 일자리 지위가 높을수록/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감소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가 관찰되었음.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높아졌음.
-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 20대 초반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 결과 역시 입직기의 낮은 일자리 지위가 사회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이 장의 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사업장의 특성이 사회보험 가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유사한 개인 중에서도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연중 근무기간이 길수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개인 중에서도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즉, 일자리 지위가 사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사업장 수준에서 집합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개인 특성과 사업장 특성을 모두 활용하는 표적화가 가능함을 시사함.

- 특히, 근무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월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소득자, 또한 이와 같은 취약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제9장 정책적 시사점

- 건보공단이 구축한 각 사회보험별 가입자 테이블과 소득 및 일자리의 개인 단위 테이블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함.
- 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자 중 급여제한을 받는 자를 사각지대로 정의할 때, 2019년 현재 약 176만 명, 136만 세대가 이에 해당함.
 -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개인과 세대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1인 개인사업자가 사각지대에 많이 포함됨.
 -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이들의 의료서비스 제한을 완화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18~59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12월말 미가입자+연중 미가입자)의 규모는 약 1,269만 명, 해당 연령대 인구의 41.8%에 해당하는 규모임.
 - 연중 미가입자는 약 987만 명(32.5%)에 해당
 - 일용직 근로자의 51.9%, 자영업자의 55.1%가 연중 미가입자이고 미취업자의 86.4%가 미가입자임.
 - 소득자료를 보유한 미가입자의 43.6%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가입 상태이며, 연중 미가입자 가운데 36.4%(137만 명)도 하한 이상의 소득을 얻음.
 - 미가입자 가운데에서 소득자료의 확보와 소득수준에 따라 정책개입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청년층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납부예외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확대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55~59세 연령대의 경우 노동시장 지위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소득과 일자리 특성을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였을 때 18~64세 근로

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5.0%(상용근로자 75.8%, 일용근로자 10.3%임.)

- 소득수준이 낮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기피 유인을 통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실시간 소득파악의 진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소득 1천 만 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지원을 통한 가입지원의 효과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으로 전환 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강보험 가입 지위, 국민연금 가입지위, 고용보험 가입 지위 사이의 정합성을 사회보험 확대의 실증적 근거로 삼을 필요 있음.

- 55~59세, 소득 5,000만 원 이상인 남성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가입 비율과 고용보험 가입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집단임.
- 근로자의 경우 궁극적으로 직장가입 - 직장연금 - 고용보험 가입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각 보험별 가입정보의 연계를 통해 정책에 활용하되,
- 저소득 청년층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와 실시간 소득파악의 필요성

○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발생 시점과 부과 시점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과액의 한계가 발생함.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대상 중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일용근로소득 등)과 소득 파악이 되지 못한 소득(비정형 근로자들의 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매우 중요함.

- 실시간소득파악시스템(RTI)으로 신속한 소득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차이로 인하여 보

협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가능함.

-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득(일용근로소득, 비정형 근로자 미신고 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여 형평 부과 문제 해결 가능함.

□ 행정자료의 활용을 위한 과제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개별 보험의 가입정보가 통상적으로 연계,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임.

-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과 및 가입실태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부담의 형평성 제고 매우 필요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정보와 소득 및 일자리 정보의 연계, 파악, 분석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틀이 필요함.

- 고용보험과 (특히) 산재보험처럼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단위의 자료와도 연계하여 전체 사회보험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테이블 구축이 필요함.
- 가입 정보 연계를 통해 각 보험의 가입자 확대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공단의 부과대상자도 건보에서 취합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음.

○ 단순한 연계 이외의 작업도 필요

- 연계된 자료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설계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표준화와 정제 과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을 염두에 둔 테이블 설계, 지속적 구축·관리, 반복적 활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와 추가적 연계를 통해 더욱 풍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정책 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관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

- 통계청의 인구·가구등록부, 경제통계등록부 등과 연계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더욱 풍부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경우 정책적으로 더욱 적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형식적 틀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빈곤 위험 해소와 소득안정화에 기여하는 정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의 전국민 대상 확대(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2000)와 기초노령연금의 도입(2008), 근로장려금제도의 도입(2009) 등 소득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옴.
- 이러한 제도적 확대에 따라 재분배정책에 따른 소득분배 개선 효과 또한 증진되었으나 저소득층이 직면하는 소득불안과 빈곤화의 위험은 여전히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정책적 과제는 여전히 시의성과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적 과제로 제시됨.
- 노령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고령 및 은퇴, 질병 및 상해, 실직 등에 따른 소득상실과 지출증가의 위험에 대해 일차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함.
-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제외와 사용자 가입회피, 국민연금의 적용 제외 및 납부예외 집단이 다수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개별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두루누리 사업 시행(2012) 이후에도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
-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4대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연계한 분석이 필요함.
 - 현재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는 각 사회보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가입 유인이 개별 보험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개별 보험의 가입실태 관련 자료를 위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나 일부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임.
 - 이에 따라 사각지대의 전체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고 세부적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사회보험 관련 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대상 전체 국민의 가입실태와 사각지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축한 행정자료는 2018년 및 2019년의 <건강보험 테이블>, <연금(직장, 지역) 테이블>, <고용보험 테이블>, <산재보험 테이블>,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 <소득 일자리 개인단위 테이블> 등 12개 테이블임.
 - 4대 사회보험의 가입 및 부과실태 연계 자료를 이용하여, 가입대상 국민 전수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유형화하고 특성을 분석함.
 - 이를 근거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개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연구의 특징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별 사회보험별로 진행되어 왔음.

- 건강보험과 연금, 고용보험이 각각 법적 적용대상자가 상이하고 대상자 가입 비율이 상이하기 때문임.
- 건강보험의 경우 세대주 가입에 따른 피부양자 가입 또는 세대원 가입을 통해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의료급여 수급자까지를 고려할 경우 사각지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음.
- 국민연금의 경우 18~60세로 가입에 연령제한이 있으며, 미취업자에 대한 적용제외와 납부예외 등의 제도가 있어 사각지대 분석에 추가적 고려사항이 다수 존재함.
 - 또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존재로 인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판별하는 범위가 추가적으로 제한됨.
 - 한편 연금은 가입연령대와 수급연령대가 직면하는 문제가 상이함에 따라 수급 연령대에 대해서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라는 측면에서 연금 미수급자의 문제가 다루어짐.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차적으로 생산가능연령대의 인구 중 근로자만 법적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사각지대 분석이 이루어짐.
 - 국민연금과 달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의 가입이 일반적이며,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가입 미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의 적용을 받고 사후적으로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함.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를 법·제도 적용의 사각지대, 적용상의 사각지대, 급여의 사각지대로 구분하는 것은 공통된 접근 방법임.

- 법(제도)적용의 사각지대는 관련 법(제도) 상에서 적용되지 않는 계층을 의미하며, 적용상의 사각지대(또는 실질적 사각지대)는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나 실제 적용에서 제외된 계층을 의미함.
- 급여의 사각지대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급여 수준이 낮아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 신영석 등(2016)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하여 5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표 1-1〉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개념적 구분

구분	법·제도적 측면	실제 적용 측면	급여측면
건강보험	없음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는자 -건강보험자적상실자(거주불명, 행방불명)	-과부담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없음	시설 인프라의 공급부족	-재가서비스의 낮은 급여수준
국민연금	없음	-보험료 미납자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낮은 수급률 -낮은 급여수준 (무연금, 저연금)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가사노동자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또는 노사 합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요건 미충족)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자발적 이직
산재보험	-9개 업종을 제외한 특수형태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없음

자료: 신영석 외(2016)에서 인용(p.13)

- 각 보험별로 사각지대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요 쟁점과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개별 보험을 다루는 각 장(4~6장)에서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임.

- 각 사회보험별로 사각지대에 대한 이해가 상이함에 따라 4대 보험에 대한 종합분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대부분은 조사자료를 이용한 연구임.
- 4대 보험의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연구의 다수가 각 개별 보험의 사각지대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으며, 개인 단위로 4대 보험의 가입 여부를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임.
- 각 보험의 법적 적용대상이 차이가 있는 바, 개인 단위로 적용 및 가입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시조사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함.
 - 김연명(2010)은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종사 기업규모별, 근로형태별, 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추정함.
 - 이병희(2011) 역시 <경제활동인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별, 고용형태별 3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유형과 적용제외자 규모를 추정함.
 - 서정희, 백승호(2014)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임금근로자 가운데 적용에서 제외된 집단의 규모를 각 보험별로 추정함.
 - 신영석 외(2016)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10분위별로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율에 차이가 있음을 보임.
- 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은 사회보험 가입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
 - 사각지대의 규모를 표본 분석을 통해 추정해야 하는데, 표본 규모의 제약으로 인해 세부 집단별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소득 파악 측면에서 설문조사와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행정자료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연구에도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음.

○ 개별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각 보험 관련 기관의 행정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박진희 등(2020)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DB를 연계하여 종사상 지위별(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특고, 자영업자 등)고용보험 사각지대 및 그 특징을 분석하였음.
- 김혜진 등(2020)은 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납부예외 사유별 지역가입자 현황,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규모 변화 등을 보고하고 있음.
- 구인회 등(2020)은 4대 보험의 행정데이터의 주요 항목과 가입자 현황 등을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와 비교하고 있음.

○ 그러나 개별 사회보험 관련 행정자료로는 사각지대의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음.

- 개별 사회보험의 행정자료는 각 보험의 가입자와 관련된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법적, 실질적 적용에서 제외된 집단에 대한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사각지대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잠재적 가입대상자까지를 포함하는 자료가 필요함.

□ 최근 여러 기관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사회보장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해짐.

○ 이현주 등(2018)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DB 추출자료와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추출자료를 연계하여 데이터를 구축한 후 소득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구분된 인구집단별로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함.

- 이 경우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DB의 가구 가운데 가구주 성, 연령, 가구 규모, 광역 등을 기준으로 층화한 후 5%를 무작위 추출한 표본자료를 이용함.
- 추출된 가구에 대해 개인자료를 구축하여 분석함(약 130만 가구, 290만 명).

○ 이현주 등(2020)은 각종 사회보장정보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한 자료와

사회보장정보를 국세청의 자료에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재산분위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하였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기본으로 150만 세대(해당 세대원 포함)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전 가구의 약 7%에 해당됨.

○ 노대명 등(2019)은 통계청이 구축하고 있는 통계등록부(경제활동통계등록부)와 통계청이 보유한 사회보장행정데이터를 연계하여 2012~2018년간 3대 사회보험의 가입유형 및 가입자격 변동성을 분석함.

○ 이러한 선행연구의 분석 범위는 결합 가능한 행정자료의 특성에 따라 좌우됨.

- 이현주 등(2018) 및 이현주 등(2020)은 가구(세대)단위의 분석이 가능한 자료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표본자료라는 한계와 일부 사회보험 가입자(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노대명 등(2020)도 결합대상 자료를 통계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로 국한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자 분석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제외되는 등의 특징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 자료를 중심으로 각 사회보험가입자 자료와 국세청 등의 행정자료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특징을 기대할 수 있음.

○ 실질적으로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료를 기본으로 각 기관의 행정자료를 결합하였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의 전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건보공단이 4대보험의 부과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정보를 이용하여 결합한 자료이므로 개별 자료를 연구자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함.

- 즉, 개인별 자료 결합을 위한 식별키가 불완전하여 발생하는 자료의 손실이 극히 적음.
- 개인별 사회보험 가입 정보뿐만 아니라 소득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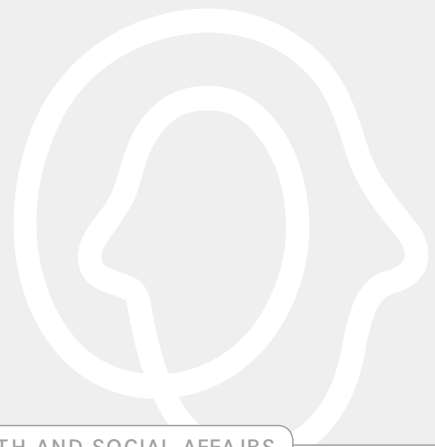
수 있음.

- 한편,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료 역시 기본적인 제약을 갖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되는 내용도 있을 수밖에 없음.
 - 각 사회보험 가입 및 소득자료가 개인 단위로 제공됨으로 인해 가구 단위의 분석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가구 단위 소득을 이용하여 규정되는)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이 불가능함.
 - 개별 사회보험의 행정자료가 모두 연결된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만 통합부과하는 사회보험 자료만 결합함에 따라 산재보험 등 일부 보험의 경우 가입자 수가 실제보다 과소파악될 가능성이 높음.
- 그밖에 자료와 관련된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는 이후 2~3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임.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행정자료의 내용과 주된 특성에 대해 설명함.
 - 연구에 사용되는 각 DB의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 각 DB에 포함된 핵심적 항목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임.
- 3장에서는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할 것임.
 - 특히 DB를 통해 파악된 각 사회보험 가입자의 규모가 사회보험 행정통계와 다른 점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대응할 방법과 해석상의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임.
 - 또한 향후 분석에서 사용될 전체 인구집단을 정의하고, 전체 인구 규모 및 분포를 보여주는 다른 통계와 비교함으로써 분석 대상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할 것임.

- 4장부터 6장까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을 순서대로 진행함.
 - 각 장(보험)별로 사각지대의 의미,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들, 관련 통계 및 기존 연구들에서의 실증적 분석 결과와의 차이 등에 대해 설명한 후,
 -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집단, 사각지대의 (조작적) 정의, 해석 상의 유의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임.
 - 각 보험별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임.
- 7장은 각 사회보험의 가입실태를 개인별로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각 사회 보험의 가입 상태를 연계하여 유형화한 후 세부 인구집단별로 규모를 확인함.
 - 사회보험 가입 유형 상 특별히 주목해야할 집단을 설명하고, 그에 해당하는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함.
- 4~7장까지의 분석이 개인 단위의 분석이라면 8장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분석을 진행함.
 - 일자리-개인단위 DB를 이용하여 사업장 단위의 데이터셋을 구축함.
 -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취업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사업체의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것임.
- 9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여 제시하고자함.
 - 정책제안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과 행정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예정임.



제2장

분석자료 구축 및 현황

제1절 4대 보험 가입현황 자료

제2절 소득현황 자료

제 2 장 분석자료 구축 및 현황

제1절 4대 보험 가입현황 자료

1. 자료원

- 전 국민의 2018년, 2019년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4대보험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자료원을 활용하였음.
-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보험료 징수업무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월 단위로 개인의 자격유형(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의료급여 1,2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또한, 보험료 납부·채납 여부도 파악 가능함.
- 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공단으로부터 받은 개별 고지 보험료 자료원을 활용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금·고용·산재보험의 적용(가입)여부는 해당 보험의 고지 보험료 발생 여부로 간접적으로 파악함.

2. 자료 구축

가. 건강보험 테이블

- (자료발췌) 2018, 2019년 자료 구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DB 테이블 중 “HHDT_POPULATION_MM(월별 인구집단)”을 활용함.
- 월 단위로 총 24개 테이블을 발췌하고 연단위 데이터를 생성함([그림 2-1] 참고).

- 분석에 필요한 변수로는 “개인식별번호(INDI_DSCM_NO)”, “가입자 유형(GAIBJA_TYPE)”, “성별(SEX_TYPE)”, “시군구코드(ADDR_CD_ORG)”, “증번호(JUNG_NO)”, “생년(BYEAR)”임.

[그림 2-1] 2018년, 2019년 건강보험 적용현황 자료 발체 쿼리

```
%MACRO BRT_Y; %DO Y=2018 %TO 2019; %MACRO BRT_M; %DO YM=&Y.01 %TO &Y.12;
PROC SQL; connect to saphana as X1(server=pepper1 port=30015 user=NHIS_&사번 password=!Nhis_&사번.1 readbuff=32767 insertbuff=32767);
CREATE TABLE IDV_&YM. AS
SELECT * FROM CONNECTION TO X1(
SELECT GAIBJA_TYPE, INDI_DSCM_NO, STD_YYYYMM, SEX_TYPE, ADDR_CD_ORG, JUNG_NO,
BYEAR
FROM NHISBDA.HHDT_POPULATION_MM
WHERE STD_YYYYMM=%nrquote('&YM.')
AND INDI_DSCM_NO<>0
AND INDI_DSCM_NO IS NOT NULL
AND INDI_DSCM_NO<90000000
AND PRTY=1
);disconnect from x1;
QUIT;
%END; %MEND BRT_M; %BRT_M; %END; %MEND BRT_Y; %BRT_Y;
```

□ (테이블 레이아웃) <건강보험 테이블>은 개인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보험 자격과 공교여부 총 25개 변수로 구성함.

- “월별 건강보험 자격” 변수는 해당 월의 말 기준 건강보험 자격으로 (1)지역세대주, (2)지역세대원, (5)직장가입자, (6)피부양자, (7)의료급여세대주, (8)의료급여세대원으로 구성됨.
- 건강보험은 전국민 가입보험이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이 없으며 본 자료에서는 “0”으로 구분함.
 - 자격 변동(퇴직, 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결측
 - 외국인, 외국인 출국, 외국인 보험료 미납, 외국인 가입 제외

- 사망, 국정원 등

○ “공무원·교직원 여부”는 증번호 앞자리가 ‘5’, ‘6’으로 시작하는 경우로 판단함.

나.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테이블

□ (자료발취) 건강보험 외 사회보험의 경우는 발취 및 분석가능한 DB형태로 관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고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개인 단위의 특정연도의 월별 “고지 보험료” 자료를 발취 요청함.

□ 각 보험의 ‘고지 보험료’ 자료 사용에 따른 가입현황 파악의 한계점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각 보험 가입여부를 월별 부과지 대상자 자료로 파악하게 되는데, 보험료 고지대상자가 사회보험 가입자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가입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통적으로 월별 고지대상자가 아닌 연납, 또는 분기납으로 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정산보험료 방식으로 자료 연계가 되고 정산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별로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함.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부과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부과지 대상자에 대해서만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징수되었고, 나머지 자진신고 사업장 대상자에 대한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수행함²⁾. 때문에 현재 본 자료에서 구축한 보험가입자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 별목업, 해외파견 사업장, 일부 자영업자가 제외되어 있음.

○ 또한, 통합징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연계하는 월별 부과지 가입

2)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은 부과지사업장과 자진신고사업장이 있는데, 부과지 사업장은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과 별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사업(건설업 제외) 등이다.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3월말까지 개산 및 확정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임업 중 별목업, 해외파견사업(건설업,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1. 이전 기준가입자)가 해당된다.

3) 근로복지공단. 2020. 2019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자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함. 월별 부과고지 가입자 자료 발췌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월별 사업장별 부과고지 테이블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테이블을 연계하여 자료를 발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부과고지 테이블에는 있으나 가입자 테이블에 없는 대상자가 존재하여 자료가 누락됨.

○ 이러한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통계연보의 피보험자수와 본 자료 케이스의 차이가 존재하며 고용보험 통계연보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음.

-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사업장별 전체 보수 총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재 확인 가능한 고용산재보험 통계 2019년 연말 기준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19년 말 전체 피보험자는 13,864,138명이며, 그 중에서 건설업 714,453명(5.15%)이고, 별목업은 임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약 2만 명, 자영업자 2만 명 정도임.
- 산재보험의 경우 연도 말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을 보면, 18년말 2,654,107개 사업장 19,073,438명 가입되어 있고, '19년말 2,680,874사업장 18,725,160명이 가입됨. 이 중 건설업 사업장은 378,343개, 2,487,807명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다. 4대 보험 최종 테이블

□ <4대 보험 테이블>은 2018, 2019년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직장, 지역), 고용보험, 산재보험 테이블로 총 8개 구축함.

○ <건강보험 테이블>의 경우, 모집단은 1~2월 중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부여된 개인이며 연도별 행수는 2018년 52,836,058행, 2019년 53,082,331행으로 구축됨(<부표 1-1> 참조).

- <연금 테이블>의 모집단은 1~12월 중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직장, 지역)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이며 연도별 행 수는 2018년 21,571,895행, 2019년 22,090,072행으로 구축됨(<부표 1-2> 참조).
- 국민연금 가입여부 변수는 (0)미가입, (1)직장연금 가입자, (2)지역연금 가입자, (3)직장, 지역연금 동시 가입자로 구분함.
- <고용보험 테이블>의 모집단은 1~12월 중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이며, 연도별 행 수는 2018년 13,177,493행, 2019년 13,693,492행으로 구축됨(<부표 1-3> 참조).
- <산재보험 테이블>의 모집단은 1~12월 중 한 번이라도 산재보험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이며, 연도별 행 수는 2018년 13,002,082행, 2019년 13,518,646행으로 구축됨(<부표 1-4> 참조).

〈표 2-1〉 4대 보험 가입현황 최종 테이블

분류	테이블 명	테이블 모집단 정의/행 수
4대보험 가입현황 테이블	건강보험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건강보험 자격이 부여된 개인 (‘18)52,836,058 (‘19)53,082,331
	연금(직장, 지역)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직장, 지역)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 (‘18)21,571,895 (‘19)22,090,072
	고용보험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 (‘18)13,177,493 (‘19)13,693,492
	산재보험 테이블	1~12월 중 한 번이라도 산재보험 보험료 고지를 받은 개인 (‘18)13,002,082 (‘19)13,518,646

〈표 2-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테이블 각각의 2018년, 2019년 적용 현황 수

(단위: 명)

발체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장	지역		
2018년	1월	52,249,959	12,879,848	4,515,662	10,209,976	10,011,848
	2월	52,244,711	13,043,714	4,604,708	10,328,421	10,121,395
	3월	52,262,167	13,040,339	4,588,619	10,367,243	10,161,423
	4월	52,262,458	13,140,281	4,572,840	10,508,900	10,287,197
	5월	52,272,454	13,233,467	4,569,368	10,552,567	10,338,976
	6월	52,284,725	13,270,504	4,571,728	10,572,417	10,358,936
	7월	52,295,267	13,226,630	4,600,324	10,588,668	10,365,639
	8월	52,301,077	13,339,862	4,602,559	10,616,243	10,401,352
	9월	52,302,166	13,301,806	4,620,985	10,862,162	10,448,792
	10월	52,318,424	13,367,966	4,618,376	10,716,427	10,505,839
	11월	52,326,698	13,418,644	4,604,988	10,786,674	10,574,523
	12월	52,331,176	13,401,186	4,789,142	10,823,924	10,611,403
2019년	1월	52,322,045	13,262,501	4,746,804	10,658,085	10,452,470
	2월	52,316,844	13,415,189	4,702,398	10,814,084	10,589,125
	3월	52,334,826	13,370,638	4,685,271	10,868,376	10,640,810
	4월	52,334,244	13,506,075	4,667,390	10,770,478	10,765,047
	5월	52,336,855	13,600,149	4,647,733	11,047,065	10,831,693
	6월	52,340,210	13,611,919	4,649,102	11,625,555	10,849,704
	7월	52,566,025	13,600,149	4,650,574	11,071,004	10,860,509
	8월	52,584,991	13,692,058	4,647,613	11,105,822	10,892,550
	9월	52,604,758	13,665,018	4,638,795	11,121,257	10,908,344
	10월	52,616,258	13,736,210	4,623,302	11,195,869	10,985,092
	11월	52,615,681	13,738,529	4,606,915	11,242,093	11,036,944
	12월	52,608,537	13,724,994	4,781,588	11,245,159	11,040,2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산재보험 테이블〉, 각년도.

제2절 소득현황 자료

1. 자료원

- 전 국민의 소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원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활용한 건강보험공단 부과자료를 사용함.
- 원천자료원으로는 종합소득자료, 원천근로소득자료,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자료, 사업자 등록 자료와 근로내역확인서 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이직자료, 5대 공적연금기관의 공적연금자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자료를 활용함.
- 위 원천자료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국세청 등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시자료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소득유형 및 산정 대상자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재가공한 건강보험공단 부과자료를 본 연구에 사용함.

〈표 2-3〉 개인의 소득, 일자리 파악을 위해 활용된 자료원 특성

자료명	연도	주요 변수
종합소득	2018, 2019년	소득구분코드(이자·배당·근로·사업 소득 등), 소득, 업종 등
원천근로소득	2018, 2019년	자료구분코드(신고소득), 소득종류코드(근로소득), 소득
일용근로지급명세서	2018, 2019년	근로연월, 근로일수, 소득, 업종
사업자등록	2018, 2019년	사업장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근로내역확인서	2018, 2019년	근로연월, 근로일수, 소득, 직종
특수고용직	2018, 2019년	업종, 입직일자, 이직일자
공적연금	2018, 2019년	연금구분(노령·장애 등), 연금지급액
보수총액신고	2018, 2019년	소득, 근무월수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표 2-4〉 자료원별 건 수 및 단위

자료명	2018년		2019년	
	빈도(건)	단위	빈도(건)	단위
종합소득	19,403,801	개인, 사업장, 소득	21,325,691	개인, 사업장, 소득
원천근로소득	19,038,037	개인, 사업장	19,484,781	개인, 사업장
일용근로지급명세서	49,220,529	개인, 사업장	49,208,379	개인, 사업장
사업자등록	10,868,274	개인, 사업장	11,295,846	개인, 사업장
근로내역확인서	3,004,538	개인, 사업장	18,799,362	개인, 사업장
특수고용직	668,847	개인, 사업장	699,975	개인, 사업장
공적연금	4,340,577	개인, 연금기관	4,681,606	개인, 연금기관
보수총액신고	6,630,000	개인, 사업장	7,206,487	개인, 사업장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 건강보험공단 부과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소득유형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 일용근로소득임.
- 〈종합소득〉 자료원에서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적연금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며 2019년 자료에서는 추가적으로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정보를 알 수 있음.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보수총액자료〉 그 다음 〈원천근로소득〉, 〈종합소득〉 순으로 자료가 최신이면서 정확함.
- 〈공적연금〉 자료에서는 5대 공적연금(사학/공무원/군인/국민/별정 우체국)별 연금소득액을 파악할 수 있음.
-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자료와 〈근로내역확인서〉 자료를 통해 건설일용직과 3개월 이하 일용근로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을 파악할 수 있음.

〈표 2-5〉 자료원별 파악 가능한 소득 유형

자료명	종합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금융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연금 소득	금융소득 (1-2천)	주택임대 소득 (1-2천)	일용 소득
종합소득	●	●	●	●	① (사적)	● (‘19년)	● (‘19년)	
원천근로소득			●					
보수총액신고			●					
공적연금					① (공적)			
일용근로지급명세서								●
근로내역확인서								●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2. 자료 구축

□ 소득현황DB 구축은 공단이 보유한 부과자료를 분석 목적에 맞게 클리닝하고, 클리닝이 완료된 개별 자료들을 결합하여 개인단위와 소득발생단위 두 개의 DB로 구축하는 2단계로 구성됨.

〈표 2-6〉 종합소득자료 데이터 클리닝 내용

연번	데이터 클리닝 내용	처리방법
1	소득변수 만 원 단위-> 원 단위로 변경	변경
2	사업자등록번호 유효여부 변수 생성	삭제
3	개인식별번호 누락된 건 삭제	삭제
4	동일한 '개인+사업자'인데 소득구분코드 값이 50, 59 둘 다 있는 경우 '59' 건 삭제	삭제
5	'개인+사업자'가 일치하면서 보험모집인소득(48)과 사업소득(40, ,41) 중복인 경우 48번 건 삭제	삭제
6	소득구분코드 값이 30(부동산임대)인 경우, 46(사업소득_주택임대)로 변경	변경
7	소득구분코드값이 32(주택소득)인 경우, 45(사업소득+분리과세주택임대)로 변경	변경
8	소득구분코드 변수 생성 (1)금융소득, (2)사업소득, (3)근로소득, (4)기타소득, (5)사적연금소득	변수 추가
9	추계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소득구분코드' 동일한 경우 가장 높은 소득 남기고 삭제	삭제
10	동일 '개인+사업자'인데 추계(C), 신고(S)소득 둘 다 있는 경우 추계소득(C)삭제	삭제
11	소득구분코드 66(연금소득)값을 갖는 개인이 [공적연금자료]에도 있는 건 삭제	삭제
12	사업/근로/기타소득이 10억 이상인 경우, [보수총액신고자료]의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동일하면 [보수총액신고자료]의 소득값으로 대체	변경
13	업종코드 생성	변수 추가
14	소득금액이 '0'원(의미 있는 값)인 경우 '99'로 변경	변경
15	'개인+사업자코드+소득구분코드' 기준으로 소득값 합산 후 중복 제거	중복 제거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표 2-7〉 원천근로소득 데이터 클리닝 내용

연번	데이터 클리닝 내용	처리방법
1	개인식별번호 누락된 경우 삭제	삭제
2	형-종변경: 주(현)소득-국내, 주(현)소득-국외, 종(전)소득-국내, 종(전)소득-국외	변경
3	근무시작날짜와 종료날짜 변수 생성	변수 추가
4	동일 개인+사업자+근무기간의 경우 가장 큰 소득금액인 건만 남기고 삭제	삭제
5	동일 개인+사업자+근무기간의 경우 같은 현소득과 전소득 값 합산	중복 제거
6	[종합소득자료] 근로소득건 중 '개인+사업자'가 중복되는 경우 삭제	중복 제거
7	소득 10억 이상이면서 [보수총액자료]와 '개인+사업자'가 중복되는 경우 삭제	삭제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표 2-8〉 보수총액자료 데이터 클리닝 내용

연번	데이터 클리닝 내용	처리방법
1	개인식별번호 누락된 경우 삭제	삭제
2	사업자 등록번호 생성(11자리 → 10자리로 변경)	변경
3	소득금액 변수 변경	변경
4	10억 이상 건 중 [종합소득자료]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삭제	삭제
5	10억 이상 건 중 [원천근로소득자료]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삭제	삭제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표 2-9〉 공적연금자료 데이터 클리닝 내용

연번	데이터 클리닝 내용	처리방법
1	전체 중복 건 제거	삭제
2	개인식별번호 누락된 경우 삭제	삭제
3	사업자등록번호 생성	변경
4	동일 개인식별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단위로 소득금액 합산	중복제거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표 2-10〉 일용근로지급명세서 데이터 클리닝 내용

연번	데이터 클리닝 내용	처리방법
1	개인식별번호 누락된 경우 삭제	삭제
2	근무연도가 해당연도(2018년 또는 2019년)가 아닌 경우 삭제	삭제
3	소득금액 0원 이면서 근로일수 0일인 건 삭제	삭제
4	소득금액 결측값이면서 근로일수도 결측값인 건 삭제	삭제
5	동일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업종 코드 붙여 있는 경우, 가장 위에 있는 업종코드 붙이기	변경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표 2-11〉 근로내역확인서 데이터 클리닝 내용

연번	데이터 클리닝 내용	처리방법
1	개인식별번호 누락된 경우 삭제	삭제
2	근무연도가 해당연도(2018년 또는 2019년)가 아닌 경우 삭제	삭제
3	소득금액 0원 이면서 근로일수 0일인 건 삭제	삭제
4	소득금액 결측값이면서 근로일수도 결측값인 건 삭제	삭제
5	[일용지급명세서]에 동일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중복 삭제함	중복 삭제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 데이터 전처리 후 각 최종 분석자료 건수는 〈표 2-12〉와 같음

〈표 2-12〉 데이터 전처리 후 최종분석 자료 건수

(단위: 건)

자료명	2018년		2019년	
	전처리 전	전처리 후	전처리 전	전처리 후
종합소득	21,228,529	19,403,801	22,938,812	21,325,691
원천근로소득	20,945,243	19,038,037	21,247,262	19,484,781
일용근로지급명세서	254,987,176	49,220,529	254,987,176	49,208,379
사업자등록	10,868,274	10,868,274	11,295,846	11,295,846
근로내역확인서	3,004,538	3,004,538	27,449,620	18,799,362
특수고용직	668,847	668,847	699,975	699,975
공적연금	8,736,575	4,340,577	4,714,671	4,681,606
보수총액신고	21,228,529	6,042,367	25,001,241	7,206,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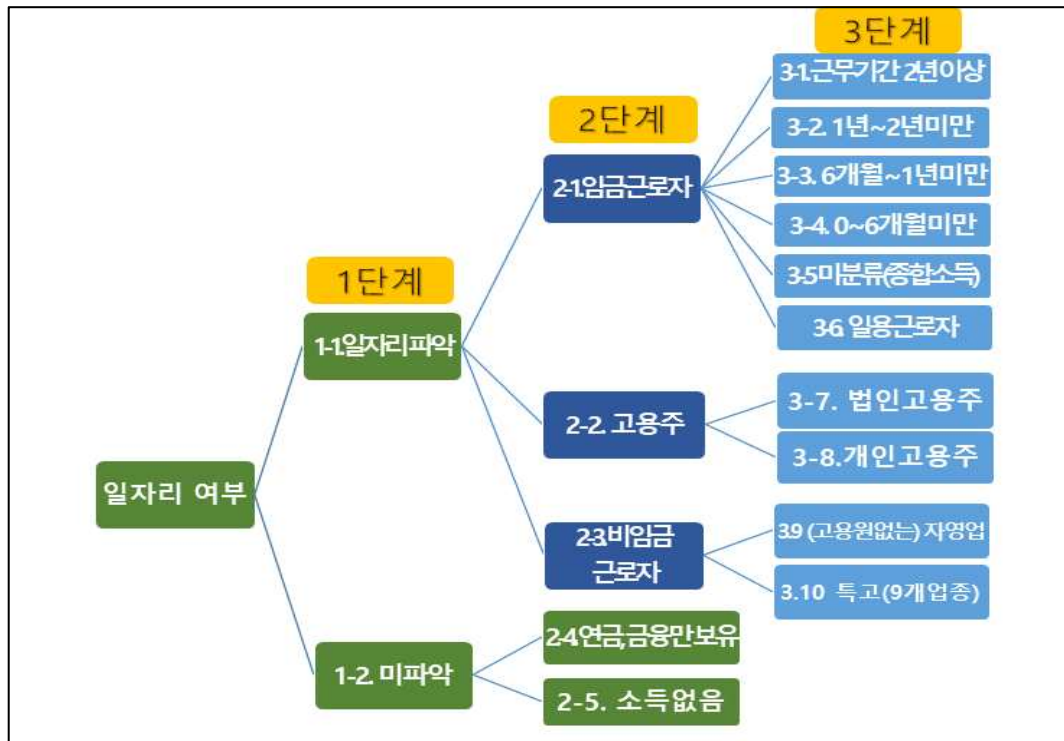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3. 일자리 유형 변수 생성

□ 일자리 유형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파악을 위해 개인 단위의 일자리 유형을 정의 하여 변수를 생성함.

○ [그림 2-2]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일자리 유형 분류의 기준과 단계임.

[그림 2-2] 일자리 유형 분류 단계



자료: 이현옥 외(2021)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적용현황 연구

□ (1단계) 일자리 보유 여부

- 먼저 개인 단위로 일자리 보유 여부를 분류하기 위해 일자리와 관련된 소득발생 유무를 기준으로 일자리 파악과 미파악으로 분류함. 여기에서 일자리 파악은 근로성 소득인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반면, 일자리 미파악은 일과 관련 없는 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만을 보유하거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예: 아동, 학생, 주부 등)를 의미함.

□ (2단계) 임금근로자/고용주/비임금근로자의 분류

- 일자리 여부 파악 단계에서 일자리가 파악된 개인을 대상으로 함. 소득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의 대표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임금 근로자, 고용주,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함.

- 임금근로자는 사업체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 중 원천근로소득, 보수총액,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DB를 활용하여 2018년과 2019년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대표자를 고용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음.
- 고용주와 1인자영업을 구분하기 위해 동일 사업장에 대표자 이외에 여러 명의 개인이 있는 경우는 고용인 있는 사업장이며, 그 사업장의 대표자는 고용주로 구분함. 비임금(자영업)은 종합소득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함.

□ (3단계) 임금근로자/고용주/비임금근로자의 세부 유형 분류

- 임금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임금격차가 많이 발생하므로 근무기간에 따라 소득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근무기간에 따라 일자리 유형을 분류함.
- 현재 비정형 노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념이 부재하고, 행정자료에 계약관계나 종사상지위 정보가 없으므로 비정형 관련 법률인 기간제법을 적용하여 임금근로자 중에서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비정형 근로에서 제외하였음.
- 임금근로자 일자리 분류는 2018년-2019년 자료를 연계하여 근무기간 2년 이상, 1-2년 미만, 6개월-1년 미만, 6개월 미만, 일용근로자(국세청신고기준)로 분류하였다. 또한 종합소득신고 자료 중 근로소득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결측인 자료가 존재하여 이는 미분류로 구분함⁴⁾.
- 고용주는 국제종사상지위 분류기준(ICSE-18)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법인기업 고용주와 개인기업 고용주로 세분화함.
 - 법인 기업과 개인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의 4, 5자리로 구분

4) 종합소득은 매년5월 연단위의 소득을 신고하는 자료로 근무기간이 없는 자료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임금근로자를 근무기간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러한 분류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이 없어서 일자리 유형 분류를 못하는 자료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소득 및 사업장등록번호 등 다른 자료들이 존재하므로, 유형분류 3단계에서 미분류 자료로 분류하였다.

하였음.

- 마지막으로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인이 없는 순수 1인 자영업과 특고를 분류하기 위해 2018-2019년 산재보험 적용되는 특고 업종⁵⁾의 종사자를 구분하여 비정형 근로자로 분류함 이때 특고의 분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의 개인식별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매칭함.
- 개인 단위로 일자리 유형 변수(W1~W12) 12개를 조합하여 연간 종사상 지위 변수(W_KEY)와 주요 종사상 지위 변수(W_TYPE)를 생성함.

4. 소득현황 최종 테이블

- 소득현황 테이블은 <소득 일자리 개인단위 테이블>, <개인단위 테이블> 로 구축함.
- <일자리 개인단위 테이블>은 연간 한 번이라도 소득이 파악된 일자리-개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소득발생 건 단위 자료로 2018년 70,257,473건, 2019년 73,739,878건임.
 - 개인은 연간 하나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 발생 건별로 개인식별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구분, 금액, 업종 등의 변수를 세로로 구축한 형태임. 개인이 여러 개의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다양한 일자리를 파악할 수 있으나, 개인식별번호의 중복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 <개인단위 테이블>은 건강보험 자격이 1~12월 내 한번이라도 관측된 개인을 모집단으로 하는 개인 단위 자료로 2018년 52,836,058명, 2019년 53,082,327명임.

5) 2018년의 산재보험 특고업종(9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기사,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업 종사자, 골프경기보조원, 대리운전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표 2-13〉 데이터 전처리 후 최종분석 자료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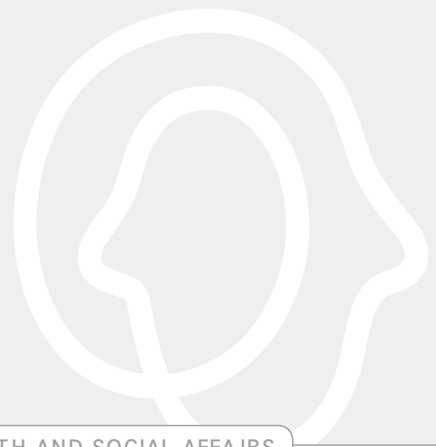
분류	테이블 명	테이블 모집단 정의/행 수
소득 테이블	소득 일자리-개인단위 테이블	연간 한 번이라도 소득이 파악된 일자리-개인 (‘18)70,257,473 (‘19)73,739,878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	건강보험 자격이 1~12월 내 한번이라도 관측된 개인 (‘18)52,836,058 (‘19)53,082,327

□ 〈소득 일자리 개인단위 테이블〉은 사업장 번호와 개인식별번호의 조합이 식별변수임.

○ 구성 변수로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성, 연령, 나이, 시군구 코드)와 사업장의 업종, 소득 유형(1: 금융소득, 2:사업소득, 3: 근로소득, 4:기타소득, 5:연금소득(사적, 공적), 6:일용근로소득)과 소득금액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월별 근무 일 수, “원천근로소득” 자료원에서 가져온 소득의 경우 근무기간 변수가 있음(〈부표 1-5〉 참고).

□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은 개인식별번호가 테이블의 식별변수임.

○ 인구사회학적 변수(성, 연령, 나이, 시군구 코드, 외국인 여부)와 소득유형별 금액 변수 그리고 일자리 유형 및 종사상 지위 변수로 구성되어 있음(〈부표 1-6〉 참고).



제3장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제1절 분석 자료와 행정통계와의 차이

제2절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 집단의 구분

제3절 분석 대상 집단의 결정

제4절 일자리와 소득 특성

제3장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제1절 분석 자료와 행정통계와의 차이

1. 분석자료 상의 부과자 수와 행정통계 상의 가입자 수 차이

□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 사회보험의 가입자 테이블은 2018년 및 2019년 한 해 동안 한 번이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한 이력이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유의할 점은 이들 테이블이 각 보험별 ‘가입’ 여부나 ‘보험료 납부’ 여부가 아닌 ‘보험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임.

- 보험료를 부과(고지)받은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부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부과’가 건보공단에 의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보험의 운영 기관(예,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 사업장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부과고지 대상자에 대해서만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징수 되었고, 나머지 자진신고 사업장 대상자에 대한 징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수행함⁶⁾⁷⁾. 때문에 현재 본 자료에서 구축한 보험가입자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인 건설업, 별목업, 해외파견 사업장, 일부 자영업자가 제외되어 있음.

6)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은 부과고지사업장과 자진신고사업장이 있는데, 부과고지 사업장은 사회보험징수통합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과 별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사업(건설업 제외) 등이다. 자진신고 사업장은 매년 3월말까지 개산 및 확정 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건설본사 포함), 임업 중 별목업, 해외파견사업(건설업,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1. 이전 기존가입자)가 해당된다.

7) 근로복지공단. 2020. 2019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 이러한 이유로 고용·산재보험 통계연보의 피보험자수와 본 자료 케이스의 차이가 존재하며 고용보험 통계연보에는 자진신고 사업장의 피보험자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음.
 -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가 사업장별 전체 보수 총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렇듯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보험에 대한 보험료 통합징수 대상자만으로는 산재보험 전체 가입자로 정의하기가 어려움.
 - 이에 따라, 현재 구축된 자료에서 산재보험 적용 가입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불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연구범위에서 산재보험은 제외함.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각 보험별 테이블에 포함된 보험료 부과 이력이 있는 개인의 수는 각 사회보험별 행정통계 상의 가입자 수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표 3-1>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테이블에서 확인된 2019년 건강보험료 부과 유형별 인구와 의료급여 수급 인구를 보여줌.
- <표 3-2>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건강보험통계>(2019) 상의 월별 건강보험 가입유형 변화와 2019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임.

〈표 3-1〉 건강보험료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수(2019년)

(단위: 명)

월	지역 세대주	지역 세대원	직장가입	직장피부양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	계
1	6,695,008	7,347,941	17,112,866	19,690,550	1,066,159	409,521	52,322,045
2	6,638,338	7,251,864	17,288,223	19,661,796	1,069,461	407,162	52,316,844
3	6,629,579	7,237,250	17,329,601	19,660,157	1,072,640	405,599	52,334,826
4	6,548,801	7,117,747	17,561,761	19,626,451	1,076,430	403,054	52,334,244
5	6,548,449	7,103,055	17,592,595	19,608,770	1,081,681	402,305	52,336,855
6	6,548,558	7,081,101	17,622,691	19,603,819	1,083,955	400,086	52,340,210
7	6,721,772	7,059,394	17,725,062	19,582,136	1,081,853	395,808	52,566,025
8	6,740,496	7,047,233	17,763,384	19,556,716	1,084,827	392,335	52,584,991
9	6,794,463	7,078,527	17,689,436	19,563,594	1,087,669	391,069	52,604,758
10	6,736,263	6,990,979	17,877,627	19,529,060	1,091,405	390,924	52,616,258
11	6,714,829	6,949,353	17,934,252	19,531,449	1,095,317	390,481	52,615,681
12월	6,879,649	7,154,756	17,879,093	19,207,675	1,097,946	389,418	52,608,537
월평균	6,683,017	7,118,267	17,614,716	19,568,514	1,082,445	398,147	52,465,106
연1회 이상							53,082,33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2019년.

〈표 3-2〉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인구 행정통계(2019년)

(단위: 명)

월	지역 가입	직장가입	직장피부양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부양가족	계
1	14,130,634	17,438,253	19,505,599	1,086,933	397,070	52,558,489
2	14,015,089	17,549,722	19,503,383	1,089,923	395,996	52,554,113
3	13,980,745	17,597,367	19,484,221	1,093,799	393,476	52,549,608
4	13,833,888	17,745,494	19,493,922	1,098,908	392,477	52,564,689
5	13,778,041	17,819,949	19,488,394	1,101,225	390,640	52,578,249
6	13,756,924	17,865,874	19,478,174	1,099,100	386,519	52,586,591
7	13,951,643	17,925,836	19,467,269	1,100,776	382,715	52,828,239
8	13,922,688	17,988,984	19,459,731	1,103,795	381,296	52,856,494
9	13,911,382	18,028,586	19,461,775	1,106,409	379,939	52,888,091
10	13,891,037	18,073,259	19,452,439	1,109,715	378,807	52,905,257
11	13,807,388	18,166,790	19,419,856	1,113,551	378,770	52,886,355
12월	14,163,970	18,123,124	19,104,353	1,112,118	376,728	52,880,293
월평균	13,928,619	17,860,270	19,443,260	1,101,354	386,203	52,719,70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월별 적용인구현황,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통계〉, 연도별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019년.

○ <표 3-3>은 각 대응항목별로 <표 3-1>에서 <표 3-2>를 뺀 값임.

- 행정통계와 건강보험 테이블상의 부과 인구를 비교하면 직장가입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테이블의 가입자 수가 더 많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테이블 상의 가입자 수가 더 적음.
- 의료급여 세대주는 건강보험 테이블 상의 수치가 행정통계에 비해 적고 의료급여 부양가족은 반대임.
- 2018년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교는 <부표 2-1>~<부표 2-3>을 참조할 것.

<표 3-3> 건강보험테이블 상의 가입자와 행정통계의 차이(2019년)

(단위: 명)

월	지역 가입	직장가입	직장피부양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부양가족	계
1	-87,685	-325,387	184,951	-20,774	12,451	-236,444
2	-124,887	-261,499	158,413	-20,462	11,166	-237,269
3	-113,916	-267,766	175,936	-21,159	12,123	-214,782
4	-167,340	-183,733	132,529	-22,478	10,577	-230,445
5	-126,537	-227,354	120,376	-19,544	11,665	-241,394
6	-127,265	-243,183	125,645	-15,145	13,567	-246,381
7	-170,477	-200,774	114,867	-18,923	13,093	-262,214
8	-134,959	-225,600	96,985	-18,968	11,039	-271,503
9	- 38,392	-339,150	101,819	-18,740	11,130	-283,333
10	-163,795	-195,632	76,621	-18,310	12,117	-288,999
11	-143,206	-232,538	111,593	-18,234	11,711	-270,674
12월	-129,565	-244,031	103,322	-14,172	12,690	-271,756

주: 지역가입은 <표 3-1>의 (지역세대주+지역세대원)에서 <표 3-2>의 지역가입자를 뺀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월별 적용인구현황, 2019년.

□ 사각지대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할 때 이러한 행정통계와의 차이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경우 포괄성이 높아 거의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타 사회보험의 경우 포괄성이 건강보험만큼 높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통계와의 이러한 차이는 사각지대의 규모를 과대/과소 파악하는 경향성을 만들어 낼 수 있음.
- <표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금테이블>의 경우 행정통계 상의 가입자 수에 비해 더 적은 수가 포함됨.
 - <표 3-4>는 건보공단이 제공한 <연금테이블>에서의 연금 부과 인원과 국민연금공단이 공표한 행정통계 <2019년 국민연금통계> 상의 연금가입자 수의 차이를 보여줌.
 - <연금테이블>에서 지역가입은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소득신고자만이 포함됨. 또한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도 지역가입으로 분류됨.
 - 직장연금과 지역연금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가 소수(전체 부과자의 0.1~0.2%) 있고, 이는 별도로 분류됨.
 -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별로 약 39만~52만 명 가량 적고 지역가입자(임의가입 및 임의계속가입 포함)은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작아 약 400명~3만7천명 수준임.
 - 직장연금, 지역연금, 중복 부과자를 모두 합하더라도 전체 국민연금 부과 이력자의 수는 행정통계 상의 가입자에 비해 약 39만~50만 명 적은 수치임.
 - 2018년의 두 자료상 차이에 대해서는 <부표 2-4>를 참조할 것.

〈표 3-4〉 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교(2019년)

(단위: 명)

월	국민연금 테이블				행정통계 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차이		
	직장연금 부과(A)	지역연금 부과(B)	직장 및 지역연금 부과(C)	계(D)	사업장 가입자 (E)	지역(소득신 고)+임의+임 의계속(F)	계 (G)	직장연금 (H=A-E)	지역연금 (I=B-F)	계 (J=D-G)
1	13,262,501	4,746,804	18,803	18,028,108	13,777,621	4,753,169	18,530,790	-515,120	-6,365	-502,682
2	13,415,189	4,702,398	24,942	18,142,529	13,837,812	4,727,666	18,565,478	-422,623	-25,268	-422,949
3	13,370,638	4,685,271	23,261	18,079,170	13,836,173	4,709,031	18,545,204	-465,535	-23,760	-466,034
4	13,506,075	4,667,390	22,037	18,195,502	13,957,204	4,690,467	18,647,671	-451,129	-23,077	-452,169
5	13,600,149	4,647,733	31,982	18,279,864	14,014,313	4,685,507	18,699,820	-414,164	-37,774	-419,956
6	13,611,919	4,649,102	30,129	18,291,150	14,028,375	4,685,465	18,713,840	-416,456	-36,363	-422,690
7	13,657,901	4,650,574	29,456	18,337,931	14,058,676	4,683,102	18,741,778	-400,775	-32,528	-403,847
8	13,692,058	4,647,613	28,580	18,368,251	14,090,484	4,684,310	18,774,794	-398,426	-36,697	-406,543
9	13,665,018	4,638,795	27,211	18,331,024	14,103,712	4,667,280	18,770,992	-438,694	-28,485	-439,968
10	13,736,210	4,623,302	29,324	18,388,836	14,125,764	4,654,988	18,780,752	-389,554	-31,686	-391,916
11	13,738,529	4,606,915	22,688	18,368,132	14,188,108	4,635,968	18,824,076	-449,579	-29,053	-455,944
12월	13,724,994	4,781,588	25,670	18,532,252	14,157,574	4,781,995	18,939,569	-432,580	-407	-407,317
월평균	13,581,765	4,670,624	26,174	18,278,562	14,014,651	4,696,579	18,711,230	-432,886	-25,955	-432,668
연간1회이상	17,132,751	5,761,075	189,192	22,062,887						

주: 행정통계의 F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 및 임의 계속가입자를 합한 값임.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는 제외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테이블〉, 2019년.

국민연금관리공단, 〈2019년 국민연금통계〉, 2019년.

□ 건보공단 자료와 고용 및 산재보험 행정통계와의 차이는 고용보험(〈표 3-5〉)과 산재보험(〈표 3-6〉)에서도 확인됨.

○ 〈고용보험테이블〉에서 나타난 2019년의 월별 부과대상자수는 월 평균 약 1,100만 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행정통계상에서 월평균 순수피보험자 수는 약 1,370만 명으로, 평균 약 266만 명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재보험의 경우 두 자료 사이의 차이는 가장 크게 나타나서, 2019년의 각 분기 말 기준으로 〈산재보험테이블〉 상의 숫자가 행정통계상의 적용근로자 수에 비해 700만 명 이상 작음.

〈표 3-5〉 고용보험부과 내역과 행정통계의 차이

(단위: 명)

월	2018년			2019년		
	고용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C=A-B)	고용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F=D-E)
	고용보험 부과자(A)	순수피보험자 (B)		고용보험 부과자(D)	순수피보험자 (E)	
1	10,209,976	12,826,336	-2,616,360	10,658,085	13,328,191	-2,670,106
2	10,328,421	12,948,805	-2,620,384	10,814,084	13,443,756	-2,629,672
3	10,367,243	12,996,438	-2,629,195	10,868,376	13,524,735	-2,656,359
4	10,508,900	13,110,891	-2,601,991	10,990,478	13,632,086	-2,641,608
5	10,552,567	13,151,192	-2,598,625	11,047,065	13,685,649	-2,638,584
6	10,572,417	13,176,226	-2,603,809	11,062,555	13,708,056	-2,645,501
7	10,588,668	13,196,979	-2,608,311	11,071,004	13,743,470	-2,672,466
8	10,616,243	13,230,609	-2,614,366	11,105,822	13,778,419	-2,672,597
9	10,662,162	13,301,210	-2,639,048	11,121,257	13,812,955	-2,691,698
10	10,716,427	13,374,499	-2,658,072	11,195,869	13,888,570	-2,692,701
11	10,786,674	13,447,383	-2,660,709	11,242,093	13,927,473	-2,685,380
12월	10,823,924	13,432,497	-2,608,573	11,245,159	13,864,138	-2,618,979
월평균	10,561,135	13,182,755	-2,621,620	11,035,154	13,694,792	-2,659,638
연1회 이상	13,177,493			13,693,49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테이블〉, 각년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표〉, 각년도.

〈표 3-6〉 산재보험부와 내역과 행정통계의 차이

(단위: 명)

월	2018년			2019년		
	산재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C=A-B)	산재보험테이블	행정통계	차이 (F=D-E)
	산재보험 부과자(A)	적용근로자수 (B)		산재보험 부과자(D)	적용근로자수 (E)	
1	10,011,848			10,452,470		
2	10,121,395			10,589,125		
3	10,161,423	18,283,363	-8,121,940	10,640,810	8,511,468	-7,870,658
4	10,287,197			10,765,047		
5	10,338,976			10,831,693		
6	10,358,936	18,751,289	-8,392,353	10,849,704	18,547,800	-7,698,096
7	10,365,639			10,860,509		
8	10,401,352			10,892,550		
9	10,338,976	18,866,813	-8,527,837	10,908,344	18,371,773	-7,463,429
10	10,358,936			10,985,092		
11	10,365,639			11,036,944		
12월	10,401,352	19,073,438	-8,672,086	11,040,285	18,725,160	-7,684,875
월평균	10,292,639	18,743,726	-8,451,087	10,821,048	18,539,050	
연1개월 이상	13,002,082			13,518,64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테이블〉, 각년도.
근로복지공단, 〈공단통계현황〉, 각년도 분기별 자료.

2. 가입 지위의 정의와 해석상 유의사항

- 각 보험별로 그리고 가입유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행정통계와 건보공단 테이블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하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보험 적용(부과)을 판단할 때 특정 월의 가입 지위가 아닌 연간 가입지위를 기준으로 삼고자 함.
- 즉, 2019년 연간 1개월이라도 부과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함.

○ <표 3-4>~<표 3-6>에서 볼 수 있듯이 연간 1회 이상 부과자 수를 이용할 경우 행정통계와의 차이가 달라짐.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부과자 수를 이용할 경우 행정통계 상의 월 평균 가입자 수를 상회함.
- 고용보험은 연간 1회 이상 부과자 정보를 이용할 경우 행정통계 상의 월평균 가입자 수와 유사한 규모가 됨.
- 산재보험의 경우 연간 1회 이상 부과자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행정통계 상의 적용대상자 수에 비해 여전히 적지만, 그 차이가 약 780만에서 약 500만으로 줄어들게 됨.

□ 연간 1회 이상 부과 여부를 이용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를 지님.

○ 건보공단 테이블에서의 일자리 유형 구분을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고자 할 때(6장에서 상세히 설명 예정) 일자리 및 소득 여부를 이용하여 경제활동 상태 및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일자리와 소득 정보가 연 단위로 제공됨.

- 예컨대 근로자 여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이용하여 근로자 여부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은 연간 소득으로 파악된 것임.
- 연 단위로 파악된 소득과 특정 사회보험의 연간 부과 여부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일 수 있음.

○ <표 3-7>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보험별 연간 보험료 부과 월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12개월 동안 부과된 사람의 비율이 약 60% 안팎임.

- 5개월 이하로 부과된 사람의 비율은 20% 미만임.
- 따라서 연 1회 이상 부과 여부를 이용하여 사회보험 부과 대상자임을 구분하더라도 과잉추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2018년의 각 보험별 부과 개월 수 분포에 대해서는 <부표 2-5>를 참조할 것.

〈표 3-7〉 각 보험별 부과 개월수별 분포(2019년)

(단위: 명, %)

개월수	건강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자(명)	비율(%)	부과자(명)	비율(%)	부과자(명)	비율(%)	부과자(명)	비율(%)
1	90,283	0.2	1,036,723	4.7	524,921	3.8	530,848	3.9
2	96,416	0.2	687,451	3.1	544,412	4.0	559,459	4.1
3	102,963	0.2	599,974	2.7	497,002	3.6	508,094	3.8
4	105,071	0.2	547,204	2.5	439,342	3.2	444,690	3.3
5	98,735	0.2	556,500	2.5	424,225	3.1	429,895	3.2
6	246,901	0.5	599,041	2.7	461,715	3.4	466,676	3.5
7	92,230	0.2	575,151	2.6	417,917	3.1	421,369	3.1
8	95,501	0.2	589,478	2.7	430,267	3.1	438,719	3.3
9	105,109	0.2	652,750	3.0	476,674	3.5	481,392	3.6
10	117,919	0.2	734,332	3.3	529,740	3.9	528,185	3.9
11	115,320	0.2	1,205,707	5.5	654,032	4.8	635,307	4.7
12개월	51,815,883	97.6	14,278,576	64.7	8,293,245	60.6	8,074,012	59.7
계	53,082,331	100.0	22,062,887	100.0	13,693,492	100.0	13,518,646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산재보험 테이블>, 2019년.

□ 그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료와의 차이는 중요한 한 문제이며, 해석상 주의를 요하는 사항임.

○ 각 사회보험 테이블에 포함된 개인은 ‘(건보공단의 보험료 통합)부과대상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며, 이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보험 ‘가입자’ 또는 ‘적용자’라는 개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 연간 1회 이상 부과 여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자의 수는 행정통계와 작지 않은 차이를 보임.

- 이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가운데 통합부과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존재로 인한 것으로 추정됨.
- 그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 산재보험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제2절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 집단의 구분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다른 직군과 달리 연금 및 고용, 산재보험 가입 및 적용 여부를 건강보험 공단의 사회보험테이블을 이용하여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수직역연금은 건보공단의 통합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보공단의 <연금테이블>을 통해 특수직역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 가입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음
- 또한 이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테이블>과 <산재보험테이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참고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격자에 해당되는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인수는 <표 3-8>과 같음.

〈표 3-8〉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 직군의 수

(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공무원	1,160,586	1,195,051
직업군인	183,000	187,051
사립학교교직원	320,326	323,697
총계	1,663,912	1,705,799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이들이 해당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혹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만일 특수직역연금 해당자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분석의 목적에 따라 이 집단을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건강보험 테이블>에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직원은 제외), 군인 및 그 피

부양자에 대해 ‘공·교’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음.

- ‘공·교’ 항목을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식별하는 자료로 이용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과다추정하는 위험성을 줄여 줄 수 있음.
- 그런데 공·교 코드로 구분되는 집단에는 특수직역연금 해당자 뿐 만 아니라 그 피부양자도 포함되는데, 이들까지 연금 및 고용보험에 의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볼 수는 어려움.
 - 따라서 공·교 해당집단 가운데 피부양자는 연금, 고용보험 적용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건강보험 공·교로 구분되는 인구수는 2019년 연 평균 약 394만 명임.
 - 2019년 12월의 경우 40.5%(1,586,075명)는 직장가입자이고 59.5%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임.
 - <표 3-8>에서 보듯이 2019년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총합은 약 171만 명인데, 이는 <건강보험 테이블> 상의 2019년 12월 말 기준 공·교 직장가입자 인원(<표 3-10>))보다 약 12만 명 많은 수치임.

<표 3-9>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교 해당 인구수

(단위: 명)

월	2018년	2019년
1	4,058,172	3,964,318
2	4,054,085	3,961,157
3	4,055,359	3,957,031
4	4,054,821	3,951,671
5	4,052,652	3,951,656
6	4,058,730	3,953,015
7	3,980,328	3,931,988
8	3,978,290	3,931,961
9	3,981,055	3,932,118
10	3,982,005	3,935,305
11	3,982,648	3,941,081
12월	3,960,484	3,917,896
월평균	4,016,552	3,944,100
연간 1회 이상	4,404,078	4,293,18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각년도

〈표 3-10〉 건강보험 가입자 중 ‘공·교’ 해당 집단의 구성

(단위: 명, %)

	2018년 12월		2019년 12월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직장가입자	1,550,687	39.2	1,586,075	40.5
직장가입 피부양자	2,409,797	60.9	2,331,821	59.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각년도

-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교’ 해당자 가운데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할 것임.

제3절 분석 대상 집단의 설정

-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각 보험별 보험료부과 테이블과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과 〈소득-일자리 개인단위 테이블〉을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각 테이블을 결합하여 사용함.

- 4대 보험의 개별 테이블은 연간 한 번이라도 해당 보험료가 부과된 개인을 포함하고 있음.

- 연간 한 번도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반대로 당초 부과 대상이었다가 (예컨대 사망 등의 사유로) 연중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자도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각 보험 테이블 결합하였을 때 그것이 어떤 인구집단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3개 보험의 결합 테이블에 포함된 집단에 대해 가장 적합한 설명은 ‘2019(2018)년 한 해 동안 3개 보험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를 1회 이상 부과 받은 개인의 집

합'임.

○ 그러나 이 경우 연중 사망, 이민 등의 이유로 보험료 부과가 중단된 사람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이들에 대해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까지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고 정책 대상 전체 인구로서의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이하의 분석에서는 '2019년(2018년) 12월 건강보험료 부과자(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기로 함.

○ 즉, 12월에 건강보험료 부과나 의료급여 수급 실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보험료 부과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험 테이블을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과 결합하는 경우에도 12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나 의료급여 수급 기록이 없는 사람은 제외할 것임.

○ 건강보험(의료급여) 부과 대상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의료보장의 포괄성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임.

○ [그림 3-1]은 이와 같은 테이블 결합 과정과 결합 테이블에서의 전체 분석대상 집단을 보여줌.

- 이 그림에서 색칠된 부분이 결합테이블에 포함되는 개인들임.

- 결합테이블의 사회보험 가입(부과) 지위는 연간 1회라도 보험료를 부과 받았는지에 따라 결정됨.

- 결합테이블의 소득은 연간소득을 의미함.

○ 이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된 전체 분석대상 집단의 규모(2019년)를 <인구총조사> 상의 인구 및 <주민등록 인구현황>과 비교한 것이 <표 3-11>과 <표 3-12>임.

- 결합 테이블의 전체 인원은 약 5,261만 명으로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인구에 비해 약 83만 명 많고,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약 76만 명 많은 규모임.
- 결합테이블에 포함된 외국인의 수는 약 121만 명으로 <인구총조사>의 외국인에 비해 약 57만명 적음.

<표 3-11> 3대 보험 결합테이블의 총 인구수(외국인 포함)

(단위: 명, %)

연도	성별	결합테이블		인구총조사(통계청)			주민등록인구(행안부)		
		인구(A)	비율	인구(B)	비율	차이(C=A-B)	인구(D)	비율	차이(E=A-D)
2018	남	26,156,445	50.0	25,877,195	50.1	358,644	25,866,129	49.9	445,898
	여	26,174,731	50.0	25,752,317	49.9	470,686	25,959,930	50.1	312,774
	계	52,331,176	100.0	51,629,512	100.0	829,330	51,826,059	100.0	758,672
2019	남	26,310,714	50.0	25,952,070	50.1	358,644	25,864,816	49.9	445,898
	여	26,297,819	50.0	25,827,133	49.9	470,686	25,985,045	50.1	312,774
	계	52,608,533	100.0	51,779,203	100.0	829,330	51,849,861	100.0	758,67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년도.

<표 3-12> 3대 보험 결합테이블과 인구총조사의 외국인 수 비교

(단위: 명, %)

연도	성별	결합테이블		인구총조사(통계청)		
		인구(A)	비율	인구(B)	비율	차이(C=A-B)
2018	남	523,482	54.5	945,641	57.3	422,159
	여	437,289	45.5	705,920	42.7	-268,631
	계	960,771	100.0	1,651,561	100.0	-690,790
2019	남	675,583	55.7	1,017,408	57.2	-341,825
	여	537,516	44.3	761,510	42.8	-223,994
	계	1,213,099	100.0	1,778,918	100.0	-565,8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 이하의 분석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하기로 함.

○ 건보공단의 자료와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의 인구자료를 비교할 때, 전체 인구의 차이와 비교하여 외국인의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2019년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정책변화에 의해 외국인 건보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다른 통계에서의 외국인 수와의 차이가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

- 즉, 건보공단 자료에서의 외국인 수는 실제 인구보다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내국인에 비해 변동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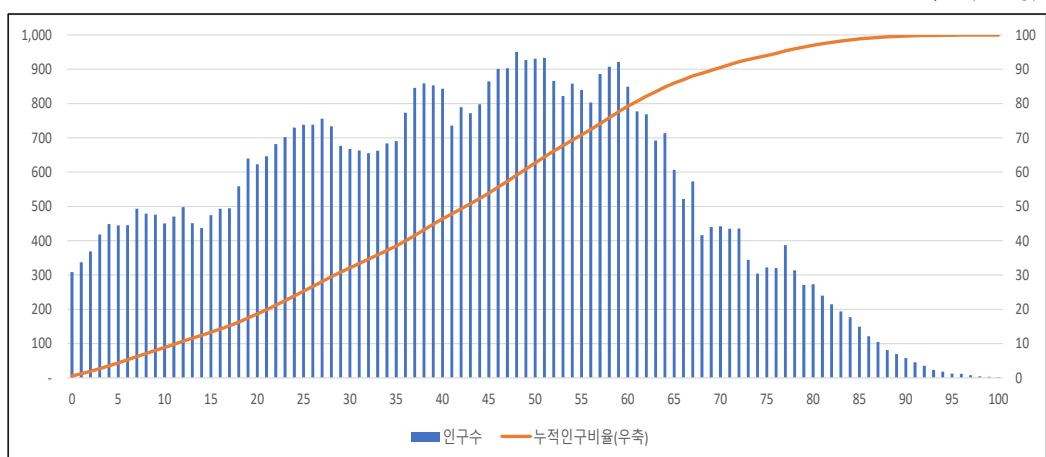
○ 전체 대상 집단의 규모가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의 인구학적 요인이 아닌 사회보험 정책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전체 인구의 연령대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그림 3-2]는 결합테이블의 각 연령별 인구수와 누적비율을, <표 3-13>은 주요 연령대별 분포를 보여줌.

[그림 3-2] 3대 보험 결합테이블의 연령별 인구 및 누적인구비율(2019년)

(단위: 천명,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3-13〉 3대보험 결합테이블 상의 연령대별 인구(내국인)

(단위: 명, %)

연령대	2018년		2019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0~14세	6,160,103	12.0	6,466,684	12.6
15~64세	37,073,782	72.2	37,016,864	72.0
0~17세	7,618,758	14.8	7,924,507	15.4
18~64세	35,615,127	69.3	35,559,041	69.2
65세 이상	8,136,520	15.8	7,911,886	15.4
계	51,370,405	100.0	51,395,434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의 연령 구분에 따라 0~14세, 15~64세, 65세 이상으로 연령대를 구분함.
 - 그러나 아동/성인의 구분이 만 18세이고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18세부터임을 고려하여 0~17/ 18~64/65세 이상으로도 구분함.
- 이하에서는 분석의 초점에 따라 적합한 연령대 구분을 사용할 것이며, 세부 연령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후 각 관련 장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임.

제4절 일자리와 소득 특성

1. 일자리 유형

- 건보공단의 〈소득 개인 단위 테이블〉은 개인별로 연간 일자의 수와 일자의 종류를 개인별로 유형화하여 제공하고 있음.⁸⁾
- 원자료에는 이 항목이 ‘주요 종사상 지위’라는 명칭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통상의 종사상 지위(근로자, 자영자 등)가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8) 일자리 유형 구분 방법에 대한 설명은 2장을 참조할 것.

우선 '일자리 유형'이라고 지칭하기로 함.

○ 일자리 유형에 따른 구분은

- 우선 연간 일자리의 수(0개, 1개, 2개, 3개 이상)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눈 후,
- 그 안에서 (특정) 소득의 유무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각 집단을 세분한 것임.

○ 3절에서 설명한 분석대상 전체 인구(각 연도별 12월에 건강보험 부과 이력이나 의료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대해 일자리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보험별 테이블과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을 개인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결합함.

〈표 3-14〉 일자리 유형별 인구(전 연령)

(단위: 명, %)

일자리 유형	2018년		2019년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일자리 없음	21,599,332	42.0	21,039,555	40.9
소득 있음(근로, 사업소득 이외)	1,973,934	3.8	2,041,986	4.0
소득 없음	19,625,398	38.2	18,997,569	37.0
일자리 1개	19,941,931	38.8	20,268,558	39.4
(근로자)2년 이상 근무	6,474,736	12.6	6,604,494	12.9
(근로자)1~2년 근무	2,173,659	4.2	2,446,436	4.8
(근로자)6개월1년 근무	1,072,348	2.1	1,222,647	2.4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973,407	1.9	1,004,813	2.0
(근로자)근로기간 미분류	20,443	0.0	24,800	0.1
일용근로자	3,062,434	6.0	2,683,418	5.2
법인고용주	271,937	0.5	268,766	0.5
개인고용주	3,388,142	6.6	3,406,707	6.6
자영업	2,429,841	4.7	2,534,571	4.9
특고	74,984	0.2	71,906	0.1
일자리 2개	7,599,822	14.8	7,769,740	15.1
일용근로+자영업	954,327	1.9	953,017	1.9
(근로자)6개월 미만+일용근로	878,156	1.7	993,905	1.9
(근로자)2년 이상+ 자영업	797,488	1.6	775,408	1.5
(근로자)1~2년 +(근로자)6개월 미만	502,241	1.0	381,543	0.7
개인고용주 + 자영업	504,368	1.0	590,648	1.2
기타 일자리 2개	3,963,242	7.7	4,075,219	7.9
일자리 3개 이상	2,229,320	4.3	2,317,581	4.5
계	51,370,405	100.0	51,395,434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전체 인구에 대해 파악한 일자리 유형별 규모와 비율은 <표 3-14>와 같음.
 - 2019년 기준 일자리가 없는 인구의 비율은 40.9%이며 일자리가 1개인 인구는 39.4%임.
 - 전체 연령대를 대상으로 일자리 유형을 구분한 것인 만큼 일자리 없는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일자리 없음을 제외하면 개별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집단임(12.9%).
 -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한 연령대의 일자리 유형 분포는 6장에서 다시 살펴볼 예정임.

2. 소득 특성

가. 전체 인구의 소득 특성

- 각 보험별 테이블과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을 결합하여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평균적 소득수준과 소득분포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음.
-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소득 관련 항목은 상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적 및 공적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임.
 - 단, 임대소득은 2019년에 한해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2018년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2018년과 2019년의 금융소득 및 총소득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에서 제공되는 소득항목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가적인 소득범주를 정의함.

- 근로소득 = 상용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노동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임대소득(2019년만 포함)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각 인구집단별 소득 특성에 대해 살펴볼 때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연령대의 비중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집단별 소득 관련 통계량(평균, 분위수 등)은 해당 집단의 전체 인구와 그 가운데 해당 소득을 얻고 있는 인구(이하 유(有)소득자로 지칭할 것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표 3-15>에서 보듯이 2019년 전체 인구 가운데 상용근로소득을 얻는 인구의 비율은 40.1%였으며, 근로소득을 얻는 인구의 비율은 47.7%임.
- 사업소득을 얻는 인구는 20.3%, 노동소득을(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느 하나라도)얻는 인구는 57.8%임.
-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적연금 등을 얻는 인구는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함.
- 공적연금 및 연금(공·사적연금을 합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을 얻는 인구는 10%에 미치지 못함.
-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소득을 얻는 인구는 전체의 62.0%로 나타남.

○ <표 3-15>는 전체 인구의 소득원천별 평균소득과 10분위 수(전체를 10개 분위로 구분하였을 때의 분위 구분값)을 보여주고 있음.

- 2019년 상용근로소득의 평균은 연 약 1,846만 원이고 중위값(p50)은 0원임. 중위값이 0인 이유는 전체 국민의 약 60%가 상용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임.
- 상용근로소득을 얻는 인구로 한정할 경우 평균은 연 약 4,600만 원, 중위값은 약 2,990만 원임.
- 사업소득을 얻는 자의 평균 사업소득은 약 1,360만 원이고 중위값은 576만 원으로 나타남.
- 소득이 있는 인구의 평균 총소득은 약 3천8백 만 원이고 중위값은 약 2천2백 만 원임.

○ 2018년의 각 소득원천별 10분위 값에 대해서는 <부표 2-6>을 참조할 것.

- 또한 2018년과 2019년의 각 소득원천별 100분위 수에 대해서는 <부표 2-7>~<부표 2-8>을 참조할 것.

104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표 3-15〉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소득 분포(2019년)

(단위: 천원, %)

소득	구분	비율(%)	평균	p10	p20	p30	p40	p50	p60	p70	p80	p90
상용근로소득	전체		18,462	0	0	0	0	0	158	16,440	29,963	55,382
	유소득자	40.1	46,077	6,000	12,893	19,622	24,000	29,900	37,624	48,092	65,065	99,790
일용근로소득	전체		1,505	0	0	0	0	0	0	0	0	800
	유소득자	13.3	11,338	231	581	1,069	1,800	2,700	3,650	6,150	12,558	34,618
근로소득	전체		19,967	0	0	0	0	0	4,680	19,600	32,466	59,455
	유소득자	47.7	41,879	2,430	7,037	14,400	21,000	26,418	34,205	44,870	61,500	95,422
사업소득	전체		2,759	0	0	0	0	0	0	0	10	3,800
	유소득자	20.3	13,562	80	410	1,090	2,190	3,650	5,760	8,990	14,600	28,270
노동소득	전체		22,726	0	0	0	0	2,545	9,926	21,745	35,240	63,296
	유소득자	57.8	39,317	1,680	4,423	9,430	16,350	22,835	30,062	40,562	56,694	90,618
금융소득	전체		286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0.3	93,304	20,901	23,120	26,080	30,200	34,851	43,160	56,891	86,010	164,300
임대소득	전체		12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0.4	3,028	520	1,000	1,560	2,040	2,520	3,104	3,840	4,800	6,400
사적연금소득	전체		6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0.1	6,860	1,650	2,380	3,180	3,940	5,060	6,380	7,290	8,400	13,120
공적연금소득	전체		724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8.9	8,107	1,672	2,279	2,839	3,423	4,142	5,115	6,767	10,319	22,207
연금소득소득	전체		731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9.0	8,156	1,673	2,281	2,841	3,427	4,148	5,127	6,797	10,383	22,380
기타소득	전체		69	0	0	0	0	0	0	0	0	0
	유소득자	3.1	2,216	20	60	80	130	220	380	740	1,810	4,890
총소득	전체		23,754	0	0	0	349	3,940	11,620	23,031	36,699	64,452
	유소득자	62.0	38,333	1,825	4,140	8,230	14,860	22,050	29,270	39,375	54,865	88,083

주: 유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얻는 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나. 성별, 연령대별 소득 특성

- <표 3-16>은 전체 분석대상 인구의 성별 소득수준을 보여줌.
- 2019년 기준 남성의 총소득은 약 3,360만 원으로 여성(약 1,395만 원)에 비해 많으며, 소득이 있는 집단으로 한정할 경우 남성의 총소득은 약 4,897만 원, 여성은 약 2,521만 원으로 나타남.
 -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 68.6%, 여성 55.3%임.
- 소득원천별로 보면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원에서 남성 중 유소득자의 비율이 여성 중 유소득자 비율에 비해 높음.

〈표 3-16〉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성별 평균 소득

(단위: 천원, %)

연도	성별	구분	상용 근로 소득	일용 근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노동 소득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사적 연금 소득	공적 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총소득
2018	남	전체 평균	24,932	1,643	26,575	3,672	30,247	387		7	1,079	1,086	96	31,720
		유소득자 비율(%)	44.5	15.2	53.6	19.7	62.5	0.3		0.1	11.4	11.4	3.6	67.6
		유소득자 평균	56,059	10,810	49,605	18,606	48,376	122,158		7,189	9,474	9,518	2,692	48,966
	여	전체 평균	10,326	468	10,793	1,721	12,514	145		2	260	262	34	12,921
		유소득자 비율(%)	32.7	12.3	40.4	18.6	50.9	0.2		0.0	5.2	5.2	2.7	53.7
		유소득자 평균	31,558	3,795	26,725	9,242	24,590	79,683		7,020	5,021	5,047	1,267	24,847
2019	남	전체 평균	25,819	2,457	28,276	3,739	32,015	406	14	10	1,160	1,170	99	33,605
		유소득자 비율(%)	46.0	14.6	54.0	21.0	63.3	0.4	0.4	0.1	12.1	12.2	3.5	68.6
		유소득자 평균	56,082	16,806	52,367	17,777	50,547	107,565	3,228	6,844	9,556	9,612	2,837	48,966
	여	전체 평균	11,141	557	11,698	1,784	13,482	166	11	3	291	293	39	13,951
		유소득자 비율(%)	34.1	11.9	41.4	19.7	52.3	0.2	0.4	0.0	5.7	5.8	2.7	55.3
		유소득자 평균	32,645	4,669	28,263	9,074	25,783	70,481	2,800	6,919	5,058	5,091	1,427	25,211

주: 유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얻는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표 3-17>~<표 3-19>는 15~89세 인구의 연령 구간별 소득수준을 보여줌.
- <표 3-17>에 따르면 총소득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5~49세 구간이며(평균 약 4,284만 원), 이 연령대를 정점으로 전 후 연령대의 총소득은 점차 낮아짐.
 - 근로소득으로 국한하더라도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5~49세 구간임(평균 약 3,725만 원)
 - 그러나 이러한 평균값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까지를 포함하여 계산된 것임.
- 각 연령대별 특정 소득을 얻는 사람의 비율은 <표 3-18>에서 제시함.
 - 상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각각 30~34세, 25~29세 구간이며, 사업소득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50~54세 구간임.
 - 어느 한 종류의 소득이라도 얻는 사람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34세 구간임.
- <표 3-19>에서 보듯이 유소득자로 한정할 경우 상용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소득의 평균값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54세 구간임.
 - 일용근로소득은 55~59세에서 가장 높고 연금소득은 50~54세 구간에서 가장 높음.
- 2018년의 연령대별 평균 소득수준과 유소득자 비율, 그리고 유소득자 평균소득에 대해서는 <부표 2-9>~<부표 2-11>을 참조할 것.

108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표 3-17〉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평균소득 분포(15~89세, 2019년)

(단위: 명, 천원)

연령대	인구	상용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노동 소득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사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총소득
15~19	2,651,236	551	336	887	80	966	42	0	0	0	0	4	1,009
20~24	3,306,430	6,518	1,024	7,542	504	8,046	75	0	0	0	0	41	8,120
25~29	3,473,594	21,268	980	22,248	1,202	23,450	115	1	0	0	0	102	23,566
30~34	3,138,197	29,504	941	30,446	2,056	32,502	175	4	0	0	0	86	32,681
35~39	3,880,219	32,374	1,221	33,596	3,316	36,912	178	11	0	0	0	85	37,101
40~44	3,843,767	34,608	1,652	36,260	4,539	40,798	242	20	0	4	4	103	41,064
45~49	4,448,735	34,954	2,294	37,248	5,213	42,461	336	24	0	18	18	117	42,839
50~54	4,304,934	33,398	2,950	36,348	5,461	41,809	403	25	0	74	75	109	42,312
55~59	4,251,924	26,626	3,264	29,890	5,145	35,035	508	25	13	427	440	105	36,008
60~64	3,717,828	14,384	2,950	17,333	3,995	21,329	576	22	42	2,991	3,033	93	24,959
65~69	2,514,605	8,218	1,857	10,075	2,919	12,994	597	18	30	4,330	4,360	57	17,969
70~74	1,946,425	4,670	961	5,631	2,161	7,792	588	13	9	3,537	3,546	33	11,938
75~79	1,606,634	2,179	555	2,733	1,485	4,218	486	7	3	2,346	2,349	22	7,061
80~84	1,093,232	1,047	320	1,367	1,025	2,392	418	4	1	1,538	1,539	12	4,353
85~89	524,408	562	134	696	644	1,341	316	2	0	1,043	1,043	10	2,70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3-18〉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비율 (2019년)

(단위: 명, %)

연령대	인구	상용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노동 소득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사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총소득
15~19	2,651,236	7.1	18.6	22.1	6.6	24.9	0.0	0.0	0.0	0.0	0.0	1.3	25.0
20~24	3,306,430	38.0	33.7	58.1	20.3	65.3	0.1	0.0	0.0	0.0	0.0	5.7	65.3
25~29	3,473,594	67.2	17.3	74.0	21.2	82.0	0.1	0.0	0.0	0.0	0.0	6.2	82.0
30~34	3,138,197	68.7	10.2	72.9	22.0	82.6	0.1	0.2	0.0	0.0	0.0	5.2	82.6
35~39	3,880,219	64.0	9.7	68.4	25.5	80.4	0.2	0.4	0.0	0.0	0.0	4.8	80.4
40~44	3,843,767	61.9	10.8	67.0	28.6	80.5	0.2	0.6	0.0	0.0	0.0	4.6	80.6
45~49	4,448,735	59.6	12.8	65.8	30.9	80.4	0.4	0.8	0.0	0.1	0.1	4.2	80.5
50~54	4,304,934	55.9	14.7	63.3	31.3	78.7	0.5	0.8	0.0	0.3	0.3	3.5	78.8
55~59	4,251,924	49.4	15.6	57.7	30.3	73.5	0.6	0.8	0.2	2.1	2.2	2.9	74.4
60~64	3,717,828	38.9	15.6	47.6	27.0	63.3	0.7	0.7	0.6	33.5	33.6	2.2	73.3
65~69	2,514,605	27.6	14.3	36.9	21.1	50.8	0.6	0.6	0.5	50.9	50.9	1.6	70.4
70~74	1,946,425	16.9	14.5	28.4	15.2	39.2	0.6	0.4	0.1	50.6	50.6	1.1	66.2
75~79	1,606,634	7.8	15.7	22.1	9.7	29.4	0.5	0.2	0.0	41.6	41.6	0.8	56.9
80~84	1,093,232	3.0	11.8	14.4	5.9	19.1	0.4	0.1	0.0	22.4	22.4	0.5	36.8
85~89	524,408	1.2	5.4	6.5	3.5	9.4	0.3	0.1	0.0	12.0	12.0	0.3	20.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110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표 3-19〉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평균소득(2019년)

(단위: 명, %)

연령대	상용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노동 소득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사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총소득
15~19	7,763	1,800	4,005	1,203	3,874	110,746	2,284	0	0	0	264	4,039
20~24	17,162	3,034	12,977	2,476	12,322	118,964	2,507	2,975	0	2,975	721	12,430
25~29	31,669	5,654	30,048	5,667	28,612	120,113	2,425	4,670	0	4,670	1,649	28,745
30~34	42,919	9,239	41,781	9,333	39,340	139,480	2,732	5,716	0	5,716	1,656	39,546
35~39	50,619	12,629	49,137	13,018	45,905	113,104	2,874	6,934	8,592	7,313	1,776	46,117
40~44	55,899	15,294	54,084	15,893	50,682	98,656	3,026	7,498	14,635	13,923	2,248	50,967
45~49	58,662	17,954	56,633	16,868	52,829	86,495	3,080	8,313	23,343	22,653	2,780	53,231
50~54	59,723	20,075	57,402	17,455	53,150	82,850	3,085	6,985	25,134	24,868	3,072	53,667
55~59	53,884	20,886	51,835	16,976	47,638	85,997	3,093	7,561	20,707	20,164	3,602	48,403
60~64	36,931	18,937	36,432	14,777	33,672	86,828	3,011	6,939	8,940	9,033	4,172	34,049
65~69	29,744	13,031	27,284	13,829	25,597	95,891	2,967	6,040	8,512	8,568	3,513	25,519
70~74	27,590	6,631	19,815	14,243	19,867	98,485	2,985	7,532	6,993	7,009	2,862	18,043
75~79	27,767	3,542	12,368	15,333	14,332	98,328	3,058	9,406	5,638	5,645	2,848	12,401
80~84	34,985	2,702	9,481	17,453	12,512	97,820	3,116	8,720	6,872	6,874	2,540	11,833
85~89	47,351	2,499	10,781	18,536	14,245	95,941	3,275	10,262	8,667	8,668	3,539	13,422

주: 해당 소득이 있는 인구만의 평균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다. 일자리 유형별 소득 특성

-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표 3-20> ~<표 3-22>까지 일자리 유형별 평균소득, 유소득자 비율, 유소득자 평균소득을 보여줌.
- 일자리 유형에 따른 집단구분인 만큼 소득원천별로 유소득자의 분포는 차이가 두드러짐(<표 3-21>).
 - 근로소득은 근로자로서의 이력을 갖고 있는 1개 일자리 보유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사업소득은 개인고용주, 자영업, 특고의 대부분에서 관측됨.
 - 2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닌 집단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모두 관측되는데, 이는 6장에서 종사상 지위를 구분할 때 다시 논의될 것임.
- 유소득자로 국한할 경우 평균 상용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근로기간 정보가 없는 ((근로)미분류) 집단으로, 평균 약 8,225만원의 상용근로소득을 얻음.
- 고용주를 제외한 자영업자(일자리 1개)의 유소득자 평균 사업소득은 연간 약 6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총소득이 가장 높은 일자리 유형은 (근로)미분류 집단(약 연 9천만 원)이고 일용근로자, 자영업, 특고의 총소득 수준은 연간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자영업자 가운데에는 일자리가 2개 이상인 사람이 다수 존재하여,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소득 수준은 종사상 지위에 대한 엄밀한 구분이 선행된 이후에 정확히 비교할 수 있을 것임.
 - 종사상 지위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후 6장에서 논의할 것임.
- 한편 2018년의 일자리 유형별 평균소득, 유소득자 비율, 유소득자 평균소득 등에 대해서는 <부표 2-12> ~<부표 2-14>를 참조할 것.

112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표 3-20〉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평균 소득(2019년)

(단위: 천원)

일자리 유형	상용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노동 소득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사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총소득
미취업 소득유	18,462	1,505	19,967	2,759	22,726	286	12	6	724	731	69	23,754
미취업 소득무	-	-	-	-	-	892	-	13	8,140	8,152	-	9,045
(근로자)2년 이상 근무	-	-	-	-	-	-	-	-	-	-	-	-
(근로자)1~2년 근무	62,568	37	62,605	3	62,608	129	16	2	407	409	4	63,162
(근로자)6개월1년 근무	34,428	-	34,428	-	34,428	248	31	9	823	833	-	35,540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28,631	-	28,631	-	28,631	105	10	9	823	832	-	29,577
(근로자)미분류	11,247	-	11,247	-	11,247	81	5	7	721	728	-	12,061
일용근로자	82,156	-	82,156	-	82,156	4,307	111	143	3,389	3,532	-	90,106
법인고용주	-	8,357	8,357	-	8,357	19	1	0	566	566	-	8,944
개인고용주	71,586	10	71,597	12	71,608	7,128	53	32	1,515	1,547	656	80,337
자영업	13,941	1	13,942	23,523	37,466	503	29	25	1,180	1,205	14	39,203
특고	-	-	-	4,893	4,893	76	4	5	662	667	302	5,641
일용+자영업	349	29	378	6,769	7,147	1	0	0	319	319	4	7,468
(근로자)6개월미만+일용근로	-	7,812	7,812	2,648	10,461	12	1	1	250	251	98	10,725
(근로자)2년 이상+자영업	9,019	20,727	29,746	-	29,746	19	1	1	527	528	-	30,294
(근로자)1~2년+6개월 미만	67,898	33	67,931	1,028	68,959	140	9	4	334	338	533	69,446
개인고용주+자영업	36,886	-	36,886	-	36,886	65	10	4	594	598	-	37,558
그 외 2개	8,726	2	8,728	19,107	27,835	475	27	22	679	701	635	29,038
3개 이상 일자리	40,987	1,933	42,920	5,346	48,266	1,033	34	17	789	806	188	50,14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3-21〉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소득 있는 자 비율(2019년)

(단위: 명, %)

일자리 유형	인구(명)	상용 근로 소득	일용 근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노동 소득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사적 연금 소득	공적 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총소득
미취업 소득유	2,041,986	0.0	0.0	0.0	0.0	0.0	1.3	0.0	0.1	99.0	99.0	0.0	100.0
미취업 소득무	18,997,56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근로자)2년 이상 근무	6,604,494	100.0	0.2	100.0	0.0	100.0	0.1	0.5	0.0	5.0	5.0	0.6	100.0
(근로자)1~2년 근무	2,446,436	100.0	0.0	100.0	0.0	100.0	0.4	1.0	0.1	8.6	8.6	0.0	100.0
(근로자)6개월1년 근무	1,222,647	100.0	0.0	100.0	0.0	100.0	0.1	0.3	0.2	8.6	8.6	0.0	100.0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1,004,813	100.0	0.0	100.0	0.0	100.0	0.1	0.2	0.1	7.1	7.1	0.0	100.0
(근로자)미분류	24,800	99.9	0.0	99.9	0.0	99.9	4.0	3.2	2.2	13.7	13.9	0.0	99.9
일용근로자	2,683,418	0.0	99.9	99.9	0.0	99.9	0.0	0.1	0.0	12.7	12.7	0.0	99.9
법인고용주	268,766	95.3	0.2	95.4	0.0	95.5	5.4	1.5	0.4	14.2	14.3	5.0	96.3
개인고용주	3,406,707	22.5	0.0	22.5	93.6	96.3	0.9	0.9	0.3	17.5	17.6	0.1	96.9
자영업	2,534,571	0.0	0.0	0.0	82.2	82.2	0.1	0.2	0.1	6.5	6.5	15.2	83.8
특고	71,906	1.3	1.2	2.3	96.3	98.4	0.0	0.0	0.0	5.7	5.7	0.9	98.4
일용+자영업	953,017	0.0	99.9	99.9	88.6	100.0	0.0	0.1	0.0	4.5	4.5	11.7	100.0
(근로자)6개월미만+일용근로	993,905	100.0	99.9	100.0	0.0	100.0	0.0	0.1	0.0	8.4	8.4	0.0	100.0
(근로자)2년 이상+자영업	775,408	100.0	0.3	100.0	46.2	100.0	0.2	0.3	0.1	3.3	3.4	49.0	100.0
(근로자)1~2년+6개월 미만	381,543	100.0	0.0	100.0	0.0	100.0	0.1	0.3	0.1	6.8	6.8	0.0	100.0
개인고용주+자영업	590,648	19.1	0.0	19.1	98.5	99.6	0.6	0.9	0.3	8.4	8.5	11.0	99.6
그 외 2개	4,075,219	93.7	20.7	98.5	44.0	99.9	0.9	1.0	0.3	8.0	8.0	7.4	99.9
3개 이상 일자리	2,317,581	94.2	57.3	97.7	66.2	97.9	0.6	2.0	0.2	6.6	6.7	12.9	99.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114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표 3-22〉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유소득자 평균 소득(2019년)

(단위: 천원)

일자리 유형	상용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노동 소득	금융 소득	임대 소득	사적연금 소득	공적연금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총소득
미취업 소득유	-	-	-	-	-	66,573	-	9,638	8,222	8,233	-	9,045
미취업 소득무	-	-	-	-	-	-	-	-	-	-	-	-
(근로자)2년 이상 근무	62,568	15,473	62,605	39,002	62,608	91,585	3,000	5,114	8,083	8,111	723	63,162
(근로자)1~2년 근무	34,428	-	34,428	-	34,428	61,602	3,135	6,568	9,556	9,638	-	35,540
(근로자)6개월1년 근무	28,631	-	28,631	-	28,631	79,041	2,771	5,774	9,548	9,639	-	29,577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11,247	-	11,247	-	11,247	74,675	2,437	6,137	10,188	10,277	-	12,061
(근로자)미분류	82,249	-	82,249	-	82,249	107,142	3,453	6,394	24,819	25,387	-	90,171
일용근로자	-	8,363	8,363	-	8,363	60,017	2,054	10,288	4,442	4,446	-	8,949
법인고용주	75,119	4,988	75,025	24,021	75,013	131,893	3,599	8,029	10,673	10,829	13,020	83,428
개인고용주	61,901	5,201	61,862	25,140	38,890	57,653	3,204	7,431	6,755	6,860	15,014	40,452
자영업	-	-	-	5,956	5,956	60,516	2,442	6,214	10,260	10,318	1,986	6,728
특고	27,794	2,419	16,402	7,031	7,265	49,900	2,817	550	5,561	5,560	498	7,587
일용+자영업	-	7,818	7,818	2,988	10,462	53,894	1,964	6,111	5,572	5,591	837	10,726
(근로자)6개월미만+일용근로	9,019	20,738	29,746	-	29,746	73,393	2,021	6,947	6,301	6,315	-	30,294
(근로자)2년 이상+자영업	67,900	12,936	67,932	2,223	68,960	74,281	3,520	6,209	9,970	10,006	1,089	69,447
(근로자)1~2년+6개월 미만	36,886	-	36,886	-	36,886	70,752	2,847	5,703	8,719	8,767	-	37,558
개인고용주+자영업	45,752	4,155	45,696	19,397	27,956	77,442	3,011	6,637	8,101	8,244	5,777	29,144
그외 2개	43,746	9,318	43,585	12,138	48,323	110,691	3,332	6,610	9,902	10,030	2,544	50,193
3개 이상 일자리	40,493	14,083	47,318	8,045	52,682	171,867	2,707	6,393	10,348	10,464	2,917	53,77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제1절 이론적 검토

제2절 건강보험 적용 현황과 특성

제3절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제4절 소결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제1절 이론적 검토

- 사회 안전망은 넓은 의미로는 각종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롯한 일시적인 소득보장 제도를 모두 포함하며, 좁은 의미로는 제도화되고 지속성을 갖는 공적 제도를 의미함(김옥희, 1999).
-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총3단계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고, 이 중 1차 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으로 구축되어 있음.
- 이처럼 1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그 대상 범위가 전 국민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각지대는 개도국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전통적인 사각지대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로 구분됨(석재은, 2004).
 - 사각지대의 발생의 원인은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의 충분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기도 하며,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음(석재은, 2004).
 - 첫 번째, 법/제도적으로 당연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배제유형으로 사회보험은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당연 적용 범위가 설정되고 불완전 근로계층은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됨, 현실적으로 비공식 부문 조사자 및 일정 소득이하 저임금 근로자 등 보험료를 납부할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해 사실상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계층으로 나누어짐.
 - 두 번째, 법적으로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소득 파악 능력 등 관리행정의 역량 부족이나 징수 등 행정적 태만으로 적극적인 적용 노력이

부족한 경우 발생(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비정규근로자 등).

- 세 번째, 자발적 배제는 제도에 불응하고 적용대상 스스로가 회피함으로써 발생함(제도 정착이 불완전하고, 비공식부문이 크며,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은 개도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1. 건강보험 사각지대 관련 선행연구

- 이준영(2004)은 적용 대상의 사각지대 및 급여의 불충분으로 인한 건강보험이 사각지대를 정의하고 있음.
 - 적용대상의 사각지대 : 법적으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므로 사각지대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을 체납하는 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를 제한 받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정의함.
 - 급여의 불충분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 의료비의 본인부담에 있어서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비율이 높아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계층이나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신영석 외(2006)은 비자발적(경제적 요인 등)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제한을 받는 자 및 본인부담의 과도함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으로 정의함.
- 신영전(2009)은 보험료 체납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쪽방 거주자 및 노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주 여성 등으로 의료보장 제외자 및 급여범위의 협소함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자로 정의함.
- 신현웅(2009)은 자격측면과 보장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자격측면에서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결여된 비수급 빈곤층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이용 제약을 받는 집단, 보장성 측면의 사각지대는 급여 수준에서의 부족한 보장률과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집단으로 정의함.

- 김제선(2011)은 자격측면 뿐만 아니라 급여의 적용범위와 수준 등 보장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함.
- 박일수(2013)은 자격 측면과 보장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하여 급여 제한을 받은자(자격측면) 및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는 집단(보장성 측면)으로 정의함.
- 서정희·백승호(2014)는 4대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변화와 그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사각지대 규모 추정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별도로 추정함.
- 신영석 등(2016)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사각지대 구분하여 소득 10분위별로 사회보험별 적용률을 개별 사회보험별로 비교 가입률의 양극화 현상 파악함.
 - 협의의 개념 : 법과 제도 측면에서 제외된 계층, 법·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측면에서 제외된 계층. 비자발적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는 자와 국내 의료보장 체계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 광의의 개념 : 급여의 충분성(적정성)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 급여 수준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

〈표 4-1〉 건강보험 사각지대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건강보험 사각지대 정의	분석방법
이준영 (2004)	· 적용대상의 사각지대 :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제한을 받는 자 · 급여 불충분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이 높아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	-
신영전 (2009)	· 보험료 체납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쪽방거주자 및 노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결혼 이주 여성 등으로 의료보장 제외자 및 급여 범위의 협소함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자	문헌연구
신현웅 (2009)	· 자격 측면과 보장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자격측면에서는 보험료부담능력이 결여된 비수급 빈곤층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의료이용 제약을 받는 집단, 보장성 측면의 사각지대는 급여수준에서의 부족한 보장률과 과도한 본인부담으로 인해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집단으로 정의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박일수 (2013)	· 자격 측면과 보장성 측면으로 구분하면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을 받는 자 및 미충족의료수요가 있는 집단으로 정의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서정희· 백승호 (2014)	법적 적용범위 개념에 기초, 임금근로자의 사각지대를 체납·미납 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경우, 적용제외자인 경우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규정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신영석 외 (2016)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 포괄〉 · 협의의 개념 : 법과 제도측면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 법과 제도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 측면에서 제외되어 있는 계층 · 광의의 개념 : 협의의 개념 + 급여의 충분성(적정성)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 - 급여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은 급여수준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계층	문헌연구 통계자료 분석

2. 본 연구에서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정의

○ 실제 법적 적용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급여에서 제외된 “비자발적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 제한을 받은 자”를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정의함.

- 법·제도적 측면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에 의하면 의료급여⁹⁾를 받는 자와 의료보호¹⁰⁾를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므로 법·제도적 사각지대는 없음.

9)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을 의미함.

- 단, 실제 적용 측면에서 비자발적 보험료 체납으로 급여를 제한받는 자, 국내 의료보장체계에서 제외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규정(법 제6조 2항¹¹⁾)에 따라 직장가입 적용제외자가 존재함.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는 건강보험자격정보가 없는 대상자 중 주민등록관련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행방불명, 노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사각지대 파악이 필요하므로 본 건강보험 자격 자료로는 분석이 불가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제외 규정에 따라 다수의 일용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지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제외 규정에 의해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으로 편입된 이들을 사각지대로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여부, 연간 근로소득 금액 이외에 월별 근무일수(일부 파악), 일당 근무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본 자료에는 근무시간과 월별 근무일수가 부재하여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규정에 따른 정확한 사각지대 규모는 파악이 불가함.
 - 김연명(2010)은 이들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아니어도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실질적 가입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함.
- 급여의 충분성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각 개인의 소득 등에 따른 의료이용의 충분성이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이러한 사유로 본 연구에서는 법의 실제 적용 측면에 있어서 급여 제한자만을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정의함.

○ 건강보험 급여제한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외 다양한 사유가 존재함.

1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자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하는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 ② 공단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1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6회 미만)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 ④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해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위 규정에도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 급여제한 자료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음.

○ 이에 현재 법적 규정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보험료 체납이 6개월 이상인 납부의 무자 중에서 미성년자 및 분할납부자를 제외한 인원을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정의함.

제2절 건강보험 적용 현황과 특성

1. 의료보장 적용현황 기초 통계

〈표 4-2〉의료보장 적용현황 (8월 기준)

구 분 (8월)		2018년		2019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의료보장	직장	17,071,147	32.31	17,039,597	32.10
	피부양	19,963,008	37.78	19,888,724	37.47
	지역세대주	6,513,985	12.33	6,485,216	12.22
	지역세대원	7,246,636	13.72	7,214,350	13.59
	의료급여	1,506,301	2.85	1,488,454	2.80
	자격없음	534,981	1.01	965,986	1.82
전체		52,836,058	100.00	53,082,327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각년도.

○ 2018년 8월 기준 의료보장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17,071천 명(32.3%), 피부양자는 19,963천 명(37.4%), 지역세대주 6,513천 명(12.3%), 세대원 7,246천 명(13.7%) 의료급여 1,506천 명(2.8%) 자격없음은 534천 명(1%)임. 2019년 8월에는 직장가입자 17,039천 명(32.1%)로 전년도와 유사, 피부양자는 19,888천 명(37.5%), 지역세대주 6,485천 명(12.2%), 지역세대원 7,214천 명(13.6%)로 다소 감소, 의료급여는 동일, 자격없음은 965천 명(1.8%)로 증가함.

〈표 4-3〉의료보장 적용현황 (12월 기준)

구 분 (12월)		2018년		2019년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의료보장	직장	17,273,609	32.7	17,266,167	32.5
	피부양	19,670,577	37.2	19,654,385	37.0
	지역세대주	6,607,333	12.5	6,599,269	12.4
	지역세대원	7,297,129	13.8	7,287,343	13.7
	의료급여	1,482,528	2.8	1,478,570	2.8
	자격없음	504,882	1.0	796,593	1.5
전체		52,836,058	100.00	53,082,327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각년도.

- 12월 기준 자격현황은 2018년 직장가입은 17,273천 명(32.7%), 피부양자 19,670천 명(37.2%), 지역세대주 6,607천 명(12.5%), 지역세대원 7,297천 명(13.8%), 의료급여 1,482천 명(2.8%), 자격없음 504천 명(1%), 2019년의 경우 2018년의 자격과 유사하였으며 자격없음만 796천 명(1.5%)으로 증가함.

〈표 4-4〉 성별 특성(2018년 8월)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의료보장	직장	17,071,147	10,103,864	38.2	6,967,283	26.4
	피부양	19,963,008	8,391,168	31.7	11,571,840	43.8
	지역세대주	6,513,985	4,206,155	15.9	2,307,830	8.7
	지역세대원	7,246,636	2,755,420	10.4	4,491,216	17.0
	의료급여	1,506,301	685,445	2.5	820,856	3.1
	자격없음	534,981	303,117	1.1	231,864	0.8
전체		52,836,058	26,445,169	100.0	26,390,889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표 4-5〉 성별 특성(2018년 12월)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의료보장	직장	17,273,609	10,211,840	38.6	7,061,769	26.8
	피부양	19,670,577	8,262,966	31.2	11,407,611	43.2
	지역세대주	6,607,333	4,255,134	16.1	2,352,199	8.9
	지역세대원	7,297,129	2,751,670	0.4	4,545,459	17.2
	의료급여	1,482,528	674,835	2.6	807,693	3.1
	자격없음	504,882	288,724	1.1	216,158	0.8
전체		52,836,058	26,445,169	100.0	26,390,889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2018년 8월과 12월의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 자격현황을 살펴봄. 2018년 8월 기준으로 남성 중 직장가입자는 38.2%, 피부양자는 31.7%, 지역세대주 15.9%, 세대원 10.4%, 의료급여 2.5%로 나타남. 여성은 직장가입자 26.4%, 피부양자 43.8%, 지역세대주 8.7%, 세대원 17%, 의료급여 3.1%로 나타남.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역세대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12월 기준 자격 현황도 유사함.

〈표 4-6〉 성별 특성(2019년 8월)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의료보장	직장	17,039,597	10,080,012	37.9	6,959,585	26.3
	피부양	19,888,724	8,354,700	31.4	11,534,024	43.5
	지역세대주	6,485,216	4,189,185	15.8	2,296,031	8.7
	지역세대원	7,214,350	2,740,412	10.3	4,473,938	16.9
	의료급여	1,488,454	676,253	2.5	812,201	3.1
	자격없음	965,986	536,996	2.0	428,990	1.6
전체		53,082,327	26,577,558	100.0	26,504,769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표 4-7〉 성별 특성(2019년 12월)

구 분		전체	남성		여성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의료보장	직장	17,266,167	10,206,243	38.4	7,059,924	26.6
	피부양	19,654,385	8,255,157	31.1	11,399,228	43.0
	지역세대주	6,599,269	4,250,645	16.0	2,348,624	8.9
	지역세대원	7,287,343	2,747,244	10.3	4,540,099	17.1
	의료급여	1,478,570	672,809	2.5	805,761	3.0
	자격없음	796,593	445,460	1.7	351,133	1.3
전체		53,082,327	26,577,558	100.0	26,504,769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2019년 8월과 12월 성별에 따른 의료보장 적용현황을 살펴봄. 2018년 12월 기준 남성 중에서 직장가입자는 37.9%, 피부양자 31.4%, 지역세대주 15.8%,

세대원 10.3%, 의료급여 2.5%로 나타남. 여성 중에 직장가입자는 26.3%, 피부양자 43.5%, 지역세대주 8.7%, 세대원 16.9%, 의료급여 3.1%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적용현황은 2018년과 19년 유사함. 8월에 비해 12월에 피부양자 비율이 다소 감소하며 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비율은 다소 증가함.

〈표 4-8〉 연령별 특성(2018년 8월)

(단위: 명, %)

구 분		전체	-14		15-19		20-29		30-39	
			빈도 (명)	백분율 (%)	빈도(명)	백분율 (%)	빈도(명)	백분율 (%)	빈도(명)	백분율 (%)
의료 보장	직장	17,071,147	45,044	0.72	33,442	1.26	226,176	3.23	737,074	9.99
	피부양	19,963,008	1,166,206	18.75	550,128	20.66	1,148,232	16.40	1,005,707	13.63
	지역세대주	6,513,985	161	0.00	13,303	0.50	2,328,805	33.26	4,197,019	56.89
	지역세대원	7,246,636	4,781,961	76.87	1,966,277	73.83	3,114,214	44.48	1,305,909	17.70
	의료급여	1,506,301	112,160	1.80	96,327	3.62	132,866	1.90	59,993	0.81
	자격없음	534,981	115,365	1.85	3,893	0.15	51,623	0.74	72,365	0.98
전체		52,836,058	6,220,897	100.00	2,663,370	100.00	7,001,916	100.00	7,378,067	100.00

구 분		전체	40-49		50-59		60-69		70-79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의료 보장	직장	17,071,147	1,365,046	16.06	1,773,637	20.15	1,314,103	20.43	677,623	18.30
	피부양	19,963,008	1,096,178	12.90	1,002,539	11.39	731,432	11.37	346,846	9.37
	지역세대주	6,513,985	4,472,484	52.62	3,896,922	44.28	1,759,625	27.36	370,792	10.01
	지역세대원	7,246,636	1,363,480	16.04	1,807,275	20.53	2,324,493	36.14	2,029,841	54.82
	의료급여	1,506,301	153,003	1.80	264,772	3.01	253,891	3.95	233,872	6.32
	자격없음	534,981	49,577	0.58	56,467	0.64	47,957	0.75	43,848	1.18
전체		52,836,058	8,499,768	100.00	8,801,612	100.00	6,431,501	100.00	3,702,822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2018년 연령별 적용현황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연령대 중 직장가입자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1,773천 명이며 다음은 40대가 1,365천 명으로 많았음. 60대도 1,314천 명이 직장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나 높은 비중을 차지함.

피부양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14세 미만으로 1,166천 명이었고, 다음으로 20대가 1,148천 명으로 나타남.

- 지역세대주는 40대에서 4,472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세대원은 14세 미만에서 4,781천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2. 일자리 종사상 지위 분류¹²⁾에 따른 의료보장 적용현황

〈표 4-9〉 일자리 종사상 지위 분류별 의료보장 적용현황(2018년 12월)

(단위: 명, %)

구 분	전체(명)	의료보장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	피부양	의료급여	미가입
1. 일자리 없음	22,174,571	10.2	18.5	0.2	64.2	5.5	1.4
소득 있음	2,022,137	21.3	7.3	0.4	65.6	3.2	2.4
소득 없음	20,152,434	9.1	19.7	0.2	64.1	5.7	1.3
2. 일자리 1개	20,555,068	15.5	11.1	52.6	19.1	1.0	0.6
2년 이상 근무	6,610,245	0.1	0.1	99.4	0.3	0.2	0.0
1-2년 근무	2,317,816	0.6	0.6	96.2	2.0	0.4	0.2
6개월-1년 근무	1,127,630	9.8	8.1	57.4	21.4	0.6	2.7
6개월 미만 근무	1,045,450	11.7	12.7	35.8	34.2	1.2	4.5
미분류	20,579	29.2	17.7	18.9	30.0	4.1	0.2
일용근로자	3,192,568	21.0	18.0	0.5	56.6	3.2	0.8
법인고용주	275,103	4.2	0.8	89.8	4.6	0.2	0.3
개인고용주	3,410,325	48.7	24.2	21.0	5.6	0.3	0.3
자영업	2,479,465	22.7	24.5	0.6	49.7	2.2	0.4
특고	75,887	32.3	35.9	1.5	28.6	1.4	0.3
3. 일자리 2개	7,824,001	12.3	9.6	60.9	16.0	0.6	0.6
일용+자영업	992,095	23.4	22.0	0.4	51.7	2.0	0.5
6개월 미만+일용	935,246	16.3	13.6	33.9	32.3	1.0	2.8
2년이상+자영업	804,049	0.1	0.1	99.3	0.4	0.1	0.0
1-2년+6개월 미만	523,135	1.4	1.1	94.6	2.6	0.3	0.0
개인고용+자영업	508,143	41.9	31.3	17.6	8.8	0.4	0.1
그 외 일자리 2개	4,061,333	8.7	5.8	75.3	9.3	0.4	0.4
4. 일자리 3개 이상	2,282,418	9.0	6.8	72.5	10.9	0.3	0.5
전체	52,836,058	12.5	13.8	32.7	37.2	2.8	1.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각년도.

12) 종사상 지위는 소득발생 전 단위 테이블을 통해 개인의 근로성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없는 이들을 일자리 없음으로 분류(일자리 없음은 금융·연금소득이 있으면 소득있음, 없으면 소득없음으로 분류), 일자리있는 개인은 일자리 있음으로 분류함.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보유에 따라 일자리유형을 분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 고용주로 분류하였고, 임금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2년이상, 1-2년미만, 6개월-1년미만, 6개월미만, 일용근로, 근무기간없는 미분류로 분류함. 자영업은 1인자영업과 특고로 분류하고 고용주는 자영업 중 사업장등록의 대표자를 분류함. 연간 여러 유형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개인은 일자리 2개, 3개 이상 등으로 분류하였음. 각 개인은 위의 종사상지위 분류 중 어느 한 유형에 속하며 서로 배타적임.

○ 2018년 12월 기준 전국민의 일자리 유형별 의료보장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개 일자리 종사자 중 2년 이상 근무 임금근로 일자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99.3%, 1년 이상-2년 미만 일자리의 직장가입률은 96.2%임. 이중 피부양자 적용률은 각각 0.3%, 2.0%에 불과함.

○ 반면, 근무기간이 짧은 6개월 -1년 미만의 임금근로 일자리에서는 직장가입률 57.4%, 피부양은 21.4%이며, 6개월 미만 임금근로에서는 직장가입 35.8%, 피부양 34.2%,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 0.5%, 피부양 56.6%로 나타나며, 특고는 1.5%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0〉 일자리 종사상 지위 분류별 의료보장 적용현황(2019년 12월)

(단위: 명,%)

구 분	전체(명)	의료보장					
		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	직장	피부양	의료급여	미가입
1. 일자리 없음	21,691,793	10.3	18.2	0.7	63.1	5.5	2.2
소득 있음	2,092,594	21.7	7.5	1.8	65.9	3.2	0.1
소득 없음	19,599,199	9.1	19.3	0.6	62.7	5.8	2.5
2. 일자리 1개	20,956,630	14.5	10.8	53.5	19.4	1.0	0.9
2년 이상 근무	6,740,813	0.1	0.1	99.4	0.3	0.2	0.0
1-2년 근무	2,611,671	0.9	0.9	95.1	2.5	0.4	0.2
6개월-1년 근무	1,280,490	10.3	12.2	41.0	32.6	1.1	2.8
6개월 미만 근무	1,067,047	9.8	13.1	37.3	34.8	1.5	3.5
미분류	25,141	22.8	16.4	30.2	26.5	3.2	0.9
일용근로자	2,843,007	19.2	16.7	1.9	56.6	3.0	2.8
법인고용주	272,015	4.0	0.9	90.6	4.2	0.2	0.2
개인고용주	3,431,613	47.2	23.5	21.5	7.4	0.3	0.1
자영업	2,611,935	21.7	23.7	2.0	49.3	2.1	1.2
특고	72,898	31.2	34.8	2.5	29.7	1.4	0.3
3. 일자리 2개	8,047,202	13.1	10.7	55.2	19.1	0.7	1.2
일용+자영업	1,022,008	22.0	20.8	2.3	49.6	2.0	3.3
6개월 미만+일용	1,069,435	19.4	15.2	22.8	37.9	1.1	3.6
2년이상+자영업	782,878	0.1	0.1	99.3	0.4	0.1	0.0
1-2년+6개월 미만	395,715	0.4	0.4	97.5	1.3	0.3	0.1
개인고용+자영업	595,920	39.9	30.2	17.8	11.4	0.4	0.2
그 외 일자리 2개	4,181,246	9.1	7.3	69.4	13.1	0.5	0.6
4. 일자리 3개 이상	2,386,702	11.9	9.3	61.3	16.1	0.5	0.9
전체	53,082,327	12.4	13.7	32.5	37.0	2.8	1.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2019년 12월 기준 2년 이상 근무 임금근로 일자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99.4%, 1년 이상-2년 미만의 일자리는 직장가입 95.1%로 2018년에 비해 다소 감소함.
- 6개월 -1년 미만의 일자리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41%로 매우 낮으며 2018년(57.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음. 6개월 미만 일자리에서는 37.3%, 일용근로자 중에서는 1.9%, 특고는 2.5%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으로 나타남.
- 근무기간이 짧고 일용근로나 특고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3절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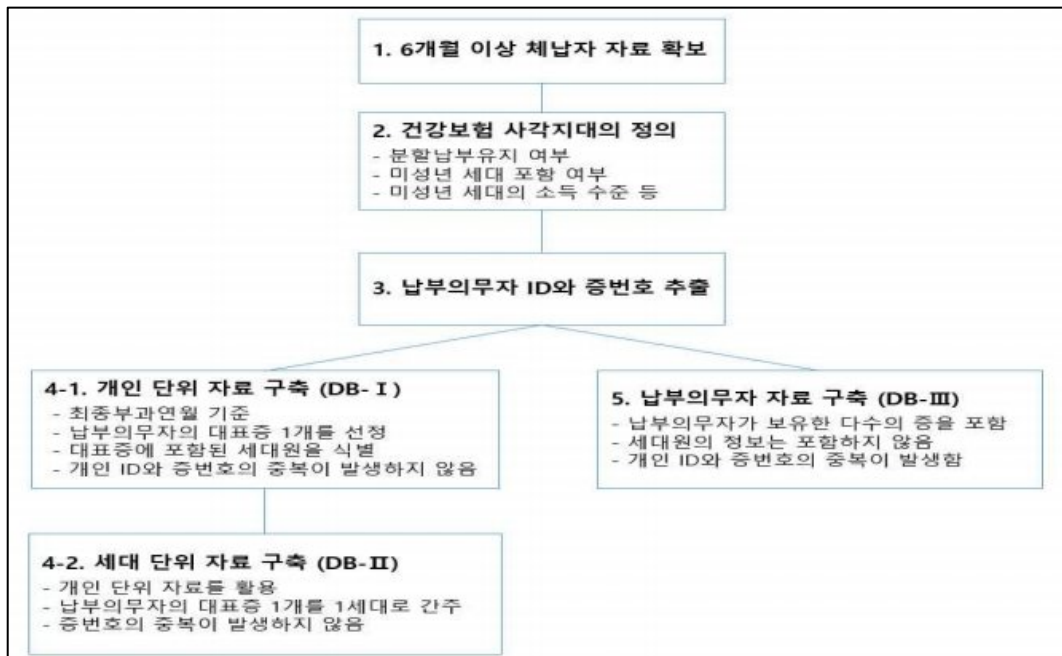
1.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과 제5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46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정의함.
 - 월별보험료의 총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소득 재산 등이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음.
 - 또한 6개월 이상 체납이더라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1회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음.
 - 미성년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재산이 없는 미성년 세대는 납부의무를 면제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p58).
- 건강보험 사각지대 = 기준시점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분할납부 유지 자+ 미성년 세대 중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면서 사업소득 등이 없는 자)

2. 체납자 자료 구축 및 사각지대 분류

-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실의 체납자 DB 중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를 발췌하여 장기체납세대의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함.
- 2018년 12월말과 2019년 12월말 기준 납부의무자¹³⁾의 체납 건강보험증번호, 체납보험료, 체납개월, 개인식별번호 등의 체납자 DB와 <소득-개인단위 테이블>을 개인식별번호와 건강보험증번호로 연계함.

[그림 4-1] 건강보험 체납자 DB 구축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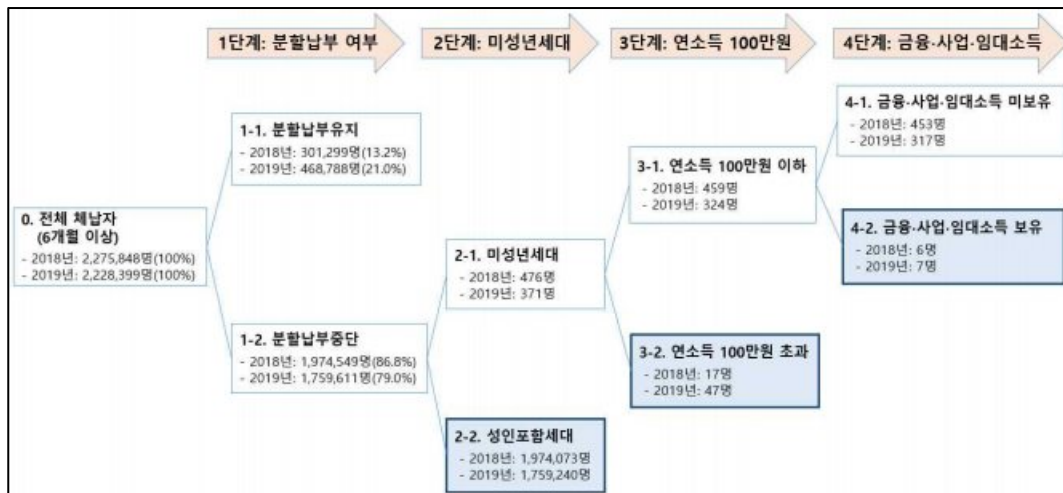


- 체납자 자료에는 개인당 1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보유한 납부의무자가 존재함¹⁴⁾.

13) 건강보험 납부의무자는 지역가입 세대 내에서 세대를 대표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의무를 지니는 세대구성원을 말함. 대부분 납부의무자는 세대주와 동일하나 세대주가 다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납부의무자는 세대주와 동일하지 않음

- 따라서 [그림 4-1]에서 <4-1. 개인 단위 자료 구축>과 <4-2. 세대 단위 자료 구축> 단계에서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다수의 건강보험증을 보유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최종부과연월이 가장 최근인 건강보험증 1개를 해당 납부의무자의 주된 체납 건으로 선정함.
- 반면, [그림 4-1]에서 <5. 납부의무자 자료 구축> 단계에서는 납부의무자가 6개월 이상 체납한 모든 증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 체납자 DB에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분류하는 과정은 다음의 [그림 4-2]에 제시되어 있음.
 - 체납자 DB에서 총 4개의 기준을 사용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분류함.
 - 6개월 이상 체납자 중에서 분할납부 여부에 따라 분할납부 유지자 제외, 미성년 세대 여부 파악, 미성년 세대 중 연소득 100만 원 이하 여부 파악, 그 중에서 금융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미보유자 제외의 순서임.

[그림 4-2]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분류 및 사각지대 규모



- 14)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는 건강보험증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개인의 건강보험자격은 직장에 따라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변화함. 체납은 체납보험료를 납부 완료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됨. 따라서 세대구성이 변화하거나 가입자의 자격이 변화해도 여전히 체납보험증이 유지됨에 따라 한 개인이 여러 개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게 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2018년 1,974,096명, 2019년 1,759,294명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2,275,848명 중 1,974,096명(86.7%)임.
-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는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2,228,399명 중 1,759,294명(78.9%)임.

〈표 4-11〉 6개월 이상 체납자의 사각지대 현황

(단위: 명, %)

연도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A)	분할 납부자 (B)	미성년 세대 (C)	건강보험 사각지대 (=A-B-C)
2018	2,275,848	301,299	453	1,974,096
	(100.0)	(13.2)	(0.02)	(86.7)
2019	2,228,399	168,788	317	1,759,294
	(100.0)	(21.0)	(0.01)	(7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 각년도.

3.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가. 체납자 자료 설명 및 분석 개요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2018년 기준 1,974,096명 중 납부의무자 1,481,587명(75.1%), 세대원 492,509명(24.9%)로 구성됨.
- 2019년 기준 1,759,294명 중 납부의무자 1,355,908명(77.1%)과 세대원 403,386명(22.9%)로 구성됨.

□ 다음의 〈표 4-12〉에는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와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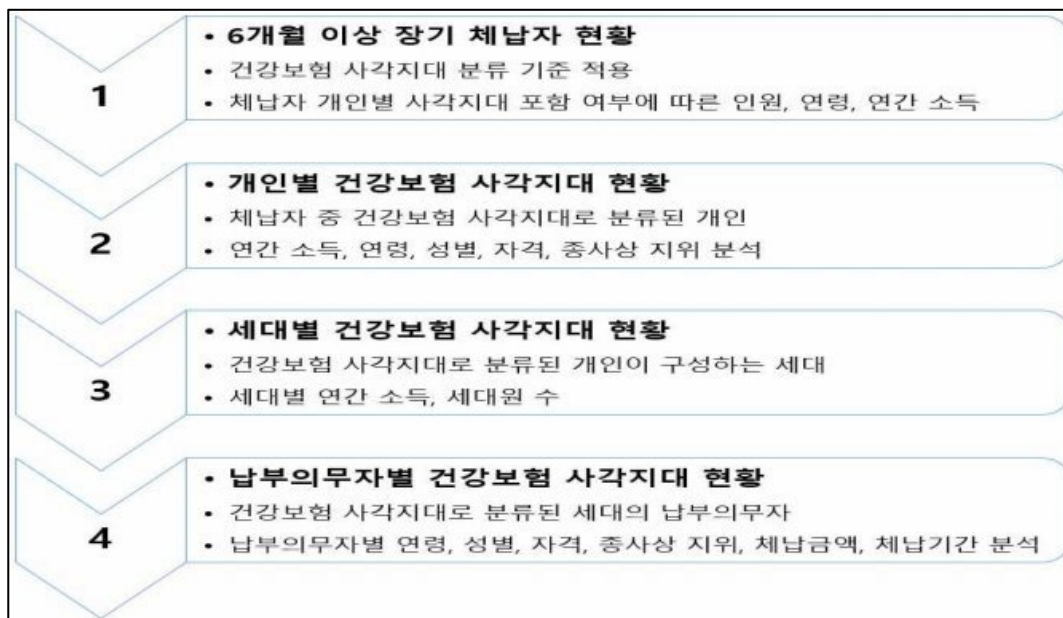
〈표 4-12〉 체납자 자료의 주요 변수와 내용

변수명	내용
개인소득(합계)	개인별 금융,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일용근로, 주택임대 소득의 합계
세대소득(합계)	건강보험증별 금융, 사업, 근로, 기타, 연금, 일용근로, 주택임대 소득의 합계
체납개월수	체납된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포함된 체납개월수
체납보험료	체납된 건강보험 보험료의 총금액
종사상 지위	일자리테이블을 통해 분류한 개인의 연간 종사상 지위
분할납부 유지 여부	분할납부 신청 후 유지 여부

□ 체납자 자료 분석 개요

○ 건강보험 체납자 DB의 분석 내용은 4개의 파트로 구성됨.

[그림 4-3] 체납자 DB 분석 내용



나.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자

□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 소득 및 연령 특성은 다음과 같음.

○ 6개월 이상 보험료 전체 체납자들의 연간 소득은 10,065천 원(2018년),

12,002천 원(2019년)으로 분석됨. 이중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소득은 10,025천 원(2018년), 11,869천 원(2019년)이며, 사각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자들의 소득은 10,327천 원(2018년), 12,500천 원(2019년)으로 분석됨.

-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실제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에 비해 조금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4-13〉 6개월 이상 체납자 개인별 전체 현황

(단위: 명, %, 세, 천원)

사각지대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아니오	301,752	469,105	43.4	42.4	10,327	12,500
	13.3	21.1	47.0	46.0	2,860	3,400
예	1,974,096	1,759,294	43.2	42.7	10,025	11,869
	86.7	78.9	46.0	45.0	2,310	2,530
합계	2,275,848	2,228,399	43.2	42.6	10,065	12,002
	100.0	100.0	46.0	45.0	2,395	2,704

주: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① 분할 납부를 유지하지 않는 세대에 포함된 개인, ② 분할 납부를 유지 하지 않으면서 미성년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연소득 1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 포함된 개인, ③ 분할 납부를 유지 하지 않으면서 미성년으로만 구성된 세대 중 연소득 100만원 이하 사업 또는 금융소득이 있는 세대에 포함된 개인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다. 건강보험 사각지대(개인)

□ 개인단위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사각지대 1,974,096명 중 납부의무자는 1,481,587명(75.1%), 세대원은 492,509명(24.9%)임.

- 납부의무자의 평균 연령은 47.9세인 반면, 세대원은 29.3세로써 납부의무자의 연령이 높은 편임.
- 납부의무자의 연평균소득은 12,077천 원이며, 세대원은 3,851천 원으로 납부

의무자의 소득이 높음.

○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사각지대 1,759,294명 중 납부의무자는 1,355,908명(77.1%), 세대원은 403,386명(22.9%)임.

- 납부의무자의 평균 연령은 46.8세인 반면, 세대원은 28.8세로써 납부의무자의 연령이 높은 편임.
- 납부의무자의 연평균소득은 14,096천 원이며, 세대원은 4,382천 원으로 납부의무자의 소득이 높음.

〈표 4-14〉 납부의무자와 세대원 현황

(단위: 명, %, 세, 천원)

구분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납부의무자	1,481,587	1,355,908	47.9	46.8	12,077	14,096
	75.1	77.1	49.0	47.0	4,484	4,616
세대원	492,509	403,386	29.3	28.8	3,851	4,382
	24.9	22.9	24.0	24.0	0	0
합계	1,974,096	1,759,294	43.2	42.7	10,025	11,869
	100.0	100.0	46.0	45.0	2,310	2,5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881,258명(44.6%, 2018년), 774,684명(44.0%, 2019년)로 가장 많은 대상자들이 낮은 소득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그 외 소득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이 1,000~2,000만 원 구간이 13.55(2018년), 12.6%(2019년)로 높았으며, 500~1,000만 원 구간이 11.1%(2018년), 10.7%(2019년) 순으로 분석됨.

〈표 4-15〉 개인 소득구간별 현황

(단위: 명, %, 세, 천원)

소득구간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100만원 이하	881,285 44.6	774,684 44.0	40.2 44.0	40.0 43.0	59 0	58 0
100~300만원 이하	158,560 8.0	136,674 7.8	45.2 46.0	44.8 45.0	1,982 1,969	1,987 1,975
300~500만원 이하	124,724 6.3	106,702 6.1	45.1 46.0	44.3 45.0	3,980 3,970	3,971 3,950
500~1,000만원 이하	219,280 11.1	188,011 10.7	44.9 46.0	43.7 45.0	7,333 7,250	7,322 7,222
1,000~2,000만원 이하	265,994 13.5	222,016 12.6	45.5 47.0	44.1 45.0	14,567 14,340	14,481 14,210
2,000~3,000만원 이하	144,055 7.3	131,138 7.5	45.8 47.0	44.7 46.0	24,467 24,163	24,394 24,025
3,000~4,000만원 이하	76,751 3.9	69,021 3.9	46.6 47.0	45.4 46.0	34,508 34,270	34,552 34,350
4,000~5,000만원 이하	40,705 2.1	40,404 2.3	47.4 48.0	46.4 47.0	44,503 44,260	44,546 44,320
5,000만원 초과	62,742 3.2	90,644 5.2	48.0 49.0	47.7 49.0	87,018 66,179	90,080 73,480
합계	1,974,096 100.0	1,759,294 100.0	43.2 46.0	42.7 45.0	10,025 2,310	11,869 2,5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성별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분류된 대상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 2018년 남성 1,216,204명(61.6%), 여성 757,892(38.4%)이며, 2019년 남성 1,097,841명(62.4%), 여성 661,453명(37.6%)임.

○ 남성의 연평균 소득이 여성보다 높음.

- 2018년 남성의 연평균소득은 12,572천 원, 여성은 5,937천 원이며, 2019년 남성 15,190천 원, 여성 6,356천 원임.

〈표 4-16〉 성별 현황

(단위: 명, %, 세, 천원)

성별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남성	1,216,204 61.6	1,097,841 62.4	44.1 47.0	43.5 46.0	12,572 4,230	15,190 4,600
여성	757,892 38.4	661,453 37.6	41.9 43.0	41.3 42.0	5,937 460	6,356 510
합계	1,974,096 100.0	1,759,294 100.0	43.2 46.0	42.7 45.0	10,025 2,310	11,869 2,5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연령대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연령 구간이 40~49세와 50~59세 구간이 다른 연령대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40~49세는 460,136명(23.3%), 50~59세는 505,794명(25.6%)임.
- 2019년 기준 40~49세는 415,345명(23.6%), 50~59세는 430,836명(24.5%)임.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중 19세 이하에서도 대략 1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14세 이하 대상자들은 123,119명(6.2%, 2018년), 111,014명(6.3%, 2019년)임.
- 15~19세 구간에서는 61,603명(3.1%, 2018년), 51,370명(2.9%, 2019년)임.

○ 연평균 소득은 40~49세와 50~59세 구간이 다른 연령대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평균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40~49세 구간에서 12,641천 원이며, 그 다음으로 50~59세 구간에서 12,115천 원, 30~39세 구간에서 11,732천 원 순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50~59세 구간에서 15,027천 원이며, 그 다음으로 40~49세 구간에서 14,098천 원, 30~39세 구간에서 13,083천 원 순

으로 분석됨.

〈표 4-17〉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천원)

연령대	대상(인원/비중)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14세 이하	123,119 6.2	111,014 6.3	7 0	8 0
15~19세	61,603 3.1	51,370 2.9	352 0	995 0
20~29세	225,765 11.4	213,108 12.1	7,294 2,613	9,004 3,520
30~39세	323,935 16.4	309,694 17.6	11,732 5,060	13,083 5,052
40~49세	460,136 23.3	415,345 23.6	12,641 4,654	14,908 4,830
50~59세	505,794 25.6	430,836 24.5	12,115 3,915	15,027 4,200
60~69세	207,585 10.5	171,031 9.7	10,153 2,789	11,595 2,660
70~79세	44,106 2.2	37,968 2.2	5,261 100	4,796 20
80세 이상	22,053 1.1	18,928 1.1	1,632 0	1,404 0
합계	1,974,096 100.0	1,759,294 100.0	10,025 2,310	11,869 2,5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의료보장 자격 유형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2018년 12월, 2019년 12월 기준)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중 의료보장 유형은 지역세대주와 지역세대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12월 기준 전체 1,974,096명 중 지역세대주 902,764명(45.7%), 지역세대원 691,958명(35.1%)로 지역가입자가 전체의 80.8%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장가입자 239,300명(12.1%), 직장피부양자 119,523명(6.1%) 순으로 분석됨.
- 2019년 12월 기준 전체 1,759,294명 중 지역세대주 832,955명(47.3%), 지역세대원 592,919명(33.7%)로 지역가입자가 전체의 81.0%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직장가입자 227,646명, 직장피부양자 84,144명(4.8%) 순으로 분석됨.

8%) 순으로 분석됨.

○ 직장가입자가 다른 자격의 연평균 소득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10,025천 원(2018년), 11,869천 원(2019년)이며, 이중 직장가입자가 29,426천 원(2018년), 33,749천 원(2019년)으로 분석됨.

〈표 4-18〉 의료보장 자격유형별 현황

(단위: 명, %, 세, 천원)

자격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지역세대주	902,764	832,955	49.1	48.1	9,361	10,748
	45.7	47.3	50.0	49.0	2,659	2,530
지역세대원	691,958	592,919	33.7	33.4	5,016	5,890
	35.1	33.7	33.0	33.0	0	0
직장가입자	239,300	227,646	45.3	44.7	29,426	33,749
	12.1	12.9	46.0	45.0	21,816	23,761
직장피부양자	119,523	84,144	48.6	47.3	5,664	6,334
	6.1	4.8	51.0	49.0	300	108
자격없음	20,551	21,630	49.4	47.6	7,264	10,173
	1.0	1.2	50.0	48.0	65	70
합계	1,974,096	1,759,294	43.2	42.7	10,025	11,869
	100.0	100.0	46.0	45.0	2,310	2,5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건강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근로성 소득¹⁵⁾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속한 대상자 중에서 근로성 소득이 없는 그룹은 2018년 753,737명(38.2%), 2019년 664,148명(37.8%)임.
- 사각지대 대상자 중에서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은 2018년 1,220,359명(61.8%), 2019년 1,095,146(62.2%)임.

15) 근로성 소득은 일(work)과 관련된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의미함.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과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 간에 연평균소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2018년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의 연평균소득은 16,125천 원인 반면,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은 148천 원임.
- 2019년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의 연평균소득은 18,966천 원인 반면,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은 166천 원임.

〈표 4-19〉 종사상 지위 현황 1-근로성 소득 보유 여부

(단위: 명, %, 세, 천원)

근로성 소득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없음	753,737	664,148	40.4	40.3	148	166
	38.2	37.8	44.0	44.0	0	0
있음	1,220,359	1,095,146	44.9	44.1	16,125	18,966
	61.8	62.2	46.0	45.0	9,400	10,124
합계	1,974,096	1,759,294	43.2	42.7	10,025	11,869
	100.0	100.0	46.0	45.0	2,310	2,530

주: 근로성 소득 없음: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보유하지 않음. 단, 근로성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연금 소득은 보유할 수 있음.

근로성 소득 있음: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1건 이상 보유하며, 동시에 금융, 연금 소득도 보유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은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 소득)을 보유한 그룹과 소득이 전혀 없는 그룹으로 분류함.
- 2019년 기준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664,148명(100%) 중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소득)이 있는 그룹은 17,733명(2.7%)이며, 없는 그룹은 646,415명(97.3%)임.
-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소득)이 있는 그룹의 연간 소득은 2018년 평균 6,237천 원, 2019년 평균 6,222천 원임.

○ 채납자 중에서는 연간 어떠한 소득도 없는 대상자는 2018년 753,737명,

2019년 646,415명임.

〈표 4-20〉 종사상 지위 현황 2-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는 그룹

(단위: 명, %, 세, 천원)

종사상지위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소득 있음	17,917 2.4	17,733 2.7	69.6 69.0	68.7 67.0	6,237 3,629	6,222 3,743
소득 없음	735,820 97.6	646,415 97.3	39.7 43.0	39.5 43.0	0 0	0 0
합계	753,737 100.0	664,148 100.0	40.4 44.0	40.3 44.0	148 0	166 0

주: 소득 있음: 근로성 소득(사업, 근로, 기타 소득)은 보유하지 않으나, 금융·연금 소득을 1건 이상 보유함.

소득 없음: 연간 어떠한 소득도 보유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¹⁶⁾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 중에서 일용근로자, 개인고용주, 자영업에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일용근로자 251,216명(20.6%, 2018년)·183,416명(16.7%, 2019년), 개인고용주 148,689명(12.2%, 2018년)·125,538명(11.5%, 2019년), 자영업자 170,583명(14.0%, 2018년)·163,086명(14.9%, 2019년)으로 분석됨.
- 연간 평균 소득은 2년 이상 근무, 법인고용주, 6개월 미만근무+일용근로, 일자리 3개 이상에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년 이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29,908천 원(2018년)·30448천 원(2019년), 법인고용주 29,565천 원(2018년)·29,169천 원(2019년), 6

16) 종사상 지위는 소득발생 건 단위 테이블을 통해 개인의 근로성 소득(근로,사업,기타소득)이 없는 이들을 일자리 없음으로 분류(일자리 없음은 금융·연금소득이 있으면 소득있음, 없으면 소득없음으로 분류), 일자리있는 개인은 일자리 있음으로 분류함. 근로소득과 사업·기타소득보유에 따라 일자리유형을 분류,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 고용주으로 분류하였고, 임금근로자는 근무기간에 따라 2년이상, 1-2년미만, 6개월-1년미만, 6개월미만, 일용근로, 근무기간없는 미분류로 분류함. 자영업은 1인자영업과 특고로 분류하고 고용주는 자영업 중 사업장등록의 대표자를 분류함. 연간 여러 유형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개인은 일자리 2개, 3개 이상 등으로 분류하였음. 각 개인은 위의 종사상지위 분류 중 어느 한 유형에 속하며 서로 배타적임.

개월 미만근무+일용근로자인 경우 22,922천 원(2018년)·35,273천 원(2019년), 일자리 3개 이상 근로자에서는 27,129천 원(2018년)·33,644천 원(2019년)으로 분석됨.

〈표 4-21〉 종사상 지위 현황 3-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

(단위: 명, %, 세, 천원)

종사상지위		대상(인원/비중)		연령(평균/중위)		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일자리 1개	2년 이상 근무	38,174 3.1	29,435 2.7	47.1 48.0	47.4 48.0	29,908 25,700	30,448 26,154
	1-2년 근무	39,297 3.2	49,753 4.5	45.4 46.0	44.1 44.0	21,858 19,200	23,026 21,000
	6개월-1년 근무	28,872 2.4	27,723 2.5	43.8 43.0	42.9 42.0	19,941 17,333	21,131 18,643
	6개월 미만 근무	54,879 4.5	47,316 4.3	41.9 41.0	41.0 40.0	8,653 6,239	8,931 6,416
	미분류	489 0.0	652 0.1	41.6 42.0	38.6 38.0	63,476 16,320	44,018 13,070
	일용근로자	251,216 20.6	183,416 16.7	46.5 49.0	45.9 48.0	11,253 5,400	13,835 5,140
	법인고용주	3,824 0.3	3,518 0.3	51.6 52.0	51.0 51.0	29,565 17,100	29,169 18,000
	개인고용주	148,689 12.2	125,538 11.5	48.1 48.0	47.2 48.0	15,130 6,180	15,375 6,000
	자영업	170,583 14.0	163,086 14.9	44.0 45.0	42.8 43.0	6,984 3,220	6,762 3,090
	특고	8,024 0.7	6,273 0.6	46.3 47.0	44.8 45.0	6,169 4,580	6,325 4,610
	일용근로 + 자영업	100,196 8.2	93,666 8.6	43.5 46.0	42.7 45.0	12,760 8,176	14,976 8,410
일자리 2개	6개월 미만근무 + 일용근로	81,224 6.7	83,220 7.6	43.8 46.0	44.7 47.0	22,922 14,929	35,273 20,993
	2년 이상근무 + 자영업	4,253 0.3	3,194 0.3	45.6 46.0	45.9 46.0	34,063 26,951	35,367 28,854
	1-2년 근무 + 6개월 미만 근무	11,017 0.9	8,137 0.7	43.8 44.0	42.9 43.0	22,179 19,504	23,342 19,148
	개인고용주 + 자영업	36,429 3.0	35,746 3.3	45.7 46.0	44.5 45.0	15,943 7,580	15,958 7,405
	그 외 일자리 2개	134,252 11.0	121,751 11.1	44.1 45.0	42.9 43.0	23,084 15,536	24,433 16,342
	일자리 3개 이상	108,941 8.9	112,722 10.3	42.3 43.0	41.9 42.0	27,129 18,602	33,644 21,074
합계		1,220,359 100.0	1,095,146 100.0	44.9 46.0	44.1 45.0	16,125 9,400	18,966 10,12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라. 건강보험 사각지대(세대)

□ 세대 단위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건강보험 사각지대 세대는 2018년 기준 1,482,900세대, 2019년 기준 1,356,919세대임.

- 건강보험 사각지대 세대 중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세대¹⁷⁾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8년 기준 전체 건강보험 사각지대 1,482,900세대 중 21세대(0.01%), 2019년 1,356,919명 중 50세대(0.01%)로 분석됨.

○ 세대 구성 유형별 연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성인포함 세대의 경우 13,346천 원(2018년)·15,389천 원(2019년)으로 미성년만으로 구성된 세대¹⁸⁾의 연평균 소득 8,034천 원(2018년)·11,763천 원(2019년)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22〉 미성년세대 현황

(단위: 세대, %, 천원, 명)

유형	세대(개수/비중)		세대소득(평균/중위)		세대원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성인포함세대	1,482,879 99.90	1,356,869 99.90	13,346 5,653	15,389 5,757	0.33 0.00	0.30 0.00
미성년세대	21 0.01	50 0.01	8,034 4,307	11,763 3,860	0.10 0.00	0.08 0.00
합계	1,482,900 100.00	1,356,919 100.00	13,346 5,653	15,389 5,757	0.33 0.00	0.30 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세대 구성원¹⁹⁾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세대 구성을 살펴본 결과, 1인 가구들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가장 많이 부포되는 것으로 분석됨.

- 세대원이 0명인 세대가 1,211,721명(81.7%, 2018년)·1,127,745명(83.

17) 미성년 세대는 납부의무자를 포함하여 모든 세대원이 18세 이하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함.

18) 납부의무자가 미성년자인 세대는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로 인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독립 등 가족구조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 책임이 자녀에게 이전된 것이며, 약간의 소득과 재산(연소득 100만원 초과, 재산 보유)이 있기 때문에 납부면제 되지 않는 세대임.

19) 세대구성원은 세대를 구성하는 인원을 집계하였으며, 세대원 없이 납부의무자 1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세대원을 0인으로 표기함.

1%, 2019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3인 가구 순으로 분석됨.

○ 세대별 연간 소득은 5인 이상 세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세대별 연간 소득의 평균과 중위수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세대원수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5인 이상 세대의 평균 소득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 구성의 평균 소득보다 대략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5인 이상 세대의 연평균 소득은 31,560천 원(2018년)·33,773천 원(2019년)으로 전체 평균 13,346천 원(2018년)·15,389천 원(2019년)보다 높은 수준임.

〈표 4-23〉 세대구성원 현황

(단위: 세대, %, 천원)

세대원수	세대(개수/비중)		세대소득(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0명	1,211,721 81.7	1,127,745 83.1	12,207 4,757	14,376 4,930
1명	135,207 9.1	120,682 8.9	15,189 7,369	17,053 7,460
2명	73,770 5.0	60,530 4.5	19,474 10,450	21,555 10,686
3명	45,291 3.1	34,908 2.6	23,320 14,000	26,040 14,461
4명	13,207 0.9	10,265 0.8	25,494 15,830	29,554 16,616
5명 이상	3,704 0.2	2,789 0.2	31,560 18,636	33,773 19,270
합계	1,482,900 100.0	1,356,919 100.0	13,346 5,653	15,389 5,757

주: 세대원수: 납부의무자 1인을 제외하고 집계된 인원으로서 1인 가구의 경우 세대원은 0명으로 표기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세대의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세대가 497,807세대(33.6%, 2018년) · 460,816세대(34.0%, 2019년)로 가장 많은 세대가 낮은 소득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그 외 소득 구간에서는 연간 소득이 1,000~2,000만 원 구간에서 248,420

세대(16.8%, 2018년) · 207,134세대(15.3%, 2019년)이 높았으며, 500~1,000만 원 구간에서는 187,109세대(12.6%, 2018년) · 161,906세대(11.%, 2019년) 순으로 분석됨.

-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들의 연간 소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며, 세대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4〉 세대 소득구간별 현황

(단위: 세대, %, 천원, 명)

소득구간	세대(개수/비중)		세대소득(평균/중위)		세대원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0~100만원 이하	497,807 33.6	460,816 34.0	74 0	72 0	0.18 0.00	0.16 0.00
100~300만원 이하	117,325 7.9	103,737 7.6	1,993 1,985	1,992 1,990	0.32 0.00	0.29 0.00
300~500만원 이하	98,428 6.6	85,691 6.3	3,988 3,980	3,980 3,965	0.34 0.00	0.32 0.00
500~1,000만원 이하	187,109 12.6	161,906 11.9	7,372 7,310	7,357 7,280	0.38 0.00	0.34 0.00
1,000~2,000만원 이하	248,420 16.8	207,134 15.3	14,636 14,400	14,546 14,309	0.40 0.00	0.37 0.00
2,000~3,000만원 이하	143,484 9.7	130,498 9.6	24,503 24,220	24,430 24,082	0.41 0.00	0.35 0.00
3,000~4,000만원 이하	78,626 5.3	70,548 5.2	34,530 34,295	34,564 34,371	0.45 0.00	0.38 0.00
4,000~5,000만원 이하	42,696 2.9	41,691 3.1	44,514 44,278	44,547 44,323	0.51 0.00	0.41 0.00
5,000만원 초과	69,005 4.7	94,898 7.0	86,678 66,630	90,766 73,818	0.66 0.00	0.49 0.00
합계	1,482,900 100.0	1,356,919 100.0	13,346 5,653	15,389 5,757	0.33 0.00	0.30 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마. 건강보험 사각지대(납부의무자)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를 납부의무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납부의무자는 1,481,587명(2018년), 1,355,908명(2019년)임.

- 납부의무자의 성별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특성

- 납부의무자 중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남성 997,467명(67.3%), 여성 484,120명(32.7%)이며, 2019년 남성 916,729명(67.6%), 여성 439,179명(32.4%)임.
- 건강보험증 1개당 체납보험료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남성의 체납보험료는 평균 1,638천 원, 여성 1,171천 원임.
 - 2019년 기준 남성의 체납보험료는 평균 1,640천 원, 여성 1,197천 원임.
-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 개월은 남성이 더 길게 체납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남성의 체납 개월은 평균 40.9개월이며, 여성 30.3개월임.
 - 2019년 기준 남성의 체납 개월은 평균 42.0개월이며, 여성 32.0개월임.

〈표 4-25〉 납부의무자 성별 현황

(단위: 명, %, 개, 천원, 개월)

성별	납부의무자(인원/비중)		보험증(개수/비중)		체납보험료(평균/중위)		체납개월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남성	997,467 67.3	916,729 67.6	1,036,469 67.5	960,576 67.8	1,638 962	1,640 918	40.9 23.0	42.0 24.0
여성	484,120 32.7	439,179 32.4	500,171 32.5	456,714 32.2	1,171 633	1,197 624	30.3 16.0	32.0 18.0
합계	1,481,587 100.0	1,355,908 100.0	1,536,640 100.0	1,417,290 100.0	1,486 836	1,497 807	37.5 20.0	38.7 21.0

주: 건강보험증: 납부의무자 1인당 1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보유, 체납할 수 있음.

체납보험료: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보험료

체납개월수: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개월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납부의무자의 연령대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특성

- 납부의무자의 경우, 연령 구간이 50~59세와 40~9세 구간이 다른 연령대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각지대 대상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50~59세는 458,197명(30.9%), 40~49세는 402,140명(27.1%), 30~39세 구간에서 267,424명(18.0%) 순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50~59세는 392,466명(28.9%), 40~49세 369,593명(27.3%), 30~39세 263,636명(17.4%) 순으로 분석됨.

○ 납부의무자들의 체납보험료는 1,486천 원(2018년)·1,497천 원(2019년) 수준이며, 평균적으로 37.5개월(2018년)·38.7개월(2019년) 체납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50~59세 납부의무자들의 평균적으로 체납보험료는 1,879천 원(2018년)·1,894천 원(2019년) 발생하고, 체납기간은 46.9~48.2개월을 체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임.

〈표 4-26〉 납부의무자 연령 현황

(단위: 명, %, 개, 천원, 개월)

연령대	납부의무자(인원/비중)		보험증(개수/비중)		체납보험료(평균/중위)		체납개월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14세 이하	19 0.0	19 0.0	20 0.0	19 0.0	1,381 1,001	2,554 1,177	17.6 13.5	17.8 13.0
15~19세	100 0.0	1,547 0.1	100 0.0	1,548 0.1	1,305 528	534 137	21.8 13.5	15.8 9.0
20~29세	118,779 8.0	133,565 9.9	121,709 7.9	137,545 9.7	575 313	606 320	18.3 13.0	20.0 13.0
30~39세	267,424 18.0	263,636 19.4	278,712 18.1	277,741 19.6	948 544	1,052 595	24.4 14.0	28.2 17.0
40~49세	402,140 27.1	369,593 27.3	418,736 27.3	388,685 27.4	1,558 954	1,630 976	36.9 20.0	39.9 23.0
50~59세	458,197 30.9	392,466 28.9	475,163 30.9	409,679 28.9	1,879 1,191	1,894 1,140	46.9 29.0	48.2 29.0
60~69세	185,692 12.5	152,558 11.3	191,960 12.5	158,576 11.2	1,770 1,072	1,779 1,014	47.6 29.0	48.0 27.0
70~79세	33,984 2.3	29,215 2.2	34,767 2.3	29,981 2.1	1,356 687	1,346 651	34.9 18.0	34.7 18.0
80세 이상	15,252 1.0	13,309 1.0	15,473 1.0	13,516 1.0	1,061 494	1,026 428	29.0 16.0	29.0 15.0
합계	1,481,587 100.0	1,355,908 100.0	1,536,640 100.0	1,417,290 100.0	1,486 836	1,497 807	37.5 20.0	38.7 21.0

주: 건강보험증: 납부의무자 1인당 1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보유, 체납할 수 있음.

체납보험료: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보험료

체납개월수: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개월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데이터, 각년도.

□ 체납보험료 구간²⁰⁾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특성

○ 건강보험증 기준으로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 체납 보험료가 50만 원 구간

20) 납부의무자는 다수의 건강보험증을 보유할 수 있으며, 체납관리는 건강보험증 단위로 관리가 되며, 대상 인원은 중복될 수 있음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50만 원 이하 구간이 35.8%, 100~200만원 구간 21.3%, 50~100만원 구간 20.7% 순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50만 원 이하 구간이 36.7%, 100~200만원 구간 19.8%, 50~100만 원 구간 19.2% 순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증 기준으로 체납개월을 분석한 결과, 체납보험료가 1,000~2,000만원 구간에서 120.4개월(2018년)·117.0개월(2019년) 체납하는 개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표 4-27〉 납부의무자 체납보험료 구간별 현황

(단위: 명, %, 개, 천원, 개월)

체납보험료	납부의무자(인원/비중)		보험증(개수/비중)		체납보험료(평균/중위)		체납개월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50만원 이하	530,821 35.8	513,389 36.7	541,649 35.2	524,229 37.0	251 240	243 224	12.9 10.0	13.5 11.0
50~100만원 이하	306,742 20.7	268,487 19.2	309,726 20.2	271,702 19.2	727 715	727 716	24.2 19.0	25.8 22.0
100~200만원 이하	316,306 21.3	277,507 19.8	318,590 20.7	280,193 19.8	1,440 1,410	1,441 1,411	43.1 34.0	44.9 38.0
200~300만원 이하	158,148 10.7	143,122 10.2	158,603 10.3	143,686 10.1	2,440 2,410	2,442 2,412	64.8 61.0	68.0 64.0
300~500만원 이하	128,189 8.7	119,251 8.5	128,549 8.4	119,722 8.4	3,818 3,730	3,821 3,734	80.9 80.0	83.6 82.0
500~1000만원 이하	70,734 4.8	68,224 4.9	70,850 4.6	68,368 4.8	6,623 6,306	6,651 6,334	108.1 109.0	108.6 108.0
1000~2000만원 이하	8,032 0.5	8,552 0.6	8,044 0.5	8,561 0.6	12,291 11,596	12,440 11,715	120.4 122.0	117.0 119.0
2000~3000만원 이하	454 0.0	582 0.0	454 0.0	582 0.0	23,527 22,907	23,711 23,250	77.7 63.5	75.8 62.0
3000~4000만원 이하	124 0.0	158 0.0	124 0.0	158 0.0	33,760 33,347	34,230 33,930	67.5 56.5	62.3 33.0
4000~5000만원 이하	30 0.0	56 0.0	30 0.0	56 0.0	43,604 43,486	44,260 43,657	62.4 41.5	64.5 43.0
5000만원 초과	21 0.0	33 0.0	21 0.0	33 0.0	62,562 55,022	62,876 56,273	51.3 28.0	55.3 27.0
합계	1,481,587 100.0	1,399,361 100.0	1,536,640 100.0	1,417,290 100.0	1,486 836	1,497 807	37.5 20.0	38.7 21.0

주: 건강보험증: 납부의무자 1인당 1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보유, 체납할 수 있음

납부의무자가 다수의 보험증을 보유하면서, 중마다 상이한 금액을 체납할 수 있어 인원 중복 발생함

체납보험료 구간별 건강보험증 개수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음

체납보험료: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보험료

체납개월수: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개월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체납개월 구간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특성

○ 체납개월 구간을 살펴본 결과, 체납개월이 12개월 이하가 505,088개(32.9%, 2018년)·442,240개(31.2%, 2019년)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전체 체납 대상자 중 체납개월 수가 2년 이내의 경우가 전체 중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분석됨.

○ 체납보험료는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체납기간이 12개월 이하일 때 체납보험료가 541천 원(2018년)·548천 원(2019년)이었으며, 체납이 60개월 이상인 구간에서 체납보험료가 3,457천 원(2018년)·3,490천 원(2019년)으로 분석됨.

〈표 4-28〉 납부의무자 체납개월수 구간별 현황

(단위: 명, %, 개, 천원, 개월)

체납개월	납부의무자(인원/비중)		보험증(개수/비중)		체납보험료(평균/중위)		체납개월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12개월 이하	499,304 33.7	437,021 31.1	505,088 32.9	442,240 31.2	541 303	548 272	8.5 8.0	8.6 8.0
13~18개월 이하	224,072 15.1	206,357 14.7	225,662 14.7	207,772 14.7	826 505	721 374	15.2 15.0	15.4 15.0
19~24개월 이하	131,898 8.9	119,739 8.5	132,559 8.6	120,493 8.5	1,018 653	972 577	21.3 21.0	21.3 21.0
25~30개월 이하	92,238 6.2	87,914 6.2	92,592 6.0	88,322 6.2	1,235 833	1,205 760	27.3 27.0	27.3 27.0
31~36개월 이하	70,461 4.8	69,817 5.0	70,679 4.6	70,109 4.9	1,412 992	1,392 925	33.4 33.0	33.4 33.0
37~42개월 이하	57,782 3.9	56,839 4.0	57,921 3.8	57,059 4.0	1,634 1,183	1,593 1,112	39.4 39.0	39.4 39.0
43~48개월 이하	47,541 3.2	47,011 3.3	47,660 3.1	47,171 3.3	1,836 1,352	1,776 1,267	45.4 45.0	45.4 45.0
49~54개월 이하	41,731 2.8	40,297 2.9	41,808 2.7	40,399 2.9	2,026 1,532	1,994 1,469	51.4 51.0	51.4 51.0
55~60개월 이하	37,155 2.5	35,069 2.5	37,210 2.4	35,133 2.5	2,207 1,685	2,184 1,636	57.4 57.0	57.5 57.0
60개월 초과	324,233 21.9	306,880 21.8	325,461 21.2	308,592 21.8	3,457 2,744	3,490 2,760	102.6 97.0	104.0 97.0
합계	1,481,587 100.0	1,406,944 100.0	1,536,640 100.0	1,417,290 100.0	1,486 836	1,497 807	37.5 20.0	38.7 21.0

주: 건강보험증: 납부의무자 1인당 1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보유, 체납할 수 있음.
 납부의무자가 다수의 보험증을 보유하면서, 중마다 다른 기간을 체납할 수 있어 인원 중복 발생함.
 체납개월수 구간별 건강보험증 개수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음.
 체납보험료: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보험료
 체납개월수: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개월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납부의무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특성

○ 납부의무자의 근로성 소득 보유 여부에 따른 분류

- 납부의무자 중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이 근로성 소득이 없는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은 1,026,437명(69.3%)이며, 근로성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은 455,150명(30.7%)임.
 - 2019년 기준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은 937,071명(69.1%)이며, 근로성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은 418,837명(30.9%)임.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보다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의 평균 체납보험료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평균 체납보험료는 근로성 소득이 없는 그룹은 1,634천 원이며, 근로성 소득이 있는 그룹은 1,420천 원임.
 - 2019년 기준 평균 체납보험료는 근로성 소득이 없는 그룹은 1,641천 원이며, 근로성 소득이 있는 그룹은 1,433천 원임.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대상자보다 근로성 소득이 있는 대상자들이 평균 체납개월 기간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2018년 기준 근로성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45.5개월, 근로성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33.9개월임.
 - 2019년 기준 근로성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47.0개월, 근로성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35.1개월임.

〈표 4-29〉 납부의무자 종사상 지위 현황 1-근로성 소득 보유 여부

(단위: 명, %, 개, 천원, 개월)

근로성 소득	납부의무자(인원/비중)		보험증(개수/비중)		체납보험료(평균/중위)		체납개월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없음	455,150 30.7	418,837 30.9	472,462 30.7	437,914 30.9	1,634 930	1,641 903	45.5 28.0	47.0 29.0
있음	1,026,437 69.3	937,071 69.1	1,064,178 69.3	979,376 69.1	1,420 802	1,433 772	33.9 17.0	35.1 18.0
합계	1,481,587 100.0	1,355,908 100.0	1,536,640 100.0	1,417,290 100.0	1,486 836	1,497 807	37.5 20.0	38.7 21.0

주: 건강보험증: 납부의무자 1인당 1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보유, 체납할 수 있음.

체납보험료: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보험료

체납개월수: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개월수

근로성 소득 없음: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보유하지 않음. 단, 근로성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 연금 소득은 보유할 수 있음.

근로성 소득 있음: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보유하며, 동시에 금융, 연금 소득을 보유할 수 있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그룹

-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는 그룹은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소득)을 보유한 그룹과 전혀 소득이 없는 그룹으로 분류함.
- 2018년 기준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455,150명 중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소득)이 있는 그룹은 14,328명(3.1%), 전혀 소득이 없는 그룹은 440,822명(96.9%)임.
- 2019년 기준 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은 418,837명 중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소득)이 있는 그룹은 14,378명(3.4%), 전혀 소득이 없는 그룹은 404,459명(96.6%)임.
- 체납 기간을 살펴본 결과, 전혀 소득이 없는 그룹이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소득)이 있는 그룹보다 체납 개월 기간이 조금 더 긴 것으로 분석됨.

〈표 4-30〉 납부의무자 종사상 지위 현황 2-근로성 소득을 보유하지 않는 그룹

(단위: 명, %, 개, 천원, 개월)

종사상지위	납부의무자(인원/비중)		보험증(개수/비중)		체납보험료(평균/중위)		체납개월수(평균/중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소득 있음	14,328 3.1	14,378 3.4	14,674 3.1	14,793 3.4	1,540 825	1,566 815	30.2 16.0	31.5 17.0
소득 없음	440,822 96.9	404,459 96.6	457,788 96.9	423,121 96.6	1,637 934	1,644 907	46.0 28.0	47.5 30.0
합계	455,150 100.0	418,837 100.0	472,462 100.0	437,914 100.0	1,634 930	1,641 903	45.5 28.0	47.0 29.0

주: 건강보험증: 납부의무자 1인당 1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을 보유, 체납할 수 있음.

체납보험료: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보험료

체납개월수: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체납개월수

소득 있음: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을 보유하지 않으나, 금융·연금 소득을 보유함.

소득 없음: 연간 어떠한 소득도 보유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자 DB〉/〈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제4절 소결

□ 건강보험 사각지대는 건강보험료 6개월 체납자 중 급여제한을 받은 자로 정의함.

○ 건강보험 사각지대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 - (분할납부 유지 자
미성년 세대 중 연소득 100만 원 미만인면서 사업소득 등이 없는 자)

-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체납자 2,275,848명 중 1,974,096명(86.7%) 임.

• 건강보험 사각지대 1,974,096명 중 납부의무자는 1,481,587명(75.1%), 세대원 492,509명(24.9%)로 구성됨.

-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체납자 2,228,399명 중 1,759,294명(78.9%) 임.

• 건강보험 사각지대 1,759,294명 중 납부의무자는 1,355,908명(77.1%), 세대원 403,386명(22.9%)로 구성됨.

□ 개인 단위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42.7~43.2세이며, 소득은 10,025~11,869천 원인 것으로 분석됨.

○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881,258명(44.6%, 2018년), 774,684명(44.0%, 2019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연령 분포는 40~49세와 50~59세 구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19세 이하 연령대에서도 약 10%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지역세대원)가 다른 자격 유형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은 근로성 소득을 보유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았으며, 이로 인하여 평균 소득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근로성 소득이 있는 대상자들 중 근로형태가 일용근로자, 개인고용주, 자영업에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근로형태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근로성 소득이 없는 대상자 중 근로성 소득 이외의 소득(금융·연금 소득)조차 없이 소득이 전혀 없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세대 단위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1,482,900세대, 2019년 1,356,919세대로 분석됨.

○ 1인 가구 세대들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81.7~83.1%).

○ 소득 수준이 100만 원 이하 세대가 33.6~34.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소득이 낮은 세대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놓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개인 단위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건강보험료 체납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건강보험증 1개당 평균 37.5~38.7개월 체납하고 있으며, 남성 납부의무자들이 여성들에 비해 체납 개월이 조금 높은 것

으로 분석됨.

○ 납부의부자 중 50~59세와 40~49세 연령 구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체납보험료는 1,486~1,497천 원인 것으로 분석됨.

○ 체납보험료는 체납 개월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은 법률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급여의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개인 및 세대단위의 소득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처럼 저소득 계층이 건강보장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노출된 대상자들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특히 일용근로소득자 및 1인 개인 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서 근로형태가 이전의 전통적인 근로형태보다는 비정형 근로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형태 등을 고려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강보험 사각지대 대상자들의 체납보험료, 체납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체납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동시에 급여 제한 기간도 증가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도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결손 처분 등 건강보험 체납자 관리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5장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분석

제1절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2절 분석 개요

제3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

제4절 소결

제 5 장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분석

제1절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는 다양하지만 크게 ‘적용 사각지대’와 ‘급여 사각지대’, ‘협의 및 광의 개념’, ‘제도 내부 및 외부 사각지대’로 구분하고 있음.
- 각각의 사각지대는 서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어느 정도 중첩되는 특성을 나타냄.

가. 적용 및 수급 사각지대

- 가입이 이루어지는 당시 ‘적용 사각지대’는 국민연금법에서 제외된 경우, 당연가 입대상이지만 납부예외, 보험료 체납 등을 이유로 실질적 상태인 경우를 의미함.
- 정인영 외(2015)를 비롯한 다수의 연구들에서도 적용제외, 납부예외, 장기체납(13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음.
- ‘수급 사각지대’는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였거나(최소가입기간 미충족),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를 의미함.
- 적용 사각지대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누적된 결과이기도 함(류재린 외, 2019).

나. 협의 및 광의의 개념

- ‘협의’의 개념은 가입시점에서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여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인구집단을 의미하는 것에 반해, ‘광의’의 개념은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근로 당시 소득이 낮았거나 가입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저급여로 인해 노

후빈곤 위험이 높은 집단까지 더 넓게 포괄함(정인영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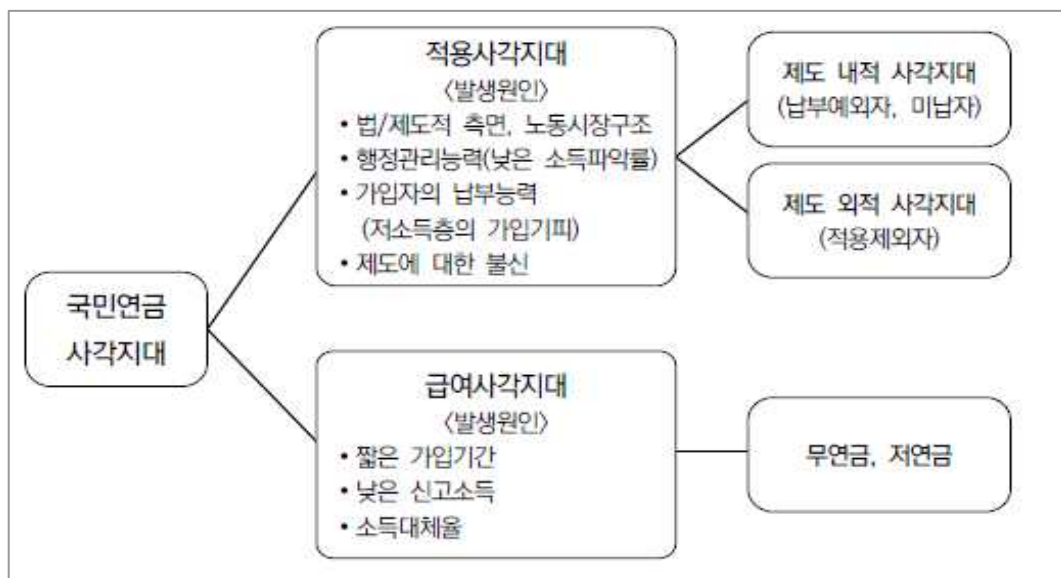
다. 제도 내부 및 외부 사각지대(적용대상 여부에 따른 구분)

□ ‘제도 내부 사각지대’는 국민연금법상 적용대상이지만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수급권을 획득하더라도 가입기간이 불충분하여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를 의미함.

○ 근로자성이 불분명한 특고종사자, 단시간 근로자 등이 대표적임.

□ ‘제도 외부 사각지대’는 국민연금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로, 도입 당시 이미 고령층에 속하여 가입기회가 없었던 자,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 국기초 수급자 등이 해당됨.

[그림 5-1] 국민연금 사각지대 유형별 발생원인



자료: 김혜진, 김현수, 이은실, 김아람.(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p.36, [그림 II-1]

2. 국민연금 사각지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다룬 기존 연구들은 주로 가입종별(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등) 또는 인구집단(여성, 청년 등)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 및 특성 파악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에 목적을 두고 있음(〈표 5-1〉 참조).

○ 지역가입에서 장기체납자 및 납부예외자 특성(정인영 외, 2015; 류재린 외, 2020), 적용 사각지대 현황(김혜진 외, 2020),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미가입(권혁진, 2012), 최소가입기간 미충족자 특징(김혜진, 2021), 청년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정인영 외, 2018; 정해식, 2020)에 관한 연구 등이 대표적임.

〈표 5-1〉 국민연금 사각지대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주요 내용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정인영 외(2015),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 개선 방안 연구	-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및 현황, 발생원인 분석 - 지역가입제도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지역가입자 사각지대 개선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 국내/외 문헌연구 - 통계자료분석 (한국복지패널) - 해외사례 분석
김혜진 외(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한 정책과제	-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및 해소방안 검토 -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정책 관련 쟁점 검토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문헌연구 - 통계자료분석 (국민연금공단 전산자료) - 해외사례 분석
권혁진(2012),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 각지대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미가입 규모 및 특성 분석	- 문헌연구 - 통계자료 분석 (경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류재린 외(2020), 납부예외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납부예외자 현황 및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 납부예외자 및 납부재개자 실태조사	- 통계자료 분석 (국민연금공단 전산자료) - 서면조사 방식의 실태조사 (납부예외자 750명, 납부재개자 250명)
정인영 외(2016),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 고방안 연구	-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사각지대 발생원인 분석	- 국내/외 문헌연구 - 통계자료분석 (국민연금공단 전산자료, 한국복지패널)
정해식(2020),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 제	- 청년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특성 분석 - 국민연금 청년 미가입자의 특성	- 통계자료 분석 (경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제2절 분석 개요

□ 본 행정자료 분석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2019년 12월 기준, 18~59세 국민연금 미가입자, 즉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적용제외자를 모두 포함하여 넓게 정의함.

○ 국민연금 사각지대 = (18~59세 전체 국민)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 자²¹⁾)

□ 자료의 한계

○ 본 행정자료는 그 특성상 납부예외자,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장기체납자를 구분할 수 없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별 가입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변수들 - 예: 월 수납상태 - 이 부재하며, 적용제외 사유 역시 파악이 불가능함.

-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 가입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험료 부과에 있으며 여기에는 미가입, 사업장가입, 지역가입(임의가입 포함²²⁾)으로만 구분되어 있음.

○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구분

- 국민연금 사각지대 분석 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²³⁾를 구분하지 않으면 미가입자의 규모와 특성, 특히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인해 소득이 과대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공교’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 해당 여부’를 조합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 공무원연금 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 사학연금 가입자(사립학교 교원만 포함)를 구분함.

- 특수직역가입자는 153.7만 명으로,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4.8%를 차지하

21) 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 납부여부는 알 수 없음

22) 임의가입자는 별도 구분이 불가능

23) 국민연금법 상 타 공적연금 가입자

는 것으로 나타남(〈표 5-2〉 참조).

〈표 5-2〉 18~59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구분

(단위: 명, %)

구분	인원	해당 연령대 인구 대비 비율
공무원연금가입자 + 군인연금가입자+ 사학연금가입교원 ²⁴⁾	1,537,553	4.8

주: 2019년 12월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제3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

1.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추정

□ 18~59세 인구집단의 공적연금 가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13,362,794명, 지역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를 합산한 지역가입자는 4,247,811명으로, 총 가입자 수는 17,610,605명으로 나타남(〈표 5-3〉 참조).

○ 국민연금 사각지대 분석을 위한 가입대상은 18~59세 인구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자, 국내 거주 외국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30,303,660명으로 이루어짐.

□ 사각지대 추정을 위한 미가입자의 정의

○ ‘2019년 12월 기준, 당월 미가입자’(12월 미가입자(A)), ‘2019년 1~12월까지 12개월 간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연중 미가입자(B))’를 합산한 전체 사각지대 규모는 1,269.3만 명으로 추산함(〈그림 5-2〉 참조).

- 여기에는 무소득배우자 등 소득자료 미보유자를 포함한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 일정 수준의 이상의 소득자료 보유자 가운데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24)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구분할 수 없음.

- 본 연구는 미가입자를 12월 미가입자와 연중 미가입자로 구분하였는데, 이중 후자는 사실상 ‘적용제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사각지대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집단으로 볼 수 있음.

[그림 5-2] 본 연구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구분: 예시

구분	2019년												가입상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a	○	○	○	○	○	○	○	○	○	○	○	×	12월 미가입자 (A)
b	×	○	○	○	○	○	○	○	×	×	○	×	
c	○	○	×	○	○	○	○	×	○	○	○	×	
d	×	×	×	×	×	×	×	×	×	×	○	×	
e	○	○	×	○	×	○	×	○	×	○	×	×	
f	×	×	×	×	×	×	×	×	×	×	×	×	연중 미가입자 (B)
g	×	×	×	×	×	×	×	×	×	×	×	×	
h	×	×	×	×	×	×	×	×	×	×	×	×	
i	×	×	×	×	×	×	×	×	×	×	×	×	

주: 가입 ○, 미가입 ×

□ 18~59세 인구집단의 공적연금 가입 규모는 아래 <표 5-4>와 같음.

- 18~59세에 해당하는 인구(3,184.1만 명) 가운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약 153.7만 명으로 4.8%를 차지함.
- 동 연령대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1,336.2만 명(44.1%), 지역가입자는 424.7만 명(14.0%)으로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규모는 1,761만 명(58.1%)으로 파악됨.
- 사각지대로 추정되는 미가입자는 1,269만 명으로 18~59세에 해당하는 인구의 41.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12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연중 미가입자)는 986.7만 명(32.5%), 동 기간에 1개월 이상 가입 이력이 존재하지만 분석 기준시점인 12월에 미가입 상태인 자는 282.5만 명(9.3%)으로 파악됨.

□ 본 연구에서 추산한 18~59세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를 국민연금 행정통계²⁵⁾와 비교하면 <표 5-3>과 같음.

〈표 5-3〉 본 연구에서 파악한 18~59세 인구의 공적연금 가입 규모

(단위: 명, %)

구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추정되는 집단		계
			12월 미가입자(A)	연중 미가입자(B)	
국민연금 가입대상 (18~59세)	13,362,794 (44.1)	4,247,811 (14.0)	2,825,866 (9.3)	9,867,189 (32.5)	30,303,660 (95.2)
			(A)+(B) = 12,693,055 (41.8)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1,537,553 (4.8)
계					31,841,213 (100.0)

주: 2019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지역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 포함.

12개월 간 국민연금 미가입 집단은 보험료 부과이력이 없음.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5-4〉 18~59세의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 국민연금 행정통계와 본 행정자료의 비교

(단위: 명)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국민연금 행정통계 (A)	14,157,574	지역소득신고자 3,955,403	(사업장가입자+지역소득신고자 +임의가입자) 18,441,704
		납부예외자 3,276,660	
		임의가입자 328,727	
		임의계속가입자 497,865	
		(지역소득신고자+임의가입자) 4,284,130	
행정자료	13,362,794	4,247,811 (임의가입 포함, 납부예외 제외)	(사업장가입자+지역소득신고자 +임의가입자) 17,610,605
차이(B-A)	-794,780	-36,319	-831,099

주: 2019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지역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국민연금공단(2020)은 가입자 규모를 사업장가입자 14,157,574명, 지역가입자(지역소득신고자 + 임의가입자) 4,284,130명으로 총 가입자 수는 18,441,

704명으로 파악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입자 규모와 비교할 때 사업장가입자는 79.4만 명, 지역가입자는 약 3.6만 명으로 모두 합쳐 83.1만 명 수준에서 규모 차이가 발생함.

2. 국민연금 가입 현황

가. 개관

- 2019년 12월 기준, 18~59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미가입자 - 12월 미가입자, 연중 미가입자 - 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입자는 58.1%, 미가입자는 41.9%로 나타남(〈표 5-5〉, [그림 5-3] 참조).
- 국민연금 가입률은 50~54세(68.7%)에서 가장 높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18~26세(25.5%)에서 가장 저조함.
 - 18~26세의 가입률이 유독 낮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을 시,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에서 제외²⁶⁾하고 있기 때문임.
 - 다만, 27~29세(59.2%) 이후 점차 상승 추이를 나타내던 가입률은 55~59세에 접어들면서 66.8%로 소폭 하락함.
 - 사업장가입자 비율은 44.1%, 지역가입자 비율은 14.0%로 나타남.
- 가입자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비율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30~34세에 54.9%로 가장 높았던 사업장가입자 비율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55~59세에는 38.8%로 낮아짐.
 - 이 같은 사업장가입자 비율 감소는 지역가입자 비율 증가를 동반하는데, 30~34세 5.5%에 그치던 지역가입자 비율은 연령대 증가와 함께 계속 높아

26) 「국민연금법」 제9조제3항

저 55~59세에는 28.0%에 달함.

- 18~59세 인구집단의 지역가입자 비율이 14.0%인 것을 감안하면, 45~59세 연령대의 지역가입자 규모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연중 미가입자는 18~26세(60.9%)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 20%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55~59세에 26.4%로 소폭 증가함.

〈표 5-5〉 국민연금 가입 현황: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가입자			미가입자			계
	(소계)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소계)	12월 미가입자	연중 미가입자	
18-26 세	1,478,364	1,383,142	95,222	4,300,726	779,303	3,521,423	5,779,090
	25.6	23.9	1.6	74.4	13.5	60.9	100.0
27-29 세	1,146,710	1,040,504	106,206	790,015	249,662	540,353	1,936,725
	59.2	53.7	5.5	40.8	12.9	27.9	100.0
30-34 세	1,860,771	1,616,504	244,267	1,083,502	314,712	768,790	2,944,273
	63.2	54.9	8.3	36.8	10.7	26.1	100.0
35-39 세	2,334,132	1,912,568	421,564	1,312,404	317,289	995,115	3,646,536
	64.0	52.4	11.6	36.0	8.7	27.3	100.0
40-44 세	2,391,231	1,865,211	526,020	1,223,604	278,489	945,115	3,614,835
	66.2	51.6	14.6	33.8	7.7	26.1	100.0
45-49 세	2,864,461	2,091,432	773,029	1,347,677	310,274	1,037,403	4,212,138
	68.0	49.7	18.4	32.0	7.4	24.6	100.0
50-54 세	2,809,338	1,868,477	940,861	1,280,673	298,066	982,607	4,090,011
	68.7	45.7	23.0	31.3	7.3	24.0	100.0
55-59 세	2,725,598	1,584,956	1,140,642	1,354,454	278,071	1,076,383	4,080,052
	66.8	38.8	28.0	33.2	6.8	26.4	100.0
계	17,610,605	13,362,794	4,247,811	12,693,055	2,825,866	9,867,189	30,303,660
	58.1	44.1	14.0	41.9	9.3	32.6	100.0

주: 2019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지역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 포함.

상단 수치는 규모, 하단 수치는 비율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5-6〉 국민연금 가입 현황: 성별/연령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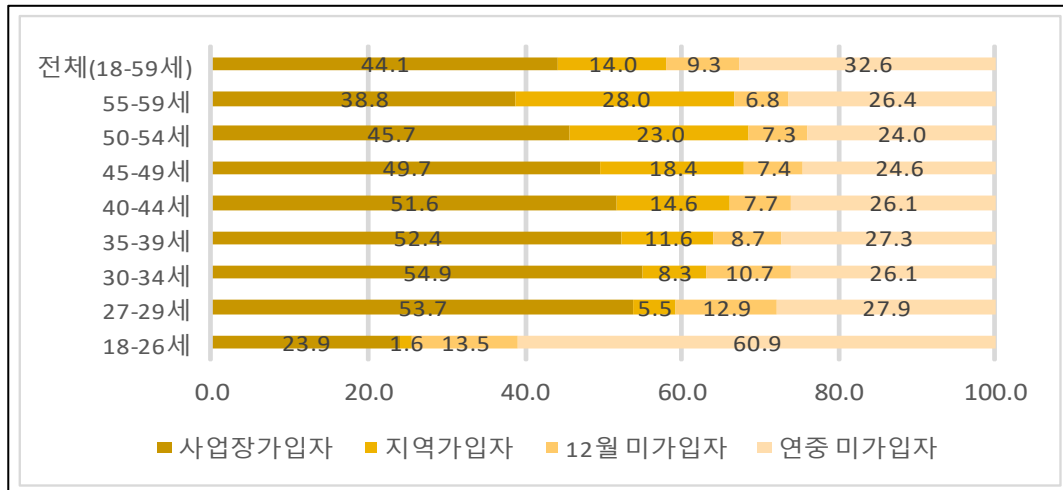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미가입자					
							12월 미가입자			연중 미가입자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8~26세	616,515	766,627	1,383,142	49,391	45,831	95,222	404,590	374,713	779,303	1,952,563	1,568,860	3,521,423
	10.67	13.27	23.93	0.85	0.79	1.65	7.00	6.48	13.48	33.79	27.15	60.93
27~29세	562,579	477,925	1,040,504	54,990	51,216	106,206	129,382	120,280	249,662	274,268	266,085	540,353
	29.05	24.68	53.72	2.84	2.64	5.48	6.68	6.21	12.89	14.16	13.74	27.90
30~34세	972,006	644,498	1,616,504	122,455	121,812	244,267	146,351	168,361	314,712	278,774	490,016	768,790
	33.01	21.89	54.90	4.16	4.14	8.30	4.97	5.72	10.69	9.47	16.64	26.11
35~39세	1,217,903	694,665	1,912,568	206,863	214,701	421,564	153,794	163,495	317,289	284,570	710,545	995,115
	33.40	19.05	52.45	5.67	5.89	11.56	4.22	4.48	8.70	7.80	19.49	27.29
40~44세	1,152,547	712,664	1,865,211	248,039	277,981	526,020	142,236	136,253	278,489	286,104	659,011	945,115
	31.88	19.71	51.60	6.86	7.69	14.55	3.93	3.77	7.70	7.91	18.23	26.15
45~49세	1,242,525	848,907	2,091,432	356,534	416,495	773,029	159,786	150,488	310,274	363,525	673,878	1,037,403
	29.50	20.15	49.65	8.46	9.89	18.35	3.79	3.57	7.37	8.63	16.00	24.63
50~54세	1,078,220	790,257	1,868,477	423,074	517,787	940,861	156,473	141,593	298,066	374,660	607,947	982,607
	26.36	19.32	45.68	10.34	12.66	23.00	3.83	3.46	7.29	9.16	14.86	24.02
55~59세	923,477	661,479	1,584,956	524,967	615,675	1,140,642	154,732	123,339	278,071	412,420	663,963	1,076,383
	22.63	16.21	38.85	12.87	15.09	27.96	3.79	3.02	6.82	10.11	16.27	26.38
계	7,765,772	5,597,022	13,362,794	1,986,313	2,261,498	4,247,811	1,447,344	1,378,522	2,825,866	4,226,884	5,640,305	9,867,189
	25.63	18.47	44.10	6.55	7.46	14.02	4.78	4.55	9.33	13.95	18.61	32.5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5-3] 국민연금 가입 현황: 연령대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1) 18~59세 인구집단의 종사상 지위²⁷⁾

- 임금근로자 비율이 57.9%로 가장 높고, 미취업자(22.8%), 자영자(19.3%) 순으로 나타남(<표 5-7> 참조).
-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9.6%, 일용근로자는 8.3%로 나타나며, 자영자는 자영업자 비율(11.7%)이 높고, 고용주(7.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살펴보면, 그 비율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그림 5-4] 참조).
- 미취업자 비율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18~26세에서 33.8%로 가장 높고, 자영자 비율은 은퇴를 앞둔 55~59세에서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27~29세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이 69.8%(135.1만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취업자 및 자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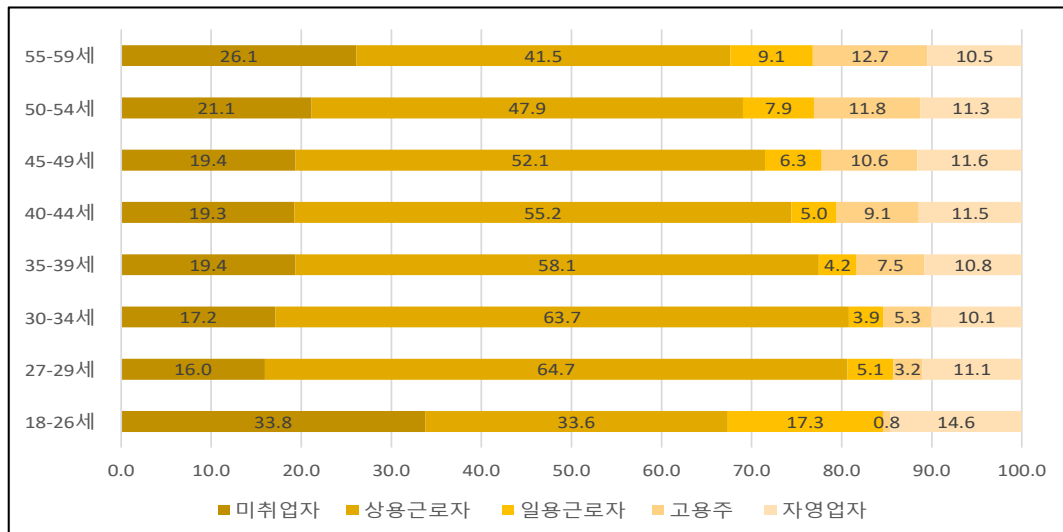
27) 본 장의 종사상 지위 구분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분석한 제6장의 종사상 지위 구분을 그대로 따름

비율 증가와 더불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냄.

- 상용근로자 비율은 27~29세에서 64.7%(125.2만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계속 감소하여 55~59세에서는 41.5%(169.4만 명)에 그침.
- 일용근로자 비율은 18~27세에 99.6만 명(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30대부터 점차 높아져 50~54세는 7.9%(32.2만 명), 55~59세는 9.1%(37.3만 명)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5-4]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 규모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5-7〉 연령대별 종사상지위 규모

(단위: 명)

구분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자			계
		(소계)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18-26세	1,950,655	2,938,170	1,941,447	996,723	890,265	47,854	842,411	5,779,090
	33.75	50.84	33.59	17.25	15.40	0.83	14.58	100.00
27-29세	308,816	1,351,119	1,252,988	98,131	276,790	62,704	214,086	1,936,725
	15.95	69.76	64.70	5.07	14.29	3.24	11.05	100.00
30-34세	505,010	1,987,476	1,874,190	113,286	451,787	155,942	295,845	2,944,273
	17.15	67.50	63.66	3.85	15.34	5.30	10.05	100.00
35-39세	705,995	2,271,504	2,118,566	152,938	669,037	274,604	394,433	3,646,536
	19.36	62.29	58.10	4.19	18.35	7.53	10.82	100.00
40-44세	695,944	2,175,355	1,994,346	181,009	743,536	329,406	414,130	3,614,835
	19.25	60.18	55.17	5.01	20.57	9.11	11.46	100.00
45-49세	815,612	2,460,889	2,196,317	264,572	935,637	446,496	489,141	4,212,138
	19.36	58.42	52.14	6.28	22.21	10.60	11.61	100.00
50-54세	864,571	2,281,842	1,959,149	322,693	943,598	483,088	460,510	4,090,011
	21.14	55.79	47.90	7.89	23.07	11.81	11.26	100.00
55-59세	1,066,178	2,067,062	1,694,034	373,028	946,812	518,958	427,854	4,080,052
	26.13	50.66	41.52	9.14	23.21	12.72	10.49	100.00
계	6,912,781	17,533,417	15,031,037	2,502,380	5,857,462	2,319,052	3,538,410	30,303,660
	22.81	57.86	49.60	8.26	19.33	7.65	11.68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2)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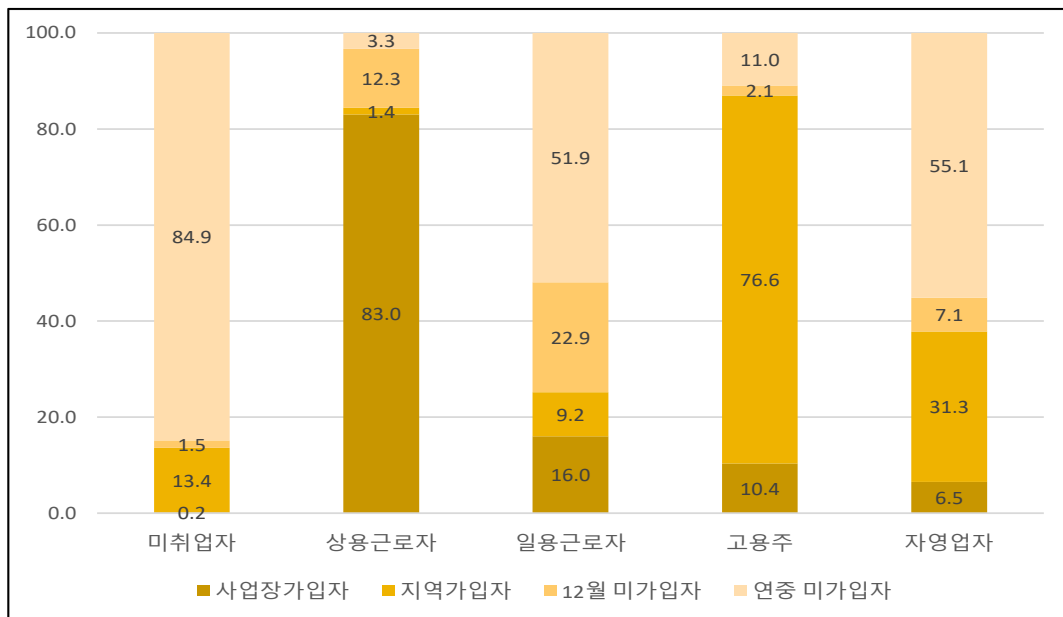
- 종사상 지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73.5%(1,287.9만 명)가 사업장가입자이며, 2.5%(43.4만 명)는 지역가입자로 나타남(〈표 5-8〉 참조).
- 임금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24.0%(421.8만 명)로 나타나며, 다른 종사상 지위와는 달리, 연중 미가입자 비율이 10.3%로 12월 미가입자(13.8%)보다 낮음.
 - 이와 달리 미취업자, 자영자의 경우, 12월 미가입자보다 연중 미가입자 비율이 훨씬 크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는 다른 종사상 지위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편이지만, 상용직 여부에 따라 가입상태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짐.
 - 상용근로자의 83.0%가 사업장가입자이며, 이는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93.3%를 차지함.
 - 상용근로자의 미가입률이 15.6%인 것과 비교할 때, 일용근로자의 미가입률은 73.7%에 달하여 상당수의 일용근로자들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연중 미가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3.3%에 그치지만 일용근로자는 절반 이상(51.9%)이 여기에 속해 있음.
- 미취업자 691.2만 명 가운데 86.4%(597만 명)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있음.
 - 미취업자 가운데 연중 미가입자는 84.9%에 달하며, 그 규모는 18~59세 인구집단의 19.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크게 나타남.
 - 미취업자의 13.4%인 92.9만 명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0.2%인 1.2만 명은 사업장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남.
- 자영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49.2%)가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며, 연중 미가입자는 37.7%(220.5만 명)로 임금근로자(10.3%)와 비교할 때

그 규모는 41만 명 가까이 더 많고, 해당 종사상 지위 대비 비율은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 자영자 집단 내에서도 고용주와 자영업자 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연중 미가입 상태인 고용주 비율은 11.0%(25.4만 명)에 그치는 반면, 자영업자는 55.1%(195만 명)로 나타나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야 할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5]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5-8〉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단위: 명, %)

구분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자			계
			(소계)	상용근로 자	일용근로 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사업장 가입자		12,295	12,879,940	12,478,514	401,426	470,559	240,248	230,311	13,362,794
		0.18	73.46	83.02	16.04	8.03	10.36	6.51	44.10
지역가입자		929,144	434,941	205,763	229,178	2,883,726	1,776,072	1,107,654	4,247,811
		13.44	2.48	1.37	9.16	49.23	76.59	31.30	14.02
미 가 입 자	12월 미가 입자	105,525	2,422,226	1,849,413	572,813	298,115	48,340	249,775	2,825,866
		1.53	13.81	12.30	22.89	5.09	2.08	7.06	9.33
	연중 미가 입자	5,865,817	1,796,310	497,347	1,298,963	2,205,062	254,392	1,950,670	9,867,189
		84.85	10.25	3.31	51.91	37.65	10.97	55.13	32.56
전체		6,912,781	17,533,417	15,031,037	2,502,380	5,857,462	2,319,052	3,538,410	30,303,66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종사상 지위(소분류)에 따라 12개월 간 평균 가입개월 수(미가입자 포함)를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의 평균 가입기간이 10개월로 가장 높고, 일용근로자와 미취업자는 각각 2.7개월, 1.6개월로 낮은 수준임(〈표 5-9〉, [그림 5-6] 참조).
- 남성의 평균 가입기간은 7.4개월로 여성(6.1개월)보다 1.3개월 높게 나타남.
 -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집단에서 평균 10개월의 가입이력을 나타내며, 남성 상용근로자와 남성 고용주는 평균 가입기간이 10.4개월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4개월(남성 4.2개월, 여성 3.9개월)로 고용주, 상용근로자와 비교할 때 6개월 가까이 짧게 나타나고 있음.
 - 미취업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6개월에 그치며, 일용근로자 또한 평균 2.7개월(남성 3.1개월, 여성 2.1개월)로 상용근로자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짐.

〈표 5-9〉 성/종사상 지위별 평균 가입개월 수(미가입자 포함)

(단위: 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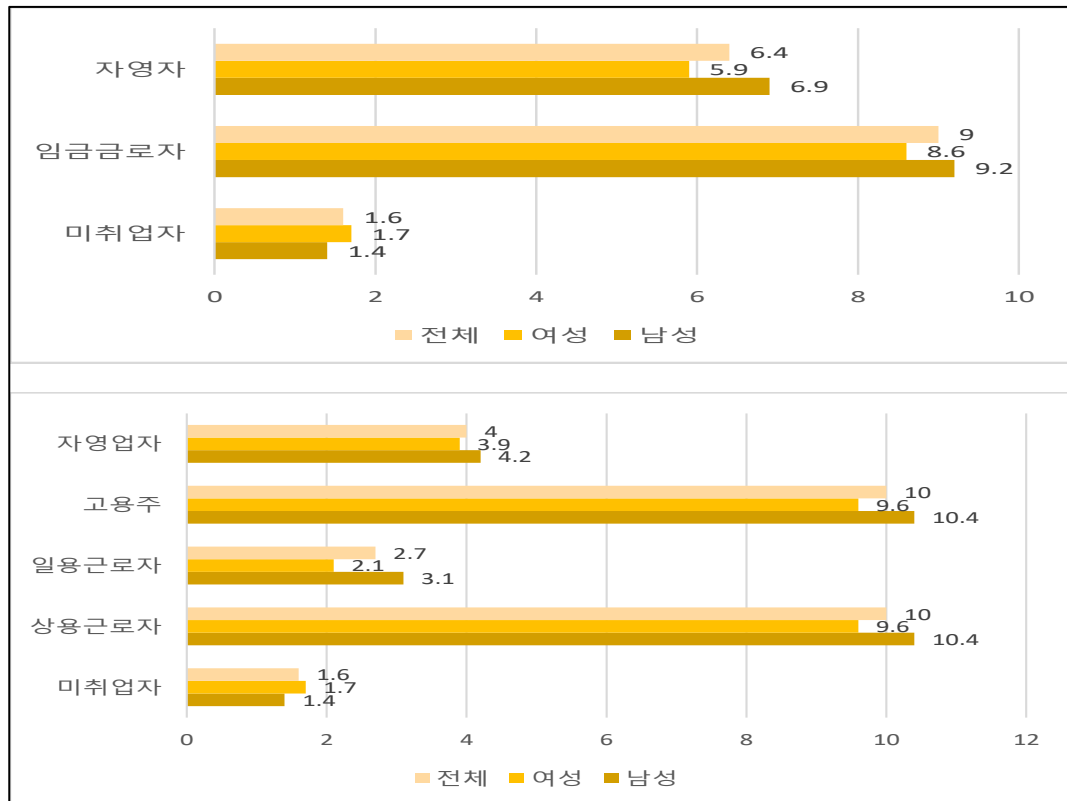
구분	미취업자	임금근로자			자영자			전체
		(소계)	상용 근로자	일용 근로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 미가입자 포함								
남성	1.4	9.2	10.4	3.1	6.9	10.4	4.2	7.4
여성	1.7	8.6	9.6	2.1	5.9	9.6	3.9	6.1
전체	1.6	9.0	10.0	2.7	6.4	10.0	4.0	6.8

주: 2019년 1월~12월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5-6] 성/종사상지위별 평균 가입개월 수(미가입자 포함): 대분류(상), 소분류(하)

(단위: 개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3.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소득 현황

가. 전체

- 행정자료의 각 소득원천들을 합산하여 소득자료 보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18~59세 인구집단의 76.3%(2,311.4만 명)가 소득자료 보유자, 나머지 23.7%(718.8만 명)는 소득자료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남(〈표 5-10〉, [그림 5-7] 참조).
- 이 때 소득자료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소득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한 금액임.
 - 가입종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소득 범위에서 일부 차이가 발생하나, 자료의 한계 및 분석상 편의를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음.
 - 참고로,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업/임업/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포함하며,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됨(국민연금공단, 2021).
-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 비율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18~26세에서 64.3%(371.3만 명)로 가장 낮고, 27~49세 연령대에서는 80% 가까이가 소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0세 이후 소득자료 미보유자 비율이 높아지는데 50~54세는 21.7%, 55~59세는 26.1%가 이에 속해 있음.
- 소득자료 보유에 있어서 남녀 차이 역시 두드러짐.
 - 남성의 18.9%, 여성의 28.7%가 소득자료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남(〈표 5-11〉 참조).

〈표 5-10〉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소득자료 보유	소득자료 미보유	계
18-26세	3,713,950	2,065,140	5,779,090
	64.3	35.7	100.0
27-29세	1,602,359	334,366	1,936,725
	82.7	17.3	100.0
30-34세	2,416,178	528,095	2,944,273
	82.1	17.9	100.0
35-39세	2,917,668	728,868	3,646,536
	80.0	20.0	100.0
40-44세	2,897,827	717,008	3,614,835
	80.2	19.8	100.0
45-49세	3,373,727	838,411	4,212,138
	80.1	19.9	100.0
50-54세	3,203,526	886,485	4,090,011
	78.3	21.7	100.0
55-59세	2,989,591	1,090,461	4,080,052
	73.3	26.7	100.0
계	23,114,826	7,188,834	30,303,660
	76.3	23.7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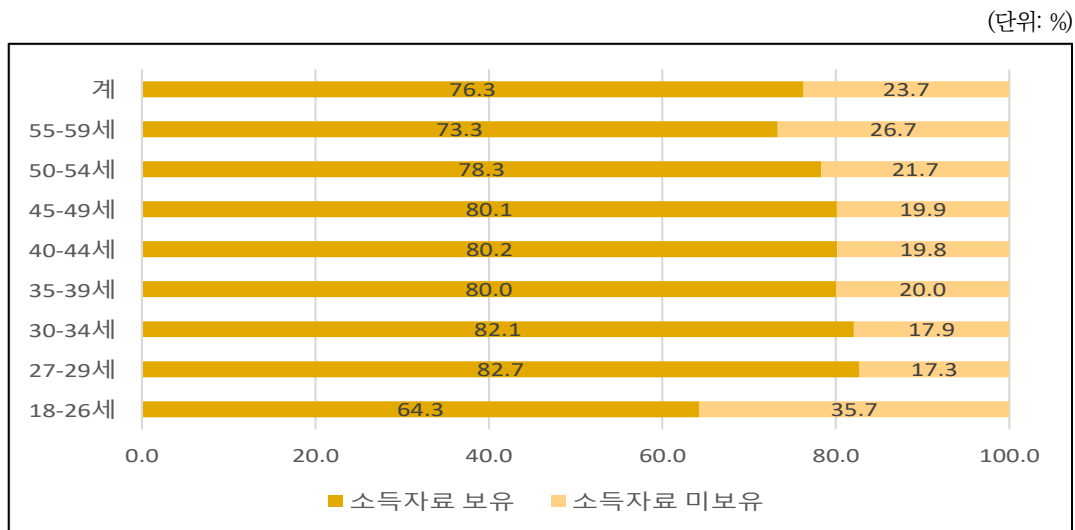
〈표 5-11〉 성별에 따른 소득자료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소득자료 보유	12,503,295 (81.1)	10,611,531 (71.3)	23,114,826 (76.3)
소득자료 미보유	2,923,018 (18.9)	4,265,816 (28.7)	7,188,834 (23.7)
계	15,426,313 (100.0)	14,877,347 (100.0)	30,303,66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5-7]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 여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나. 소득자료 보유 여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 본 연구에서 미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 여부를 상세하게 구분하여 살펴보는 이유는 실제 가입 여력이 있는 집단의 규모, 다시 말해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에 있음.
-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 여부를 살펴보면, 미가입자의 51.1%(648.2만 명)가 소득자료 보유자, 48.9%(621만 명)가 소득자료 미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남(<표 5-12> 참조).
- 이처럼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미가입자로 나타나는 것은, 소득 발생 시점과 공단이 소득자료를 입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점 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미가입자의 성/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27~29세에서 59.5%로 가장 높으며, 남녀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져, 55~59세에는 44.8%(남성 55.0%, 여성 37.5%)로 크게 하락함([그림 5-8] 참조).

○ 18~26세에서는 여성의 소득자료 보유 비율(55.8%)이 남성(49.6%)보다 높지만, 이후 역전되어 27세부터는 남성의 소득자료 보유 비율이 더 높아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에 따른 비율 차이는 더 커지는 모습을 나타냄.

- 실제로 27~29세 0.5%p에 그치던 남녀의 소득자료 보유 비율 차이는 55~59세가 되면 17.5%p까지 증가함.

〈표 5-12〉 성/연령대별 미가입자의 소득자료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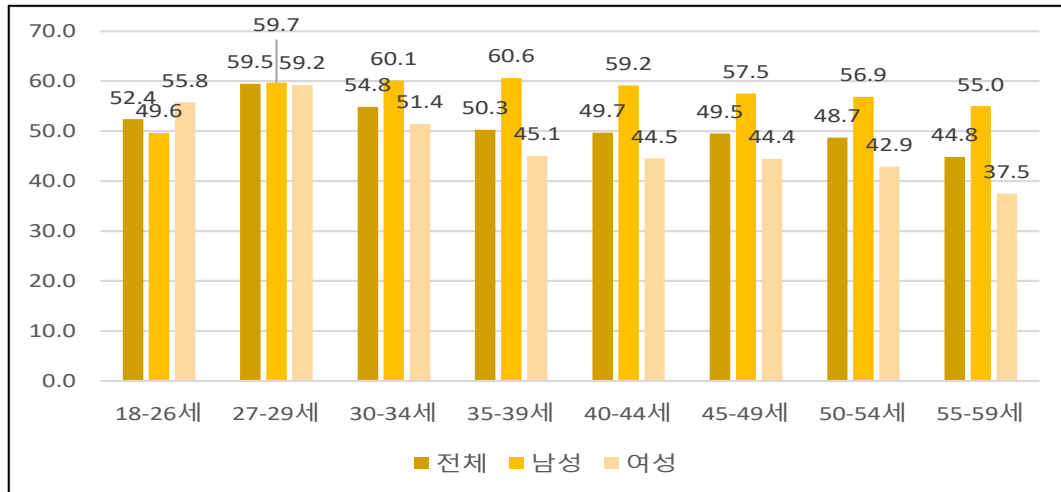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8-26세	27-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계
전체	남	2,357,153	403,660	425,125	438,364	428,340	523,311	531,133	567,152	5,674,228
	여	1,943,573	386,365	658,377	874,040	795,264	824,366	749,540	787,302	7,018,827
	계	4,300,726	790,015	1,083,502	1,312,404	1,223,604	1,347,677	1,280,673	1,354,454	12,693,055
소득 자료 보유	남	1,169,453	241,005	255,515	265,815	253,375	301,109	302,139	311,923	3,100,334
		49.6	59.7	60.1	60.6	59.2	57.5	56.9	55.0	54.6
	여	1,083,637	228,792	338,699	393,862	354,170	366,279	321,491	295,104	3,381,994
		55.8	59.2	51.4	45.1	44.5	44.4	42.9	37.5	48.2
	계	2,253,090	469,797	594,174	659,677	607,545	667,388	623,630	607,027	6,482,328
		52.4	59.5	54.8	50.3	49.7	49.5	48.7	44.8	51.1
소득 자료 미보 유	남	1,187,700	162,645	169,610	172,549	174,965	222,202	228,994	255,229	2,573,894
		50.4	40.3	39.9	39.4	40.8	42.5	43.1	45.0	45.4
	여	859,936	157,573	319,718	480,178	441,094	458,087	428,049	492,198	3,636,833
		44.2	40.8	48.6	54.9	55.5	55.6	57.1	62.5	51.8
	계	2,047,636	320,218	489,328	652,727	616,059	680,289	657,043	747,427	6,210,727
		47.6	40.5	45.2	49.7	50.3	50.5	51.3	55.2	4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5-8] 전체 미가입자 가운데 소득자료 보유 비율: 성/연령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18~59세 인구집단의 월평균소득을 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5-13>과 같음.

- 소득구간은 기준소득월액 하한(31만 원) 미만, 31~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486만 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음.
- 18~59세 인구집단에서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31만 원)보다 낮은 비율은 36.6%(1,107.8만 명)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소득자료 미보유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16.8%(389만 명)로 크게 낮아짐.
 - 한편,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 원 이상) 이상인 비율은 14.4%(435.1만 명)이며, 소득자료 미보유자를 제외하면 그 비율은 18.8%로 소폭 상승함.
- 소득구간에 따른 남녀 차이 역시 두드러지는데, 월평균소득이 31만 원 미만인 비율은 남성이 14.9%(소득자료 미보유자 제외 시 6.9%)인 것에 반해, 여성은 21.6%(소득자료 미보유자 제외 시 9.9%)로 더 높은 수준임.
 - 규모 측면에서도 해당 소득구간에 속해 있는 여성은 654.9만 명으로 남성(452.8만 명)보다 202.1만 명 더 많음.

-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도 남성 비율은 11.2%인 것에 반해, 여성은 3.2%에 그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짐.
- 소득자료 미보유자 제외 시, 해당 소득구간에 속해 있는 남성은 14.7%로 여성(4.1%)과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짐.

〈표 5-13〉 성/소득구간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소득자료 미보유자 포함			소득자료 미보유자 제외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31만원 미만	4,528,951 14.9	6,549,930 21.6	11,078,881 36.6	1,605,933 6.9	2,284,114 9.9	3,890,047 16.8
3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32,199 1.8	757,655 2.5	1,289,854 4.3	532,199 2.3	757,655 3.3	1,289,854 5.6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58,250 3.5	1,306,341 4.3	2,364,591 7.8	1,058,250 4.6	1,306,341 5.7	2,364,591 10.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813,958 6.0	2,398,782 7.9	4,212,740 13.9	1,813,958 7.8	2,398,782 10.4	4,212,740 18.2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62,048 5.8	1,742,180 5.7	3,504,228 11.6	1,762,048 7.6	1,742,180 7.5	3,504,228 15.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51,058 4.8	776,802 2.6	2,227,860 7.4	1,451,058 6.3	776,802 3.4	2,227,860 9.6
400만원 이상 486만원 미만	883,114 2.9	390,933 1.3	1,274,047 4.2	883,114 3.8	390,933 1.7	1,274,047 5.5
486만원 이상	3,396,735 11.2	954,724 3.2	4,351,459 14.4	3,396,735 14.7	954,724 4.1	4,351,459 18.8
계	15,426,313 50.9	14,877,347 49.1	30,303,660 100.0	12,503,295 54.1	10,611,531 45.9	23,114,826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소득자료 미보유자를 제외한 미가입자(648.2만 명)를 성/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들의 43.6%(282.4만 명)가 월평균 31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남(〈표 5-14〉, [그림 5-9] 참조).

○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 원) 이상인 미가입자 비율은 6.5%(42.4만 명)로 나타나며, 남성(4.7%)이 여성(1.8%)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그림 5-8] 참조).

○ 월평균소득 31만 원 미만 구간에는 소득자료를 보유한 미가입자 중 남성 18.2%(117.6만 명), 여성 25.4%(164.8만 명)로, 여성이 약 47만 명 더 많이 포진

되어 있음.

- 100만 원 미만의 소득구간까지는 여성 미가입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100만 원 이상부터는 남성 미가입자의 비율이 더 높아짐.

〈표 5-14〉 성/소득구간별 미가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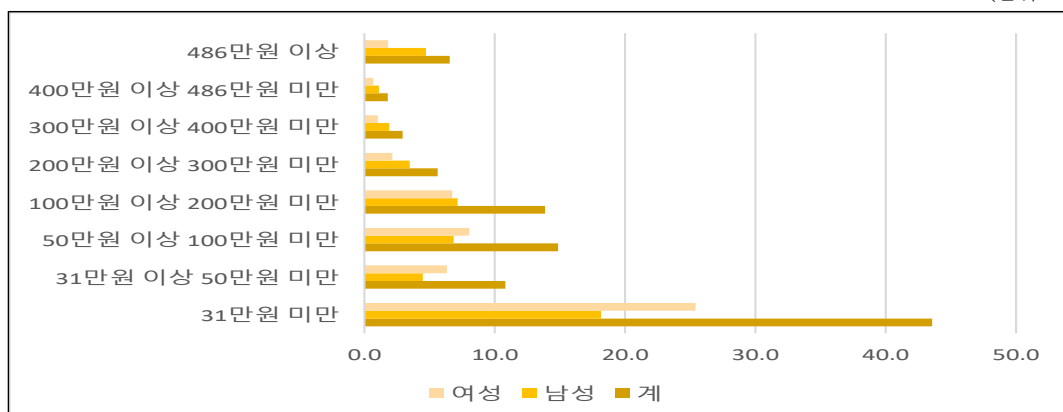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소득자료 미보유자 포함			소득자료 미보유자 제외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소계
31만원 미만	3,750,541	5,284,930	9,035,471	1,176,647	1,648,097	2,824,744
	29.5	41.6	71.2	18.2	25.4	43.6
3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90,633	410,254	700,887	290,633	410,254	700,887
	2.3	3.2	5.5	4.5	6.3	10.8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43,085	520,438	963,523	443,085	520,438	963,523
	3.5	4.1	7.6	6.8	8.0	14.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62,899	435,825	898,724	462,899	435,825	898,724
	3.6	3.4	7.1	7.1	6.7	13.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25,344	138,208	363,552	225,344	138,208	363,552
	1.8	1.1	2.9	3.5	2.1	5.6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23,330	67,350	190,680	123,330	67,350	190,680
	1.0	0.5	1.5	1.9	1.0	2.9
400만원 이상 486만원 미만	71,617	44,149	115,766	71,617	44,149	115,766
	0.6	0.3	0.9	1.1	0.7	1.8
486만원 이상	306,779	117,673	424,452	306,779	117,673	424,452
	2.4	0.9	3.3	4.7	1.8	6.5
계	5,674,228	7,018,827	12,693,055	3,100,334	3,381,994	6,482,328
	44.7	55.3	100.0	47.8	52.2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5-9〕 성/소득구간별 현황: 소득자료를 보유한 미가입자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연령대/소득구간별로 나누어 소득자료 미보유자를 포함한 미가입자의 분포를 파악함(〈표 5-15〉, [그림 5-10] 참조).

○ 월평균소득이 31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을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7-29세 연령대에서 39.7%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그 비율이 30% 초반 수준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음.

-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소득 31만 원 이상 미가입자의 비율은 점차 낮아져 55~59세에서는 30.3%로 나타남.
- 이는 27~34세 연령대, 즉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청년층에서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함.

○ 월평균소득 200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미가입자의 8.6%(109.4만 명)가 월평균 2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50~54세에서 13.1%(16.7만 명)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7~29세, 30~34세 연령대에서도 각각 10.5%, 11.9%가 월 2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표 5-15〉 미가입자의 연령대/소득구간별 현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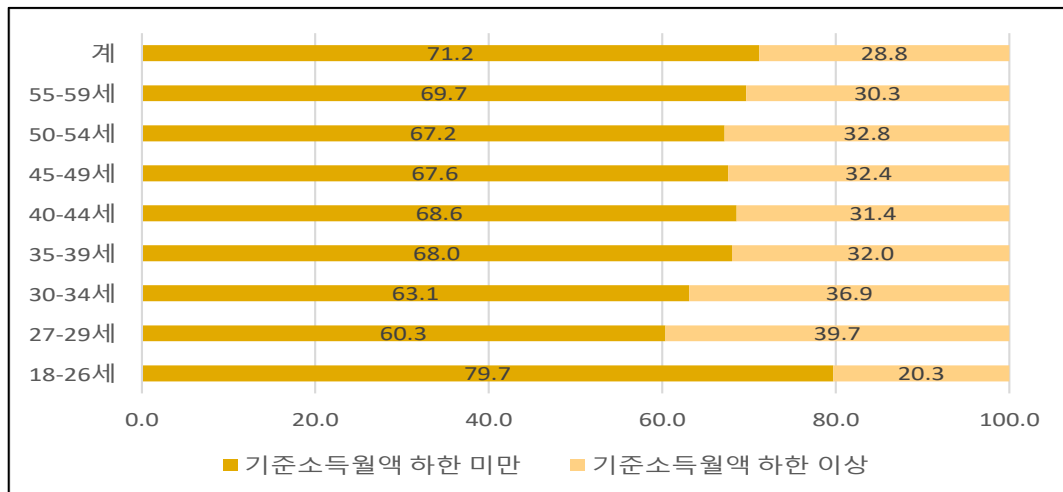
구분	18-26세	27-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계
31만원 미만	3,428,344 79.7	476,741 60.3	683,811 63.1	892,762 68.0	839,132 68.6	910,753 67.6	860,480 67.2	943,448 69.7	9,035,471 71.2
3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75,403	51,363	60,751	68,000	62,468	67,592	59,533	55,777	700,887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93,918	85,315	99,693	103,590	93,711	102,878	95,033	89,385	963,52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97,817	93,277	110,365	105,796	92,425	104,374	97,652	97,018	898,72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1,729	34,881	49,429	48,078	41,002	46,046	45,061	47,326	363,55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2,836	15,818	22,743	25,219	22,685	26,523	26,961	27,895	190,680
400만원 이상 486만원 미만	9,941	9,807	13,858	14,283	13,483	17,179	18,972	18,243	115,766
486만원 이상	20,738	22,813	42,852	54,676	58,698	72,332	76,981	75,362	424,452
계	4,300,726	790,015	1,083,502	1,312,404	1,223,604	1,347,677	1,280,673	1,354,454	12,693,055
31만원 이상	872,382 20.3	313,274 39.7	399,691 36.9	419,642 32.0	384,472 31.4	436,924 32.4	420,193 32.8	411,006 30.3	3,657,584 28.8
200만원 이상	105,244 2.4	83,319 10.5	128,882 11.9	142,256 10.8	135,868 11.1	162,080 12.0	167,975 13.1	168,826 12.5	1,094,450 8.6

주: 소득자료 미보유자 포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5-10〕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연령대별 소득 현황: 기준소득월액 하한(31만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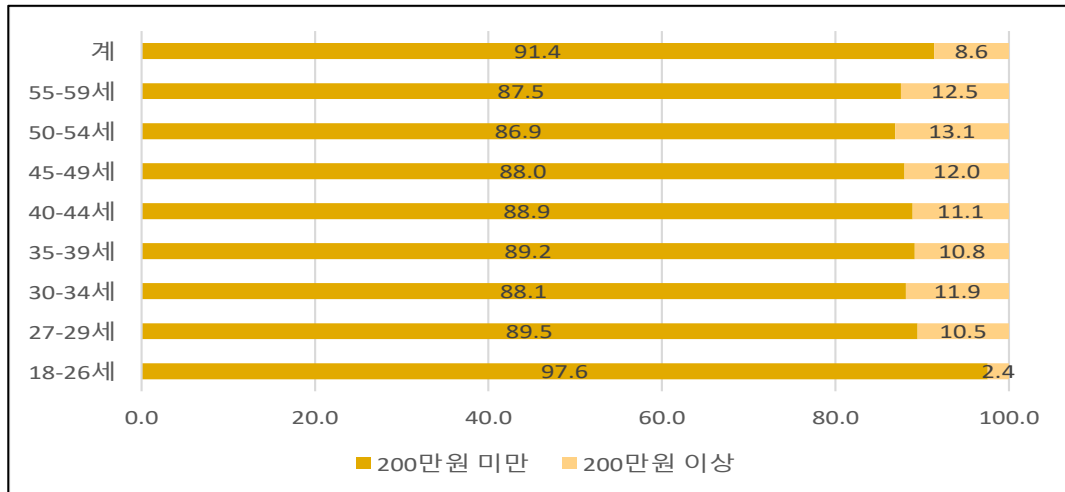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5-11]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연령대별 소득 현황: 200만원 기준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다.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사각지대 분석

□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소득자료 보유 여부 및 소득구간별로 구분하면 <표 5-16>와 같음.

○ 국민연금 전체 미가입자 1,269.3만 명 가운데 51.0%인 648.2만 명이 소득자료 보유자이며, 이들 중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31만 원)보다 낮은 비율은 43.5%(282.4만 명)로 나타남.

- 소득자료를 보유한 12월 미가입자의 15.8%, 연중 미가입자의 63.6%가 기준소득월액 하한보다 낮은 월소득을 나타내고 있음.

○ 소득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96.5만 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424.7만 명)의 21.8%를 차지함.

- 공단에서는 소득 관련 공적자료가 부재하여도,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출장 등으로 확인되는 자로서 공단의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소득 신고를 지연·기피·거부하는 경우 직권가입의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국민연금공단, 2021).

• 공단은 국세청 사업장등록 및 과세자료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소득유형

을 I~IV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²⁸⁾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신고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

- 따라서 소득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 외에도 소득유형으로 구분한 지역가입자 가운데 2유형(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나 과세자료 無)과 4유형(과세자료 無)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이들 가운데 상당수(96.2%)는 미취업자이며, 50~54세(22.7만 명, 23.6%), 55~59세(34.1만 명, 35.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높아지고 있음.
- 18~26세, 27~29세에서는 각각 1.7%, 1.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자료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 등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소득자료를 보유한 이들을 국민연금 미가입자(12월 미가입자, 연중 미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각각 나누어 비교하면, 미가입자에서 기준소득월액 하한 미만에 속해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소득자료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보다 소득 측면에서 훨씬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 사업장가입자에서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미만인 비율이 1.1%(14.1만 명)에 그치는 것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28.1%(92.3만 명)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 원) 이상인 미가입자 규모는 42.4만 명로 12.8만 명이 속해 있는 지역가입자보다 규모와 비율 측면에서 모두 높게 나타남([그림 5-12] 참조).

□ 기준소득월액 상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12월 미가입자의 9.1%(24.6만 명), 연중 미가입자의 4.7%(17.7만 명)으로

28) I 유형(사업장등록 & 과세자료 보유자), II유형(과세자료가 없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III유형(사업자등록이 없는 과세자료 보유자), IV유형(과세자료 미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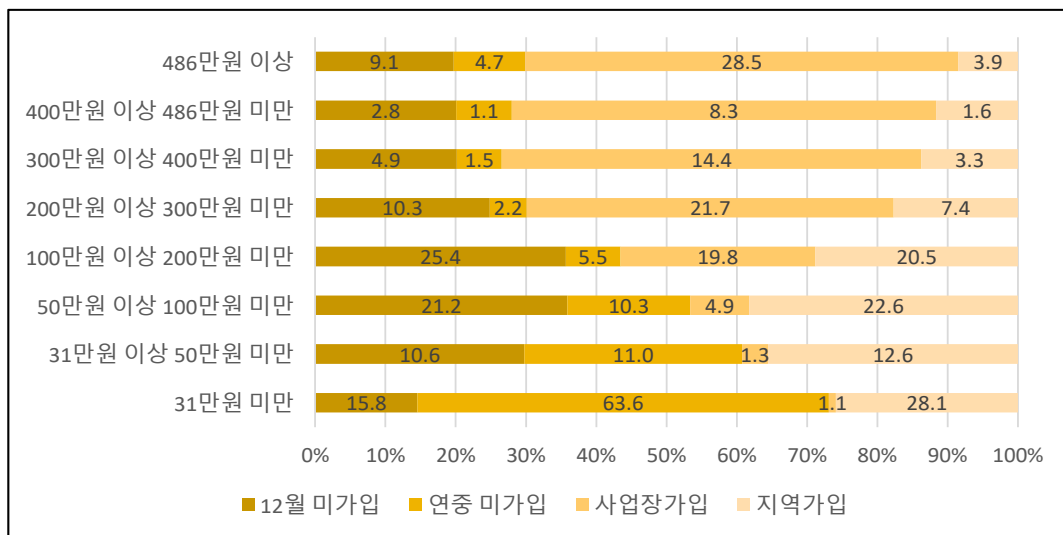
나타남.

○ 해당 소득구간에 속한 연중 미가입자의 74.4%(13.2만 명)은 상용근로자, 18.3%(3.2만 명)은 일용근로자, 6.0%(1만 명)은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나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높아져 55~59세에서는 17.3%를 차지함(〈표 5-17〉, 〈표 5-18〉 참조).

- 이 중 남성 57.7%, 여성 42.3%로 남성의 비율이 15%p 가까이 높음.
- 동 소득구간에 속한 미가입자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고소득 임금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공적연금 수급권자, 본 자료의 한계로 인해 분류하지 못한 사립학교사무직원(약 16만 명 중 일부²⁹⁾)의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그림 5-12] 소득자료 보유자의 가입상태별 소득 현황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29) 2019년 12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중 사무직원은 160,452명으로 나타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참조).

〈표 5-16〉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2019년 기준): 전체³⁰⁾

(단위: 명, %)

구분	계	미가입자		가입자	
		12월 미가입자	연중 미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30,303,660	2,825,866	9,867,189	13,362,794	4,427,811
소득자료 미보유	7,188,834	109,910	6,100,817	12,721	965,386
전체 소득 자료 보유	소계	23,114,826	2,715,956	3,766,372	13,350,073
		100.0	100.0	100.0	100.0
	31만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하한)	3,890,047	429,010	2,395,734	141,865
		16.8	15.8	63.6	1.1
	3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289,854	286,892	413,995	174,974
		5.6	10.6	11.0	1.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364,591	575,445	388,078	660,448
		10.2	21.2	10.3	4.9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4,212,740	689,934	208,790	2,640,362
		18.2	25.4	5.5	19.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504,228	280,610	82,942	2,899,309
		15.2	10.3	2.2	21.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227,860	132,379	58,301	1,928,383
		9.6	4.9	1.5	14.4
	400만원 이상 486만원 미만	1,274,047	74,705	41,061	1,105,961
		5.5	2.8	1.1	8.3
	486만원 이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4,351,459	246,981	177,471	3,798,771
		18.8	9.1	4.7	2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5-17〉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원) 이상 연중 미가입자의 특성: 종사상 지위별

(단위: 명, %)

구분	규모	비율
상용근로자	132,061	74.41
일용근로자	32,431	18.27
고용주	2,298	1.29
자영업자	10,681	6.02
계	177,471	10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30) 남녀를 각각 구분한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은 부록(〈부표 3-1〉, 〈부표 3-2〉)을 참조할 것

〈표 5-18〉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원) 이상 연중 미가입자의 특성: 연령대별

(단위: 명, %)

구분	18-26세	27-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규모	9,883	11,244	18,870	21,913	24,001	30,510	30,369	30,681
비율	5.6	6.3	10.6	12.3	13.5	17.2	17.1	17.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제4절 소결

□ 분석 개요

- 본 장에서는 2019년 12월 기준, 18~59세에 속한 인구 가운데 특수지역연금 가입자(1,537,553명)를 제외한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규모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 동 연령대의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총 30,303,660명이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13,362,794명, 지역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자를 합산한 지역가입자는 4,247,811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는 17,610,605명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추정을 위해 미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함.
 - ① 2019년 12월 기준, 당월 미가입자(‘12월 미가입자’), ② 2019년 1~12개월 간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연중 미가입자’)
- ①, ②를 합산한 전체 사각지대 규모는 12,693,055명으로 추산되며, 동 연령대 인구의 41.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나타냄.
 - 이 중 동 기간에 최소 1개월 이상 가입이력이 존재하지만 분석 기준시점이 12월 미가입자는 2,825,866명, 12개월 간 단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연중 미가입자’)는 9,867,189명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 각 연령대 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은 50~54세에서 68.7%로 가장 높고,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은 18~26세(25.5%)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다만, 20대 중후반 이후 점차 높아지던 가입률은 본격적으로 은퇴가 시작되는 55~59세로 접어들면서 66.8%로 소폭 하락함.

○ 가입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업장가입자 비율은 감소하며, 특히 45세 이후 지역가입자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현황

○ 전체 임금근로자의 73.5%가 사업장가입자, 2.5%는 지역가입자, 24.0%는 미가입자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경우, 연중 미가입자 비율(10.3%)이 다른 종사상 지위와 달리 12월 미가입자(13.8%)보다 낮음(미취업자와 자영자는 연중 미가입자 비율이 훨씬 크게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가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의 미가입률은 73.7%에 달하고 미가입 일용근로자의 69.3%가 연중 미가입자로 나타남.

○ 미취업자 691.2만 명 중 86.4%(597만 명)가 미가입자이며, 이들 대부분이 연중 미가입자로 나타남.

○ 자영자는 절반 가까이가 지역가입자이나, 고용주가 아닌 자영업자는 55.1%(195만 명)가 연중 미가입자로 나타남.

○ 12개월 간 평균 가입기간은 6.8개월로 나타남.

-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에서 가장 높으며(10개월), 자영업자(4.0개월), 일용근로자(2.7개월)와 미취업자(1.6개월) 순으로 나타남.
- 남성의 평균 가입기간은 7.4개월로 여성(6.1개월)보다 높게 나타남.

□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소득 현황

○ 18~59세 인구의 76.3%인 2,311.4만 명이 소득자료 보유자, 23.7%(718.8만 명)은 소득자료 미보유자로 파악되고 있음.

○ 연령대별 소득자료 보유율은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18~26세에서 64.3%(37

1.3만 명)로 가장 낮고, 50대에 접어들면서 감소 추이를 나타냄.

- 27~49세 연령대에서는 80% 가까이가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자료 보유 여부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

- 미가입자 가운데 소득자료 보유 비율은 27~29세(59.5%)에서 가장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져 은퇴를 앞둔 55~59세는 44.8%로 크게 하락함.
- 18~26세까지는 여성의 소득자료 보유 비율(55.8%)이 남성(49.6%)보다 높으나, 이후 역전되어 27세부터는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아지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 비율 차이는 더 커짐.
- 소득자료를 보유한 미가입자(648.2만 명)의 43.6%는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31만 원)보다 낮으며, 여기에는 여성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음.
- 27~29세 미가입자의 39.7%는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 소득구간에서 미가입자 비율은 점차 낮아짐.

□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특성

- 연중 미가입자(986.7만 명) 가운데 13.9%(137만 명)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소득자료 보유자의 가입상태에 따른 소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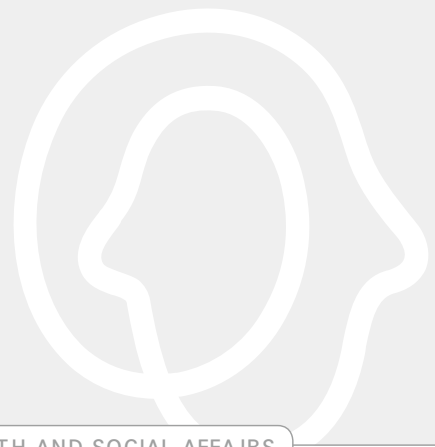
- 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가입자에서 기준소득월액 하한 미만에 속한 비율이 매우 높고, 100만원 미만에 속한 비율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단, 고소득 미가입자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월평균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486만원) 이상인 미가입자는 42.4만 명으로 해당 구간의 지역가입자(12.8만 명)와 비교할 때 규모가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소득자료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득 측면에서 훨씬 열악하며, 실제로 이들의 기준소득월액 하한 미만 비율은 28.1%로 낮지 않음.
- 소득자료가 부재함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규모는 96.5만 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21.8%를 차지함.

□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적 함의

- 본 장에서 실시한 분석은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가입이력 및 소득자료 보유 여부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소득자료 보유 여부 및 실제 소득수준에 따라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은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자료 미보유율과 미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한 크레딧 확대가 가입기간 확대 및 수급권 확보에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음.
- 미가입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취업 청년층과, 일용근로자는 소득자료 보유율이 낮다는 측면에서 가입제고가 어려운 집단으로 파악됨.
 - 27~34세 청년층의 경우, 소득자료 보유율이 높고,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가입을 하지 않는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납부예외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동 연령대에서 저소득으로 인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이후 가입을 유지하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급여 적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반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본 행정자료에서는 일용근로자 가운데 연중 미가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2022년부터 월소득이 22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향후 실시간 소득파악(RTI)이 가능해진다면 이들의 가입률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자영자 가운데 미가입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하고, 이들의 소득수준 역시 낮은 점에서 보험료 지원 확대는 사각지대 완화의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 저소득 청년, 저소득 자영자 등 미가입 저소득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려면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지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곧 은퇴를 앞두거나 시작되는 55~59세의 가입률이 하락하는 것은 이들 연령 집단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자 또는 미취업자로 노동시장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무엇보다도, 소득발생 시점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미가입 규모는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음.



제6장

고용보험 가입실태 분석

제1절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의미와 적용

제2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구분

제3절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

제4절 근로자의 세부 집단별 고용보험 가입 실태

제5절 소결

제 6 장 고용보험 가입실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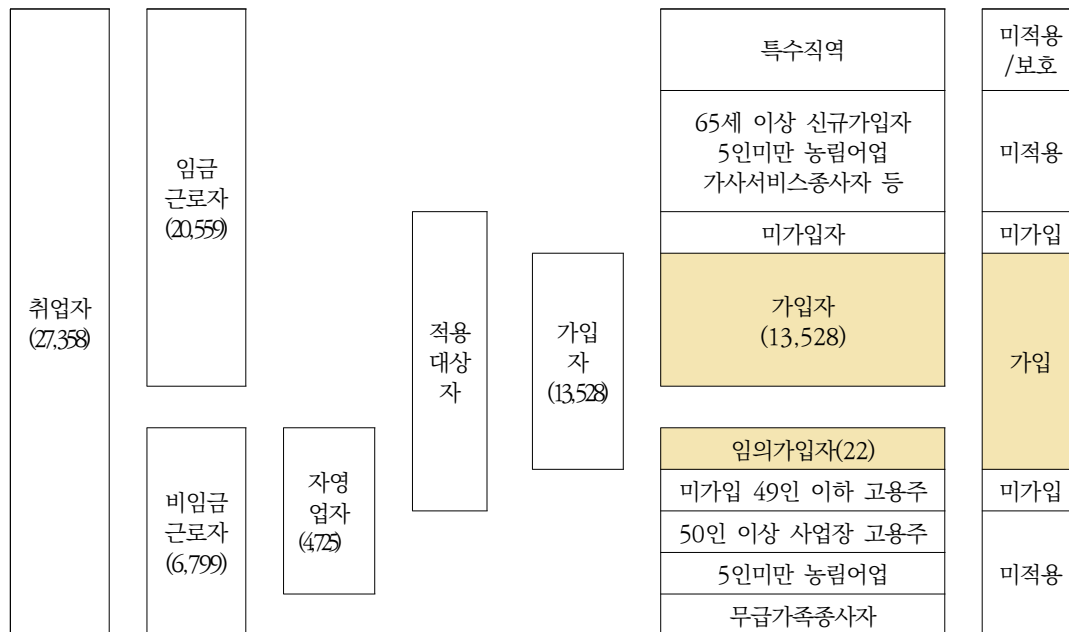
제1절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의미와 적용

1. 선행연구에서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 선행 연구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크게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로 구분함.
- 적용의 사각지대는 다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 적용의 사각지대와 사업주나 근로자의 기여 회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가입 사각지대로 구분됨.
 - 의무가입 대상인 근로자 가운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가사서비스 종사자, 65세 이상 신규가입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자영업자, 특수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직 우체국 직원)등으로 구성됨.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의 법적 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영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49명 이하인 사업체의 고용주는 임의가입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함.
 - 또한 특고 가운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영업특고에 한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
- 급여의 사각지대는 고용보험에 가입은 하였지만 가입 기간의 부족등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지칭함.
- 2019년 8월 기준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분포는 [그림 6-1]과 같음.

[그림 6-1]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분포(2019년 8월)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19, 8). 박진희 외(2020)에서 수정하여 인용.

□ 선행연구들은 주로 각종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고 있음.

○ 서정희·백승호(2014)는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를 법적 사각지대로 지칭함.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규모는 임금근로자의 12.5%(2012년)라고 추정함.

○ 이병희(2019)는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이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공식 노동자를 포함하여 분석함.

- 전체 취업자의 45%가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분석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법적 사각지대는 취업자의 약 32.2%, 실질적 사각지대는 14.9%인 것으로 추정함.

○ 장지연·박찬임(2019)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취업자 가운데 37.7%가 법적 사

각지대에, 13.5%가 실질적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추정함.

○ 김혜연(2020)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성별 격차에 주목함.

-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함.

□ 한편, 박진희 등(2020)은 〈고용보험 행정DB〉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특고/자영업자별로 분석함.

○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포괄범위가 국세청에 신고 된 일용근로자의 50%에 미치지 못함을 보이면서, 그 이유로 일용근로자가 복수의 사업체에서 간헐적이며 초단기적으로 근로하는 현실을 지적함.

○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축적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실제 고용보험 가입자 이외에 비가입자, 특히 잠재적인 가입 대상자에 대한 실태 분석이 불가능함.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점은 추가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할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니게 됨.
- 가입자 및 잠재적 가입대상자의 소득 특성, 즉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원 유무와 금액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건보 자료의 특성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테이블〉과 다른 사회보험 테이블, 그리고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을 결합하여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함.

○ 이 자료의 특성 상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고용보험 가입자 뿐 만 아니라 전체 취업자,

나아가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자료이며 따라서 근로자, 취업자, 경제활동인구 등 다양하게 정의된 집단에서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살펴볼 수 있음.

-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세분화된 집단 구분이 가능함. 즉 성별, 연령, 종사상 지위, 소득 구간 등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고용보험 가입자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함.
- 근로소득은 물론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원천의 소득액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소득수준을 파악하여 소득중심의 고용보험으로 전환하는 데 대한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음.
- 다른 사회보험의 가입실태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음(이는 7장에서 살펴볼 예정임).

○ 반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엄밀한 사각지대 정의가 어려운 점이 있음. 이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함.

□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취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파악되어야 함.

○ 우선 종사상 지위, 특히 근로자와 비근로자(자영자)가 구분되어야 함.

-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 적용 제외 여부가 구분되어야 하며, 자영자는 임의가입 가능성이 판별되어야 함.

○ 근로자 가운데 법적으로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연령(65세 이상 여부), 업종(교육서비스업 종사 여부), 근로시간(월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 여부)을 확인해야함.

- 또한 근로자 가운데 급여의 사각지대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자영업자 가운데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49명 이하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체의 고용주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영업특고인지 여부 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정확한 식별에는 한계가 존재함.

○ 우선 자료에 종사상 지위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

-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에는 종사상 지위정보가 있으나, 이는 엄밀한 의미의 종사상 지위가 아닌 일자리 유형임(이에 관해서는 후술함).
- 따라서 다른 정보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유추하는 것이 불가피함.

○ 취업자의 종사 산업 정보가 없고 근로시간 관련 정보도 제한되어 있어 교육서비스업,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식별도 불가하므로 법률상 적용 제외자에 대한 구분이 불가능함.

○ 실업급여액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급여의 사각지대를 판별할 수 없어 분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료 부과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파악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함.

- 즉, <고용보험테이블>에 연간 1회 이상 고용보험 부과(건보공단의 통합 사회보험료 부과) 이력이 있는 집단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간주함.
- 또한, <건강보험테이블>에서 공·교로 구분된 집단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현실적으로 해고와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자로 취급함.

□ 이러한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선행연구들과 같은 의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파악은 불가능함.

○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파악 작업을 대신하고자 함.

○ 이하에서 분석되는 미가입자는 향후 다양한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 정책의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정책적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제2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구분

1. 종사상 지위의 구분 방법

□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우선 종사상 지위의 구분이 선행되어야 함.

○ 2장과 3장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각 개인의 일자리 유형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을 통해 파악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종사상지위에 대한 구분이 가능함.

- 2장과 3장에서 <4대보험 결합테이블>과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을 이용하여 일자리 유형을 구분한 바 있음.

- 3장에서는 전체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분포에 대해 제시한 바 있으나, <표 6-1>에서는 특정 연령대(15세 이상, 18~64세)의 일자리 유형 분포를 볼 수 있음.

○ 일자리 유형은 종사상 지위를 명확하고도 배타적인 형태로 구분하지 않고 있음.

- <표 6-1>에서 보듯이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갖고 있는 개인도 존재함.

- 1개의 일자리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일자리 유형이 세분되어 있으며, 근속기간 정보가 없는 집단도 존재함.

- 개인고용주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님.

○ 따라서, 추가적 작업을 통해 종사상 지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즉 일자리 유형 정보와 각 개인별 소득 특성(원천별 소득 유무와 원천별 소득의 상대적 크기 등)을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할 수 있음.

〈표 6-1〉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에서의 일자리 유형 구분(연령대별, 2019년)

(단위: 명, %)

일자리 유형	15세 이상		18~64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일자리 없음				
소득 있음(근로, 사업소득 이외)	2,040,731	4.5	383,701	1.1
소득 없음	12,547,941	27.9	7,836,017	22.0
일자리 1개				
(근로자)2년 이상 근무	6,604,494	14.7	6,323,050	17.8
(근로자)1~2년 근무	2,446,435	5.5	2,274,999	6.4
(근로자)6개월1년 근무	1,222,641	2.7	1,126,406	3.2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1,004,797	2.2	938,383	2.6
(근로자)미분류	24,800	0.1	23,234	0.1
일용근로자	2,682,303	6.0	1,854,870	5.2
법인고용주	268,766	0.6	238,168	0.7
개인고용주	3,404,618	7.6	2,787,077	7.8
자영업	2,522,595	5.6	2,260,296	6.4
특고	71,906	0.2	66,631	0.2
일자리 2개				
일용근로+자영업	952,520	2.1	881,729	2.5
(근로자)6개월 미만+일용근로	993,901	2.2	901,458	2.5
(근로자)2년 이상+ 자영업	775,408	1.7	757,887	2.1
(근로자)1~2년 +(근로자)6개월 미만	381,543	0.9	361,019	1.0
개인고용주+ 자영업	590,629	1.3	547,435	1.5
일자리 2개 그 외	4,075,203	9.1	3,801,899	10.7
일자리 3개 이상	2,317,519	5.2	2,194,782	6.2
계	44,928,750	100.0	35,559,041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 및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 테이블, 2019년.

□ 일자리 유형과 소득특성을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세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음
(종사상지위의 소분류).

○ 우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없어 일자리가 없는 것으로 구분된 집단은 다른 소득
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미취업으로 구분함.

- 미취업자의 경우에도 금융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을
수는 있음.

○ 일자리가 1개인 집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분함.

- 일용근로자는 그대로 일용근로자로, 특고는 자영업자로 분류함.
- 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는 근무 기간과 무관하게(근무 기간 미파악 포함) 모두 상용근로자로 구분함.(상용/임시근로 여부는 이 자료를 통해 구분 불가하므로 모두 상용근로자로 구분).
- 법인고용주는 상용근로자로, (고용원 없는)자영업자는 그대로 (고용원 없는)자영업자로 구분함.
- 개인고용주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관측되는 경우가 많아(표3-21)), 근로소득 \geq 사업소득인 상용근로자로, 반대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인 경우는 (고용원 있는) 고용주로 구분함.

○ 일자리가 2개 이상인 집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분함.

- 일자리의 유형이 '일용근로+자영업'인 경우 근로소득 \geq 사업소득이면 일용근로자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면 자영업자로 간주함.
- '(근로자) 6개월 미만+일용근로'은 상용근로소득 \geq 일용근로소득이면 상용근로자로, 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함.
- '(근로자)2년 이상 + 자영업'의 경우 근로소득 \geq 사업소득이면서 상용근로소득 \geq 일용근로소득이면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 \geq 사업소득이면서 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이면 일용근로자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면 자영업자로 구분함.
- '1~2년 근무+6개월 미만 근무'는 모두 상용근로자로 분류함.
- '개인고용주+자영업자'는 근로소득 \geq 사업소득이면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면 자영업자로 분류함.
- 기타 일자리 2개 이상과 일자리 3개 이상 집단은 근로소득 \geq 사업소득이면서 상용근로소득 \geq 일용근로소득이면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 \geq 사업소득이면서 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이면 일용근로자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이면 자영업자로 구분함.

○ 이와 같이 세분화한 종사상 지위를 다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함(종사상 지위의 대분류).

-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근로자로 구분함.
-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특고는 자영업자로 묶음.
- 기타 미취업자는 그대로 미취업으로 구분함.

○ 이상과 같은 종사상 지위의 분류 과정은 [그림 6-2]와 같음.

[그림 6-2] 일자리 유형과 종사상 지위 구분



2. 종사상지위의 분포

□ <표 6-2>는 이와 같이 구분된 종사상 지위별로 전체 인구, 15세 이상 인구, 18~64세 인구에 대해 인구수와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근로자는 52.2%, 자영자(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5.4%, 미취업자가 32.5%임.³¹⁾

○ 15세 이상 인구를 세분화한 종사상 지위에서 상용근로자는 42.1%, 일용근로자 10.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7.8%로 나타남.

<표 6-2> 전체 인구의 종사상지위 분포(2019년)

(단위: 명, %)

구분	전체연령		15세 이상		18~64세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근로자	23,441,578	45.6	23,439,954	52.2	21,374,447	60.1
상용근로자	18,895,752	36.8	18,895,510	42.1	17,835,776	50.2
일용근로자	4,545,826	8.8	4,544,444	10.1	3,538,671	10.0
자영자	6,914,301	13.5	6,900,124	15.4	5,964,876	16.8
고용주	3,386,414	6.6	3,384,452	7.5	2,779,392	7.8
자영업자	3,527,887	6.9	3,515,672	7.8	3,185,484	9.0
미취업	21,039,555	40.9	14,588,672	32.5	8,219,718	23.1
계	51,395,434	100.0	44,928,750	100.0	35,559,041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산재보험 테이블> 및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 테이블, 2019년.

□ [그림 6-3]은 [그림 6-2]에 따라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종사상 지위로 나누어진 일자리 유형에 대해 그 분포를 보여줌.

○ 15세 이상 개인고용주 가운데 19.8%는 상용근로자로, 나머지 80.2%는 고용주로 구분됨.

○ 3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73.5%는 상용근로자, 18.1%는 일용근로자, 8.5%는 자영업자로 구분됨.

31) 이하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영자로, 그리고 두 집단을 통칭하여 자영자로 지칭하기로 함.

[그림 6-3] 복수의 종사상 지위로 구분된 일자리 유형

(단위: %)

〈일자리 유형〉	〈소분류〉	15세 이상	18~64세
개인고용주	상용근로자	19.8	21.6
	고용주	80.2	78.4
일용+자영업	일용근로자	69.3	68.3
	자영업자	30.7	31.7
(근로자)6개월미만+일용근로	상용근로자	42.5	43.9
	일용근로자	57.5	56.1
(근로자)2년 이상+자영업	상용근로자	98.7	98.8
	일용근로자	0.1	0.1
	자영업자	1.2	1.2
개인고용주+자영업	상용근로자	10.2	10.3
	고용주	89.8	89.7
기타 2개 일자리	상용근로자	84.4	85.2
	일용근로자	5.2	4.7
	자영업자	10.4	10.1
3개 이상 일자리	상용근로자	73.5	73.4
	일용근로자	18.1	18.1
	자영업자	8.5	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산재보험 테이블〉 및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 테이블, 2019년.

- 참고로 <표 6-3>은 통계청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추정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분포를 <표 6-2>와 비교한 것임.
-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조사)>에서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특정 기간의 경제활동 의사, 구직활동 여부, 근로계약 조건, 기타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지만, 결합테이블에서는 연간 일자리와 소득을 이용하여 파악함.
 - 따라서 경제활동/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구분이 불가능하며 근로자 가운데 상용/임시직의 구분이 불가능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역시 불가능함.
- 결합 테이블의 15세 이상 인구는 약 4,493만 명으로 경활조사의 4,450만 명에 비해 약 158만 명 많은 규모임.
- 15세 이상 취업자 규모는 결합테이블에서는 3,034만 명으로 경활조사의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2,712만 명에 비해 약 322만 명 이상 많은 규모임.
 -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의 비율은 결합테이블에서 67.5%이고 경활조사에서는 60.9%임.
 - 결합테이블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종사상 지위를 연간 일자리와 소득 정보를 이용하여 구분한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됨.
- 1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근로자의 비율은 결합테이블이 경활조사보다 높게 나타남.
 - 15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근로자와 자영자의 비율은 결합테이블에서는 각각 77.3%, 22.7%이고 경활조사에서는 각각 75.4%, 24.6%(무급가족종사자 포함)임.
- 특히 일용직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경활조사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일용근로소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일용근로자 여부를 판정함.

-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여타 종사상 지위(미취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로 구분되었을 집단 가운데 다수가 일용근로자로 구분되었을 수 있음.
- 예컨대 다른 소득원이 없고 연중 소액의 일용근로소득을 얻은 고령자의 경우 경찰조사에서는 (조사 시점에 따라) 미취업자(비경찰 또는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수 있으나 결합데이터의 자료에서는 일용근로자로 분류됨.

〈표 6-3〉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비교(2019년)

(단위: 천명, %, %p)

구분	인구(천명)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			취업자 대비 비율		
	건보 (A)	경찰 (B)	차이 (=A-B)	건보	경찰	차이 (%p)	건보	경찰	차이 (%p)
임금근로자	23,440	20,440	3,000	52.2	45.9	6.2	77.3	75.4	1.9
-상용근로자	18,896	14,216	4,680	42.1	31.9	10.1	62.3	52.4	9.9
-임시근로자		4,795	-4,795		10.8	-10.8	0.0	17.7	-17.7
-일용근로자	4,544	1,429	3,115	10.1	3.2	6.9	15.0	5.3	9.7
자영업자(무급가족제외)	6,900	5,606	1,294	15.4	12.6	2.8	22.7	20.7	2.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384	1,538	1,846	7.5	3.5	4.1	11.2	5.7	5.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516	4,068	-552	7.8	9.1	-1.3	11.6	15.0	-3.4
-무급가족종사자		1,077							
취업자(무급가족 포함)	30,340	27,123	3,217	67.5	60.9	6.6	100.0	100.0	0.0
실업자		1,063							
미취업(=실업+비경찰)	14,589	17,381	-2,792	32.5	39.1	-6.6			
15세이상인구	44,929	44,504	425	100.0	100.0	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고용보험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년.

제3절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

1. 성별, 연령대별 가입실태

-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기에 앞서 여기서는 18~64세 전체 인구나 동 연령대의 취업자의 성별, 연령구간별 고용보험 가입률을 살펴볼 것임.
- 15세부터 생산연령인구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15~17세 연령이 비경제활동 인구(학생)이라는 점, 국민연금 연금 가입연령이 18세부터라는 점을 고려함.
- 또한 65세 이상은 은퇴자의 비중이 높고 신규 취업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함.
- 고용보험 가입/미가입의 파락이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려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파락하는 것이 타당하나,
 -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인구 규모 실태를 파락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점,
 -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에서도 향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취업자와 자영자까지를 포함하여 살펴봄.
 -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임.
- <표 6-4>와 <표 6-5>는 18~64세 취업자에 대해서 성별,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보여줌.
- 2019년 18~64세 취업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52.0%임.
 - 여성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52.8%)이 남성(51.3%)에 비해 높음.

〈표 6-4〉 취업자의 성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단위: 명, %)

연도	구분	취업자	가입자	가입률
2018	전체	26,816,791	13,698,508	51.1
	남	14,664,222	7,449,270	50.8
	여	12,152,569	6,249,238	51.4
2019	전체	27,339,323	14,216,090	52.0
	남	14,887,187	7,642,241	51.3
	여	12,452,136	6,573,849	52.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0~34세 연령구간에서 가장 높고, 다음이 25~29세 구간임(〈표 6-5〉참조).

- 가입률이 가장 낮은 구간은 18~19세 구간이며, 다음으로 60~64세 구간임.
- 30~34세 구간을 정점으로 그 전후 연령대에서 가입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표 6-5〉 취업자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단위: 명, %)

연령대	2018년			2019년		
	취업자	가입자	가입률	취업자	가입자	가입률
18~19	301,662	34,811	11.5	561,708	122,796	21.9
20~24	2,127,793	751,057	35.3	2,238,001	983,028	43.9
25~29	2,844,312	1,743,287	61.3	2,913,859	1,876,064	64.4
30~34	2,618,665	1,699,330	64.9	2,632,039	1,701,218	64.6
35~39	3,148,137	1,898,863	60.3	3,171,512	1,899,113	59.9
40~44	3,119,884	1,742,387	55.8	3,146,230	1,755,052	55.8
45~49	3,608,537	1,848,267	51.2	3,632,676	1,866,465	51.4
50~54	3,423,630	1,622,510	47.4	3,440,272	1,642,041	47.7
55~59	3,180,790	1,395,279	43.9	3,185,730	1,412,632	44.3
60~64세	2,443,381	962,717	39.4	2,417,296	957,681	39.6
계	26,816,791	13,698,508	51.1	27,339,323	14,216,090	5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2. 종사상 지위별 가입실태

□ <표 6-6>은 종사상 지위별로 18~64세 취업 인구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와 비율을 보여줌.

○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공·교에 해당되는 집단 중 직장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부과)을 받는 것으로 간주함.

○ 2019년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65.0%로 나타남.

- 근로자 내에서 상용과 일용근로자의 가입자 비율은 차이가 큼.
- 상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자 비율은 각각 75.8%인 반면, 일용근로자는 10.3%에 불과함.

○ 자영자 가운데에서도 일부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있음.

- 자영자의 임의가입 또는 복수의 일자리를 지닌 자영자 등의 존재로 인해 자영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포함될 수 있음.
- 2019년의 경우 고용주의 경우 0.5%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7.7%가 고용보험에 가입함.

<표 6-6>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고용보험 가입자(18~64세)

(단위: 명, %)

종사상 지위	2018년			2019년		
	인구	가입자	가입률	인구	가입자	가입률
근로자	21,146,176	13,459,215	63.6	21,479,109	13,956,319	65.0
상용근로자	17,325,447	13,125,685	75.8	17,940,418	13,591,666	75.8
일용근로자	3,820,729	333,530	8.7	3,538,691	364,653	10.3
자영자	5,670,615	239,293	4.2	5,860,214	259,771	4.4
고용주	2,597,790	11,123	0.4	2,674,952	12,591	0.5
자영업자	3,072,825	228,170	7.4	3,185,262	247,180	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참고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9.8)에 의하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0.9%임.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9)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90.3%, 97.7%임.
- 이러한 차이는 건보공단 <고용보험테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고용보험 부과 사업장 및 근로자의 존재, 그리고 앞 절에서 언급한 종사상 지위 구분 방식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명확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함.

3. 소득 소득구간별 가입실태

-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득구간별로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을 분석함.
- 근로자는 근로소득 구간에 따라, 자영자는 노동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파악함.
- 근로자와 자영자 모두 최하 소득구간을 소득중심 고용보험으로 전환 시 기준점으로 논의되는 월 80만 원(연간 960만 원) 구간을 하한으로 설정함.
-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 비해 훨씬 하향 분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간 구분점을 좀 더 세분함.
- <표 6-7>은 18~64세 전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 구간별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여줌.
- 2019년의 경우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연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인 연간 960만 원(월 80만 원) 미만인 계층으로 가입률은 37.8%임.
 - 근로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주로 일용근로자의 낮은 가입률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볼 수 있음.

○ 최하위 소득구간에 비해 다음 소득구간(연 근로소득 960~2,000만 원) 구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크게 높아지고 있음.

- 2019년의 경우 이 소득구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2.0%로 높아짐.

〈표 6-7〉 근로자의 근로소득 구간별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18~64세)

(단위: 만원, 명, %)

근로소득 (만원)	2018년				2019년			
	인구	구성비	가입자	가입률	인구	구성비	가입자	가입률
960 미만	4,548,809	21.5	1,568,555	34.5	4,136,817	19.3	1,564,673	37.8
~2천	3,480,693	16.5	2,481,675	71.3	2,948,479	13.7	2,122,465	72.0
~3천	3,409,455	16.1	2,628,796	77.1	3,860,090	18.0	3,013,923	78.1
~4천	2,404,485	11.4	1,837,658	76.4	2,520,365	11.7	1,954,735	77.6
~5천	1,713,951	8.1	1,274,395	74.4	1,837,864	8.6	1,386,547	75.4
~6천	1,195,494	5.7	860,085	71.9	1,286,502	6.0	930,615	72.3
~7천	889,126	4.2	631,818	71.1	959,611	4.5	672,050	70.0
~8천	673,638	3.2	477,813	70.9	743,039	3.5	514,850	69.3
~9천	522,027	2.5	362,964	69.5	578,790	2.7	385,496	66.6
~1억	379,676	1.8	244,224	64.3	437,861	2.0	268,993	61.4
~1억2천	535,604	2.5	328,761	61.4	618,462	2.9	349,405	56.5
~1억5천	523,516	2.5	312,705	59.7	600,548	2.8	320,038	53.3
~2억	486,658	2.3	277,500	57.0	548,216	2.6	292,963	53.4
2억 이상	383,044	1.8	172,266	45.0	402,465	1.9	179,566	44.6
계	21,146,176	100.0	13,459,215	63.6	21,479,109	100.0	13,956,319	65.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근로소득이 연간 4천 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입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유추가 가능함.

- 첫째는 3장에서 언급한 고용보험 통계와 〈고용보험테이블〉의 차이를 초래한 자료상의 문제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임. 즉 실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건보공단의 〈고용보험테이블〉에 포함되지 않은 가입자의 비율이 고소득층에서 더 높을 가능성임.
- 둘째는 실제로 고소득층에서 고용보험 가입유인이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임. 특히 법인 기업의 고소득 임원이나 일용직 근로자 중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음.

- 후자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의 <고용보험테이블>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표 6-8>은 자영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에 대해 노동소득 구간별로 고용보험 가입률 보여줌.

○ 전체 취업자의 가입률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이 향후 소득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잠재적 가입대상자가 될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음.

○ 취업자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자영자가 포함된 만큼, 고용보험 가입률은 <표 6-7>의 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남.

- 또한 소득구간별로 근로자와 자영자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노동소득계층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남.

- 2019년의 경우 노동소득이 연간 980만 원(월 80만 원) 미만인 계층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은 50%에 미치지 못함.
- 노동소득이 연간 4천 만 원을 넘어서면서 고용보험 가입자의 비율은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앞서 지정한 대로 자료상의 문제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고용보험 가입유인 저하의 문제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

〈표 6-8〉 노동소득 구간별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18~64세)

(단위: 명, %)

노동소득 (만원)	2018년				2019년			
	인구	구성비	가입자	가입률	인구	구성비	가입자	가입률
100 미만	2,373,683	8.9	79,629	3.4	2,269,658	8.3	85,923	3.8
~200	1,062,209	4.0	131,402	12.4	990,435	3.6	133,979	13.5
~300	893,488	3.3	145,443	16.3	855,500	3.1	149,129	17.4
~400	787,089	2.9	180,386	22.9	768,577	2.8	184,087	24.0
~500	698,524	2.6	179,450	25.7	677,952	2.5	175,823	25.9
~600	579,283	2.2	175,359	30.3	578,720	2.1	185,262	32.0
~800	1,041,608	3.9	378,112	36.3	1,022,793	3.7	368,519	36.0
~960	727,084	2.7	307,185	42.2	709,999	2.6	298,362	42.0
~1,200	988,088	3.7	477,828	48.4	960,090	3.5	465,278	48.5
~1,500	1,176,967	4.4	640,102	54.4	1,134,888	4.2	619,537	54.6
~2,000	2,132,488	8.0	1,375,058	64.5	1,744,507	6.4	1,068,334	61.2
~3,000	3,772,965	14.1	2,684,571	71.2	4,160,850	15.2	3,044,562	73.2
~4,000	2,608,889	9.7	1,882,652	72.2	2,741,878	10.0	2,006,922	73.2
~6,000	3,134,479	11.7	2,186,839	69.8	3,362,703	12.3	2,374,505	70.6
6,000이상	4,839,947	18.0	2,874,492	59.4	5,360,773	19.6	3,055,868	57.0
계	26,816,791	100.0	13,698,508	51.1	27,339,323	100.0	14,216,090	5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제4절 근로자의 세부 집단별 고용보험 가입 실태

□ 3절까지 성별, 연령대별, 종사상 지위별, 소득구간별 고용보험 가입률을 각각 보았다면 4절에서는 이들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여 집단을 세분화 했을 때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비교할 것임.

○ 각 연도별로 세부 집단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부표 4-1〉 ~〈부표 4-6〉을 참조할 것.

□ 이 가운데에서 근로자에 국한하여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30개 집단과 가

장 낮은 30개 집단³²⁾을 보여주는 것이 <표 6-9>와 <표 6-10>임.

○ 2019년 현재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근로소득 2천~3천만 원 사이의 25~29세 상용직 여성근로자임.

- 연 소득 2천~4천만 원 구간의 20대와 30대 초반 여성 상용근로자들이 가입률이 가장 높은 집단을 이룸.

<표 6-9>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은 30개 집단(2019년)

(단위: %)

순위	성별	연령대	종사상지위	근로소득(만원)	가입률
1	여	25~29	상용	2천~3천	91.0
2	여	20~24	상용	2천~3천	89.5
3	여	25~29	상용	960~2천	89.4
4	여	25~29	상용	3천~4천	88.9
5	여	30~34	상용	3천~4천	88.9
6	여	30~34	상용	2천~3천	88.6
7	여	20~24	상용	960~2천	88.1
8	여	30~34	상용	960~2천	86.5
9	여	30~34	상용	4천~5천	86.4
10	여	35~39	상용	3천~4천	85.7
11	남	30~34	상용	3천~4천	85.7
12	남	20~24	상용	2천~3천	85.7
13	여	35~39	상용	4천~5천	85.6
14	남	35~39	상용	4천~5천	85.5
15	남	30~34	상용	4천~5천	85.5
16	남	25~29	상용	2천~3천	85.1
17	여	35~39	상용	2천~3천	84.9
18	남	20~24	상용	3천~4천	84.8
19	남	35~39	상용	5천~6천	84.6
20	남	25~29	상용	3천~4천	84.5
21	남	35~39	상용	3천~4천	84.4
22	남	30~34	상용	2천~3천	83.9
23	여	35~39	상용	5천~6천	83.7
24	여	50~54	상용	8천~9천	83.5
25	여	35~39	상용	960~2천	83.5
26	여	18~19	상용	960~2천	83.4
27	여	40~44	상용	2천~3천	83.2
28	남	40~44	상용	5천~6천	83.0
29	여	20~24	상용	3천~4천	82.9
30	여	45~49	상용	2천~3천	82.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32) 해당자 수가 1만 명 미만인 집단은 순위에서 제외하였음.

○ 반대로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집단은 연소득 1억2천 만~1억5천 만 원 구간의 55~59세 일용직 남성 근로자임.

- 중고령층의 일용직 남성근로자들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남.
- 그러나 소득계층 측면에서는 소득이 가장 낮은 연 1천 만 원(960만 원) 미만의 일용 근로자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에서도 낮은 가입률을 확인할 수 있음.

〈표 6-10〉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30개 집단(2019년)

(단위: %)

순위	성별	연령대	종사상지위	근로소득(만원)	가입률
1	남	55~59	일용	1억2천~1억5천	3.0
2	남	50~54	일용	1억2천~1억5천	3.1
3	남	60~64	일용	1억~1억2천	3.1
4	남	55~59	일용	1억~1억2천	3.2
5	남	45~49	일용	1억2천~1억5천	3.3
6	남	50~54	일용	1억~1억2천	3.8
7	남	45~49	일용	1억~1억2천	4.4
8	남	60~64	일용	6천~7천	4.5
9	남	55~59	일용	8천~9천	4.6
10	남	55~59	일용	7천~8천	5.0
11	남	45~49	일용	~960	5.2
12	남	55~59	일용	6천~7천	5.3
13	남	50~54	일용	7천~8천	5.3
14	남	60~64	일용	5천~6천	5.3
15	남	50~54	일용	~960	5.4
16	남	40~44	일용	~960	5.6
17	남	55~59	일용	5천~6천	5.7
18	남	18~19	일용	~960	6.0
19	남	55~59	일용	~960	6.0
20	남	50~54	일용	6천~7천	6.0
21	남	35~39	일용	~960	6.6
22	여	18~19	일용	~960	6.8
23	남	50~54	일용	5천~6천	7.1
24	남	55~59	일용	4천~5천	7.6
25	남	30~34	일용	~960	7.7
26	여	35~39	일용	~960	7.9
27	남	45~49	일용	5천~6천	8.0
28	남	60~64	일용	4천~5천	8.1
29	남	60~64	일용	~960	8.1
30	남	20~24	일용	~960	8.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상위 30개 집단은 모두 상용근로자, 하위 30개 집단은 모두 일용근로자인 점을 볼 때 근로자 내에서의 종사상 지위에 따른 가입률 격차가 집단간 차이를 낳는 결정적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음.
-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낮은 가입률이 낮은 소득수준의 문제만으로 해석될 수 없음.
 -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가입에서 채용기간이 짧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낮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 가입으로 전환할 경우 가입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집단이 적지 않게 존재함.
- 이 집단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에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도 한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을 있음.
 - 따라서 소득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경우 소득중심의 고용보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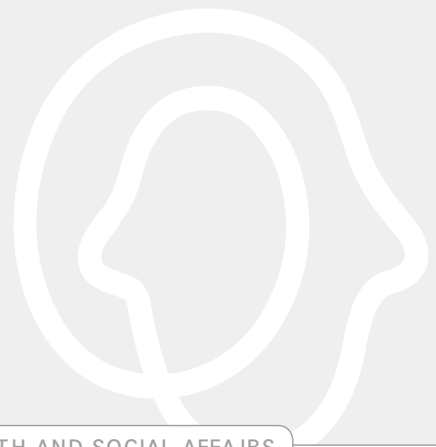
제5절 소결

-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테이블>, <연금테이블>, <고용보험테이블>, <소득개인단위 테이블>을 연계하여 전체 국민 및 취업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함.
-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별 종사상 지위, 연령, 종사산업, 근로시간 등의 정보와(적용 사각지대 파악), 가입이력 및 급여액(급여의 사각지대 파악) 정보가 필요하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의 제약 상 이 항목들을 모두 적용하기는 불가능했음.
- 종사상 지위의 파악을 위해 연간 일자리 유형 정보와 소득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간 월 1회 이상 고용보험료 부과를 받았거나 건강보험의 공·교 해당자 중 직장가입자를 고용보험 가입자로 간주함.

- 2019년의 경우 18~64세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2.0%로 나타남.
 - 근로자의 가입률은 65.0%였으며, 상용근로자(75.8%)와 일용근로자(10.3%)의 가입률은 큰 차이를 보임.
 - 자영업자 가운데에서도 7.8%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됨.
- 근로자의 가입률은 근로소득이 낮은 구간과 높은 구간에서 낮게 나타남.
 - 2019년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 960만 원(월 8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가입률은 37.8%, 2억 원 이상의 근로자의 가입률은 44.6%로 나타남.
 - 각 특성을 교차하여 세부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근로소득이 2,000~3,000만 원인 청년층 여성 상용근로자임.
 - 반대로 가입률이 낮은 집단은 50대 이상의 고소득 일용근로자임.
- 이러한 분석을 전제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앞서 자료의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할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 통계와 6장에서 분석한 <고용보험테이블> 상의 가입자 수의 차이가 어떤 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특정 세부집단의 낮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실제 가입률의 문제와 자료 상의 한계가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결국 엄밀한 정책적 함의는 향후 <고용보험테이블>의 가입자 포착률이 높아질 때 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이 장의 정책적 함의는 잠정적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나 고소득층과 저소득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소득파악

의 문제와 관련된 것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할 경우 이 문제는 빠른 속도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소득 1천만 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지원을 통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 7 장

3대 사회보험 가입실태 연계 분석

제1절 3대 보험 가입 지위의 연계와 유형화

제2절 특성별 3대 보험 가입 유형

제3절 세부 집단별 3대 보험 가입유형 비교

제4절 소결

제 7 장 3대 사회보험 가입실태 연계 분석

제1절 3대 보험 가입 지위의 연계와 유형화

- 이 절에서는 <건강보험테이블>, <연금테이블>, <고용보험테이블> 등 3대 보험별 테이블과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을 연계하여 각 개인별로 3대 보험 가입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분석함.
- 3대 보험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임.
 - 무엇보다 전 국민이 사회적 위험의 영역 가운데 어떤 영역에서 얼마나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입체적 파악이 가능함.
 - 각 사회보험 가입 지위의 교차분석을 통해 개별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 확대, 가입 지위 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를 들어 건강보험(직장가입)과 직장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직장연금 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음.
 - 또한 소득 수준과 종사상 지위 정보, 고용보험 및 연금 가입 정보에 근거하여 건강보험 직장 가입 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는 집단을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각 개인의 3대 보험 가입 지위와 기타 특성변수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보험별 테이블의 특성상 월별 가입 유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유형화가 필요함.
 - 건강보험DB는 가입유형을 지역가입세대주, 지역가입가구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의료급여세대주, 의료급여세대원 등 6개 범주로 구분

함.

- 국민연금은 직장, 지역, 직장+지역 동시 부과 등으로 구분함.
- 고용보험은 가입, 미가입으로만 구분됨.

○ 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년도의 12월에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을 갖고 있는 인구에 대해 3개 보험의 지위를 연계하여 분석하였으며,

- 연금,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정보가 결측일 경우 미가입으로 분류함.
- 3장과 6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보공단의 <고용보험테이블>이 갖는 포괄성의 한계로 인해 7장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로 분류된 집단은 실제 가입자의 규모에 미치지 못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각 테이블 상의 월별, 보험별 가입 유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3개 보험의 결합 유형은 논리적으로 36개가 가능함.

○ 건강보험(의료급여) 6개 × 국민연금 3개 × 고용보험 2개 = 36개

○ <표 7-1>은 이렇게 구분된 유형 가운데 해당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유형만을 빈도순으로 보여줌.

- 2019년의 경우 가장 큰 규모는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만 가입한 유형으로 전체 인구의 약 34.3%임.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면서 직장연금,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한 집단임(2019년 기준 전체의 18.0%).
- 세 번째로 많은 인구수를 보이는 것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지위만을 가진 집단임.

□ 그러나 소득, 종사상 지위등과 관련하여 3대 보험 가입유형을 분석할 경우에는 연 단위의 가입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 연 중에 건강보험의 가입유형, 연금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이 변할 수 있음.

- 반면, 3장과 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 일자리 유형, 종사상 지위 등

의 정보는 연 단위로 정의됨.

- 따라서 특정 월을 중심으로 가입 유형을 구분할 경우에는 소득 및 종사상 지위 등 변수와의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음.
- 또한 유형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어려워짐.

〈표 7-1〉 월별 3대보험 가입 유형(전 연령, 각년도 12월)

(단위: 명, %)

3대 보험 가입유형			2018년		2019년	
건강보험/의료급여	연금	고용보험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직장피부양			18,108,228	35.3	17,623,548	34.3
직장가입	직장	가입	9,057,776	17.6	9,241,870	18.0
지역세대원			5,690,712	11.1	5,499,522	10.7
지역가구주			4,282,292	8.3	4,329,741	8.4
직장가입	직장		3,730,977	7.3	3,834,689	7.5
직장가입			2,533,779	4.9	2,669,005	5.2
지역세대주	지역		2,018,760	3.9	2,007,178	3.9
직장가입		가입	1,252,890	2.4	1,394,219	2.7
지역세대원	지역		1,326,510	2.6	1,367,109	2.7
직장피부양	지역		1,170,769	2.3	1,112,522	2.2
의료급여세대주			1,019,079	2.0	1,044,706	2.0
의료급여세대원			386,309	0.8	360,691	0.7
직장가입피부양			110,598	0.2	160,175	0.3
직장가입	지역		124,981	0.2	126,804	0.3
소계			50,813,660	98.9	50,771,779	98.9

주: 순위는 2019년 인구수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연간 가입(연 1회 이상 보험료 부과)을 기준으로 3개 보험 가입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연 단위 가입지위 구분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의료보장을 사용함.
- 연금은 직장/지역의 구분 없이 가입/미가입으로만 구분되며, 건강보험 공·교 해당자도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로 간주하여 연금 가입으로 분류함.

- 고용보험은 월별 가입실태 유형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입/미가입으로 구분함.
- 이러한 기준에 따라 3개 보험의 가입유형은 논리적으로 모두 8개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의료보장(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의 미적용 사례가 거의 없음에 따라 실제로는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됨.

○ 이렇게 연 단위 가입실태를 기준으로 구분된 집단의 유형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7-2>임.

-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의료보장만을 받는 집단으로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52.0%에 해당함.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보장, 연금, 고용보험 모두 가입된 인구로 2019년의 경우 전체의 26.2%임.

<표 7-2> 연간 가입 지위를 이용한 3대 보험 가입 유형(전 연령)

(단위: 명, %)

3대 보험 가입유형			2018년		2019년	
의료보장	연금	고용보험	인구	비율	인구	비율
O	X	X	32,020,399	62.3	26,700,564	52.0
O	X	O	1,449,567	2.8	1,616,991	3.2
O	O	X	8,605,798	16.8	9,609,853	18.7
O	O	O	9,294,641	18.1	13,468,026	26.2
계			51,370,405	100.0	51,395,4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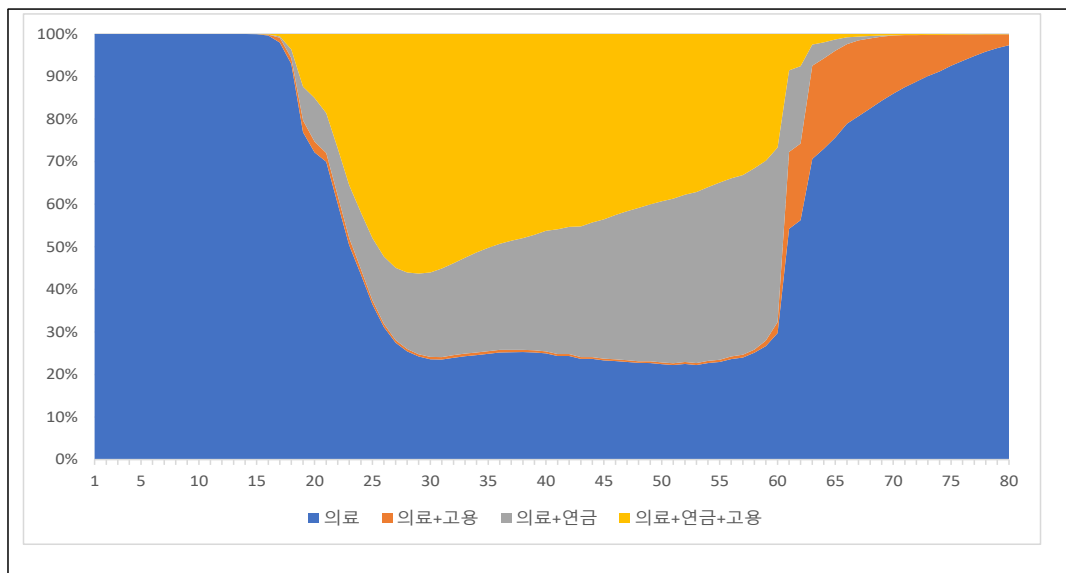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 <표 7-1>과 <표 7-2>에서 의료보장(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에만 해당되는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인구의 연령 구성과 관련 있음.
 - 18세 이하의 미취업 인구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고용보험 이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그림 7-1]은 각 연령별로 3개 보험 가입의 4가지 유형이 어떤 비중을 보이는지를 보여줌.

- 18세 미만과 80세 이상에서는 의료보장만 받는 인구가 거의 100%임.
- 반면 경제활동 연령대에서는 다른 유형들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20대 중반~50까지는 의료보장, 연금, 고용보험 모두에 가입한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이를 고려하여 3대 보험의 가입실태는 연령대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그림 7-1] 연령별 3대 보험 가입 유형(2019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표 7-3>은 연령 구간별로 3대 보험 부과 유형을 보여줌.

- [그림 7-1]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서는 의료보장에만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임.
- 18~64세로 국한할 경우 가장 비중이 높은 집단은 3개 보험 모두 가입한 집단이며, 다음으로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집단임.
 - 의료보장과 연금만 가입된 집단의 비중은 2019년의 경우 26.9%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의료보장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매우 작은 것(2.4%)으로 보아, 고용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부분 연금에도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3〉 연령대별 3대 보험 가입 유형(연령대별, 2019년)

(단위: 명, %)

3대 보험 가입유형			18세 미만		18~64세		65세 이상	
의료보장	연금	고용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O	X	X	7,912,569	99.9	11,711,112	32.9	7,076,883	89.5
O	X	O	6,652	0.1	834,012	2.4	776,327	9.8
O	O	X	1,912	0.0	9,574,795	26.9	33,146	0.4
O	O	O	3,374	0.0	13,439,122	37.8	25,530	0.3
계			7,924,507	100.0	35,559,041	100.0	7,911,886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이하에서는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인구의 비중이 대부분인 18세 미만과 65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하고 18~64세 연령대에 국한하여 3대 보험의 가입유형을 비교함.

제2절 특성별 3대 보험 가입 유형

1. 성별, 연령대별 가입유형

- 〈표 7-4〉와 〈표 7-5〉는 18~64세 인구에 대하여 각각 성별, 연령구간별 가입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 〈표 7-4〉는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가입유형의 분포임.

- 의료보장만 받는 유형의 비율은 여성이 높아서, 2019년의 경우 남성과 약 9.7%p의 차이가 남.
- 3개 보험에 모두 해당되는 유형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으며, 2019년의 경우 그 비율은 4.1%p의 차이를 보임

〈표 7-4〉 성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64세)

(단위: 명, %)

연도	남성					여성				
	인구(명)	의료 보장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인구(명)	의료 보장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2018년	18,189,166	30.2	1.9	28.7	39.2	17,425,961	40.3	1.6	23.7	34.5
2019년	18,145,642	28.2	2.4	29.6	39.8	17,413,399	37.9	2.3	24.2	35.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표 7-5〉는 해당 연령대 전체 인구의 연령구간별 가입유형 분포를 보여줌.

- 24세 이하의 낮은 연령대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의료보장만 가입한 집단의 비중이 절반을 넘음.
- 취업이 본격화되는 25세 이상 연령층부터 3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집단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
- 40~44세 구간부터는 세 보험 모두 가입한 유형의 비중은 줄어들고 의료보장과 연금만 가입한 집단의 비중이 늘어남.
- 60~64세 구간에서 의료보장+연금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이 59세까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60~64세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줄면서 의료보장만 해당, 또는 의료보장 + 고용보험 가입 유형의 비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7-5〉 연령 구간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64세)

(단위: 명, %)

연령대	2018년					2019년				
	인구(명)	의료 보장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인구(명)	의료 보장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18~19세	1,194,100	95.8	1.0	1.3	2.0	1,193,413	84.4	2.2	5.1	8.3
20~24세	3,307,742	66.6	1.2	10.5	21.7	3,306,430	58.7	1.9	11.3	28.1
25~29세	3,473,910	34.3	0.6	15.3	49.8	3,473,594	29.0	0.7	16.8	53.4
30~34세	3,138,782	25.5	0.5	20.2	53.8	3,138,197	24.0	0.6	21.7	53.8
35~39세	3,883,217	26.7	0.5	24.3	48.6	3,880,219	25.1	0.6	25.7	48.6
40~44세	3,847,716	26.0	0.4	28.6	45.1	3,843,767	24.2	0.4	30.0	45.4
45~49세	4,455,590	24.8	0.3	33.6	41.3	4,448,735	23.0	0.4	35.0	41.7
50~54세	4,313,952	24.2	0.3	38.1	37.4	4,304,934	22.4	0.5	39.3	37.8
55~59세	4,265,081	25.9	0.6	41.2	32.3	4,251,924	24.5	0.8	42.1	32.6
60~64세	3,735,037	50.5	11.8	23.5	14.1	3,717,828	55.7	15.9	18.4	10.0
전체	35,615,127	35.1	1.7	26.3	36.9	35,559,041	32.9	2.3	26.9	3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2. 종사상 지위별, 소득 구간별 3대 보험 가입 유형

□ 〈표 7-6〉는 18~64세 인구의 종사상 지위별로 3대 보험 가입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줌.

○ 18~64세의 근로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3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집단으로, 전체의 60%에 이름.

- 2019년의 경우 의료보장+ 연금가입(23.8%)에만 해당하거나 의료보장에만 해당하는 인구의 비중(12.7%)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그러나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차이는 현격함. 상용근로자의 경우 모두 가입한 비중이 71.9%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집단의 비중이 53.1%이며, 의료보장 + 연금가입의 비중은 상용근로자보다 높음.

○ 자영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의료보장+ 연금가입 집단임(2019년 56.7%).

- 2019년의 경우 자영자 가운데에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비중이 약 39.4%에 이릅니다.
- 연금가입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임. 의료보장 + 연금가입 집단의 비중은 고용주에서는 80.7%이나 자영업자에서는 36.6%에 불과함.

〈표 7-6〉 종사상 지위별 3대보험 가입 유형(18~64세)

(단위: 명, %)

	2018년					2019년				
	인구	의료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인구	의료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근로자	21,146,176	13.3	2.7	23.0	61.0	21,479,109	11.7	3.6	23.4	61.4
상용근로자	17,325,447	3.2	2.9	21.0	72.8	17,940,418	3.5	3.8	20.8	71.9
일용근로자	3,820,729	59.3	1.6	32.0	7.2	3,538,691	53.1	2.4	36.6	7.9
자영자	5,670,615	38.6	0.4	57.2	3.8	5,860,214	38.8	0.6	56.7	3.9
고용주	2,597,790	17.5	0.0	82.1	0.4	2,674,952	18.8	0.1	80.7	0.4
자영업자	3,072,825	56.5	0.7	36.1	6.7	3,185,262	55.6	1.0	36.6	6.8
미취업	8,798,336	85.3	0.3	14.1	0.3	8,219,718	84.3	0.3	15.0	0.4
계	35,615,127	35.1	1.7	26.3	36.9	35,559,041	32.9	2.3	26.9	3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고용보험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각년도.

□ 〈표 7-7〉은 18~64세의 인구 중 노동소득 구간별로 3대 보험의 가입 유형을 보여줌.

- 노동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구간의 구분은 6장에서의 구분을 따름.
- 미취업자들이 대부분인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집단이 80%를 넘음.
- 소득이 높아질수록 의료보장의 비중은 줄어들고 의료보장+연금의 비중이 증가함.
- 3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연소득 3,000~4,000만 원 구간임.

〈표 7-7〉 노동소득 구간별 3대보험 가입 유형(18~64세)

(단위: 만원, 명, %)

소득구간 (만원)	2018년					2019년				
	인구	의료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인구	의료	의료 고용	의료 연금	의료 연금 고용
~100	11,172,019	83.2	0.5	15.6	0.7	10,489,376	82.0	0.6	16.6	0.7
100~200	1,062,209	58.7	3.0	28.9	9.4	990,435	57.5	4.5	29.0	9.1
200~300	893,488	48.1	2.7	35.6	13.6	855,500	46.7	4.3	35.8	13.2
300~400	787,089	39.4	2.6	37.7	20.3	768,577	38.0	4.1	38.1	19.8
400~500	698,524	34.7	2.6	39.6	23.0	677,952	33.4	4.0	40.6	21.9
500~600	579,283	29.8	3.0	39.9	27.3	578,720	28.2	4.5	39.8	27.5
600~800	1,041,608	23.4	2.8	40.3	33.5	1,022,793	22.8	3.8	41.2	32.3
800~960	727,084	18.2	2.8	39.5	39.5	709,999	17.7	3.8	40.3	38.3
960~1,200	988,088	14.2	3.0	37.4	45.4	960,090	13.6	3.8	37.9	44.6
1,200~1,500	1,176,967	10.7	3.3	34.9	51.1	1,134,888	10.4	4.3	35.0	50.3
1,500~2,000	2,132,488	7.0	3.2	28.5	61.3	1,744,507	7.6	4.1	31.1	57.1
2,000~3,000	3,772,965	4.9	3.0	24.0	68.2	4,160,850	4.2	4.0	22.6	69.2
3,000~4,000	2,608,889	4.3	2.4	23.5	69.8	2,741,878	3.8	3.2	23.0	70.0
4,000~6,000	3,134,479	4.6	1.7	25.6	68.1	3,362,703	4.4	2.3	25.0	68.3
6,000 이상	4,839,947	4.2	0.7	36.4	58.7	5,360,773	5.4	0.9	37.6	56.1
계	35,615,127	35.1	1.7	26.3	36.9	35,559,041	32.9	2.3	26.9	37.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각년도.

제3절 세부 집단별 3대 보험 가입유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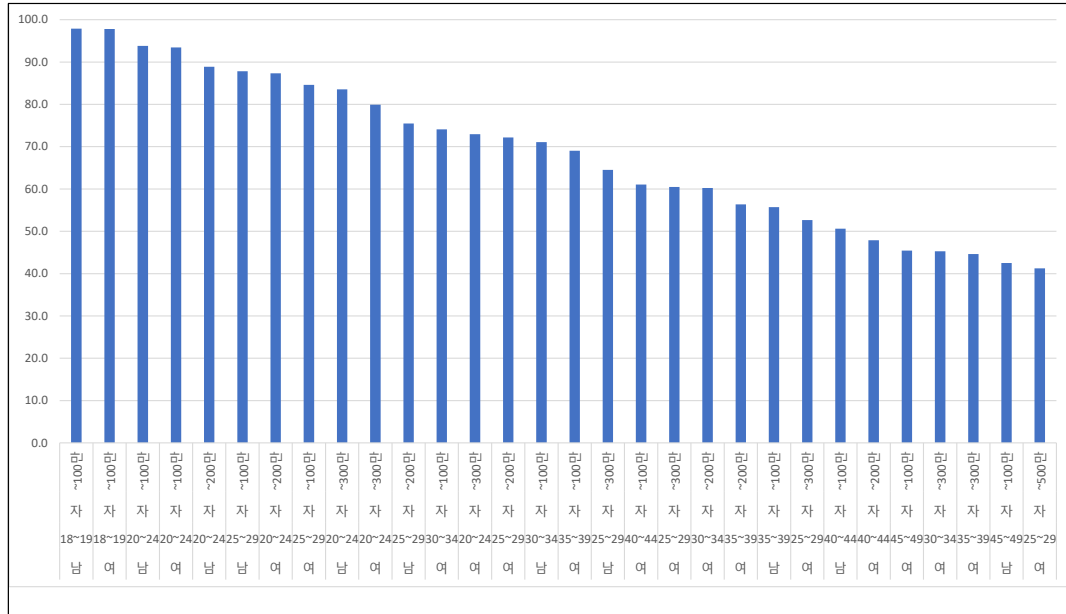
- 일부 사회보험에만 가입하는 집단들의 특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집단을 더욱 세분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업자(특히 근로자)의 경우 연금에는 가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연금 가입연령 제한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18~59세의 연령층에 대해서 분석함.

-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정책적 목적과 관련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크게 두 종류임.
 - 첫째는 근로자 가운데 건강보험과 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유형이고,
 - 둘째는 자영자 가운데 건강보험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연금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은 유형임.
 - 이 가운데 첫째 집단에 대한 분석은 <고용보험테이블>의 자료상 한계를 고려하여 이 절의 분석에서 제외하기로 함.

- 자영자의 경우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유형과 ‘의료+연금가입’유형의 차이가 가장 큰 상위 30개 하위 집단을 추출하여 비교함.
 - [그림 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유형간의 차이가 가장 큰 집단은 18~24세 연령구간의 저소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집단으로, 그 차이는 약 90%p 내외임.
 - 상위 30개 집단은 모두 연소득 5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이며 연령대는 대부분 40대 이하에 분포함.
 - 저소득 자영자는 50대 이상에서도 나타나지만 40대 이하의 자영자일수록 연금 가입 기피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그림 7-2] 자영자 중 '의료보장'과 '의료+연금'의 격차가 가장 큰 집단(18~59세)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표 7-8>은 18~59세 자영자에 대해 의료보장만 가입한 유형과 의료보장 + 연금 가입 유형의 상세한 특성을 비교하고 있음.

○ 자영자 가운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유형의 평균 나이는 36.0세로 연금까지 가입한 유형(46.2세)에 비해 평균 연령이 낮음.

○ 무엇보다 두 유형 사이의 소득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연금까지 가입한 유형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약 1,950만 원인 반면 가입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소득은 약 330만 원에 불과함.
- 근로소득까지를 합한 노동소득을 비교할 경우 그 차이는 더 벌어짐.

○ 2019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 유형을 비교하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직장 피부양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반면, 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세대주(47.9%), 지역 세대원(32.0)%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자리 유형의 구성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유형의 경

우 주로 자영업 일자리 1개인 집단이 다수(73.8%)를 차지하는 반면 연금 가입 자영업자에서는 개인고용주의 비중이 52.2%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임.

〈표 7-8〉 근로자 집단의 사회보험 가입 유형 비교(18~59세, 2019년)

(단위: 세, 천원, %)

		의료보장	의료+연금
평균연령(세)		36.0	46.2
소득(천원)	사업소득	3,297	19,471
	노동소득	3,460	24,321
건보 가입유형(12월)	지역세대주	19.0	47.9
	지역세대원	24.8	32.0
	직장가입	0.8	9.5
	직장피부양	52.8	10.5
	의료급여세대주	1.7	0.1
	의료급여세대원	0.9	0.1
일자리 유형	개인고용주	9.4	52.2
	자영업	73.8	22.8
	특고	1.0	1.3
	일용+자영업	9.5	2.7
	2년 이상+자영업	0.0	0.1
	개인고용주+자영업	3.3	12.2
	그외 2개	2.0	6.0
	3개 이상	0.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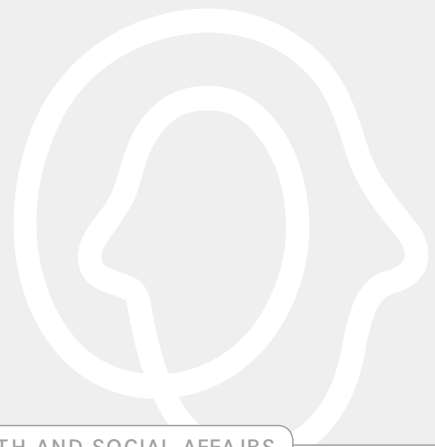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제4절 소결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의 가입지위를 개인별로 연계하여 유형화한 후, 각 유형별 분포를 분석함.
- 각 보험의 가입지위는 연간 1회 이상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가입/미가입으로 판단하였음.
 - 건강보험 가입자는 물론 의료급여 수급자도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보장 여부로 가입지위를 구분함.
 -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실질적인 의료보장 대상임을 고려할 때 연계 유형은 의료보장, 의료보장+고용보험, 의료보장+연금, 의료보장+연금+고용보험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됨.
- 3대 보험의 연계 유형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각 보험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4개 유형의 분포는 집단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
 -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에서는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인구가 대다수였으나, 18~64세 연령대에서는 세 보험 모두에 가입한 유형의 비중이 2019년의 경우 37.8%로 가장 높았음.
 - 18~64세로 국한할 경우 3가지 모두 가입한 유형의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의료보장만 해당되는 인구의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음.
 - 40대를 기점으로 세 보험 모두 가입한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의료보장과 연금가입 유형의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종사상 지위별로 비교하였을 때,
 - 2019년의 경우 18~64세 인구 중 세 가지 보험 모두 가입한 유형의 비중은 상용근로자(71.9%)와 일용근로자(7.9%)에서 큰 차이를 보였으며,
 - 의료보장과 연금에 가입한 집단의 비중은 고용주(80.7%)와 자영업자(36.

6%)에서 큰 차이를 보임.

- 3개 보험 모두에 가입한 유형의 비중은 연간 노동소득이 3,000~4,000만 원인 구간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보다 소득이 낮거나 높을수록 비중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
- 자영자 가운데 의료보장에만 해당되고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을 주로 청년층 자영업자임.
 - 이들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연금의 납부 예외자로 분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이 연금 가입의 지속적 지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근로자 가운데 연금은 가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단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단이나, 이 장에서는 <고용보험테이블>자료 상의 한계로 인해 이 집단의 세부적 특성을 분석하지 못함.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통계와 <고용보험테이블>의 가입자 수 차이가 특정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세부 집단별 비교를 수행하는 데 자료 상 한계가 존재함.
 - 향후 <고용보험테이블>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이 집단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함.



제 8 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분석 방법

제3절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

제4절 개인 단위 분석 결과

제5절 소결

제 8 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 노동시장 요인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 노동시장 요인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개인의 일자리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 실태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대표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음(김연명, 2010; 권혁진, 2012, 김혜연, 2020).
- 권혁진(2012, pp.110-113)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미가입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음.
- 김혜연(2020, p.115)은 고용보험 미가입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일 때,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험 미가입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음.
- 산재보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중소기업사업주가 사각지대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임(장지연, 박찬임, 2019, pp.15-18).

○ 노동시장 요인은 개인의 일자리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특성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음.

-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김연명, 2010, p.164; 권혁진, 2012, p.108; 신영석 외, 2016, pp.54-55; 김혜연, 2020, p.115).
- 사업장의 특성은 사업장에 속한 개인의 일자리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기업 규모와 사회보험 가입률의 정적 관계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강하게 나타남(김연명, 2010, p.165).

□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 이 장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관계를 분석함.
-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사업장 특성으로 사업장 규모, 사업장의 평균적인 근로 소득 수준, 사업장의 평균적인 연중 근무기간, 종사자 성비, 종사자 평균 연령을 살펴봄.
 - 근로소득 수준, 연중 근무기간, 성별, 연령은 개인 수준 특성이므로, 기본적으로 개인 단위 분석으로 개인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음.
 - 하지만 개인의 특성과 별개로 사업장의 평균적인 종사자 특성이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근로소득 수준이 높고 근무기간이 긴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 자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해당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장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 실태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봄.

제2절 분석 방법

□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조작적 정의

-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가입 실태를 분석함.
-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김연명(2010, p.158, p.162)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지역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이 아닌 형태의 가입을 포함한 “실질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실질가입률이 직장가입률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음.

- 이 장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관계에 주목하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직장가입으로 한정하여 정의함.
 - 원칙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사업장을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특성 요인을 분석할 때는 직장가입 실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서정희, 백승호, 2014, p.43).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작고 보험료 납부기간이 짧다는 보고(정인영, 2015, pp.42-43) 역시 직장가입의 중요성을 시사함.
- 이 장에서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 법적 적용제외자를 국민연금 가입자로 정의함.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국민연금 미가입을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이 장의 분석에서는 공·교에 해당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개인을 국민연금 가입자로 정의함.
- 2019년 12월 기준 사회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함.
 -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점이 필요함. 이 장에서는 2019년 12월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함.

〈표 8-1〉 사회보험 가입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정의	비고
건강보험	· 가입: 직장가입자 · 미가입: 지역 세대주/세대원, 피부양자, 의료급여 세대주/세대원	· 2019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 가입: 직장가입자 또는 공·교 · 미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	

주: 공·교는 〈건강보험 테이블〉을 활용하여 파악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의미함.

□ 분석 자료의 구성

- 이 장의 분석 자료는 크게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 실태 자료와 개인-사업장 단위 원천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함.

〈표 8-2〉 원천근로소득 테이블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세부내용
1	IDV_ID	개인식별번호	
2	REG_NO	사업자등록번호	
3	KEY	키값	IDV_ID+REG_NO
4	SODUK_AMT	소득금액	
5	GUISOK_DT	귀속연도	16자리: FROM~TO
6	DATA_FLAG	자료출처	원천근로
7	KIND_CODE	소득구분 코드	3:근로소득

- 첫째, 원천근로소득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활용함.
- 2019년 〈원천근로소득 테이블〉을 활용함(〈표 8-2〉 참조). 〈원천근로소득 테이블〉은 〈소득-일자리 개인단위 테이블〉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테이블로, 종합소득자료와 중복되는 약 2%의 소득건을 삭제한 원천근로소득 자료임. 이 자료는 개인-사업장-소득귀속기간 단위로 구성됨.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원천근로소득 자료를 정리함.
 - 1) 사업자등록번호가 결측이거나 10자리 미만인 0.04%의 사례를 제거함.
 - 2) 약 99%는 동일 개인-사업장 내에서 1건의 소득이 존재하지만, 약 1%는 동일 개인-사업장 내에서 2건 이상의 소득이 존재함. 동일 개인-사업장 내에서 2건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사례를 제거함.
 - 3) 소득귀속기간의 종료시점이 2019년 12월 31일인 약 83%의 사례를 선택함.
 - 4) 동일 개인 내에서 1개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례가 약 84%임. 동일 개인 내에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약 16%의 사례는 사회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제거함.

- 1)~4)의 절차를 거쳐 13,511,214명의 원천근로소득자에 대해 2019년 소득귀속기간과 근로소득액 정보를 확보함. 2019년 연중 소득귀속기간을 근무기간으로 간주하고, 근로소득액을 근무기간 개월 수로 나누어 월소득을 구성함.
- 2019년 연중 소득귀속기간으로 정의한 근무기간이 12개월이 아닌 사례는 1) 정규직 등 고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사례와 2) 임시직 등 고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례를 모두 포함함.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점은 연구의 한계임.

○ 둘째, 사회보험 가입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활용함.

- 사회보험 가입 자료는 <건강보험 테이블>, <연금 테이블>을 활용하여 구성함. 또한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을 추가하여 성별, 연령, 외국인 여부 정보를 결합함.
- 보고서의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제외한 2019년 12월 건강보험료 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모집단으로 정의함. 또한 소수의 성별/연령 결측 사례를 제거함.
- <표 8-1>과 같이 2019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지위를 구성함.

○ 셋째, 위와 같이 정리한 원천근로소득 자료와 사회보험 가입 자료를 결합함.

- 원천근로소득 자료에 포함된 사례 중 성별/연령이 결측인 약 3%를 제거하고, 18~64세 근로연령층을 선택함.
-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 건강보험료 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내국인으로 정의된 모집단 중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1개 사업장에 소속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1회 소득이 신고된 18~64세 원천근로소득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함. 이와 같이 설정한 분석대상은 12,462,628명임.
- 이들이 속한 사업장의 개수는 1,349,019개임.
- 이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장 단위 특성 변수를 구성함. 사업장 단위 특성은

개별 사업장의 전체 종사자가 아니라 위와 같이 정의한 분석대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 수, 남성 비율, 평균 연령, 평균 근무기간, 평균 월소득
-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 변수는 <표 8-4>와 같이 구성함.

<표 8-3> 분석 자료 구성

구분	내용
(A) 원천근로소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2월 31일 기준 1개 사업장에 소속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1회 소득이 신고된 원천근로소득자 · 근무기간: 2019년 연중 소득귀속기간 · 월소득: 2019년 소득 ÷ 2019년 근무기간 개월 수
(B) 사회보험 가입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2월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외국인 제외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지위 · 성별, 연령
(A)+(B) 분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와 (B)에 모두 관찰된 18~64세 근로연령층 · 사업장 단위 특성: 종사자 수, 남성 비율, 평균 연령, 평균 근무기간, 평균 월소득, 건강보험 가입률, 국민연금 가입률 등

<표 8-4> 개인 단위 및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사회보험 가입 조합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개인 단위	0/1 더미					
사업장 단위	사업장 내 1 비율					

제3절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

□ 분석 개요

- 제3절에서는 1,349,019개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봄.
- 사업장 특성: 사업장 종사자 수, 사업장 종사자의 남성 비율,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 연령,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 근무기간, 사업장 종사자의 평균 월소득
-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 사업장 종사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사업장 종사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조합별 비율

□ 사업장 특성

○ <표 8-5>~<표 8-9>에서는 사업장 특성 분포를 살펴봄.

<표 8-5> 사업장 단위 종사자 수 분포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인	465,292	34.5	465,292	100.0	0	0.0
2~4인	505,409	37.5	0	0.0	505,409	57.2
5~9인	207,431	15.4	0	0.0	207,431	23.5
10~29인	121,983	9.0	0	0.0	121,983	13.8
30~49인	20,237	1.5	0	0.0	20,237	2.3
50~99인	17,001	1.3	0	0.0	17,001	1.9
100~199인	6,514	0.5	0	0.0	6,514	0.7
200~299인	1,910	0.1	0	0.0	1,910	0.2
300~499인	1,298	0.1	0	0.0	1,298	0.1
500~999인	1,027	0.1	0	0.0	1,027	0.1
1000인 이상	917	0.1	0	0.0	917	0.1
계	1,349,019	100.0	465,292	100.0	883,727	100.0
평균(명)	9.2		1.0		13.6	
중위값(명)	2.0		1.0		4.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1인 34.5%, 2~4인 37.5%, 5~9인 15.4%, 10~29인 9.0%로 나타났다.

- 100인 미만 사업장이 99.1%였음. 행정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1% 미만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분석 가능한 수준의 사례 수가 확보됨.
- 1인 사업장은 개인 특성과 사업장 특성이 일치하고,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와 개인 단위 분석 결과가 동일함. 따라서 이 장의 분석에서는 1인 사업장과 2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하여 살펴봄.

○ 사업장 남성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100%인 사업장이 30.2%, 남성이 100%인 사업장이 28.1%, 남성 비율이 50% 이상 60% 미만인 사업장이 11.5%였음.

〈표 8-6〉 사업장 단위 남성 비율 분포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407,094	30.2	231,303	49.7	175,791	19.9
0% 초과 10% 미만	11,883	0.9	0	0.0	11,883	1.3
10% 이상 20% 미만	25,111	1.9	0	0.0	25,111	2.8
20% 이상 30% 미만	40,660	3.0	0	0.0	40,660	4.6
30% 이상 40% 미만	56,320	4.2	0	0.0	56,320	6.4
40% 이상 50% 미만	27,785	2.1	0	0.0	27,785	3.1
50% 이상 60% 미만	155,206	11.5	0	0.0	155,206	17.6
60% 이상 70% 미만	98,635	7.3	0	0.0	98,635	11.2
70% 이상 80% 미만	63,027	4.7	0	0.0	63,027	7.1
80% 이상 90% 미만	65,228	4.8	0	0.0	65,228	7.4
90% 이상 100% 미만	19,106	1.4	0	0.0	19,106	2.2
100%	378,964	28.1	233,989	50.3	144,975	16.4
계	1,349,019	100.0	465,292	100.0	883,727	100.0
평균(비율)	0.509		0.503		0.512	
중위값(비율)	0.500		1.000		0.5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8-7〉 사업장 단위 평균 연령 분포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8세 이상 25세 미만	41,358	3.1	23,624	5.1	17,734	2.0
25세 이상 30세 미만	89,124	6.6	42,117	9.1	47,007	5.3
30세 이상 35세 미만	136,439	10.1	42,631	9.2	93,808	10.6
35세 이상 40세 미만	217,292	16.1	59,042	12.7	158,250	17.9
40세 이상 45세 미만	264,342	19.6	62,490	13.4	201,852	22.8
45세 이상 50세 미만	256,041	19.0	74,510	16.0	181,531	20.5
50세 이상 55세 미만	185,466	13.7	66,611	14.3	118,855	13.4
55세 이상 60세 미만	111,565	8.3	56,314	12.1	55,251	6.3
60세 이상 64세 이하	47,392	3.5	37,953	8.2	9,439	1.1
계	1,349,019	100.0	465,292	100.0	883,727	100.0
평균(세)	43.1		43.8		42.7	
중위값(세)	43.4		45.0		4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8-8〉 사업장 단위 평균 근무기간 분포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개월 미만	10,888	0.8	7,996	1.7	2,892	0.3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0,953	1.6	14,010	3.0	6,943	0.8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4,258	1.8	15,185	3.3	9,073	1.0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6,002	1.9	15,099	3.2	10,903	1.2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24,362	1.8	11,367	2.4	12,995	1.5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8,568	2.1	12,065	2.6	16,503	1.9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44,130	3.3	15,028	3.2	29,102	3.3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49,377	3.7	11,365	2.4	38,012	4.3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5,139	4.8	10,619	2.3	54,520	6.2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6,424	7.1	13,140	2.8	83,284	9.4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129,964	9.6	9,418	2.0	120,546	13.6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75,132	13.0	12,984	2.8	162,148	18.3
12개월	653,822	48.5	317,016	68.1	336,806	38.1
계	1,349,019	100.0	465,292	100.0	883,727	100.0
평균(월)	10.2		10.0		10.3	
중위값(월)	11.9		12.0		1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8-9〉 사업장 단위 평균 월소득 분포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0만 미만	72,832	5.4	46,180	9.9	26,652	3.0
100만 이상 200만 미만	539,000	40.0	248,536	53.4	290,464	32.9
200만 이상 300만 미만	421,219	31.2	108,929	23.4	312,290	35.3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77,299	13.1	33,408	7.2	143,891	16.3
400만 이상 500만 미만	71,773	5.3	12,401	2.7	59,372	6.7
500만 이상 600만 미만	28,895	2.1	6,384	1.4	22,511	2.5
600만 이상 700만 미만	12,772	0.9	2,761	0.6	10,011	1.1
700만 이상 800만 미만	8,086	0.6	1,769	0.4	6,317	0.7
800만 이상 900만 미만	5,244	0.4	1,148	0.2	4,096	0.5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3,042	0.2	745	0.2	2,297	0.3
1000만 이상	8,857	0.7	3,031	0.7	5,826	0.7
계	1,349,019	100.0	465,292	100.0	883,727	100.0
평균(천 원)	2,627		2,227		2,837	
중위값(천 원)	2,066		1,800		2,31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업장이 19.6%로 가장 많았고, 45세 이상 50세 미만이 19.0%,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16.1%로 나타났다.
-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근무기간이 12개월인 사업장, 즉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가 2019년 연중 12개월 근무한 사업장이 48.5%였음.
- 사업장 평균 월소득을 살펴보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사업장이 40.0%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31.2%,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13.1%로 나타났다.
- 1인 사업장의 평균 월소득이 22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작았음.

〈표 8-10〉 사업장 단위 건강보험 가입률 분포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23,888	1.8	17,566	3.8	6,322	0.7
0% 초과 10% 미만	134	0.0	0	0.0	134	0.0
10% 이상 20% 미만	942	0.1	0	0.0	942	0.1
20% 이상 30% 미만	1,818	0.1	0	0.0	1,818	0.2
30% 이상 40% 미만	2,596	0.2	0	0.0	2,596	0.3
40% 이상 50% 미만	1,327	0.1	0	0.0	1,327	0.2
50% 이상 60% 미만	14,948	1.1	0	0.0	14,948	1.7
60% 이상 70% 미만	13,499	1.0	0	0.0	13,499	1.5
70% 이상 80% 미만	12,273	0.9	0	0.0	12,273	1.4
80% 이상 90% 미만	28,252	2.1	0	0.0	28,252	3.2
90% 이상 100% 미만	40,892	3.0	0	0.0	40,892	4.6
100%	1,208,450	89.6	447,726	96.2	760,724	86.1
계	1,349,019	100.0	465,292	100.0	883,727	100.0
평균(비율)	0.963		0.962		0.963	
중위값(비율)	1.000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

○ <표 8-10>~<표 8-12>에서는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봄.

- 사업장별 가입률을 사업장 단위로 분석한 결과임.

○ 건강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사업장 내 종사자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89.6%였고, 사업장 내 종사자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1.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률 평균은 96.3%였음.

○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인 사업장이 70.7%, 0%인 사업장이 5.3%였음. 국민연금 가입률 평균은 87.9%였음.

<표 8-11> 사업장 단위 국민연금 가입률 분포

(단위: 개,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71,786	5.3	58,371	12.5	13,415	1.5
0% 초과 10% 미만	258	0.0	0	0.0	258	0.0
10% 이상 20% 미만	1,703	0.1	0	0.0	1,703	0.2
20% 이상 30% 미만	5,092	0.4	0	0.0	5,092	0.6
30% 이상 40% 미만	11,146	0.8	0	0.0	11,146	1.3
40% 이상 50% 미만	6,011	0.4	0	0.0	6,011	0.7
50% 이상 60% 미만	59,149	4.4	0	0.0	59,149	6.7
60% 이상 70% 미만	52,263	3.9	0	0.0	52,263	5.9
70% 이상 80% 미만	44,808	3.3	0	0.0	44,808	5.1
80% 이상 90% 미만	81,537	6.0	0	0.0	81,537	9.2
90% 이상 100% 미만	61,790	4.6	0	0.0	61,790	7.0
100%	953,476	70.7	406,921	87.5	546,555	61.8
계	1,349,019	100.0	465,292	100.0	883,727	100.0
평균(비율)	0.879		0.875		0.881	
중위값(비율)	1.000		1.000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표 8-12>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조합별 비율의 평균을 제시하였음.

- 예를 들어, '건강○ 연금○' 비율이 87.3%라는 분석 결과는 개별 사업장별

로 2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종사자의 비율을 계산한 후, 이를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평균한 값을 의미함.

- 2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비율의 평균은 87.3%,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의 평균은 3.2%였음.

〈표 8-12〉 사업장 단위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분포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96.3	87.9	3.2	0.6	8.9	87.3
1인 사업장	96.2	87.5	3.1	0.7	9.5	86.7
2인 이상 사업장	96.3	88.1	3.2	0.5	8.7	8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

○ 〈표 8-13〉~〈표 8-17〉, [그림 8-1]~[그림 8-5]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살펴봄.

- 사업장 특성별 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을 표에 보고하였고, 그 일부를 그림으로 제시하였음.

□ 사업장 종사자 수와 사회보험 가입률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종사자 수가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 가입률은 1인 사업장 96.2%에서 1000인 이상 사업장 98.0%로 증가하였음.
- 국민연금 가입률은 1인 사업장 87.5%에서 500~999인 사업장 90.6%로 증가하였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88.0%로 500~999인 사업장보다 소폭 낮게 나타났음.

〈표 8-13〉 사업장 종사자 수와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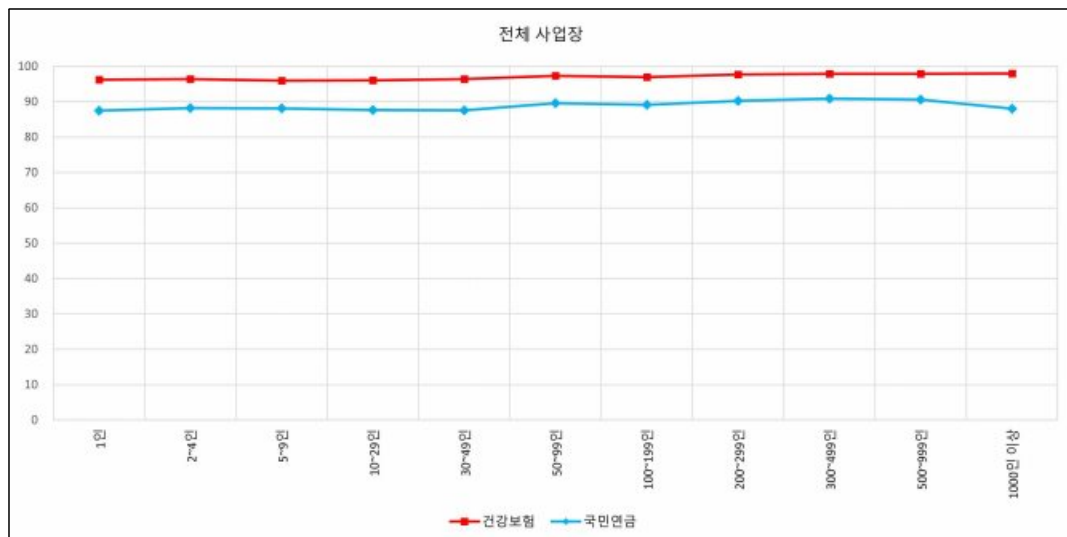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인	96.2	87.5	3.1	0.7	9.5	86.7
	2~4인	96.5	88.2	3.0	0.5	8.8	87.7
	5~9인	96.0	88.1	3.6	0.4	8.3	87.6
	10~29인	96.0	87.6	3.5	0.5	8.9	87.2
	30~49인	96.4	87.6	3.1	0.5	9.3	87.2
	50~99인	97.3	89.6	2.3	0.4	8.1	89.2
	100~199인	96.9	89.1	2.4	0.6	8.4	88.5
	200~299인	97.7	90.2	1.9	0.4	7.9	89.8
	300~499인	97.9	90.8	1.7	0.4	7.5	90.5
	500~999인	97.9	90.6	1.6	0.4	7.7	90.2
	1000인 이상	98.0	88.0	1.7	0.4	10.3	87.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8-1] 사업장 종사자 수와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8-14〉 사업장 남성 비율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0%	95.5	87.9	3.8	0.7	8.3	87.1
	0% 초과 10% 미만	91.7	79.1	7.7	0.6	13.2	78.5
	10% 이상 20% 미만	94.2	84.9	5.3	0.5	9.8	84.3
	20% 이상 30% 미만	95.0	86.8	4.4	0.6	8.7	86.2
	30% 이상 40% 미만	95.8	87.7	3.6	0.5	8.7	87.1
	40% 이상 50% 미만	95.6	88.3	3.8	0.6	7.9	87.7
	50% 이상 60% 미만	96.7	88.4	2.8	0.5	8.8	87.9
	60% 이상 70% 미만	97.1	89.0	2.5	0.4	8.5	88.6
	70% 이상 80% 미만	97.5	89.4	2.2	0.4	8.4	89.0
	80% 이상 90% 미만	97.8	89.4	1.9	0.3	8.7	89.1
	90% 이상 100% 미만	98.1	88.3	1.6	0.4	10.1	88.0
	100%	96.8	87.5	2.7	0.5	9.8	86.9
1인 사업장	0%	95.9	87.8	3.3	0.8	8.9	87.0
	100%	96.5	87.1	2.9	0.6	10.0	86.5
2인 이상 사업장	0%	94.8	87.9	4.6	0.6	7.5	87.3
	0% 초과 10% 미만	91.7	79.1	7.7	0.6	13.2	78.5
	10% 이상 20% 미만	94.2	84.9	5.3	0.5	9.8	84.3
	20% 이상 30% 미만	95.0	86.8	4.4	0.6	8.7	86.2
	30% 이상 40% 미만	95.8	87.7	3.6	0.5	8.7	87.1
	40% 이상 50% 미만	95.6	88.3	3.8	0.6	7.9	87.7
	50% 이상 60% 미만	96.7	88.4	2.8	0.5	8.8	87.9
	60% 이상 70% 미만	97.1	89.0	2.5	0.4	8.5	88.6
	70% 이상 80% 미만	97.5	89.4	2.2	0.4	8.4	89.0
	80% 이상 90% 미만	97.8	89.4	1.9	0.3	8.7	89.1
	90% 이상 100% 미만	98.1	88.3	1.6	0.4	10.1	88.0
	100%	97.2	88.1	2.4	0.4	9.5	87.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남성 비율과 사회보험 가입률

○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이 대체로 남성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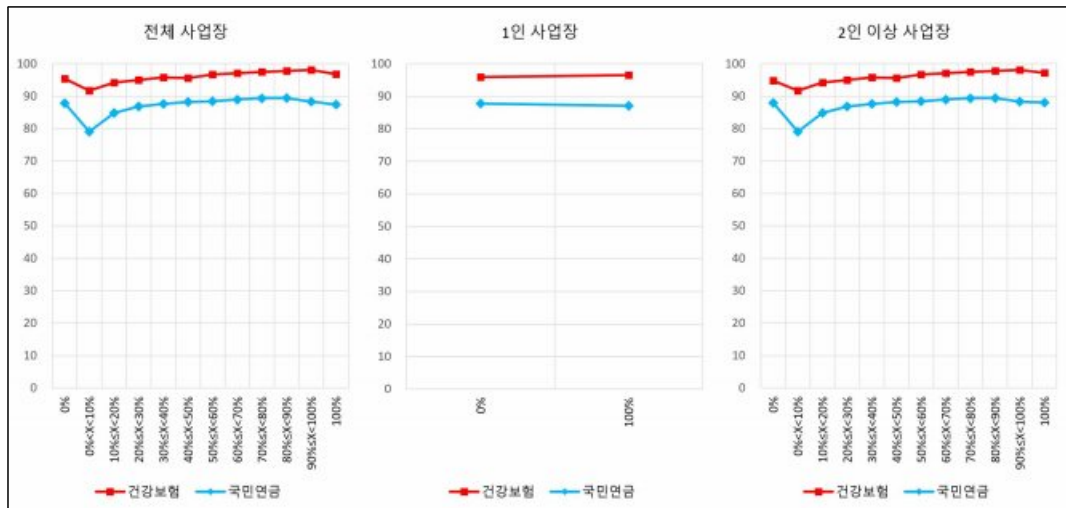
- 건강보험 가입률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남성 비율이 0% 초과 10%

미만일 때 각각 91.7%, 79.1%였고, 100%일 때 각각 96.8%, 87.5%였음.

- 단, 사업장 남성 비율이 0%일 때 건강보험 가입률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5.5%, 87.9%로 0% 초과 10% 미만일 때보다 높았음.

[그림 8-2] 사업장 남성 비율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평균 연령과 사회보험 가입률

○ 사업장 평균 연령이 18세 이상 25세 미만에서 30~40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 가입률은 사업장 평균 연령이 18세 이상 25세 미만일 때 82.4%, 25세 이상 30세 미만일 때 93.6%였고, 30대 이후 90%대 중후반이었음.
- 사업장 평균 연령이 30대 이상인 구간에서는 사업장 평균 연령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률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50세 이상일 때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표 8-15〉 사업장 평균 연령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8세 이상 25세 미만	82.4	80.7	15.8	1.8	3.4	78.9
	25세 이상 30세 미만	93.6	91.8	5.7	0.7	2.5	91.1
	30세 이상 35세 미만	96.2	94.2	3.3	0.5	2.5	93.7
	35세 이상 40세 미만	97.2	94.9	2.4	0.5	2.7	94.4
	40세 이상 45세 미만	97.5	94.3	2.0	0.5	3.7	93.8
	45세 이상 50세 미만	97.5	91.8	2.0	0.6	6.3	91.2
	50세 이상 55세 미만	96.8	86.5	2.6	0.6	10.9	85.9
	55세 이상 60세 미만	95.7	79.1	3.6	0.6	17.2	78.5
	60세 이상 64세 이하	95.4	6.1	4.5	0.0	89.4	6.0
1인 사업장	18세 이상 25세 미만	89.2	87.6	9.1	1.7	3.4	85.9
	25세 이상 30세 미만	95.4	93.7	3.9	0.7	2.4	93.0
	30세 이상 35세 미만	96.8	95.0	2.7	0.5	2.3	94.5
	35세 이상 40세 미만	96.9	95.4	2.5	0.6	2.2	94.8
	40세 이상 45세 미만	97.0	96.1	2.4	0.7	1.6	95.4
	45세 이상 50세 미만	97.0	96.4	2.2	0.8	1.4	95.6
	50세 이상 55세 미만	96.7	96.0	2.5	0.8	1.6	95.1
	55세 이상 60세 미만	96.4	94.8	2.8	0.8	2.4	94.0
	60세 이상 64세 이하	95.8	2.1	4.2	0.0	93.6	2.1
2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25세 미만	73.3	71.6	24.8	1.9	3.6	69.7
	25세 이상 30세 미만	92.0	90.0	7.3	0.7	2.7	89.3
	30세 이상 35세 미만	96.0	93.9	3.5	0.5	2.6	93.4
	35세 이상 40세 미만	97.3	94.7	2.3	0.4	2.9	94.3
	40세 이상 45세 미만	97.7	93.7	1.9	0.4	4.4	93.3
	45세 이상 50세 미만	97.7	89.9	1.9	0.4	8.2	89.4
	50세 이상 55세 미만	96.8	81.2	2.7	0.5	16.1	80.7
	55세 이상 60세 미만	95.0	63.1	4.6	0.5	32.3	62.6
	60세 이상 64세 이하	94.0	22.0	5.8	0.2	72.2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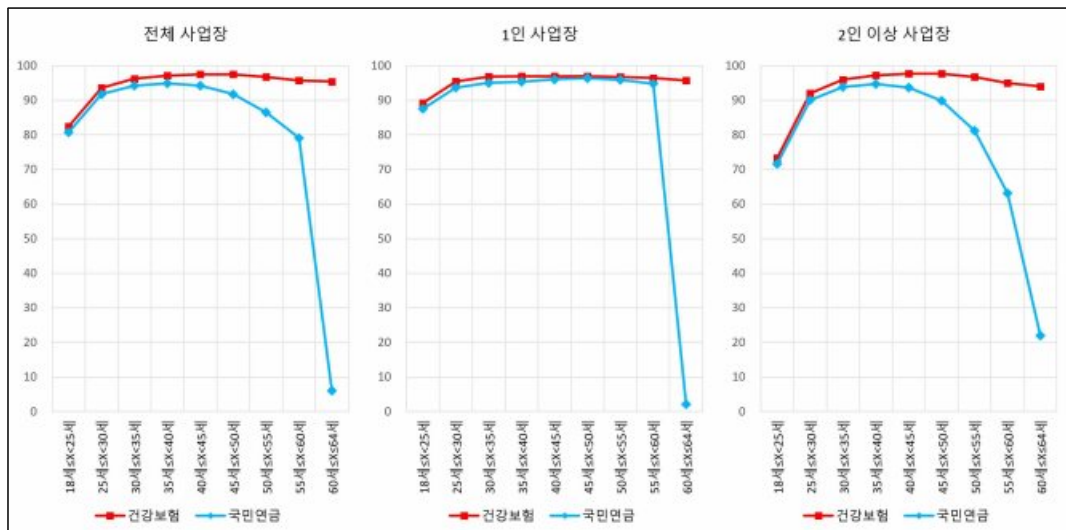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국민연금 가입률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평균 연령이 18세 이상 25세 미만에서 30~40대로 증가할 때 높아졌으나, 건강보험과 달리 40대 이후 낮아졌음.

- 국민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평균 연령이 18세 이상 25세 미만일 때 80.7%, 35세 이상 40세 미만일 때 94.9%, 55세 이상 60세 미만일 때 79.1%였음.
- 특히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으로 인해 사업장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 64세 이하일 때 국민연금 가입률이 6.1%로 급감하였음. 1인 사업장의 60~64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2.1%였음.
- 2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연령이 40대에서 60대로 증가할 때 국민연금 가입률이 감소하는 패턴은 사업장 내에서 국민연계에 가입하지 않는 60~64세 종사자가 많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됨.

[그림 8-3] 사업장 평균 연령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사회보험 가입률

- 대체로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이 길수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표 8-16〉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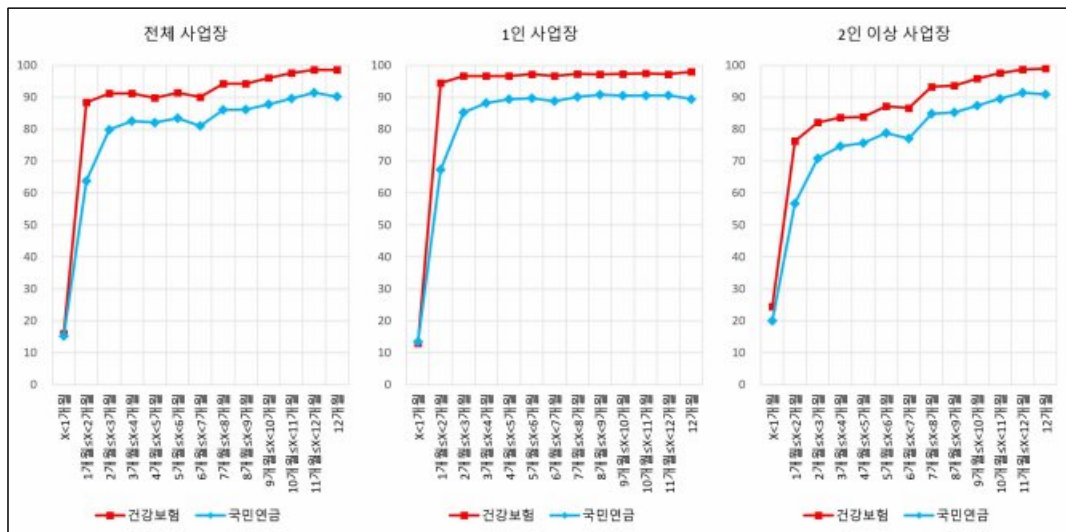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개월 미만	16.0	15.3	79.9	4.1	4.9	11.2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88.5	63.9	10.2	1.3	25.9	62.5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1.3	79.9	7.6	1.2	12.5	78.8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91.3	82.6	7.6	1.1	9.8	81.5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89.9	82.1	9.0	1.1	8.8	81.0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1.5	83.5	7.6	0.9	8.9	82.5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90.1	81.1	8.9	1.0	10.0	80.1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94.3	86.1	5.0	0.7	8.9	85.4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4.3	86.2	5.0	0.7	8.8	85.5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6.1	87.8	3.3	0.6	8.8	87.2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97.6	89.7	1.9	0.4	8.4	89.2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8.6	91.4	1.0	0.3	7.5	91.1
	12개월	98.6	90.3	1.0	0.4	8.8	89.8
1인 사업장	1개월 미만	13.0	13.5	82.6	4.4	3.9	9.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94.5	67.4	4.3	1.2	28.4	66.1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6.7	85.3	2.3	1.0	12.5	84.3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96.7	88.3	2.3	1.0	9.4	87.3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96.7	89.4	2.4	0.9	8.1	88.5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7.3	89.8	2.1	0.6	8.1	89.1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96.7	88.8	2.6	0.7	8.6	88.1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97.4	90.2	2.0	0.7	7.8	89.5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7.2	90.9	2.1	0.7	7.1	90.1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7.4	90.6	1.9	0.8	7.6	89.8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97.5	90.6	1.8	0.7	7.6	89.9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7.3	90.7	2.1	0.6	7.2	90.1
	12개월	98.1	89.5	1.4	0.6	9.2	88.9
2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24.5	20.0	72.2	3.3	7.8	16.7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76.3	56.8	22.2	1.5	21.0	55.3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82.2	70.9	16.5	1.4	12.6	69.5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83.7	74.7	15.0	1.3	10.3	73.4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83.9	75.7	14.8	1.2	9.4	74.5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7.2	78.8	11.7	1.1	9.5	77.7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6.7	77.1	12.2	1.1	10.7	76.0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93.3	84.9	5.9	0.8	9.2	84.1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3.7	85.3	5.6	0.7	9.1	84.6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5.9	87.4	3.6	0.6	9.0	86.8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97.7	89.6	1.9	0.4	8.5	89.2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8.8	91.5	1.0	0.3	7.5	91.2
	12개월	99.1	91.0	0.6	0.3	8.4	90.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 패턴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음.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에서 2~3개월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급증하였고, 이후 12개월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각각 16.0%, 15.3%,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일 때 각각 88.5%, 63.9%, 12개월일 때 각각 98.6%, 90.3%였음.

[그림 8-4]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데이터>/<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사회보험 가입률

○ 사업장 평균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9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할 때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평균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일 때 각각 79.1%, 68.7%, 100만 원대일 때 각각 96.6%, 87.6%, 900만 원대일 때 각각 96.6%, 90.5%, 1000만 원 이상일 때 각각 89.7%, 79.7%였음.

〈표 8-17〉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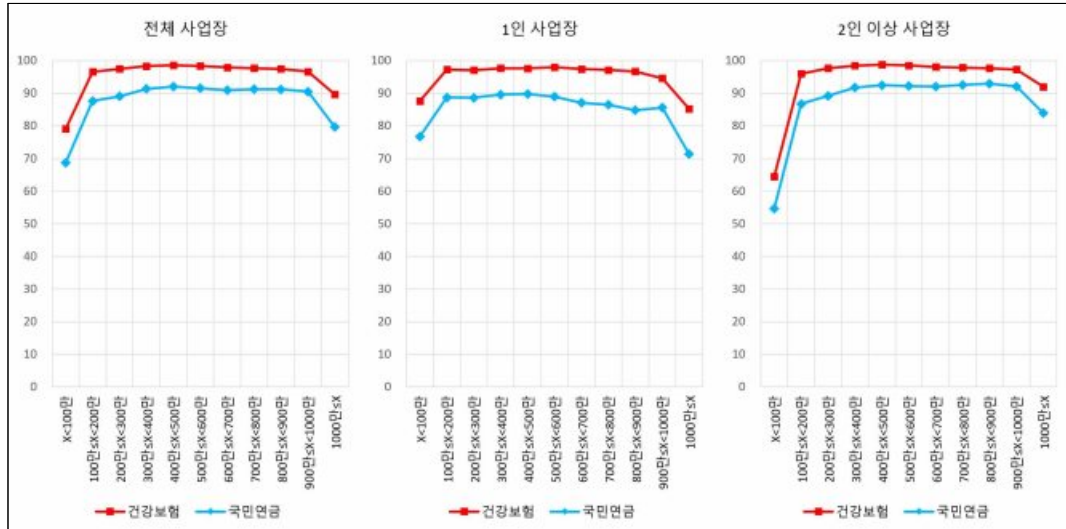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00만 미만	79.1	68.7	18.8	2.1	12.5	66.6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6.6	87.6	2.8	0.7	9.6	87.0
	200만 이상 300만 미만	97.5	89.1	2.1	0.4	8.8	88.7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8.3	91.4	1.4	0.2	7.2	91.1
	400만 이상 500만 미만	98.6	92.0	1.2	0.2	6.8	91.8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8.4	91.5	1.4	0.2	7.1	91.3
	600만 이상 700만 미만	97.9	91.0	1.8	0.3	7.3	90.7
	700만 이상 800만 미만	97.7	91.3	1.8	0.5	7.0	90.7
	800만 이상 900만 미만	97.5	91.2	2.1	0.4	6.7	90.7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96.6	90.5	2.9	0.4	6.5	90.1
	1000만 이상	89.7	79.7	9.1	1.2	11.2	78.5
1인 사업장	100만 미만	87.6	76.8	10.5	1.9	12.8	74.9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7.3	88.7	2.1	0.7	9.2	88.1
	200만 이상 300만 미만	97.1	88.6	2.5	0.5	8.9	88.2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7.6	89.6	2.0	0.4	8.4	89.3
	400만 이상 500만 미만	97.6	89.7	1.9	0.5	8.3	89.3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8.0	89.0	1.7	0.3	9.4	88.6
	600만 이상 700만 미만	97.4	87.1	2.3	0.3	10.6	86.8
	700만 이상 800만 미만	97.1	86.5	2.4	0.5	11.1	86.0
	800만 이상 900만 미만	96.7	84.8	2.7	0.6	12.5	84.2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94.6	85.6	4.8	0.5	9.5	85.1
	1000만 이상	85.3	71.4	12.9	1.8	15.7	69.6
2인 이상 사업장	100만 미만	64.4	54.7	33.2	2.3	12.1	52.3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6.0	86.7	3.3	0.7	9.9	86.0
	200만 이상 300만 미만	97.7	89.2	2.0	0.3	8.8	88.9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8.5	91.8	1.3	0.2	6.9	91.5
	400만 이상 500만 미만	98.8	92.5	1.1	0.2	6.4	92.3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8.5	92.3	1.3	0.2	6.5	92.1
	600만 이상 700만 미만	98.1	92.0	1.6	0.3	6.3	91.7
	700만 이상 800만 미만	97.9	92.6	1.6	0.5	5.8	92.1
	800만 이상 900만 미만	97.7	93.0	1.9	0.4	5.1	92.6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97.3	92.1	2.3	0.4	5.6	91.7
	1000만 이상	92.0	84.0	7.1	0.9	8.9	83.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8-5]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사업장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제4절 개인 단위 분석 결과

1. 개인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 실태

□ 분석 개요

○ 제3절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 특성과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에서 관찰된 사업장 특성과 사업장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에는 개인 특성의 영향과 사업장 특성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이 길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은 관계는 첫째, 근무기간이 긴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기 때문일 수도 둘째, 사업장의 평균 근무기간이 긴 사업장에 속한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개인 단위 분석이 필요함.

○ 제4절에서는 개인 단위 분석을 실시함.

- 첫째, 개인을 단위로 개인의 성, 연령, 근무기간, 월소득 분포를 살펴봄.³³⁾
- 둘째, 개인의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봄.³⁴⁾
- 셋째,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봄.

□ 개인 특성

○ 〈표 8-18〉~〈표 8-21〉에서는 개인 특성 분포를 살펴봄.

〈표 8-18〉 개인의 성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남성	7,052,917	56.6	233,989	50.3	6,818,928	56.8
여성	5,409,711	43.4	231,303	49.7	5,178,408	43.2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개인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56.6%, 여성이 43.4%였음.

- 1인 사업장에 속한 개인의 여성 비율이 49.7%로 2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개인의 여성 비율 43.2%보다 높았음.

○ 개인 연령을 살펴보면, 18세~24세가 6.1%, 60~64세가 5.8%였고, 나머지 5세 단위 구간에 속한 개인의 비율은 각각 10.3~14.0%였음.

- 2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1인 사업장에 속한 개인의 연령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33) 개인을 단위로 개인의 속한 사업장의 특성 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부표 6-1〉~〈부표 6-5〉에 제시하였음.

34) 개인을 단위로 개인의 속한 사업장의 특성별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는 〈부표 6-6〉~〈부표 6-10〉에 제시하였음.

〈표 8-19〉 개인의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8세 이상 25세 미만	754,067	6.1	23,624	5.1	730,443	6.1
25세 이상 30세 미만	1,548,486	12.4	42,117	9.1	1,506,369	12.6
30세 이상 35세 미만	1,525,874	12.2	42,631	9.2	1,483,243	12.4
35세 이상 40세 미만	1,733,380	13.9	59,042	12.7	1,674,338	14.0
40세 이상 45세 미만	1,618,218	13.0	62,490	13.4	1,555,728	13.0
45세 이상 50세 미만	1,738,751	14.0	74,510	16.0	1,664,241	13.9
50세 이상 55세 미만	1,542,115	12.4	66,611	14.3	1,475,504	12.3
55세 이상 60세 미만	1,278,720	10.3	56,314	12.1	1,222,406	10.2
60세 이상 64세 이하	723,017	5.8	37,953	8.2	685,064	5.7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세)	41.6		43.8		41.6	
중위값(세)	42.0		45.0		41.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8-20〉 개인의 근무기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개월 미만	168,769	1.4	7,996	1.7	160,773	1.3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02,695	1.6	14,010	3.0	188,685	1.6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08,937	1.7	15,185	3.3	193,752	1.6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215,134	1.7	15,099	3.2	200,035	1.7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176,560	1.4	11,367	2.4	165,193	1.4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7,474	1.3	12,065	2.6	155,409	1.3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200,722	1.6	15,028	3.2	185,694	1.5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163,760	1.3	11,365	2.4	152,395	1.3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163,763	1.3	10,619	2.3	153,144	1.3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233,672	1.9	13,140	2.8	220,532	1.8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247,353	2.0	9,418	2.0	237,935	2.0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223,942	1.8	12,984	2.8	210,958	1.8
12개월	10,089,847	81.0	317,016	68.1	9,772,831	81.5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월)	10.9		10.0		10.9	
중위값(월)	12.0		12.0		1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개인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연중 12개월 동안 근무한 비율이 81.0%로 나타났다.

- 1인 사업장에 속한 개인이 12개월 동안 근무한 비율은 68.1%로 2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개인(81.5%)보다 상당히 낮았음.

〈표 8-21〉 개인의 월소득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0만 미만	590,454	4.7	46,180	9.9	544,274	4.5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574,152	20.7	248,536	53.4	2,325,616	19.4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225,608	25.9	108,929	23.4	3,116,679	26.0
300만 이상 400만 미만	1,970,760	15.8	33,408	7.2	1,937,352	16.1
400만 이상 500만 미만	1,299,329	10.4	12,401	2.7	1,286,928	10.7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09,973	7.3	6,384	1.4	903,589	7.5
600만 이상 700만 미만	674,160	5.4	2,761	0.6	671,399	5.6
700만 이상 800만 미만	445,105	3.6	1,769	0.4	443,336	3.7
800만 이상 900만 미만	248,524	2.0	1,148	0.2	247,376	2.1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159,512	1.3	745	0.2	158,767	1.3
1000만 이상	365,051	2.9	3,031	0.7	362,020	3.0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천 원)	3,996		2,227		4,065	
중위값(천 원)	2,931		1,800		3,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개인 월소득을 살펴보면, 200만 원대가 25.9%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대, 300만 원대, 400만 원대가 각각 20.7%, 15.8%, 10.4%로 나타났다.

- 2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1인 사업장에 속한 개인의 월소득 수준이 훨씬 낮았음.

□ 개인 사회보험 가입률

○ 〈표 8-22〉에서는 개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7.0%, 88.9%였음.

- 1인 사업장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음.
- 2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비율은 88.5%,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2.5%였음.
 - 1인 사업장에 속한 개인이 2개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비율은 86.7%로 2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개인(88.5%)에 비해 소폭 낮았음.

〈표 8-22〉 개인의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97.0	88.9	2.5	0.4	8.6	88.5
1인 사업장	96.2	87.5	3.1	0.7	9.5	86.7
2인 이상 사업장	97.1	89.0	2.5	0.4	8.5	88.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개인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

- 〈표 8-23〉~〈표 8-26〉, [그림 8-6]~[그림 8-9]에서는 개인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살펴봄.
 - 개인 특성별 개별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조합 비율을 표에 보고하였고, 그 일부를 그림으로 제시하였음.
 - 1인 사업장 분석 결과는 제3절의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와 동일하므로, 지면의 제약을 고려하여 표의 분석 결과에서 생략함.

□ 개인 성별과 사회보험 가입률

- 남성에 비해 여성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남성과 여성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97.8%, 96.0%였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0.3%, 87.1%였음.

- 단, 이와 같은 성별 격차는 주로 2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찰되었음.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한 비율 역시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2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한 비율이 남성 90.1%, 여성 86.5%로 작지 않은 차이가 관찰되었음.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여성이 3.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8-23〉 개인 성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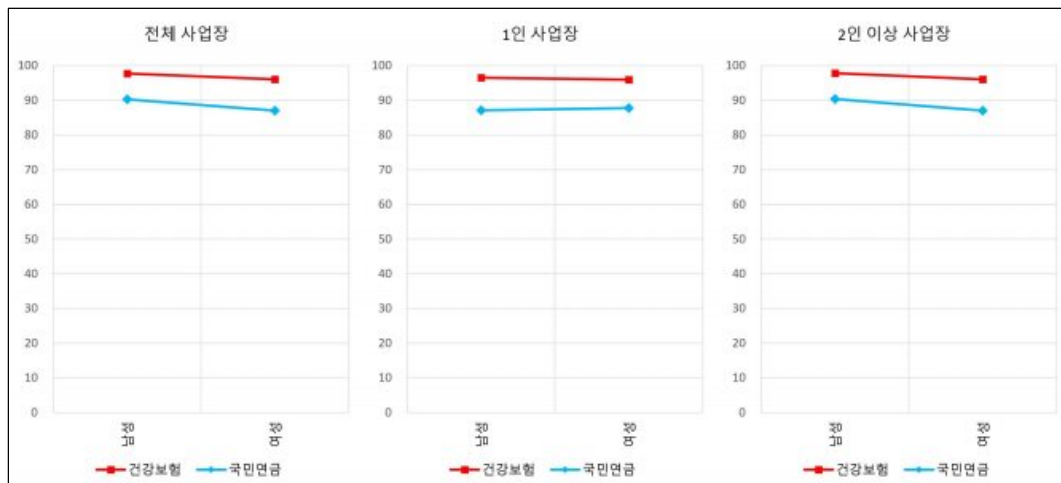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남성	97.8	90.3	1.9	0.3	7.9	89.9
	여성	96.0	87.1	3.4	0.6	9.5	86.5
2인 이상 사업장	남성	97.8	90.4	1.8	0.3	7.8	90.1
	여성	96.0	87.1	3.4	0.5	9.5	86.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8-6〕 개인 성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개인 연령과 사회보험 가입률

○ 18~24세에서 25~29세, 30~34세로 연령이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24세에서 30~34세로 연령이 증가할 때 건강보험 가입률은 86.9%에서 98.5%로, 국민연금 가입률은 83.9%에서 93.9%로 증가하였음.
- 한편, 2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개인 연령이 50세 이상인 구간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졌음.
- 60~64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0%로 급감하였음.

〈표 8-24〉 개인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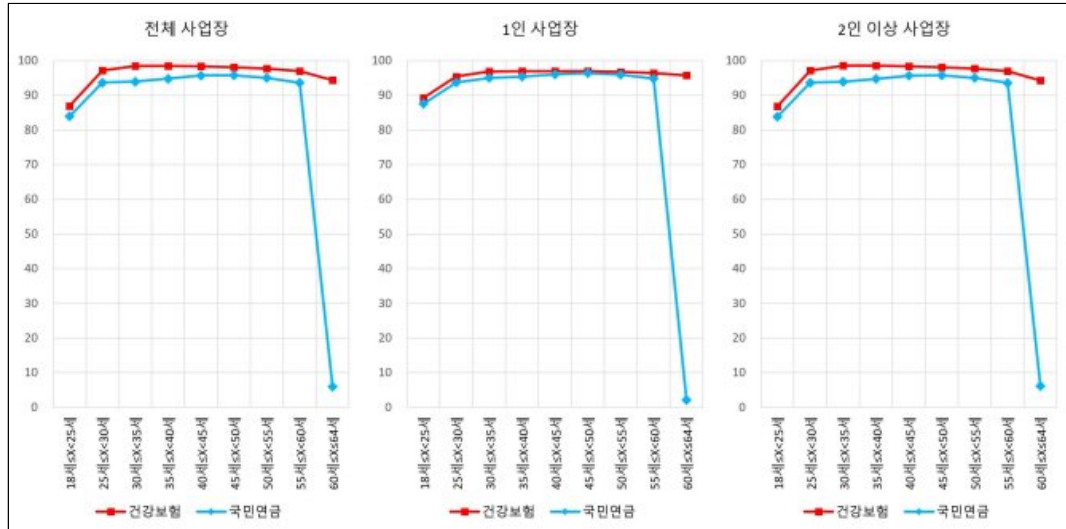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8세 이상 25세 미만	86.9	83.9	11.7	1.4	4.4	82.5
	25세 이상 30세 미만	97.1	93.7	2.5	0.3	3.8	93.3
	30세 이상 35세 미만	98.5	93.9	1.3	0.3	4.8	93.7
	35세 이상 40세 미만	98.5	94.8	1.2	0.3	4.0	94.5
	40세 이상 45세 미만	98.3	95.7	1.3	0.4	3.0	95.3
	45세 이상 50세 미만	98.1	95.8	1.5	0.5	2.7	95.3
	50세 이상 55세 미만	97.7	95.0	1.8	0.5	3.1	94.5
	55세 이상 60세 미만	97.0	93.6	2.5	0.5	3.9	93.1
	60세 이상 64세 이하	94.3	6.0	5.7	0.0	88.4	6.0
2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25세 미만	86.8	83.8	11.8	1.4	4.4	82.4
	25세 이상 30세 미만	97.2	93.7	2.5	0.3	3.9	93.3
	30세 이상 35세 미만	98.5	93.9	1.2	0.3	4.9	93.6
	35세 이상 40세 미만	98.6	94.7	1.1	0.3	4.1	94.4
	40세 이상 45세 미만	98.4	95.7	1.2	0.4	3.1	95.3
	45세 이상 50세 미만	98.1	95.8	1.4	0.5	2.8	95.3
	50세 이상 55세 미만	97.7	95.0	1.8	0.5	3.2	94.5
	55세 이상 60세 미만	97.0	93.6	2.5	0.5	4.0	93.0
	60세 이상 64세 이하	94.2	6.2	5.7	0.0	88.1	6.2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8-7] 개인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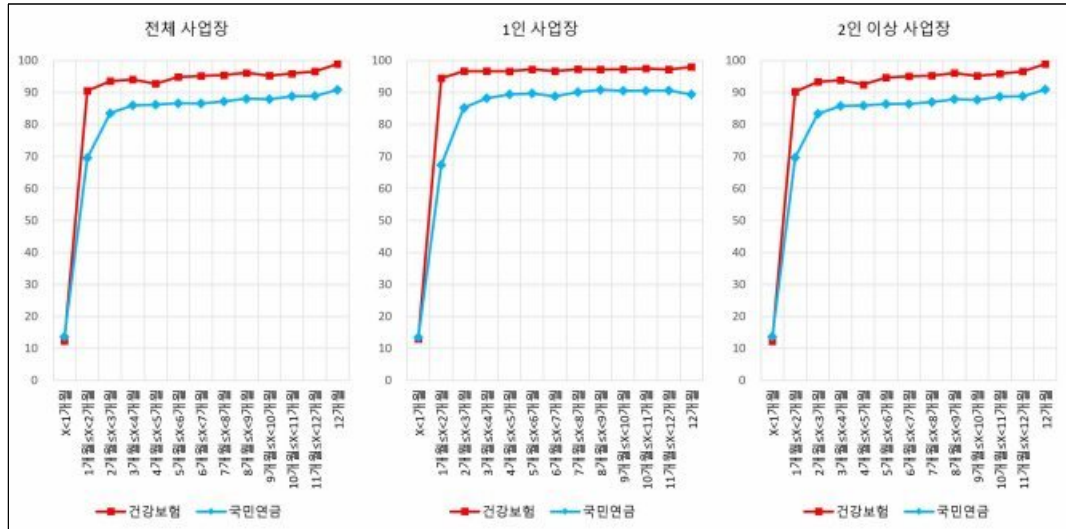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그림 8-8] 개인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개인 근무기간과 사회보험 가입률

○ 개인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에서 2~3개월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개월 이상 구간에서는 개인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표 8-25〉 개인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개월 미만	12.4	13.7	83.2	4.4	3.1	9.3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90.6	69.6	8.1	1.3	22.3	68.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3.6	83.6	5.1	1.3	11.4	82.2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94.1	86.0	4.8	1.0	9.2	84.9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92.8	86.2	5.2	2.0	8.6	84.2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4.9	86.7	4.3	0.8	9.0	85.9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95.2	86.7	4.1	0.7	9.3	86.0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95.5	87.2	3.9	0.7	8.9	86.5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6.2	88.1	3.2	0.6	8.7	87.5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5.3	87.9	3.8	0.9	8.3	87.0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96.0	88.8	3.2	0.9	8.0	88.0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6.6	89.0	2.8	0.6	8.3	88.4
	12개월	99.0	90.9	0.8	0.3	8.3	90.7
2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12.3	13.7	83.3	4.4	3.0	9.3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90.3	69.7	8.4	1.3	21.9	68.4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3.4	83.4	5.3	1.4	11.3	82.1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93.9	85.8	5.0	1.1	9.2	84.8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92.5	86.0	5.4	2.1	8.6	83.9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4.7	86.4	4.5	0.8	9.1	85.6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95.1	86.5	4.2	0.7	9.3	85.8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95.3	87.0	4.0	0.7	9.0	86.3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6.1	87.9	3.3	0.6	8.8	87.3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5.2	87.8	3.9	0.9	8.3	86.9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95.9	88.8	3.2	0.9	8.0	87.9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6.6	88.9	2.8	0.6	8.3	88.3
	12개월	99.0	91.0	0.8	0.2	8.3	90.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표 8-26〉 개인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00만 미만	69.6	54.9	26.9	3.4	18.2	51.4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6.0	84.1	3.2	0.8	12.7	83.3
	200만 이상 300만 미만	98.3	90.7	1.4	0.2	7.8	90.5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9.4	93.5	0.5	0.1	6.1	93.4
	400만 이상 500만 미만	99.7	93.4	0.2	0.1	6.4	93.3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9.8	93.7	0.2	0.0	6.1	93.7
	600만 이상 700만 미만	99.8	93.8	0.2	0.0	6.0	93.8
	700만 이상 800만 미만	99.8	93.7	0.2	0.0	6.2	93.6
	800만 이상 900만 미만	99.7	93.1	0.2	0.0	6.6	93.1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99.6	91.8	0.3	0.0	7.8	91.8
	1000만 이상	96.8	89.6	2.9	0.3	7.5	89.4
2인 이상 사업장	100만 미만	68.1	53.0	28.3	3.5	18.7	49.5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5.8	83.6	3.3	0.9	13.1	82.8
	200만 이상 300만 미만	98.4	90.8	1.4	0.2	7.8	90.6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9.5	93.5	0.5	0.1	6.0	93.4
	400만 이상 500만 미만	99.7	93.4	0.2	0.1	6.3	93.4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9.8	93.8	0.2	0.0	6.1	93.7
	600만 이상 700만 미만	99.8	93.8	0.2	0.0	6.0	93.8
	700만 이상 800만 미만	99.8	93.7	0.2	0.0	6.2	93.7
	800만 이상 900만 미만	99.7	93.2	0.2	0.0	6.6	93.1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99.7	91.9	0.3	0.0	7.8	91.8
	1000만 이상	96.9	89.8	2.8	0.2	7.4	89.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 개인 월소득과 사회보험 가입률

○ 개인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음.

- 100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69.6%, 54.9%였지만, 200만 원대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8.3%, 90.7%였음.
- 3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개인 월소득에 따른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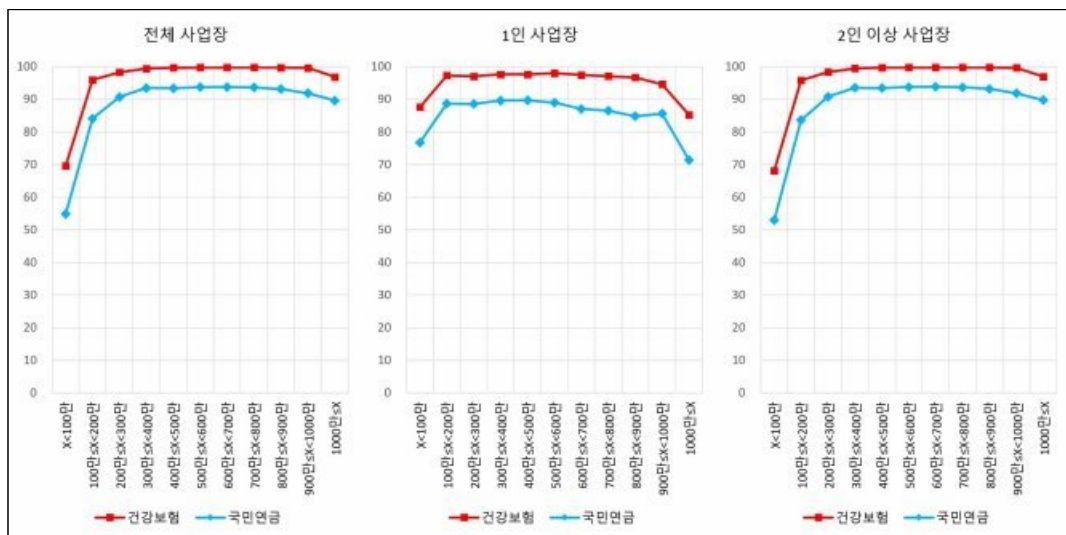
차이가 크지 않았음.

○ 한편, 900만 원 이상의 초고소득 구간에서는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지는 패턴이 관찰되었음.

- 특히 이러한 패턴은 1인 사업장에서 강하게 나타났음.

[그림 8-9] 개인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2. 개인 특성 및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 실태

□ 분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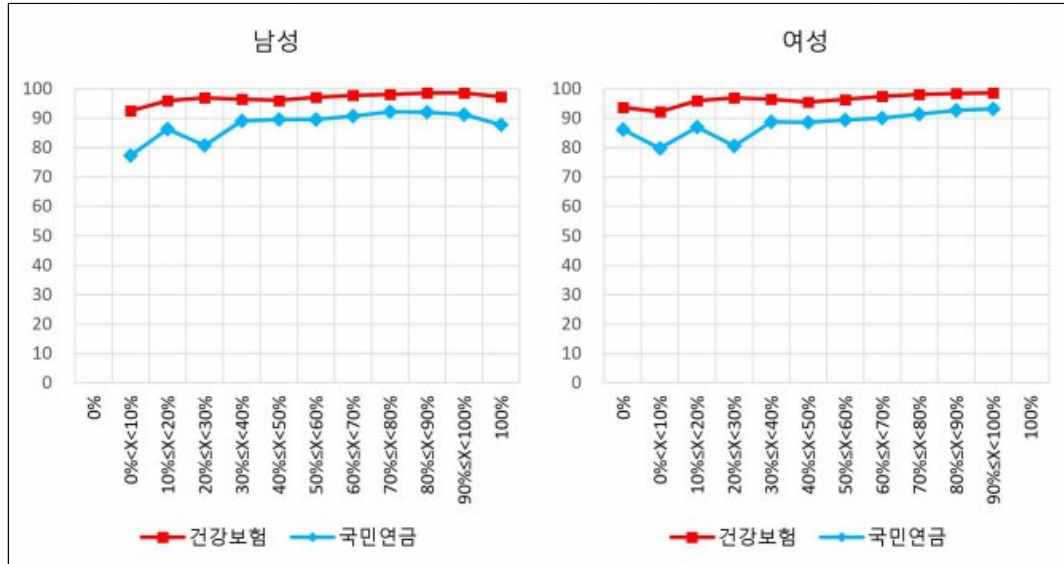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개인 특성 및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살펴봄.

○ 개인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특성이 사회보험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한 개인 특성을 가진 하위집단별로 사업장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률을 분석하였음.

○ 개인 특성과 사업장 특성이 일치하는 1인 사업장을 제외하고 2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개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그림 8-10] 개인 성별 및 사업장 남성 비율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단위: %)



주: 그래프 제목은 개인 특성을, 가로축은 사업장 특성을, 세로축은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의미함. 사례 수가 100명 미만인 셀은 생략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데이터>/<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 성별과 사회보험 가입률

- [그림 8-10]의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는 각각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남성 비율과 개인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제시하였음.
- 대체로 사업장의 남성 비율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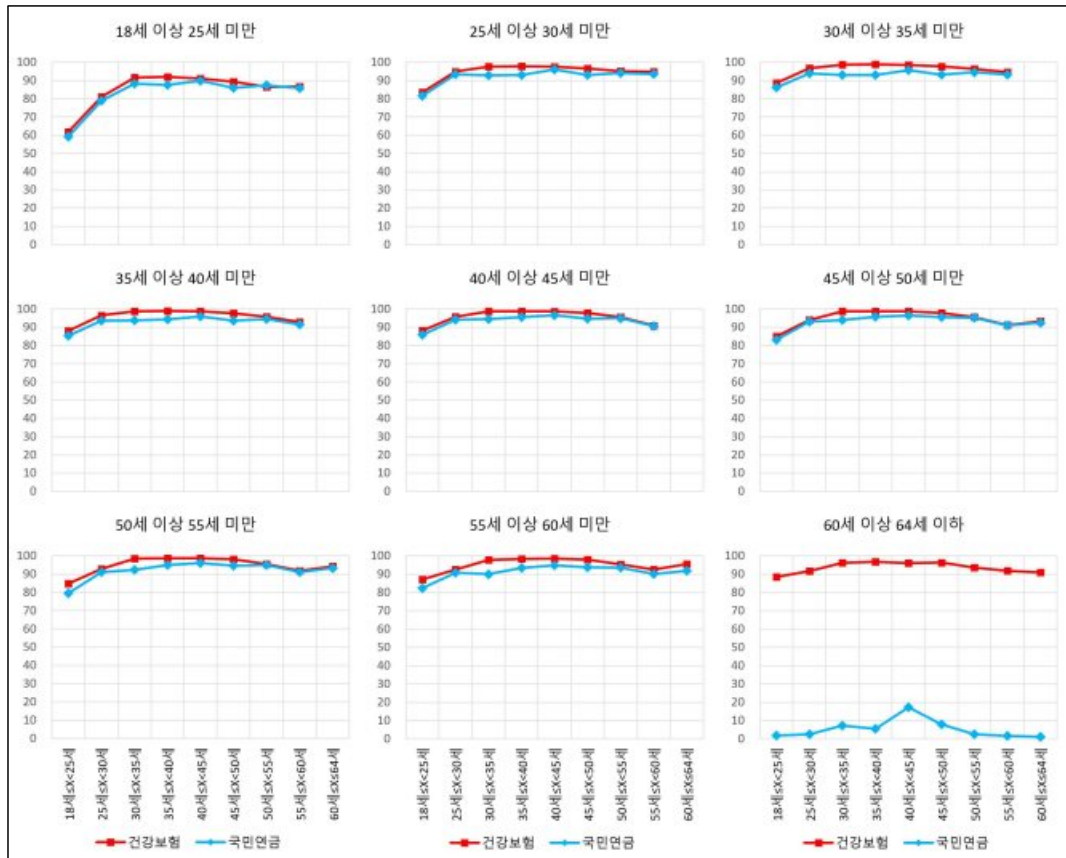
□ 연령과 사회보험 가입률

- [그림 8-11]에는 개인 연령대별로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연령과 개인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제시하였음.
- 예를 들어, 좌상단의 18세 이상 25세 미만 분석 결과는 18~24세 개인을 대상으로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연령과 개인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줌.

- 개인 연령집단별 그래프에서 관찰된 관계를 사업장 평균 연령이 사회보험 가입률에 미친 영향으로 거칠게 해석해볼 수 있음.

[그림 8-11] 개인 연령 및 사업장 평균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단위: %)



주: 그래프 제목은 개인 특성을, 가로축은 사업장 특성을, 세로축은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의미함. 사례 수가 100명 미만인 셀은 생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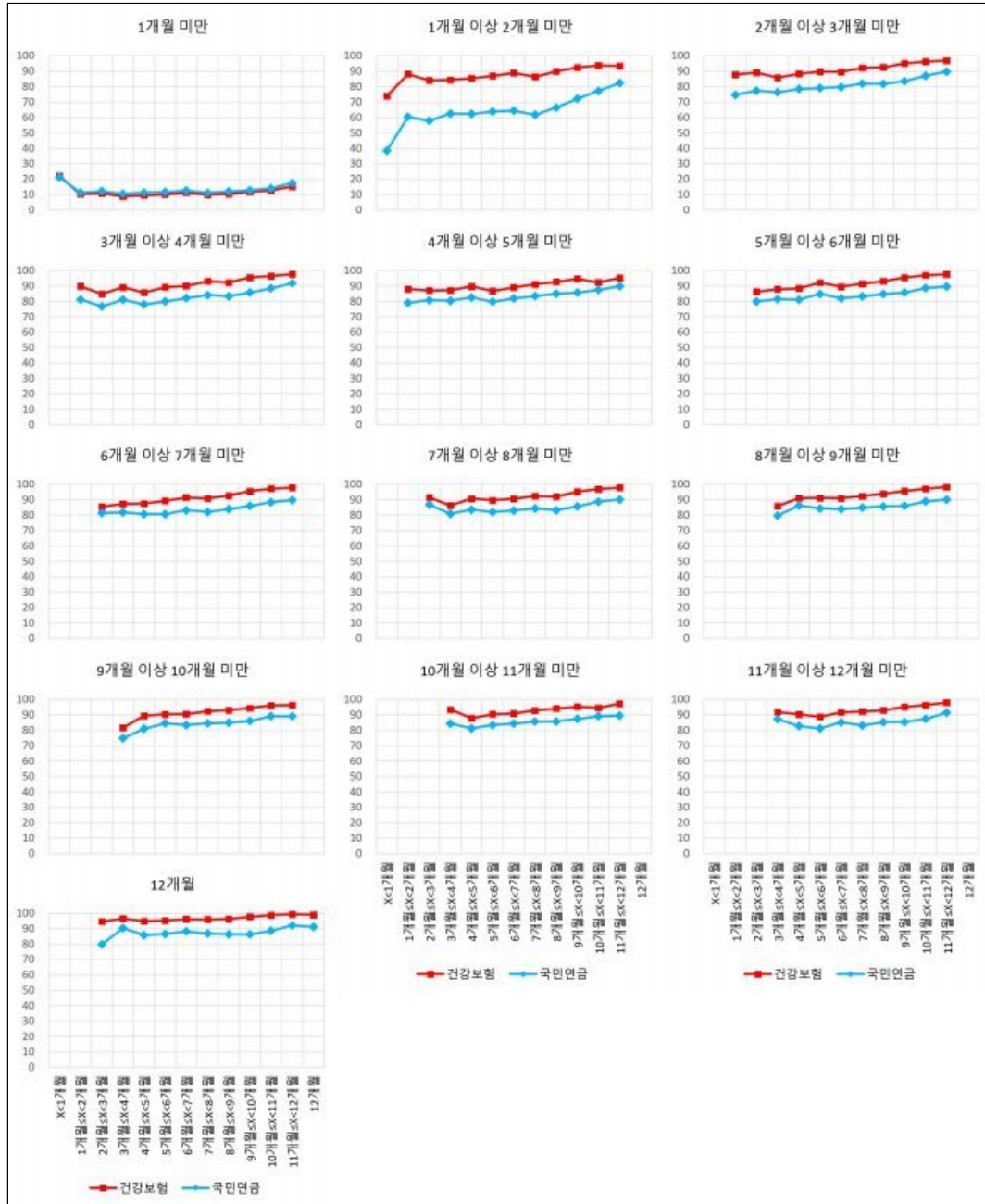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데이터>/<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대체로 30~40대를 정점으로 사업장 평균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하는 패턴이 관찰되었음.

- 특히 개인의 연령이 18~24세일 때 30대 이하 구간에서 사업장 평균 연령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8-12] 개인 근무기간 및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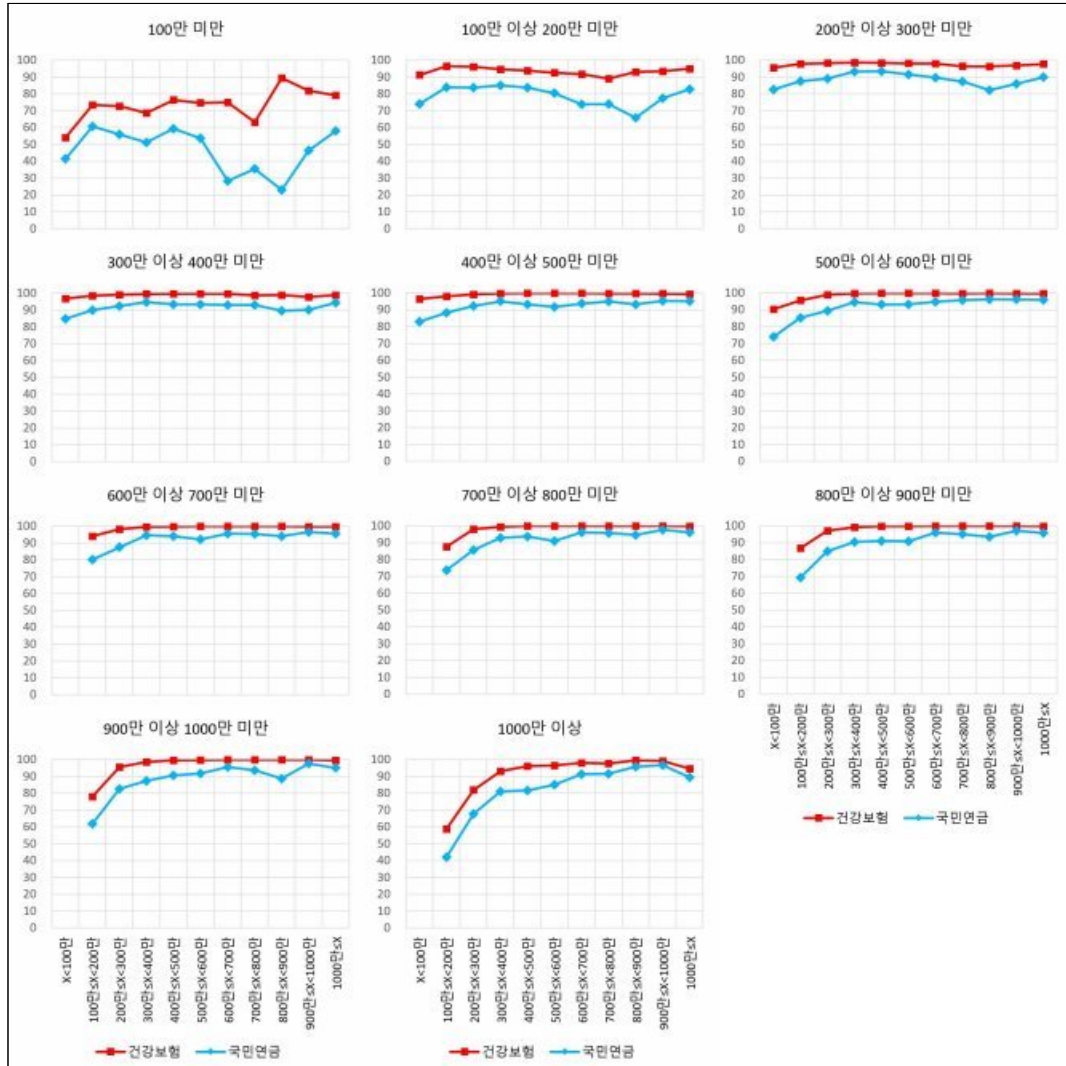


주: 그래프 제목은 개인 특성을, 가로축은 사업장 특성을, 세로축은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의미함. 사례 수가 100명 미만인 셀은 생략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데이터>/<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그림 8-13] 개인 월소득 및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2인 이상 사업장

(단위: %)



주: 그래프 제목은 개인 특성을, 가로축은 사업장 특성을, 세로축은 사회보험 가입 비율을 의미함. 사례 수가 100명 미만인 셀은 생략하였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데이터>/<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9년.

□ 근무기간과 사회보험 가입률

○ [그림 8-12]에는 개인 근무기간별로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근무기간과 개인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제시하였음.

○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개인 근무기간이 유사한 집단 내에서도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관계를 보여줌.

- 이는 개인의 근무기간을 통제하더라도 사업장의 평균적인 고용안정성이 개인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 월소득과 사회보험 가입률

- [그림 8-13]에는 개인 월소득 수준별로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월소득과 개인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를 제시하였음.
- 건강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개인 월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때는 사업장 평균 월소득이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개인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일 때는 사업장 평균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음.
- 국민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개인 월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구간에서 대체로 건강보험 가입률과 유사하게 사업장 평균 월소득이 작을 때 가입률이 낮은 패턴을 나타내었음.

제5절 소결

□ 분석 개요

- 이 장에서는 사업장 특성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실태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 분석 대상은 2019년 12월 건강보험료 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내국인으로 정의된 모집단 중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 1개 사업장에 소속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2019년 1회 소득이 신고된 18~64세 원천근로소득자임.
 - 분석 대상은 12,462,628명이고, 이들이 속한 사업장 수는 1,349,019개임.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를 직장가입자로 한정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자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였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

- 전체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97.0%, 88.9%로, 건강보험 가입률이 더욱 높았음.
- 사업장 단위로 분석하면, 사업장 내 건강보험 가입률이 100%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89.6%, 사업장 내 국민연금 가입률이 100%인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70.7%였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강보험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보여줌.

□ 사업장 규모와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대체로 사업장 종사자 수가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인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

- 30대 초중반 이전의 저연령 구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9년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12.4%, 13.7%로 매우 낮았음.
-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69.6%, 54.9%로 상당히 낮았음.

□ 사업장 특성과 사회보험 가입률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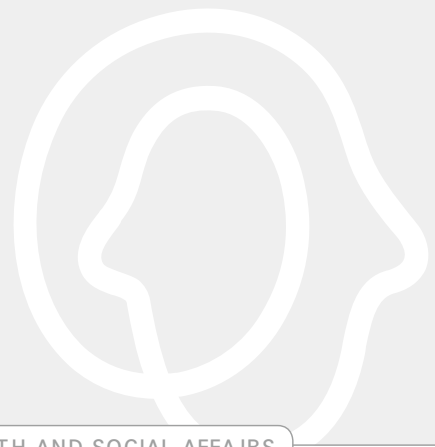
- 개인의 연령을 통제할 때, 대체로 사업장 평균 연령이 10~20대에서 30~40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였고, 사업장 평균 연령이 30~40대에서 50~60대로 증가할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감소하였음.

- 개인의 연중 근무기간을 통제할 때, 대체로 사업장의 평균 연중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증가하였음.
- 개인의 월소득 수준을 통제할 때, 사업장의 평균 월소득 수준이 낮을 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패턴이 일부 관찰되었음.

□ 분석 결과의 함의

- 이 장의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 가입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함.
- 우선 사업장 규모,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등 일자리 지위가 높을수록/낮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증가/감소한다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분석 결과가 관찰되었음.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완만하게 높아졌음.
 -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개인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음.
 - 20대 초반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 결과 역시 입직기의 낮은 일자리 지위가 사회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 또한 이 장의 분석 결과는 개인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사업장의 특성이 사회보험 가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함.
 - 연중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으로 유사한 개인 중에서도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연중 근무기간이 길수록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개인 중에서도 개인이 속한 사업장의 평균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일 때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즉, 일자리 지위가 사회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사업장 수준에서 집합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분석 결과는 사회보험 가입의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개인 특성과 사업장 특성을 모두 활용하는 표적화가 가능함을 시사함.
 - 특히, 근무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월소득 수준이 낮은 근로소득자, 또한 이와 같은 취약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

제2절 행정자료의 정책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함의

제 9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

- 본 연구는 건보공단이 구축한 각 사회보험별 가입자 테이블과 소득 및 일자리의 개인 단위 테이블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함.
- 자료의 특성 상 각 보험별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제한적이었음을 전제로 사회보험의 미가입자 규모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표적화가 필요한 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건강보험은 보험료 체납자 중 급여제한을 받는 자를 사각지대로 정의할 때, 2019년 현재 약 176만 명, 136만 세대가 이에 해당함.
 -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개인과 세대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1인 개인사업자가 사각지대에 많이 포함됨.
 -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함께 이들의 의료서비스 제한을 완화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18~59세 인구 가운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12월말 미가입자+연중 미가입자)의 규모는 약 1,269만 명, 해당 연령대 인구의 41.8%에 해당하는 규모임.
 - 연중 미가입자는 약 987만 명(32.5%)에 해당
 - 일용직 근로자의 51.9%, 자영업자의 55.1%가 연중 미가입자이고 미취업자의 86.4%가 미가입자임.
 - 소득자료를 보유한 미가입자의 43.6%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가입 상태이며, 연중 미가입자 가운데 36.4%(137만 명)도 하한 이상의 소득을 얻음.
 - 미가입자 가운데에서 소득자료의 확보와 소득수준에 따라 정책개입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청년층과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납부예외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지원확대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음.
- 55~59세 연령대의 경우 노동시장 지위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지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소득과 일자리 특성을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를 구분하였을 때 18~64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5.0%(상용근로자 75.8%, 일용근로자 10.3%임.)

- 소득수준이 낮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기피 유인을 통제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실시간 소득파악의 진전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근로소득 1천 만 원 이하의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 지원을 통한 가입지원의 효과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 중심의 고용보험으로 전환 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강보험 가입 지위, 국민연금 가입지위, 고용보험 가입 지위 사이의 정합성을 사회보험 확대의 실증적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 가운데 연금가입률이 떨어지는 저소득 청년층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용보험테이블>의 한계로 인해 연금 가입-고용보험 미가입 집단의 규모와 특성을 특정 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는 향후 자료의 보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 궁극적으로 직장가입 - 직장연금 - 고용보험 가입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각 보험별 가입정보의 연계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임.

□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와 실시간 소득파악

○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는 소득발생 시점과 부과 시점의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과 한

계가 발생함.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대상 중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일용근로소득 등)과 소득 파악이 되지 못한 소득(비정형 근로자들의 소득 등)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이 매우 중요함.

- 실시간소득파악시스템(RTI)으로 신속한 소득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차이로 인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가능함.
-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득(일용근로소득, 비정형 근로자 미신고 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가 가능하여 형평 부과 문제 해결 가능함.

제2절 행정자료의 정책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함의

□ 4대 사회보험 가입 정보와 소득 및 일자리 정보의 연계, 파악, 분석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틀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주요 논의는 3대 사회보험과 소득 및 일자리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분석 가능했던 것임.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개별 보험의 가입정보가 통상적으로 연계,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임.
-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부과 및 가입실태 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가입·부담의 형평성 제고 매우 필요함.

○ 고용보험과 (특히) 산재보험처럼 사업장 단위로 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장 단위의 자료와도 연계하여 전체 사회보험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테이블

구축이 필요함.

- 가입 정보 연계를 통해 각 보험의 가입자 확대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개별 공단의 부과대상자도 건보에서 취합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음.

□ 행정자료의 단순한 연계 이외에도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작업도 필요함.

- 연계된 자료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설계와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표준화와 정제 과정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정책 목적을 염두에 둔 테이블 설계, 지속적 구축·관리, 반복적 활용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현재와 같은 형태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더라도 개인별 사회보험 가입 지위와 사각지대 실태 변화의 동태적 분석이 가능할 것임.

□ 다른 행정기관의 자료와 연계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

- 타 행정자료와의 추가적 연계를 통해 더욱 풍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정책 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관 간 적극적 협력이 필요함.
- 전 국민의 소득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구단위로 연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사회보험의 계층적 분포, 빈곤예방 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불가능함.
 - 본 연구에서 활용된 테이블 등을 통계청 인구·가구등록부와 연계할 수 있다면 모집단의 정의, 가구단위의 테이블 생성, 사회보험의 계층별 귀착 등에 대한 더욱 풍부한 분석이 가능할 것임.
 - 또한 개인별 종사상 지위와 사업장 관련 항목에 대해 통계청의 경제통계등록부 등과 연계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더욱 풍부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경우 정책적으로 더욱 적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구인회·강상경·김용득·홍백의·정찬미·한경훈·김동진. (2020).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및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2020 NHIS 건강보험 상담실무: 징수.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2021). 2021년 직무교재: 자격관리 I. 전주: 국민연금공단.
- 권혁진. (2012).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응용경제, 14(2), 85-120.
- 권혁진. (2012). 비정규 고용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응용경제. 14(2), 85-120.
- 김연명. (2010).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와 실태의 재검토. 사회복지정책, 37(4), 155-179.
- 김옥희. (1999). 대량실업시대의 사회안전망 확충방향,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춘계학술대회 pp.342-368.
- 김제선. (2011). 노인 의료보장 사각지대 진입, 탈출 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연. (2020). 고용보험제도의 실질적 사각지대 규모와 원인에 대한 성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3), 108-117.
- 김혜진, 김현수, 이은실, 김아람. (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프로젝트 2020-0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김혜진·김현수·이은실·김아람.(2020)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노대명, 류정희, 임지영. (2019). 통계생산용 DB구축 대상 선정 연구(사회복지분야). 통계청·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재린, 김혜진, 안서연, 김아람. (2019).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지원방안. 프로젝트 2019-0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류재린, 문현경, 김아람. (2020). 납부예외자 특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20-03.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박일수. (2013).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책 세미나 「복지사각지대의 현황과 해결방안」자료집
- 박진희, 이시균, 정재현, 정한나, 김수현, 이정아, 이혜영, 김성경. (2020). 행정DB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서정희, 백승호. (2014).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

- 노동정책연구, 14(3), 37-78.
- 석재은. (2004). 한국 연금개혁 어디로 갈 것인가: 보수적 개혁 vs 패러다임적 개혁.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pp. 203-254.
- 신영석, 우해봉, 이윤경, 윤조덕, 김동현, 김소운, 김은아. (2016).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석, 우해봉, 이윤경, 윤조덕, 김동현, 김소운, 김은아. (2016). 사회보험 사각지대 실태 및 개선방향.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영전. (2009).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한국사회정책, 17(1), 95-127.
- 신현웅. (2009).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 이병희. (2019).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동향과 전망, 82, 185-211.
- 이준영. (2004).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서울시립대학교.
- 이현주, 강희정, 류정희, 손병돈, 이재원, 박형준, 김성아. (2018).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오옥찬, 이원진, 이윤경, 성재민, 이길제, 박형준, 이병재. (2020).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지연, 박찬임. (2019). 사회보험 사각지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노동리뷰, 2019년 11월호, 9-19.
- 정인영, 김정아, 조영은, 이다미. (2015).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 개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정인영, 유희원, 한신실. (2016).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16-0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 정인영. (2015).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정책, 42(2), 33-62.
- 정해식, 이다미, 이병재, 한겨레. (2021).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답론 분석. 연구보고서 2020-3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2020). 청년의 사회보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0년 6월 통권 284호. pp.19-3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록 1] 분석 테이블 레이아웃

〈부표 1-1〉 건강보험테이블 레이아웃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세부내용	추가 설명
1	IDV_ID	개인식별번호		
2	_01	1월 건강보험 자격	(0) 자격없음 (1) 지역세대주 (2) 지역세대원 (5) 직장가입자 (6) 피부양자 (7) 의료급여세대주 (8) 의료급여세대원	* 연구목적에 따라 재범주화가 가능하도록 모두 구분하여 제공함
3	_02	2월 건강보험 자격		
4	_03	3월 건강보험 자격		
5	_04	4월 건강보험 자격		
6	_05	5월 건강보험 자격		
7	_06	6월 건강보험 자격		
8	_07	7월 건강보험 자격		
9	_08	8월 건강보험 자격		
10	_09	9월 건강보험 자격		
11	_10	10월 건강보험 자격		
12	_11	11월 건강보험 자격		
13	_12	12월 건강보험 자격		
14	GONGGYO_01	1월 공교여부	(0) 아니오 (1) 예	
15	GONGGYO_02	2월 공교여부		
16	GONGGYO_03	3월 공교여부		
17	GONGGYO_04	4월 공교여부		
18	GONGGYO_05	5월 공교여부		
19	GONGGYO_06	6월 공교여부		
20	GONGGYO_07	7월 공교여부		
21	GONGGYO_08	8월 공교여부		
22	GONGGYO_09	9월 공교여부		
23	GONGGYO_10	10월 공교여부		
24	GONGGYO_11	11월 공교여부		
25	GONGGYO_12	12월 공교여부		

〈부표 1-2〉 연금테이블 레이아웃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변수 세부내용	추가 설명
1	IDV_ID	개인식별번호		-
2	_01	1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0) 미가입 (1) 직장연금 (2) 지역연금 (3) 직장+지역연금	
3	_02	2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4	_03	3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5	_04	4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6	_05	5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7	_06	6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8	_07	7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9	_08	8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10	_09	9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11	_10	10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12	_11	11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13	_12	12월 연금(직장, 지역) 가입여부		

〈부표 1-3〉 고용보험테이블 레이아웃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변수 세부내용	세부사항
1	IDV_ID	개인식별번호		-
2	_01	1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0) 미가입 (1) 가입	
3	_02	2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4	_03	3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5	_04	4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6	_05	5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7	_06	6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8	_07	7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9	_08	8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10	_09	9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11	_10	10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12	_11	11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13	_12	12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부표 1-4〉 산재보험테이블 레이아웃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변수 세부내용	세부사항
1	IDV_ID	개인식별번호		
2	_01	1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0) 미가입 (1) 가입	
3	_02	2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4	_03	3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5	_04	4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6	_05	5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7	_06	6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8	_07	7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9	_08	8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10	_09	9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11	_10	10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12	_11	11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13	_12	12월 산재보험 가입여부		

〈부표 1-5〉 소득 일자리-개인단위 테이블 레이아웃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변수 세부내용	추가 설명
1	REG_NO	사업장 번호		
2	IDV_ID	개인식별번호		
3	SEX_TYPE	성별	(1) 남자 (2) 여자	• 해당연도 12월 기준, 건강보험 자격자료에서 파악된 성별변수 출임
4	AGE	나이	연속형	• 해당연도 12월 기준, 건강보험 자격자료에서 파악된 연령변수 출임
5	ADDR	시군구 주소	유효값: 주소 코드(8자리) (.) 결측값	• 해당연도 12월 기준, 건강보험 자격자료에서 파악된 주소변수 출임 • 개인 주거지 기준 • 시도코드(2자리) + 시군구코드(5자리)
6	KIND_CD	소득 유형	(1) 금융소득 (2) 사업소득 (3) 근로소득 (4) 기타소득 (5-1) 연금소득(사적) (5-2) 연금소득(공적) (6) 일용근로소득	• 2019년자료에는 분리와세 금융소득 포함 • 2019년자료에는 분리와세 주택임대소득 포함
7	SQDUK_ALL	소득 금액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 (99) 전국민 자료를 구축할 때, 근로가 있음에도 소득이 0원인 경우와, 근로가 없이 소득이 0원인 경우를 구분하기 위해 포함함
8	WORK_DT_01	해당 월별 근무일 수 (일용근로의 경우)	연속형(1~31일 까지) (0) 해당 월에 근무일 없음 (.) 일용근로 아님	• KIND_CODE=6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만 있음
9	WORK_DT_02			
10	WORK_DT_03			
11	WORK_DT_04			
12	WORK_DT_05			
13	WORK_DT_06			
14	WORK_DT_07			
15	WORK_DT_08			
16	WORK_DT_09			
17	WORK_DT_10			
18	WORK_DT_11			
19	WORK_DT_12			
20	ONE_DT_01	근무기간 (원천근로소득자료)	유효값: 16자리 앞1-8자리: 근무시작 년/월/일 앞9-16자리: 근무종료 년/월/일	•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된 개인 소득이 최대 40개까지만 있으나 자료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3개까지만 출임
21	ONE_DT_02			
22	ONE_DT_03			

〈부표 1-6〉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 레이아웃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변수 세부내용	추가 설명
1	IDV_ID	개인식별번호		
2	SEX_TYPE	성별	(0) 남자 (1) 여자	* 해당연도 12월 기준, 건강보험 자격자로서 파악된 성별변수 불임
3	AGE	나이	연속형(0~129세)	* 해당연도 12월 기준, 건강보험 자격자로서 파악된 연령변수 불임
4	ADDR	시군구 주소	유효값: 주소 코드(8자리) (.) 결측값	* 해당연도 12월 기준, 건강보험 자격자로서 파악된 주소변수 불임 * 개인 주거지 기준 * 시도코드(2자리) + 시군구코드(6자리)
5	FRNR	외국인 여부	(0) 아니오 (1) 예	* 발행시점 기준 건강보험 자격자 중 외국인 여부
6	W1	(일자리 없음) 소득 있음	(1) 아니오 (2) 예	* W_KEY 변수 생성을 위해 0, 1이 아닌 1, 2로 코딩함
7	W2	(일자리 없음) 소득 없음	(1) 아니오 (2) 예	
8	W3	2년 이상 근무여부	(1) 아니오 (2) 예	
9	W4	1-2년 근무여부	(1) 아니오 (2) 예	
10	W5	6개월-1년 근무여부	(1) 아니오 (2) 예	
11	W6	6개월 미만 근무여부	(1) 아니오 (2) 예	
12	W7	미분류 여부	(1) 아니오 (2) 예	* 종합소득은 매년5월 연단위의 소득을 신고하는 자료로 근무기간이 없는 자료가 존재함. 본 연구에서 임금근로자를 근무기간을 중심으로 분류하 였는데, 완전근로소득 자료현으로 파악한 소득의 경우는 분류기준이 되 는 근무기간이 없음. 그치만 소득 및 사업장등록번호 등 다른 자료들이 존재하므로, 유형변류 3단계에서 미분류 자료로 분류함
13	W8	일용근로자 여부	(1) 아니오 (2) 예	
14	W9	법인고용주 여부		
15	W10	개인고용주 여부		
16	W11	자영업 여부		
17	W12	특고 여부		
18	W_KEY	총사상 지위 (연간)	12자리(1:해당없음, 2: 해당됨) 1: (일자리 없음) 소득있음(근로성 소득이 아닌 금융소득, 연금소득) 2: (일자리 없음) 소득없음 3: 2년 이상 근무 4: 1-2년 근무 5: 6개월-1년 근무 6: 6개월 미만 근무 7: 미분류 8: 일용근로자 9: 법인고용주	* 일자리 없음+소득없음 : REG_IDV_2018/2019에 개인 IDV 없음 * '2' 포함 개수로 일자리 개수 파악(단, 앞 1, 2자리수가 '2' 인 경우는 일자리 없는 것임) (예시) 211111111111: 일자리 없음, 소득있음 112111111111: 일자리 1개, 2년 이상 근무 112111111211: 일자리 2개, 2년 이상근무 + 자영업 111112121111: 일자리 2개, 6개월 미만근무 + 일용

〈부표 1-6〉 소득 개인단위 테이블 레이아웃(계속)

연번	변수명	변수내용	변수 세부내용	추가 설명
19	W_TYPE	주요 종사상 지위	01. 소득있음(일자리없음) 02. 소득없음(일자리없음) 10. 2년 이상 근무 11. 1-2년 근무 12. 6개월1년 근무 13. 6개월 미만 근무 14. 미분류 15. 일용근로자 16. 법인고용주 17. 개인고용주 18. 자영업 19. 특고 21. 일용근로자영업 22. 6개월 미만 일용근로 23. 2년 이상, 자영업 24. 1-2년 근무, 6개월 미만 근무 25. 개인고용주, 자영업 29. 일자리 2개 그 외 99. 일자리 3개 이상	W_KEY 변수 활용하여 주요 종사상지위 변수 생성함
20	SODUK_1	금융소득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 (2019년) 분리과세_금융소득(연 1-2천만원) 합산한 금액
21	SODUK_2	사업소득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22	SODUK_3	근로소득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23	SODUK_4	기타소득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24	SODUK_5	연금소득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25	SODUK_6	일용근로소득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26	SODUK_9	분리과세 _주택임대소득	유효값: 연속형(원 단위) (99) -9,999 ~ 9,999원	* 2019년 자료에만 있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 1-2천만원

[부록 2]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부표 2-1〉 건강보험료 부과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 수(2018년)

(단위: 명)

월	지역 세대주	지역 세대원	직장가입	직장피부양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세 대원	계
1	6,517,689	7,412,295	16,483,128	20,309,165	1,060,209	467,473	52,249,959
2	6,423,433	7,257,947	16,719,864	20,313,619	1,063,942	465,906	52,244,711
3	6,429,997	7,258,215	16,680,190	20,331,647	1,078,662	483,456	52,262,167
4	6,396,355	7,195,787	16,783,909	20,323,488	1,081,813	481,106	52,262,458
5	6,369,172	7,125,161	16,898,380	20,315,360	1,084,814	479,567	52,272,454
6	6,355,589	7,085,148	16,982,412	20,348,672	1,068,454	444,450	52,284,725
7	6,552,008	7,309,700	16,936,790	19,988,971	1,067,055	440,743	52,295,267
8	6,513,985	7,246,636	17,071,147	19,963,008	1,068,741	437,560	52,301,077
9	6,534,259	7,257,969	17,046,778	19,985,312	1,060,186	417,662	52,302,166
10	6,488,705	7,177,555	17,196,701	19,975,017	1,063,600	416,846	52,318,424
11	6,473,526	7,135,395	17,274,646	19,961,064	1,066,793	415,274	52,326,698
12월	6,607,333	7,297,129	17,273,609	19,670,577	1,068,891	413,637	52,331,176
월평균	6,471,838	7,229,911	16,945,630	20,123,825	1,069,430	446,973	52,287,607
연1회 이상							52,836,05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2018년.

〈부표 2-2〉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인구 행정통계(2018년)

(단위: 명, 세대)

월	지역가입	직장가입	직장피부양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부양가족	계
1	14,054,536	16,792,619	20,109,437	1,063,940	421,654	52,442,186
2	13,895,399	16,909,706	20,135,703	1,072,500	430,347	52,443,655
3	13,824,619	16,953,001	20,153,800	1,077,661	432,380	52,441,461
4	13,708,165	17,065,448	20,161,006	1,085,331	439,025	52,458,975
5	13,644,211	17,130,107	20,208,377	1,075,208	415,264	52,473,167
6	13,611,517	17,176,897	20,214,059	1,073,655	411,413	52,487,541
7	13,917,501	17,229,623	19,871,060	1,075,401	408,430	52,502,015
8	13,894,621	17,280,000	19,850,701	1,078,397	407,175	52,510,894
9	13,874,661	17,319,630	19,840,149	1,082,564	406,459	52,523,463
10	13,829,542	17,376,735	19,838,126	1,085,439	405,512	52,535,354
11	13,758,417	17,484,745	19,820,190	1,087,294	403,632	52,554,278
12월	14,082,266	17,479,465	19,510,251	1,084,991	399,680	52,556,653
월평균	13,841,288	17,183,165	19,976,072	1,078,532	415,081	52,494,13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월별 적용인구현황,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통계〉 연도별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018년.

〈부표 2-3〉 건강보험테이블 상의 가입자와 행정통계의 차이(2018년)

(단위: 명)

월	지역 가입	직장가입	직장피부양	의료급여 세대주	의료급여 부양가족	계
1	-124,552	-309,491	199,728	-3,731	45,819	-192,227
2	-214,019	-189,842	177,916	-8,558	35,559	-198,944
3	-136,407	-272,811	177,847	1,001	51,076	-179,294
4	-116,023	-281,539	162,482	-3,518	42,081	-196,517
5	-149,878	-231,727	106,983	9,606	64,303	-200,713
6	-170,780	-194,485	134,613	-5,201	33,037	-202,816
7	- 55,793	-292,833	117,911	-8,346	32,313	-206,748
8	-134,000	-208,853	112,307	-9,656	30,385	-209,817
9	- 82,433	-272,852	145,163	-22,378	11,203	-221,297
10	-163,282	-180,034	136,891	-21,839	11,334	-216,930
11	-149,496	-210,099	140,874	-20,501	11,642	-227,580
12월	-177,804	-205,856	160,326	-16,100	13,957	-225,477

주: 〈건강보험테이블〉상의 가입자 - 행정통계 상의 가입자를 계산한 수치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월별 적용인구현황,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통계〉 연도별 보장기관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018년.

〈부표 2-4〉국민연금 가입자의 비교(2018년)

(단위: 명)

월	국민연금테이블의연금 부과 대상자				행정통계 상의 국민연금 가입자			차이		
	직장연금 부과(A)	지역연금 부과(B)	직장및 지역연금 부과(C)	계(D)	사업장 가입자 (E)	지역(소득신 고)+임의+임 의계속(F)	계 (G)	직장 (H=A-E)	지역 (I=B-F)	계 (J=D-G)
1	12,879,848	4,515,662	9,721	17,405,231	13,418,180	4,538,676	17,956,856	- 538,332	-23,014	- 551,625
2	13,043,714	4,604,708	9,704	17,658,126	13,497,691	4,626,111	18,123,802	- 453,977	-21,403	- 465,676
3	13,040,339	4,588,619	16,696	17,645,654	13,500,359	4,615,780	18,116,139	- 460,020	-27,161	- 470,485
4	13,140,281	4,572,840	24,344	17,737,465	13,600,912	4,607,671	18,208,583	- 460,631	-34,831	- 471,118
5	13,233,467	4,569,368	28,155	17,830,990	13,633,809	4,612,605	18,246,414	- 400,342	-43,237	- 415,424
6	13,270,504	4,571,728	31,315	17,873,547	13,653,432	4,619,736	18,273,168	- 382,928	-48,008	- 399,621
7	13,226,630	4,600,324	24,528	17,851,482	13,670,998	4,639,553	18,310,551	- 444,368	-39,229	- 459,069
8	13,339,862	4,602,559	32,506	17,974,927	13,698,575	4,647,473	18,346,048	- 358,713	-44,914	- 371,121
9	13,301,806	4,620,985	24,113	17,946,904	13,716,757	4,654,437	18,371,194	- 414,951	-33,452	- 424,290
10	13,367,966	4,618,376	25,179	18,011,521	13,761,527	4,655,951	18,417,478	- 393,561	-37,575	- 405,957
11	13,418,644	4,604,988	26,524	18,050,156	13,835,005	4,637,881	18,472,886	- 416,361	-32,893	- 422,730
12월	13,401,186	4,789,142	19,102	18,209,430	13,817,963	4,794,619	18,612,582	- 416,777	-5,477	- 403,152
월평균	13,222,021	4,604,942	22,657	17,849,619	13,650,434	4,637,541	18,287,975	- 428,413	-32,599	- 438,356
연간 1회이상				21,544,625						

주: 행정통계의 F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와 임의가입 및 임의 계속가입자를 합한 값임.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는 제외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테이블〉, 2018년.

국민연금관리공단, 〈2018년 국민연금통계〉

〈부표 2-5〉 각 보험별 부과 개월수별 분포(2018년)

(단위: 명, %)

개월수	건강보험(의료급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자(명)	비율(%)	부과자(명)	비율(%)	부과자(명)	비율(%)	부과자(명)	비율(%)
1	98,282	0.2	1,047,610	4.9	531,730	4.0	535,552	4.1
2	95,995	0.2	665,791	3.1	540,257	4.1	552,061	4.3
3	104,093	0.2	566,570	2.6	466,398	3.5	480,670	3.7
4	94,655	0.2	530,095	2.5	444,797	3.4	454,953	3.5
5	95,833	0.2	545,125	2.5	412,666	3.1	420,599	3.2
6	99,607	0.2	571,581	2.7	450,906	3.4	452,817	3.5
7	101,823	0.2	554,947	2.6	408,296	3.1	409,739	3.2
8	102,644	0.2	575,034	2.7	418,936	3.2	423,125	3.3
9	104,989	0.2	613,454	2.8	470,039	3.6	472,606	3.6
10	115,062	0.2	691,704	3.2	514,057	3.9	514,460	4.0
11	113,030	0.2	1,274,555	5.9	639,183	4.9	611,297	4.7
12개월	51,710,045	97.9	13,908,159	64.6	7,880,228	59.8	7,674,203	59.0
계	52,836,058	100.0	21,544,625	100.0	13,177,493	100.0	13,002,082	10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산재보험테이블〉, 2018년.

〈부표 2-6〉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소득 분포(2018년)

(단위: %, 천원)

소득	구분	비율(%)	평균	p10	p20	p30	p40	p50	p60	p70	p80	p90
상용근로소득	전체		17,614	-	-	-	-	-	-	13,870	27,651	52,992
	유소득자	38.6	45,649	5,786	12,301	18,513	22,800	28,877	36,700	47,212	64,374	99,764
일용근로소득	전체		1,054	-	-	-	-	-	-	-	-	876
	유소득자	13.8	7,662	220	556	1,005	1,663	2,430	3,460	5,589	10,360	23,400
근로소득	전체		18,668	-	-	-	-	-	3,520	16,900	29,804	54,970
	유소득자	47.0	39,748	2,100	6,122	12,754	19,056	24,400	31,900	41,943	57,600	89,846
사업소득	전체		2,694	-	-	-	-	-	-	-	-	3,370
	유소득자	19.2	14,050	90	440	1,140	2,240	3,720	5,880	9,200	14,980	29,080
노동소득	전체		21,362	-	-	-	-	1,930	8,400	19,410	32,400	58,708
	유소득자	56.7	37,679	1,525	4,120	8,700	15,041	21,136	28,200	38,072	53,320	85,812
금융소득	전체		265	-	-	-	-	-	-	-	-	-
	유소득자	0.2	106,647	21,170	23,771	27,281	31,600	38,110	48,310	64,541	98,870	192,060
사적연금소득	전체		4	-	-	-	-	-	-	-	-	-
	유소득자	0.1	7,154	1,680	2,380	3,180	3,920	4,960	6,180	7,290	8,660	14,550
공적연금소득	전체		669	-	-	-	-	-	-	-	-	-
	유소득자	8.3	8,077	1,689	2,277	2,831	3,405	4,107	5,067	6,712	10,202	22,380
연금소득소득	전체		673	-	-	-	-	-	-	-	-	-
	유소득자	8.3	8,116	1,689	2,278	2,832	3,407	4,110	5,075	6,731	10,252	22,494
기타소득	전체		65	-	-	-	-	-	-	-	-	-
	유소득자	3.1	2,076	20	50	80	120	190	330	640	1,500	3,920
총소득	전체		22,301	-	-	-	61	3,234	9,887	20,661	33,842	59,732
	유소득자	60.7	38,116	1,680	3,860	7,646	13,762	20,370	27,414	37,080	51,637	83,368

주: 유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얻는 자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값임.

2018년은 2019년과 달리 금융소득에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았음. 또한 총소득에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300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2-7〉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8년)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p1	688	50	120	10	50	3,000	290	1,144	1,142	10	60
p2	1,232	63	250	10	119	18,300	520	1,288	1,288	10	143
p3	1,712	78	418	20	222	20,011	720	1,330	1,330	10	288
p4	2,247	94	600	20	365	20,101	870	1,405	1,405	10	466
p5	2,806	108	800	30	530	20,240	1,030	1,468	1,468	10	670
p6	3,323	127	1,030	40	700	20,410	1,210	1,535	1,535	10	886
p7	3,900	150	1,298	50	890	20,590	1,390	1,557	1,557	10	1,114
p8	4,500	171	1,550	60	1,080	20,780	1,510	1,590	1,590	20	1,330
p9	5,090	200	1,802	70	1,300	20,980	1,600	1,637	1,637	20	1,520
p10	5,786	220	2,100	90	1,525	21,170	1,680	1,689	1,689	20	1,680
p11	6,400	250	2,400	110	1,750	21,391	1,740	1,743	1,743	20	1,867
p12	7,110	280	2,533	130	1,980	21,640	1,810	1,798	1,798	20	2,070
p13	7,780	301	2,847	160	2,219	21,880	1,890	1,837	1,837	30	2,280
p14	8,400	341	3,200	190	2,430	22,141	1,960	1,889	1,889	30	2,450
p15	9,111	377	3,600	220	2,600	22,391	2,020	1,948	1,948	30	2,646
p16	9,730	405	4,032	260	2,860	22,640	2,080	2,012	2,012	30	2,864
p17	10,463	447	4,533	300	3,148	22,890	2,160	2,079	2,079	40	3,099
p18	11,100	482	5,018	340	3,440	23,170	2,240	2,148	2,149	40	3,330
p19	11,847	513	5,586	390	3,766	23,470	2,310	2,214	2,214	40	3,593
p20	12,301	556	6,122	440	4,120	23,771	2,380	2,277	2,278	50	3,860
p21	13,000	600	6,750	500	4,490	24,092	2,460	2,339	2,340	50	4,141
p22	13,680	635	7,366	550	4,860	24,420	2,550	2,399	2,400	50	4,440
p23	14,400	685	8,003	620	5,259	24,711	2,640	2,457	2,457	60	4,760
p24	14,931	708	8,676	680	5,700	25,060	2,750	2,513	2,514	60	5,071
p25	15,600	760	9,407	750	6,145	25,431	2,830	2,568	2,569	60	5,44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부표 2-7〉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8년)-계속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p26	16,155	806	10,010	820	6,620	25,700	2,890	2,621	2,622	60	5,840
p27	16,800	854	10,800	890	7,131	26,070	2,980	2,673	2,674	60	6,258
p28	17,394	904	11,450	980	7,629	26,461	3,060	2,725	2,726	70	6,693
p29	18,000	960	12,000	1,060	8,160	26,851	3,110	2,778	2,779	70	7,170
p30	18,513	1,005	12,754	1,140	8,700	27,281	3,180	2,831	2,832	80	7,646
p31	18,885	1,075	13,463	1,230	9,299	27,710	3,260	2,885	2,886	80	8,160
p32	19,200	1,129	14,225	1,330	9,873	28,160	3,310	2,939	2,941	90	8,689
p33	19,448	1,200	14,835	1,430	10,500	28,620	3,390	2,995	2,996	90	9,267
p34	19,956	1,260	15,600	1,540	11,100	29,110	3,470	3,051	3,052	90	9,840
p35	20,400	1,330	16,200	1,650	11,774	29,621	3,540	3,108	3,109	100	10,460
p36	20,865	1,400	16,800	1,760	12,349	30,090	3,620	3,165	3,167	100	11,079
p37	21,385	1,445	17,552	1,870	13,016	30,641	3,700	3,224	3,226	100	11,754
p38	21,803	1,512	18,100	2,000	13,700	31,100	3,780	3,283	3,285	110	12,360
p39	22,322	1,600	18,800	2,120	14,400	31,200	3,860	3,343	3,345	120	13,052
p40	22,800	1,663	19,056	2,240	15,041	31,600	3,920	3,405	3,407	120	13,762
p41	23,394	1,748	19,380	2,370	15,720	32,120	3,980	3,469	3,471	120	14,410
p42	24,000	1,819	19,942	2,500	16,420	32,661	4,050	3,534	3,536	120	15,165
p43	24,406	1,890	20,410	2,630	17,110	33,290	4,140	3,598	3,601	130	15,856
p44	25,040	1,980	20,996	2,780	17,858	33,820	4,240	3,666	3,668	140	16,600
p45	25,654	2,062	21,580	2,920	18,500	34,440	4,340	3,736	3,739	150	17,337
p46	26,310	2,137	22,065	3,070	18,960	35,100	4,440	3,806	3,809	150	18,010
p47	26,905	2,220	22,654	3,230	19,360	35,840	4,540	3,878	3,881	160	18,780
p48	27,585	2,322	23,210	3,400	19,976	36,640	4,680	3,952	3,956	180	19,200
p49	28,233	2,406	23,898	3,570	20,520	37,330	4,810	4,029	4,032	180	19,716
p50	28,877	2,430	24,400	3,720	21,136	38,110	4,960	4,107	4,110	190	20,37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302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2-7〉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8년)-계속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p51	29,613	2,457	25,100	3,910	21,710	39,080	5,120	4,186	4,190	200	20,965
p52	30,235	2,520	25,793	4,100	22,355	40,000	5,270	4,269	4,273	210	21,600
p53	31,000	2,610	26,448	4,300	22,974	40,920	5,410	4,355	4,359	220	22,243
p54	31,774	2,700	27,195	4,490	23,696	41,930	5,570	4,444	4,449	240	22,896
p55	32,503	2,800	27,927	4,690	24,301	42,440	5,730	4,537	4,542	250	23,639
p56	33,351	2,929	28,718	4,900	25,060	43,400	5,860	4,634	4,639	260	24,292
p57	34,188	3,028	29,457	5,110	25,810	44,600	5,920	4,735	4,741	280	25,060
p58	35,008	3,180	30,181	5,370	26,563	45,841	6,000	4,841	4,848	300	25,827
p59	35,937	3,300	31,036	5,610	27,380	47,151	6,100	4,952	4,959	310	26,597
p60	36,700	3,460	31,900	5,880	28,200	48,310	6,180	5,067	5,075	330	27,414
p61	37,632	3,600	32,755	6,160	29,013	49,820	6,290	5,189	5,197	350	28,240
p62	38,481	3,784	33,665	6,460	29,925	51,291	6,410	5,316	5,325	370	29,078
p63	39,467	3,962	34,656	6,750	30,770	52,910	6,540	5,450	5,459	390	30,000
p64	40,450	4,158	35,604	7,060	31,710	53,471	6,640	5,594	5,605	420	30,850
p65	41,464	4,341	36,500	7,350	32,668	54,780	6,780	5,748	5,760	450	31,800
p66	42,500	4,560	37,555	7,690	33,690	56,490	6,920	5,913	5,926	490	32,776
p67	43,613	4,800	38,528	8,040	34,791	58,490	7,050	6,094	6,108	520	33,803
p68	44,765	5,030	39,621	8,420	35,872	60,510	7,150	6,286	6,302	570	34,872
p69	45,957	5,300	40,784	8,780	36,924	62,990	7,230	6,491	6,509	600	36,000
p70	47,212	5,589	41,943	9,200	38,072	64,541	7,290	6,712	6,731	640	37,080
p71	48,475	5,885	43,144	9,650	39,260	66,640	7,350	6,948	6,970	700	38,241
p72	49,870	6,201	44,400	10,110	40,520	69,191	7,420	7,207	7,231	760	39,433
p73	51,313	6,581	45,742	10,610	41,836	71,760	7,500	7,489	7,515	840	40,691
p74	52,851	7,000	47,166	11,090	43,200	75,070	7,620	7,793	7,821	910	41,986
p75	54,494	7,420	48,600	11,650	44,644	77,820	7,760	8,120	8,151	990	43,3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부표 2-7〉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8년)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p76	56,254	7,900	50,177	12,230	46,180	81,490	7,920	8,476	8,510	1,040	44,790
p77	58,120	8,400	51,839	12,850	47,819	85,620	8,050	8,862	8,899	1,150	46,362
p78	60,000	9,000	53,634	13,500	49,500	89,040	8,190	9,274	9,313	1,250	48,000
p79	62,119	9,625	55,528	14,210	51,334	93,871	8,400	9,718	9,762	1,360	49,755
p80	64,374	10,360	57,600	14,980	53,320	98,870	8,660	10,202	10,252	1,500	51,637
p81	66,730	11,140	59,830	15,820	55,451	104,811	8,950	10,730	10,786	1,650	53,700
p82	69,241	12,000	62,104	16,750	57,797	108,870	9,330	11,316	11,384	1,840	55,929
p83	71,909	12,938	64,670	17,770	60,263	112,640	9,850	11,986	12,067	2,010	58,380
p84	74,752	14,009	67,380	18,890	63,007	119,900	10,570	12,739	12,832	2,240	60,980
p85	77,965	15,187	70,284	20,100	65,991	128,730	11,540	13,595	13,708	2,500	63,887
p86	81,450	16,492	73,400	21,460	69,189	136,460	12,210	14,562	14,698	2,770	67,029
p87	85,169	17,959	76,910	23,010	72,637	146,740	12,650	15,694	15,886	3,000	70,462
p88	89,266	19,550	80,825	24,740	76,545	161,180	13,210	17,322	17,609	3,220	74,220
p89	94,133	21,370	85,078	26,740	80,945	173,080	13,820	19,599	19,878	3,580	78,519
p90	99,764	23,400	89,846	29,080	85,812	192,060	14,550	22,380	22,494	3,920	83,368
p91	106,209	25,661	95,645	31,790	91,443	216,570	15,350	25,145	25,318	4,330	88,800
p92	113,736	28,220	102,431	35,160	98,370	234,210	16,510	27,465	27,535	4,860	95,485
p93	122,399	31,077	110,540	39,300	106,651	268,680	18,130	29,669	29,775	5,480	103,601
p94	132,846	34,243	120,298	44,530	116,816	314,150	20,540	31,703	31,790	6,230	113,600
p95	144,758	37,785	132,423	51,330	129,371	365,590	23,700	34,006	34,113	7,250	126,103
p96	158,331	41,800	146,793	60,780	144,846	450,380	28,070	36,417	36,539	8,670	141,847
p97	175,621	46,276	164,018	75,200	163,798	576,910	32,420	38,839	39,018	10,380	161,147
p98	202,788	51,775	189,240	100,060	192,201	851,150	34,050	41,179	41,302	14,060	189,623
p99	253,807	60,810	238,484	162,620	250,989	1,361,970	37,400	43,598	43,830	24,180	249,05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304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2-8〉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9년)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p1	732	50	132	10	50	140	80	300	762	760	10	60
p2	1,306	67	288	10	120	1,000	100	510	1,142	1,141	10	152
p3	1,800	79	482	20	240	17,880	192	700	1,304	1,303	10	310
p4	2,338	95	700	20	400	20,011	250	840	1,349	1,349	10	505
p5	2,921	109	940	30	570	20,100	320	990	1,421	1,421	20	730
p6	3,492	134	1,200	40	770	20,230	375	1,190	1,487	1,487	20	975
p7	4,000	150	1,498	40	971	20,371	400	1,350	1,557	1,558	20	1,220
p8	4,670	180	1,800	60	1,190	20,540	400	1,480	1,586	1,586	20	1,438
p9	5,300	200	2,100	70	1,430	20,720	475	1,560	1,622	1,622	20	1,624
p10	6,000	231	2,430	80	1,680	20,901	520	1,650	1,672	1,673	20	1,825
p11	6,616	260	2,700	100	1,930	21,090	592	1,720	1,726	1,727	30	2,030
p12	7,281	292	2,961	120	2,180	21,280	654	1,790	1,785	1,785	30	2,259
p13	8,004	320	3,234	150	2,430	21,480	700	1,860	1,835	1,835	40	2,468
p14	8,750	355	3,600	170	2,673	21,700	722	1,940	1,884	1,884	40	2,690
p15	9,500	400	4,064	210	2,880	21,910	800	2,010	1,945	1,946	40	2,880
p16	10,192	425	4,613	240	3,095	22,131	825	2,080	2,008	2,009	40	3,080
p17	10,823	468	5,200	280	3,380	22,361	900	2,160	2,076	2,077	50	3,315
p18	11,644	500	5,760	320	3,690	22,610	960	2,230	2,147	2,148	50	3,580
p19	12,130	540	6,343	360	4,048	22,860	1,000	2,310	2,215	2,216	50	3,850
p20	12,893	581	7,037	410	4,423	23,120	1,000	2,380	2,279	2,281	60	4,140
p21	13,597	616	7,723	470	4,820	23,391	1,040	2,460	2,341	2,343	60	4,440
p22	14,350	668	8,400	520	5,240	23,680	1,109	2,540	2,401	2,403	60	4,761
p23	14,980	709	9,150	580	5,680	23,970	1,184	2,630	2,460	2,461	60	5,090
p24	15,638	764	9,901	640	6,130	24,261	1,224	2,740	2,517	2,518	70	5,455
p25	16,332	810	10,681	710	6,640	24,550	1,280	2,820	2,572	2,574	80	5,85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2-8〉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9년)-계속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p26	17,036	865	11,429	780	7,162	24,870	1,300	2,890	2,627	2,629	80	6,270
p27	17,774	910	12,010	850	7,680	25,170	1,375	2,970	2,680	2,682	80	6,723
p28	18,341	970	12,828	930	8,250	25,510	1,440	3,070	2,732	2,734	80	7,200
p29	19,052	1,013	13,600	1,010	8,803	25,750	1,500	3,120	2,785	2,787	80	7,695
p30	19,622	1,069	14,400	1,090	9,430	26,080	1,560	3,180	2,839	2,841	80	8,230
p31	20,300	1,125	15,108	1,180	10,050	26,450	1,600	3,250	2,893	2,895	90	8,773
p32	20,869	1,200	15,850	1,280	10,716	26,820	1,600	3,330	2,948	2,950	100	9,372
p33	21,000	1,261	16,670	1,390	11,374	27,191	1,680	3,410	3,004	3,007	100	9,996
p34	21,310	1,340	17,450	1,490	12,000	27,600	1,750	3,500	3,061	3,064	100	10,640
p35	21,600	1,400	18,061	1,600	12,677	27,991	1,800	3,590	3,119	3,122	110	11,300
p36	22,100	1,478	18,900	1,710	13,382	28,441	1,826	3,690	3,178	3,181	120	12,000
p37	22,560	1,550	19,531	1,820	14,120	28,880	1,900	3,770	3,237	3,241	120	12,637
p38	22,957	1,621	20,295	1,940	14,830	29,270	1,920	3,830	3,299	3,303	120	13,362
p39	23,471	1,714	20,939	2,070	15,600	29,740	1,986	3,890	3,359	3,363	120	14,120
p40	24,000	1,800	21,000	2,190	16,350	30,200	2,040	3,940	3,423	3,427	130	14,860
p41	24,343	1,890	21,560	2,320	17,140	30,710	2,100	4,010	3,488	3,492	140	15,630
p42	24,900	1,980	21,938	2,450	17,960	31,100	2,160	4,090	3,555	3,559	150	16,430
p43	25,420	2,071	22,454	2,580	18,690	31,210	2,200	4,190	3,621	3,625	160	17,250
p44	26,044	2,150	22,917	2,720	19,400	31,580	2,232	4,280	3,690	3,695	160	18,000
p45	26,605	2,241	23,500	2,870	20,207	32,060	2,284	4,370	3,761	3,766	170	18,874
p46	27,257	2,350	24,000	3,010	20,940	32,570	2,382	4,490	3,835	3,840	180	19,630
p47	27,889	2,430	24,532	3,170	21,190	33,121	2,400	4,620	3,908	3,913	190	20,410
p48	28,566	2,490	25,150	3,330	21,681	33,630	2,408	4,740	3,984	3,990	200	21,000
p49	29,183	2,592	25,794	3,500	22,278	34,241	2,500	4,890	4,062	4,068	200	21,500
p50	29,900	2,700	26,418	3,650	22,835	34,851	2,520	5,060	4,142	4,148	220	22,05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306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2-8〉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9년)-계속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p51	30,483	2,720	27,135	3,830	23,487	35,520	2,620	5,240	4,223	4,229	230	22,697
p52	31,200	2,800	27,843	4,020	24,019	36,240	2,680	5,410	4,308	4,314	240	23,323
p53	31,951	2,895	28,601	4,210	24,700	36,981	2,716	5,580	4,395	4,402	250	24,000
p54	32,668	2,970	29,313	4,400	25,375	37,761	2,792	5,750	4,485	4,493	260	24,610
p55	33,475	3,003	30,000	4,600	26,134	38,640	2,800	5,850	4,579	4,588	280	25,310
p56	34,268	3,120	30,800	4,820	26,870	39,600	2,880	5,940	4,677	4,687	300	26,088
p57	35,069	3,240	31,608	5,010	27,642	40,521	2,960	6,050	4,779	4,789	310	26,835
p58	35,973	3,331	32,416	5,250	28,477	41,541	3,000	6,150	4,886	4,897	330	27,619
p59	36,700	3,500	33,310	5,500	29,280	42,270	3,025	6,280	4,998	5,009	360	28,452
p60	37,624	3,650	34,205	5,760	30,062	43,160	3,104	6,380	5,115	5,127	380	29,270
p61	38,534	3,850	35,119	6,040	30,970	44,340	3,180	6,500	5,237	5,250	400	30,078
p62	39,532	4,034	36,000	6,330	31,878	45,520	3,264	6,590	5,365	5,380	410	30,990
p63	40,525	4,217	36,996	6,610	32,804	46,930	3,311	6,710	5,500	5,516	440	31,900
p64	41,550	4,462	38,037	6,920	33,800	48,261	3,398	6,850	5,644	5,662	480	32,843
p65	42,487	4,704	39,085	7,200	34,811	49,740	3,448	6,980	5,799	5,818	500	33,841
p66	43,550	4,961	40,200	7,530	35,911	51,241	3,550	7,070	5,965	5,986	540	34,874
p67	44,635	5,236	41,354	7,870	36,930	52,941	3,600	7,140	6,145	6,168	590	35,980
p68	45,764	5,520	42,427	8,240	38,100	53,601	3,658	7,190	6,338	6,364	630	37,006
p69	46,931	5,831	43,630	8,600	39,299	55,071	3,748	7,240	6,545	6,572	680	38,185
p70	48,092	6,150	44,870	8,990	40,562	56,891	3,840	7,290	6,767	6,797	740	39,375
p71	49,392	6,510	46,150	9,420	41,873	58,870	3,900	7,330	7,006	7,039	800	40,620
p72	50,720	6,960	47,500	9,880	43,149	61,090	4,000	7,400	7,267	7,300	880	41,884
p73	52,161	7,401	48,844	10,360	44,511	63,651	4,056	7,470	7,550	7,585	970	43,164
p74	53,694	7,922	50,330	10,830	45,969	65,250	4,200	7,570	7,855	7,893	1,030	44,540
p75	55,305	8,460	51,900	11,370	47,496	67,906	4,253	7,700	8,188	8,230	1,150	46,02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2-8〉 전체 인구의 유소득자 개인소득 100분위수(2019년)-계속

(단위: 천원)

분위수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총소득
p76	57,038	9,113	53,591	11,940	49,052	71,000	4,368	7,820	8,548	8,594	1,260	47,600
p77	58,879	9,850	55,390	12,540	50,749	74,440	4,500	7,950	8,944	8,993	1,360	49,200
p78	60,746	10,650	57,330	13,170	52,588	77,630	4,600	8,080	9,363	9,417	1,500	50,950
p79	62,865	11,560	59,400	13,860	54,560	81,430	4,772	8,210	9,820	9,879	1,630	52,820
p80	65,065	12,558	61,500	14,600	56,694	86,010	4,800	8,400	10,319	10,383	1,810	54,865
p81	67,408	13,668	63,880	15,420	59,000	89,750	4,970	8,630	10,861	10,936	2,000	57,070
p82	69,907	14,930	66,359	16,330	61,423	95,470	5,100	8,870	11,465	11,550	2,240	59,480
p83	72,477	16,323	69,030	17,320	64,113	101,050	5,248	9,150	12,145	12,245	2,520	62,032
p84	75,328	17,990	71,870	18,400	66,979	108,720	5,400	9,470	12,908	13,022	2,830	64,844
p85	78,487	19,840	74,848	19,580	70,062	110,230	5,520	9,910	13,757	13,894	3,080	67,876
p86	81,918	22,000	78,219	20,880	73,342	117,020	5,704	10,540	14,702	14,862	3,380	71,153
p87	85,594	24,480	81,910	22,371	77,011	126,731	5,869	11,340	15,795	16,004	3,740	74,687
p88	89,663	27,400	85,890	24,080	81,100	136,250	6,000	12,090	17,195	17,534	4,000	78,692
p89	94,333	30,760	90,275	26,000	85,595	148,290	6,200	12,540	19,346	19,704	4,390	83,145
p90	99,790	34,618	95,422	28,270	90,618	164,300	6,400	13,120	22,207	22,380	4,890	88,083
p91	106,062	38,960	101,326	30,830	96,550	176,931	6,600	13,870	25,116	25,315	5,440	93,790
p92	113,450	43,971	108,195	34,050	103,504	200,710	6,800	14,690	27,535	27,651	6,070	100,646
p93	121,960	49,659	116,384	38,000	111,760	225,111	7,006	15,840	29,851	29,963	6,900	108,767
p94	132,315	56,080	125,805	42,930	121,610	262,650	7,200	17,600	31,903	32,005	7,800	118,680
p95	144,360	63,520	137,393	49,410	133,800	311,530	7,500	20,220	34,211	34,394	8,970	130,750
p96	158,109	72,100	150,927	58,380	148,486	375,282	7,755	24,460	36,552	36,733	10,340	145,690
p97	174,752	82,090	167,201	71,870	166,401	497,790	7,979	29,870	38,977	39,129	12,460	163,992
p98	201,216	93,900	191,488	95,750	193,687	719,390	8,575	33,250	41,301	41,482	16,100	191,357
p99	251,473	110,417	239,535	155,790	251,030	1,303,160	9,250	37,110	43,844	44,109	26,250	249,42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308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2-9〉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평균소득(15~89세, 2018년)

(단위: 천원)

연령대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15~19	103	142	246	26	271	35	-	-	-	2	306
20~24	4,251	929	5,180	352	5,532	52	0	-	0	23	5,584
25~29	17,600	841	18,442	1,005	19,447	95	0	-	0	81	19,541
30~34	27,599	695	28,295	1,806	30,100	138	0	-	0	74	30,238
35~39	30,671	846	31,517	2,999	34,517	155	0	0	0	77	34,672
40~44	33,051	1,112	34,163	4,252	38,415	222	0	2	2	96	38,639
45~49	33,568	1,508	35,076	5,037	40,113	309	0	14	15	106	40,436
50~54	32,399	1,926	34,325	5,412	39,737	374	0	51	52	110	40,163
55~59	26,546	2,145	28,691	5,210	33,901	487	7	323	330	108	34,718
60~64	15,332	2,028	17,360	4,094	21,454	546	30	2,384	2,414	99	24,414
65~69	8,481	1,424	9,905	3,127	13,031	565	25	4,191	4,216	69	17,811
70~74	4,856	788	5,645	2,259	7,904	561	7	3,497	3,505	37	11,969
75~79	2,327	457	2,784	1,547	4,331	451	2	2,320	2,322	22	7,104
80~84	1,124	260	1,384	1,063	2,446	387	0	1,525	1,526	14	4,359
85~89세	602	110	712	682	1,394	300	0	1,033	1,034	10	2,72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부표 2-10〉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비율 (15~89세, 2018년)

(단위: 명, %)

연령대	인구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15~19	2,652,755	2.3	10.6	11.8	2.2	13.0	0.0	0.0	0.0	0.0	0.6	13.0
20~24	3,307,742	30.8	38.8	56.4	17.1	62.2	0.0	0.0	0.0	0.0	5.0	62.2
25~29	3,473,910	62.6	21.8	72.3	20.0	79.6	0.1	0.0	0.0	0.0	6.6	79.6
30~34	3,138,782	68.1	11.4	73.0	20.5	82.1	0.1	0.0	0.0	0.0	5.2	82.1
35~39	3,883,217	63.2	10.3	68.2	23.8	79.7	0.1	0.0	0.0	0.0	4.7	79.7
40~44	3,847,716	60.8	11.3	66.6	27.1	79.7	0.2	0.0	0.0	0.0	4.5	79.7
45~49	4,455,590	58.3	13.3	65.4	29.6	79.7	0.3	0.0	0.1	0.1	4.3	79.7
50~54	4,313,952	54.4	15.3	63.1	30.1	78.1	0.4	0.0	0.2	0.2	3.7	78.2
55~59	4,265,081	48.0	16.3	57.7	29.2	73.2	0.5	0.1	1.4	1.5	3.1	73.8
60~64	3,735,037	38.3	16.2	48.5	26.2	63.9	0.5	0.4	24.2	24.3	2.6	71.2
65~69	2,532,074	27.6	14.3	37.4	20.8	51.1	0.5	0.4	50.0	50.0	2.0	69.9
70~74	1,970,853	17.2	13.3	27.9	15.0	38.6	0.5	0.1	50.6	50.6	1.4	65.4
75~79	1,646,181	8.1	13.7	20.6	9.7	28.0	0.4	0.0	41.7	41.7	0.9	56.0
80~84	1,145,409	3.1	10.5	13.3	6.0	18.0	0.3	0.0	22.4	22.4	0.5	36.0
85~89세	572,011	1.2	5.0	6.1	3.5	9.1	0.3	0.0	12.0	12.0	0.3	19.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310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2-11〉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연령대별 유소득자 평균소득(15~89세, 2018년)

(단위: 천원)

연령대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15~19	4,587	1,350	2,088	1,152	2,091	115,815	-	-	-	324	2,355
20~24	13,821	2,394	9,181	2,055	8,895	112,016	2,910	-	2,910	450	8,975
25~29	28,115	3,867	25,506	5,027	24,433	131,317	4,009	-	4,009	1,226	24,546
30~34	40,529	6,080	38,781	8,826	36,673	141,038	6,161	-	6,161	1,435	36,835
35~39	48,510	8,232	46,197	12,585	43,307	131,595	8,667	8,392	8,635	1,652	43,495
40~44	54,394	9,835	51,267	15,706	48,216	118,888	8,889	14,632	13,767	2,122	48,483
45~49	57,618	11,355	53,642	17,029	50,340	103,225	7,322	22,769	22,002	2,472	50,709
50~54	59,520	12,597	54,421	18,005	50,862	93,365	8,327	24,411	24,141	2,996	51,315
55~59	55,352	13,182	49,762	17,857	46,284	97,812	7,217	22,561	22,037	3,431	46,908
60~64	39,988	12,492	35,827	15,632	33,600	102,635	7,484	9,868	9,953	3,781	34,405
65~69	30,696	9,960	26,468	15,012	25,497	111,313	6,434	8,384	8,431	3,509	26,543
70~74	28,154	5,910	20,239	15,027	20,471	112,349	7,632	6,911	6,925	2,723	21,845
75~79	28,686	3,335	13,509	15,913	15,470	110,113	8,298	5,568	5,572	2,505	17,005
80~84	36,379	2,472	10,435	17,831	13,570	112,086	8,347	6,803	6,804	2,513	15,612
85~89세	49,394	2,213	11,609	19,256	15,266	107,677	9,436	8,585	8,585	3,291	18,322

주: 해당 소득이 있는 인구만의 평균값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부표 2-12〉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평균 소득(2018년)

(단위: 천원)

일자리 유형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미취업 소득유	17,614	1,054	18,668	2,694	21,362	265	4	669	673	65	22,301
미취업 소득무	-	-	-	-	-	824	10	8,050	8,060	-	8,884
(근로자)2년 이상 근무	-	-	-	-	-	-	-	-	-	-	-
(근로자)1~2년 근무	60,288	-	60,288	-	60,288	132	2	378	380	-	60,800
(근로자)6개월~1년 근무	33,625	-	33,625	-	33,625	235	6	692	698	-	34,558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28,923	-	28,923	-	28,923	71	5	807	812	-	29,806
(근로자)미분류	10,792	-	10,792	-	10,792	86	6	869	875	-	11,753
일용근로자	73,854	-	73,854	-	73,854	2,925	146	3,232	3,378	-	80,157
법인고용주	-	7,472	7,472	-	7,472	15	0	481	481	-	7,968
개인고용주	69,283	19	69,302	15	69,317	7,107	23	1,444	1,467	810	77,890
자영업	14,311	2	14,313	23,588	37,900	419	18	1,085	1,103	17	39,423
특고	-	-	-	4,749	4,749	69	5	629	633	275	5,452
일용+자영업	321	24	345	6,307	6,651	-	0	328	329	4	6,980
6개월미만+일용근로	-	6,517	6,517	2,541	9,058	9	1	222	223	93	9,290
(근로자)2년 이상+자영업	8,197	11,152	19,349	-	19,349	13	1	444	445	-	19,807
(근로자)1~2년+6개월 미만	67,917	-	67,917	966	68,883	115	3	307	311	485	69,309
개인고용주+자영업	30,091	-	30,091	-	30,091	57	2	555	557	-	30,706
그외 일자리 2개	9,172	2	9,174	19,535	28,709	477	19	618	636	657	29,823
3개 이상 일자리	40,691	1,532	42,223	5,512	47,735	1,009	13	739	752	187	49,495

주: 2018년 자료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음. 또한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312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2-13〉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소득 있는 자 비율(2018년)

(단위: 명, %)

일자리 유형	인구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미취업 소득유	1,973,934	0.0	0.0	0.0	0.0	0.0	1.1	0.1	8.3	8.3	3.1	60.7
미취업 소득무	19,625,398	0.0	0.0	0.0	0.0	0.0	0.0	0.1	99.1	99.1	0.0	100.0
(근로자)2년 이상 근무	6,474,736	100.0	0.0	100.0	0.0	100.0	0.1	0.0	0.0	0.0	0.0	0.0
(근로자)1~2년 근무	2,173,659	100.0	0.0	100.0	0.0	100.0	0.3	0.0	4.4	4.4	0.0	100.0
(근로자)6개월~1년 근무	1,072,348	100.0	0.0	100.0	0.0	100.0	0.1	0.1	7.3	7.4	0.0	100.0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973,407	99.9	0.0	99.9	0.0	99.9	0.1	0.1	9.0	9.1	0.0	100.0
(근로자)미분류	20,443	99.9	0.0	99.9	0.0	99.9	3.4	0.1	8.4	8.4	0.0	99.9
일용근로자	3,062,434	0.0	99.9	99.9	0.0	99.9	0.0	2.1	15.3	15.6	0.0	99.9
법인고용주	271,937	94.7	0.3	94.9	0.1	95.0	5.1	0.0	10.5	10.5	0.0	99.9
개인고용주	3,388,142	22.1	0.0	22.2	94.0	96.6	0.7	0.2	13.1	13.1	5.6	95.8
자영업	2,429,841	0.0	0.0	0.0	79.1	79.1	0.1	0.2	16.1	16.2	0.1	97.1
특고	74,984	1.2	1.3	2.4	96.1	98.3	0.0	0.1	6.1	6.1	16.8	81.1
일용+자영업	954,327	0.0	99.9	99.9	86.2	100.0	0.0	0.0	5.3	5.3	1.1	98.4
6개월미만+일용근로	878,156	100.0	100.0	100.0	0.0	100.0	0.0	0.0	3.9	3.9	13.1	100.0
(근로자)2년 이상+자영업	797,488	100.0	0.0	100.0	40.5	100.0	0.2	0.0	6.8	6.8	0.0	100.0
(근로자)1~2년+6개월 미만	502,241	100.0	0.0	100.0	0.0	100.0	0.1	0.1	2.9	2.9	51.3	100.0
개인고용주+자영업	504,368	19.1	0.1	19.1	98.3	99.6	0.5	0.0	6.2	6.2	0.0	100.0
그외 일자리 2개	3,963,242	92.7	23.4	98.1	42.1	99.9	0.8	0.3	7.5	7.6	11.2	99.6
3개 이상 일자리	2,229,320	96.5	55.8	99.8	61.1	100.0	0.5	0.2	7.5	7.5	7.2	99.9

주: 2018년 자료에는 임대소득이 포함되지 않음. 또한 분리과세 금융소득도 포함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데이터>/<연금데이터>/<고용보험데이터>/<소득 개인단위 데이터>의 결합데이터, 2018년.

〈부표 2-14〉 전체 분석 대상 인구의 일자리 유형별 유소득자 평균소득(2018년)

(단위: 천원)

일자리 유형	상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노동소득	금융소득	사적 연금소득	공적 연금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소득
미취업 소득유	-	-	-	-	-	824	4	669	673	65	22,301
미취업 소득무	-	-	-	-	-	-	10	8,050	8,060	-	8,884
(근로자)2년 이상 근무	60,288	-	60,288	-	60,288	132	-	-	-	-	-
(근로자)1~2년 근무	33,625	-	33,625	-	33,625	235	2	378	380	-	60,800
(근로자)6개월~1년 근무	28,923	-	28,923	-	28,923	71	6	692	698	-	34,558
(근로자)6개월 미만 근무	10,792	-	10,792	-	10,792	86	5	807	812	-	29,806
(근로자)미분류	73,854	-	73,854	-	73,854	2,925	6	869	875	-	11,753
일용근로자	-	7,472	7,472	-	7,472	15	146	3,232	3,378	-	80,157
법인고용주	69,283	19	69,302	15	69,317	7,107	0	481	481	-	7,968
개인고용주	14,311	2	14,313	23,588	37,900	419	23	1,444	1,467	810	77,890
자영업	-	-	-	4,749	4,749	69	18	1,085	1,103	17	39,423
특고	321	24	345	6,307	6,651	-	5	629	633	275	5,452
일용+자영업	-	6,517	6,517	2,541	9,058	9	0	328	329	4	6,980
6개월미만+일용근로	8,197	11,152	19,349	-	19,349	13	1	222	223	93	9,290
(근로자)2년 이상+자영업	67,917	-	67,917	966	68,883	115	1	444	445	-	19,807
(근로자)1~2년+6개월 미만	30,091	-	30,091	-	30,091	57	3	307	311	485	69,309
개인고용주+자영업	9,172	2	9,174	19,535	28,709	477	2	555	557	-	30,706
그외 일자리 2개	40,691	1,532	42,223	5,512	47,735	1,009	19	618	636	657	29,823
3개 이상 일자리	39,768	4,114	43,882	5,189	49,071	1,112	13	739	752	187	49,49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부록 3] 성별/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

〈부표 3-1〉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2019년 기준): 남성

(단위: 명, %)

구분		계	미가입자		가입자	
			12월 미가입	연중 미가입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체	계	15,426,313	1,447,344	4,226,884	7,765,772	1,986,313
	소득자료 미보유 (무소득자)	2,923,018	48,606	2,525,288	8,417	340,707
	소득 자료 보유 (유소 득자)	소계	12,503,295	1,398,738	1,701,596	7,757,355
			100.0	100.0	100.0	100.0
		31만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하한)	1,605,933	179,282	997,365	60,573
			12.8	12.8	58.6	0.8
		3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32,199	121,669	168,964	72,097
			4.3	8.7	9.9	0.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58,250	254,203	188,882	255,953
			8.5	18.2	11.1	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1,813,958	333,488	129,411	961,458
			14.5	23.8	7.6	12.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62,048	169,143	56,201	1,384,395
			14.1	12.1	3.3	17.8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451,058	88,216	35,114	1,254,812
			11.6	6.3	2.1	16.2
		400만원 이상 486만원 미만	883,114	48,337	23,280	775,059
			7.1	3.5	1.4	10.0
		486만원 이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3,396,735	204,400	102,379	2,993,008
			27.2	14.6	6.0	38.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3-2〉 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2019년 기준): 여성

(단위: 명, %)

구분		계	미가입자		가입자		
			12월 미가입	연중 미가입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체	계	14,877,347	1,378,522	5,640,305	5,597,022	2,261,498	
	소득자료 미보유 (무소득자)	4,265,816	61,304	3,575,529	4,304	624,679	
	소득 자료 보유 (유소득자)	소계	10,611,531	1,317,218	2,064,776	5,592,718	1,636,819
			100.0	100.0	100.0	100.0	100.0
		31만원 미만 (기준소득월액 하한)	2,284,114	249,728	1,398,369	81,292	554,725
			21.5	19.0	67.7	1.5	33.9
		3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57,655	165,223	245,031	102,877	244,524
			7.1	12.5	11.9	1.8	14.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306,341	321,242	199,196	404,495	381,408
			12.3	24.4	9.6	7.2	23.3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398,782	356,446	79,379	1,678,904	284,053
			22.6	27.1	3.8	30.0	17.4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42,180	111,467	26,741	1,514,914	89,058
			16.4	8.5	1.3	27.1	5.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76,802	44,163	23,187	673,571	35,881
			7.3	3.4	1.1	12.0	2.2
		400만원 이상 486만원 미만	390,933	26,368	17,781	330,902	15,882
			3.7	2.0	0.9	5.9	1.0
486만원 이상 (기준소득월액 상한)	954,724	42,581	75,092	805,763	31,288		
	9.0	3.2	3.6	14.4	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록 4] 고용보험 가입 실태분석

〈부표 4-1〉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8년)

(단위: 만원, %)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전체	960 미만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2000~	15000~	20000~
전연령	상용	75.8	70.0	79.8	82.2	81.4	79.4	76.9	75.4	74.8	72.8	67.1	63.2	60.6	57.3	45.0
	일용	8.7	6.7	17.6	14.9	11.0	7.8	5.7	5.1	4.9	4.7	4.5	4.3	3.8	3.8	4.9
18~19	상용	61.8	59.4	75.4	81.0	65.4	72.3	59.3	55.6	20.5	17.5	8.3	20.0	0.0	25.0	0.0
	일용	2.9	2.6	27.4	34.9	22.2	28.6	33.3	0.0	0.0	0.0
20~24	상용	76.2	66.2	84.2	87.2	80.3	72.1	67.9	64.6	58.2	52.0	44.6	41.6	20.8	35.5	56.3
	일용	8.7	7.1	34.4	33.1	27.3	19.9	15.8	11.1	12.0	8.5	6.5	8.7	28.6	16.7	0.0
25~29	상용	81.3	74.9	85.9	88.3	86.1	77.6	70.6	67.0	67.5	64.8	53.2	48.5	45.1	13.9	32.1
	일용	12.5	8.4	31.3	30.5	23.9	17.2	11.6	8.9	7.5	7.3	6.6	7.3	9.3	4.0	16.7
30~34	상용	80.4	76.4	84.9	87.5	87.5	85.1	77.4	70.7	68.9	66.4	66.5	58.6	55.4	32.5	21.1
	일용	12.1	7.7	22.9	23.5	18.6	14.2	10.4	8.7	7.1	6.9	7.3	7.1	3.1	7.1	28.6
35~39	상용	78.7	73.7	81.4	84.1	85.9	86.1	83.4	77.4	72.4	68.7	66.4	66.5	61.4	50.6	30.2
	일용	10.2	6.7	18.1	18.1	15.3	11.8	8.7	7.1	5.5	5.1	5.3	5.9	4.6	5.2	4.0
40~44	상용	76.3	70.7	78.8	80.3	81.6	82.7	83.2	81.6	75.4	71.7	66.7	65.3	66.6	58.4	37.7
	일용	9.3	6.5	15.7	15.2	13.0	9.7	6.6	6.6	5.2	5.7	5.3	4.6	4.8	4.5	7.8
45~49	상용	73.5	68.6	76.8	78.3	77.3	76.6	77.1	80.2	79.8	72.8	67.6	63.5	63.7	60.1	44.2
	일용	8.6	6.6	14.0	13.2	10.3	7.6	5.6	5.1	5.2	5.5	4.1	4.5	3.7	2.9	5.3
50~54	상용	71.9	67.6	75.5	77.4	75.3	72.8	70.7	74.7	80.0	78.5	69.2	65.0	60.0	61.4	50.3
	일용	7.9	6.5	12.7	11.1	8.6	6.3	5.1	4.5	4.3	4.3	4.2	3.9	3.0	2.9	2.7
55~59	상용	71.5	67.2	75.1	76.9	74.2	71.6	68.5	68.7	75.3	80.5	72.5	65.8	58.1	62.3	54.0
	일용	7.5	6.2	11.9	10.4	7.9	5.5	4.3	4.0	4.6	3.9	4.5	3.6	3.9	4.5	4.2
60~64	상용	70.2	66.7	75.7	75.9	72.2	69.3	64.9	59.5	61.6	65.9	65.6	60.7	51.7	61.4	45.5
	일용	8.4	7.3	13.2	11.2	8.0	5.8	4.3	4.4	4.2	4.1	3.8	3.8	3.6	4.1	4.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부표 4-2〉 남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8년)

(단위: 만원, %)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전체	960 미만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2000~	15000~	20000~
전연령	상용	73.2	64.8	74.0	78.7	80.9	80.8	78.2	75.1	74.8	72.2	67.3	64.2	61.1	57.9	46.0
	일용	7.6	5.8	13.4	11.6	8.9	6.6	5.3	5.0	4.7	4.6	4.4	4.2	3.7	3.8	4.9
18~19	상용	67.6	66.0	77.4	84.0	70.7	67.5	61.0	47.2	27.1	31.3	0.0	0.0	0.0	0.0	0.0
	일용	3.1	2.8	27.7	31.9	20.0	28.6	33.3	0.0	.	0.0
20~24	상용	73.4	63.8	79.5	87.2	81.5	72.8	67.9	62.9	56.7	61.4	60.8	55.3	27.4	53.4	52.9
	일용	7.9	6.3	29.0	27.3	22.1	16.5	15.4	11.6	11.9	8.8	7.1	5.3	28.6	16.7	0.0
25~29	상용	78.5	71.5	81.7	85.0	84.4	79.2	69.8	64.1	65.0	65.1	63.1	60.7	52.0	16.5	40.3
	일용	11.7	7.6	27.8	27.8	21.8	15.7	11.4	8.6	7.3	6.7	6.3	7.0	10.0	4.3	20.0
30~34	상용	78.7	72.7	81.9	85.5	86.4	85.2	78.6	69.7	67.4	65.1	67.0	63.5	59.3	34.8	21.5
	일용	12.1	7.4	20.3	21.3	17.1	13.3	10.0	8.5	6.7	6.3	6.5	7.0	3.2	7.5	28.6
35~39	상용	77.4	67.7	77.7	82.4	85.6	86.2	84.0	78.3	72.7	67.8	65.2	66.7	64.3	51.7	29.5
	일용	10.0	6.2	15.0	15.7	14.0	10.9	8.3	7.0	5.4	5.2	5.4	5.8	4.3	5.4	4.3
40~44	상용	74.5	62.8	72.0	77.2	81.5	83.2	83.4	81.7	76.2	72.4	66.2	64.0	66.1	59.9	37.5
	일용	8.0	5.2	11.4	11.7	10.9	8.6	6.3	6.5	5.1	5.3	5.3	4.7	4.8	4.5	6.0
45~49	상용	70.6	59.9	67.2	72.3	76.8	78.5	78.3	79.0	79.3	73.2	67.9	63.4	62.7	61.3	44.8
	일용	6.6	4.6	9.2	9.2	8.0	6.4	5.4	4.9	5.1	5.5	4.0	4.4	3.7	2.9	5.4
50~54	상용	68.4	58.5	65.6	70.0	74.5	76.5	73.7	74.0	79.7	76.7	68.5	65.1	58.9	60.6	50.9
	일용	5.8	4.7	8.0	7.8	6.3	5.3	4.7	4.3	4.2	4.2	4.1	3.8	2.9	2.8	2.9
55~59	상용	68.3	58.5	66.9	70.5	74.1	75.0	71.5	69.5	76.0	78.0	71.4	65.1	57.8	60.4	54.8
	일용	5.7	4.9	7.8	7.5	6.0	4.4	3.9	3.9	4.5	3.7	4.5	3.6	3.7	4.6	4.4
60~64	상용	66.9	59.7	70.8	71.7	72.7	70.9	66.8	60.7	62.1	65.1	63.3	59.6	52.1	60.8	45.8
	일용	6.6	6.1	9.2	8.4	6.2	4.7	3.8	4.1	4.0	4.0	3.6	3.9	3.5	4.2	4.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4-3〉 여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8년)

(단위: 만원, %)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전체	960 미만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2000~	15000~	20000~
전연령	상용	79.1	73.6	83.6	84.8	82.3	76.7	74.0	76.0	74.8	74.6	66.5	59.9	58.9	54.1	37.8
	일용	10.5	7.6	26.9	26.4	21.9	16.2	9.8	7.3	6.8	7.9	7.6	6.8	8.9	4.0	5.3
18~19	상용	54.0	50.3	73.3	77.4	60.0	77.1	57.5	66.7	10.0	8.3	12.5	50.0	0.0	50.0	.
	일용	2.7	2.5	27.0	42.1	25.0	.	.	.	0.0
20~24	상용	78.4	68.5	87.2	87.1	79.4	71.6	67.9	65.6	59.4	44.9	31.1	26.5	11.3	19.7	60.0
	일용	9.6	8.0	43.1	46.2	41.5	33.7	18.1	6.9	12.5	0.0	0.0	25.0	.	.	.
25~29	상용	83.9	78.4	89.4	90.8	87.9	75.8	71.6	70.6	70.8	64.4	42.2	35.5	35.9	9.2	20.3
	일용	14.3	10.1	41.2	41.1	35.3	30.4	14.8	13.8	12.1	23.5	14.3	14.3	0.0	0.0	0.0
30~34	상용	82.5	78.7	87.1	89.4	89.1	84.9	75.2	72.6	71.9	68.8	65.4	47.0	45.1	27.0	20.1
	일용	12.2	8.0	29.0	31.1	26.2	22.3	15.2	12.0	15.6	20.0	26.3	11.1	0.0	0.0	.
35~39	상용	80.5	76.5	83.8	85.7	86.5	85.8	81.8	75.1	71.6	71.1	69.4	66.1	51.0	46.1	32.9
	일용	10.5	7.0	24.4	26.0	22.2	18.7	13.8	9.1	8.0	1.7	3.3	9.7	18.2	0.0	0.0
40~44	상용	79.0	74.6	82.7	82.7	81.7	81.6	82.6	81.6	72.9	69.2	68.6	68.9	68.2	51.3	38.8
	일용	11.1	7.4	24.2	26.2	22.9	18.3	10.0	7.4	5.8	15.1	9.1	2.4	3.8	0.0	100.0
45~49	상용	77.6	73.2	82.0	81.8	78.0	72.4	73.9	82.9	81.1	71.0	66.2	63.7	67.1	52.9	40.2
	일용	11.9	8.0	24.4	26.3	21.8	15.7	7.8	7.0	6.3	5.2	6.9	10.0	3.1	6.3	0.0
50~54	상용	76.6	72.5	80.9	81.2	76.2	66.2	63.8	76.3	80.8	83.3	71.9	63.9	65.7	66.5	41.8
	일용	11.5	7.9	23.3	22.9	20.1	13.5	9.0	6.7	5.9	6.9	5.9	6.0	7.5	14.3	0.0
55~59	상용	76.0	72.2	80.1	81.1	74.4	64.0	60.3	66.3	72.5	86.7	76.7	69.8	60.1	73.9	40.1
	일용	10.6	7.2	21.4	21.8	18.2	13.5	8.2	6.0	6.2	8.0	5.7	8.0	17.6	0.0	0.0
60~64	상용	75.0	71.5	79.7	80.6	71.2	64.5	57.6	54.0	58.8	69.5	75.6	67.2	48.5	66.5	42.3
	일용	11.6	8.3	22.3	22.5	19.0	15.4	11.3	8.0	7.1	6.0	9.1	0.0	15.4	0.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8년.

〈부표 4-4〉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9년)

(단위: 만원, %)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전체	960 미만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2000~	15000~	20000~
전연령	상용	75.8	70.2	80.1	81.6	81.4	79.4	76.9	75.0	74.9	72.7	67.9	63.3	59.7	57.3	45.8
	일용	10.3	8.3	20.4	18.3	14.7	12.0	9.0	7.5	6.7	5.8	5.0	4.2	3.4	2.9	2.3
18~19	상용	71.4	65.6	82.7	86.4	78.9	70.4	54.2	53.0	40.4	37.3	40.3	18.8	61.5	100.0	0.0
	일용	7.1	6.4	30.8	29.1	25.5	18.4	16.4	17.1	8.2	2.9	14.3	0.0	20.0	0.0	0.0
20~24	상용	79.8	72.0	85.2	88.0	83.8	72.4	68.4	64.5	62.0	52.5	37.8	41.9	41.5	40.4	39.5
	일용	11.8	9.5	35.4	34.2	30.3	26.3	21.2	17.3	14.9	11.7	9.9	8.2	8.9	5.2	6.7
25~29	상용	81.5	77.2	86.2	88.4	86.5	80.4	71.2	66.9	66.0	64.8	57.6	48.4	42.6	26.6	41.6
	일용	14.3	9.7	30.7	30.7	27.8	24.7	18.7	14.4	14.3	10.1	9.7	5.6	4.2	4.0	5.2
30~34	상용	79.9	75.8	84.3	86.4	87.0	85.8	79.5	72.2	68.9	65.7	65.8	60.2	54.9	37.7	38.3
	일용	12.7	8.1	23.6	24.4	21.9	19.5	15.5	13.1	11.2	8.8	9.2	6.0	4.1	4.4	3.1
35~39	상용	78.1	72.1	80.8	82.5	84.9	85.6	84.3	78.9	73.9	69.7	66.3	65.9	61.2	49.8	36.6
	일용	10.9	7.4	19.1	19.1	17.4	15.3	12.6	11.2	9.9	9.1	7.8	6.4	4.1	3.5	3.8
40~44	상용	75.9	68.7	78.6	79.6	80.7	81.6	82.6	82.1	77.0	72.6	68.8	65.4	66.2	58.2	38.6
	일용	10.2	7.4	17.4	17.7	14.9	12.6	10.0	9.0	8.7	7.4	6.5	5.4	4.0	3.4	2.5
45~49	상용	73.3	66.4	76.7	78.0	77.4	76.0	76.0	78.8	80.7	75.0	68.5	64.7	63.0	60.6	44.5
	일용	9.4	7.4	16.3	15.2	12.8	11.2	8.9	7.4	7.1	5.8	5.1	4.4	3.4	2.9	2.0
50~54	상용	71.8	66.2	76.0	76.8	75.8	72.6	70.3	72.6	79.1	79.7	70.5	65.7	60.0	61.8	50.1
	일용	8.8	7.3	15.1	13.9	11.7	10.0	7.8	6.7	5.6	5.1	4.4	3.9	3.1	2.5	2.0
55~59	상용	71.4	65.6	75.7	76.1	74.6	71.7	68.6	67.4	74.5	78.2	75.7	66.4	56.7	63.3	54.1
	일용	8.6	7.4	15.3	14.1	10.6	8.8	6.3	5.6	5.3	4.6	3.9	3.4	3.0	2.4	2.0
60~64	상용	69.7	65.3	76.2	75.4	72.4	69.6	63.9	58.2	55.9	57.4	63.2	61.5	48.3	51.4	40.7
	일용	10.6	9.6	17.9	16.5	12.8	9.3	6.0	4.5	3.8	3.8	3.1	3.1	2.9	2.9	2.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320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4-5〉 남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9년)

(단위: 만원, %)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전체	960 미만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2000~	15000~	20000~
전연령	상용	73.0	65.3	75.3	76.6	80.4	80.4	78.3	75.0	74.7	72.3	68.1	64.0	60.2	57.9	46.5
	일용	8.9	7.2	16.0	14.5	12.4	10.7	8.4	7.3	6.6	5.6	5.0	4.2	3.3	2.8	2.3
18~19	상용	72.1	66.4	82.1	86.9	81.4	70.5	49.2	46.6	52.2	40.5	64.3	17.9	33.3	.	0.0
	일용	6.8	6.0	27.7	26.4	23.8	15.3	13.8	18.2	9.0	2.9	15.4	0.0	28.6	0.0	.
20~24	상용	76.8	68.7	80.9	85.7	84.8	74.0	67.0	62.5	63.0	60.6	55.6	49.5	52.1	47.6	40.9
	일용	10.7	8.2	30.3	29.1	26.3	23.6	19.2	17.0	14.5	10.9	10.2	7.6	7.1	5.6	0.0
25~29	상용	78.8	74.5	82.7	85.1	84.5	80.9	71.0	64.1	64.0	63.5	63.0	57.1	46.0	27.6	39.0
	일용	13.7	9.0	27.8	28.0	25.6	23.4	18.1	14.3	13.9	10.1	9.4	5.5	4.4	4.0	4.4
30~34	상용	78.1	71.7	81.3	83.9	85.7	85.5	80.4	71.5	67.2	64.4	65.2	63.8	60.0	39.1	36.1
	일용	12.5	7.7	20.8	21.5	20.1	18.7	15.3	13.0	11.3	8.9	9.1	5.9	3.9	4.2	2.8
35~39	상용	76.7	66.0	76.5	79.7	84.4	85.5	84.6	80.1	74.4	69.0	65.1	65.0	63.9	51.7	35.5
	일용	10.4	6.6	15.2	16.0	15.7	14.4	12.6	11.5	10.2	9.3	8.0	6.6	4.2	3.6	3.8
40~44	상용	73.8	61.0	72.3	73.8	80.1	82.1	83.0	82.2	77.4	73.3	68.8	63.9	64.8	60.1	38.5
	일용	8.6	5.6	12.3	13.4	12.4	11.7	9.7	9.2	8.5	7.3	6.6	5.5	4.1	3.3	2.6
45~49	상용	70.2	57.7	68.6	68.8	76.4	77.6	77.7	78.0	79.9	75.5	68.8	64.8	61.8	61.6	45.3
	일용	7.3	5.2	10.7	10.8	10.4	9.5	8.0	7.1	7.1	5.4	5.1	4.4	3.3	2.9	2.0
50~54	상용	68.1	56.8	67.7	66.8	74.1	75.4	73.8	72.6	78.8	78.1	70.3	65.4	59.1	60.8	50.8
	일용	6.7	5.4	9.8	10.0	9.1	8.4	7.1	6.0	5.3	4.7	4.3	3.8	3.1	2.5	2.0
55~59	상용	68.1	56.8	68.8	67.9	73.6	74.4	72.3	68.4	75.2	77.0	73.8	65.1	56.6	61.5	54.7
	일용	6.8	6.0	10.6	10.5	8.5	7.6	5.7	5.3	5.0	4.6	3.7	3.2	3.0	2.4	1.9
60~64	상용	66.1	57.5	72.1	70.3	72.7	70.5	65.9	59.4	56.8	57.3	60.9	60.8	48.7	50.4	40.5
	일용	8.4	8.1	13.7	12.8	10.8	8.1	5.3	4.5	3.8	3.8	3.1	3.1	2.9	2.8	2.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4-6〉 여성 근로자의 연령대, 종사상 지위, 근로소득계층별 고용보험 가입률(18~64세, 2019년)

(단위: 만원, %)

연령대	종사상 지위	전체	960 미만	~2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2000~	15000~	20000~
전연령	상용	79.2	73.5	83.4	85.0	82.8	77.6	73.9	75.0	75.3	73.6	67.5	61.1	58.1	54.4	40.6
	일용	12.5	9.4	28.8	29.7	24.7	19.6	13.0	9.1	7.6	6.9	5.3	4.8	3.9	4.2	4.7
18~19	상용	70.5	64.8	83.4	85.6	75.4	70.3	60.5	60.6	31.2	34.8	26.5	19.4	70.0	100.0	.
	일용	7.4	6.8	36.9	37.2	31.9	36.7	41.7	0.0	0.0	.	0.0	0.0	0.0	.	0.0
20~24	상용	82.1	75.1	88.1	89.5	82.9	71.4	69.4	65.8	61.3	46.2	25.8	33.6	26.6	35.5	37.5
	일용	13.3	11.0	44.7	47.6	45.9	39.2	34.0	20.2	17.6	19.4	7.5	13.3	28.6	0.0	100.0
25~29	상용	84.2	79.9	89.4	91.0	88.9	79.8	71.5	70.5	69.0	66.7	49.7	35.8	36.9	24.7	47.2
	일용	15.8	11.1	38.7	40.6	39.1	34.7	25.6	16.4	19.5	10.7	14.9	7.6	0.0	3.6	20.0
30~34	상용	82.2	78.1	86.5	88.6	88.9	86.4	77.7	73.4	72.2	68.6	67.0	51.5	41.9	34.0	44.7
	일용	13.0	8.5	28.9	32.4	29.0	23.8	17.1	13.8	10.7	8.3	9.8	7.6	9.6	11.8	12.5
35~39	상용	80.1	75.1	83.5	84.9	85.7	85.6	83.7	76.0	72.6	71.6	69.5	68.2	52.6	42.5	40.8
	일용	11.6	7.9	25.3	27.3	24.0	19.9	12.8	9.2	6.9	6.7	5.8	4.3	3.9	2.9	4.8
40~44	상용	78.7	72.4	82.1	83.2	81.4	80.5	81.8	81.7	76.1	70.3	68.7	69.9	69.8	49.7	39.0
	일용	12.4	8.5	25.6	29.3	24.9	17.6	11.4	8.0	10.3	7.7	5.2	4.5	3.1	6.6	0.0
45~49	상용	77.4	70.9	81.1	82.8	78.6	72.8	71.8	80.6	82.6	73.3	67.3	64.6	67.2	55.4	39.1
	일용	13.0	8.9	26.4	27.8	22.8	20.1	14.1	9.6	6.9	8.6	5.1	4.6	4.2	4.6	1.4
50~54	상용	76.5	71.0	80.4	81.7	77.6	67.6	62.8	72.7	80.0	83.5	71.5	67.2	64.5	67.1	41.9
	일용	12.7	8.7	25.2	25.8	22.5	18.9	12.1	11.0	7.3	7.2	5.0	4.7	3.0	2.8	1.7
55~59	상용	75.8	70.4	80.0	81.3	76.0	66.2	59.5	64.5	72.0	81.6	81.7	72.8	57.5	73.7	43.5
	일용	12.1	8.4	24.1	25.8	20.2	15.6	10.1	7.6	7.1	5.2	5.2	4.8	4.2	2.9	8.3
60~64	상용	74.7	70.5	79.5	81.0	71.5	67.1	57.1	53.1	51.2	57.7	72.9	65.4	45.8	58.0	42.3
	일용	14.3	10.8	25.8	28.4	22.8	17.3	11.5	5.1	4.3	4.4	3.1	3.6	2.0	6.5	1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고용보험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록 5] 3대 사회보험 연계 가입실태 분석

〈부표 5-1〉 특성 집단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59세, 취업자, 2019년)

(단위: 명, %)

종사 상지 위	소득구간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전체	전체	24,922,027	15.2	0.9	31.6	52.3	13,518,093	12.8	0.6	34.6	52.0	11,403,934	18.1	1.2	28.1	52.7
	100만 미만	2,038,035	74.0	1.6	22.3	2.2	845,084	75.3	1.3	21.3	2.0	1,192,951	73.0	1.8	22.9	2.3
	~200만	881,439	56.7	4.1	29.4	9.8	374,989	58.4	3.4	29.8	8.4	506,450	55.5	4.6	29.1	10.8
	~300만	753,993	44.9	3.6	37.1	14.4	314,650	45.4	3.1	38.2	13.4	439,343	44.6	3.9	36.4	15.1
	~400만	681,841	35.8	3.0	39.5	21.7	276,606	36.2	2.5	41.5	19.8	405,235	35.5	3.4	38.2	22.9
	~500만	603,553	31.0	2.7	42.5	23.8	245,070	31.1	2.2	43.7	22.9	358,483	30.8	3.0	41.7	24.5
	~960만	2,050,547	19.7	1.7	42.8	35.8	898,006	20.8	1.4	46.1	31.7	1,152,541	18.9	2.0	40.2	38.9
	~2,000만	3,406,198	7.10	0.6	36.1	56.3	1,548,429	9.3	0.5	43.4	46.7	1,857,769	5.2	0.6	30.0	64.2
	~3,000만	3,778,388	2.20	0.3	23.7	73.8	1,609,974	3.5	0.4	30.6	65.5	2,168,414	1.2	0.2	18.6	80.0
	~4,000만	2,533,603	1.90	0.3	23.8	74.1	1,481,691	2.2	0.3	25.8	71.7	1,051,912	1.4	0.3	20.8	77.5
	~5,000만	1,842,587	2.40	0.2	24.6	72.8	1,207,592	2.0	0.2	24.8	73.0	634,995	3.0	0.3	24.3	72.5
	~6,000만	6,314,194	3.10	0.2	35.9	60.8	4,683,012	2.3	0.2	37.4	60.1	1,631,182	5.2	0.2	31.6	63.0
	6,000만 이상	37,649	1.20	0.2	82.8	15.8	32,990	1.2	0.3	82.1	16.4	4,659	1.0	0.1	87.6	11.3

〈부표 5-1〉 특성 집단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59세, 취업자, 2019년) (계속)

(단위: 명, %)

종사 상지 위	소득구간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상용 근로자	전체	16,660,448	2.2	0.9	21.6	75.3	9,282,982	1.7	0.6	24.7	72.9	7,377,466	2.8	1.2	17.6	78.4
	100만 미만	229,551	34.6	7.9	43.5	14.0	101,538	32.5	5.8	49.8	11.9	128,013	36.2	9.5	38.5	15.7
	~200만	153,390	20.9	15.3	14.8	49.0	60,400	25.1	13.1	17.0	44.8	92,990	18.2	16.8	13.4	51.7
	~300만	152,325	10.8	11.1	16.7	61.3	62,007	12.6	9.5	20.0	57.9	90,318	9.6	12.2	14.5	63.7
	~400만	182,390	6.1	6.8	16.3	70.8	69,782	6.2	5.6	20.6	67.5	112,608	6.0	7.5	13.6	72.9
	~500만	167,881	4.1	5.7	16.8	73.4	66,552	4.0	4.4	20.1	71.5	101,329	4.2	6.6	14.6	74.7
	~960만	809,993	1.9	2.6	16.1	79.4	321,723	2.0	2.2	19.3	76.5	488,270	1.9	2.9	14.0	81.3
	~2,000만	2,194,251	0.9	0.6	16.6	81.8	853,374	1.2	0.6	20.5	77.7	1,340,877	0.7	0.6	14.2	84.5
	~3,000만	3,273,453	0.5	0.3	15.9	83.3	1,284,110	0.6	0.4	19.6	79.3	1,989,343	0.4	0.2	13.5	85.8
	~4,000만	2,247,459	0.6	0.3	17.3	81.9	1,283,208	0.5	0.3	18.3	81.0	964,251	0.8	0.3	15.9	83.0
	~5,000만	1,648,065	1.3	0.2	18.6	79.8	1,066,422	0.6	0.2	18.1	81.0	581,643	2.5	0.3	19.6	77.6
	~6,000만	5,575,647	2.4	0.2	29.6	67.7	4,090,494	1.5	0.2	30.7	67.6	1,485,153	5.1	0.2	26.7	68.0
	6,000만 이상	26,043	1.1	0.3	78.3	20.3	23,372	1.1	0.3	77.7	20.9	2,671	0.7	0.1	83.9	15.3

324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5-1〉 특성 집단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59세, 취업자, 2019년) (계속)

(단위: 명, %)

종사 상지 위	소득구간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일용 근로자	전체	3,117,553	51.3	1.7	38.5	8.6	1,878,845	46.5	1.2	44.5	7.8	1,238,708	58.5	2.5	29.3	9.8
	100만 미만	623,709	87.5	1.3	10.3	0.9	310,209	89.4	1.1	8.8	0.8	313,500	85.6	1.5	11.9	1.0
	~200만	350,535	77.4	2.9	17.5	2.2	167,842	78.9	2.4	16.8	1.9	182,693	76.1	3.3	18.2	2.4
	~300만	247,059	68.4	3.2	24.1	4.3	116,748	69.6	2.6	23.8	4.0	130,311	67.4	3.7	24.4	4.6
	~400만	188,847	60.4	3.4	29.3	6.9	89,226	61.6	2.8	29.3	6.3	99,621	59.4	3.9	29.2	7.4
	~500만	148,124	53.9	3.5	33.1	9.5	70,599	55.5	2.9	32.9	8.7	77,525	52.4	4.0	33.3	10.2
	~960만	386,291	42.3	2.7	39.8	15.1	201,264	45.3	2.1	39.6	12.9	185,027	39.1	3.3	40.1	17.5
	~2,000만	344,646	31.2	1.0	47.9	19.9	220,094	34.6	0.8	48.9	15.7	124,552	25.1	1.3	46.1	27.4
	~3,000만	179,376	25.9	0.4	55.3	18.4	133,317	27.7	0.4	57.3	14.5	46,059	20.8	0.3	49.4	29.4
	~4,000만	123,747	22.8	0.3	62.1	14.8	99,904	23.2	0.2	64.0	12.5	23,843	21.2	0.3	53.9	24.6
	~5,000만	91,975	20.7	0.2	66.7	12.4	77,696	20.6	0.2	68.2	11.1	14,279	21.5	0.2	58.6	19.7
	~6,000만	433,175	12.2	0.1	81.6	6.1	391,879	11.5	0.1	82.6	5.9	41,296	18.7	0.1	72.6	8.6
	6,000만 이상	69	15.9	0.0	84.1	0.0	67	16.4	0.0	83.6	0.0	2	0.0	0.0	100	0.0

〈부표 5-1〉 특성 집단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59세, 취업자, 2019년) (계속)

(단위: 명, %)

종사 상지 위	소득구간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고용주	전체	2,230,000	10.4	0.0	89.0	0.5	1,186,071	8.0	0.0	91.5	0.5	1,043,929	13.2	0.1	86.3	0.5
	100만 미만	174,356	30.8	0.1	68.6	0.5	70,693	25.7	0.1	73.8	0.5	103,663	34.3	0.1	65.1	0.5
	~200만	162,039	21.7	0.1	77.8	0.4	70,492	18.1	0.1	81.4	0.4	91,547	24.5	0.1	75.1	0.4
	~300만	171,878	18.1	0.1	81.4	0.4	75,335	15.8	0.1	83.7	0.4	96,543	19.9	0.1	79.7	0.3
	~400만	151,255	14.7	0.1	84.9	0.4	66,650	13.3	0.1	86.2	0.4	84,605	15.7	0.1	83.8	0.4
	~500만	128,444	12.9	0.1	86.7	0.4	58,085	11.8	0.1	87.8	0.4	70,359	13.7	0.1	85.8	0.4
	~960만	409,088	9.2	0.0	90.4	0.4	213,648	8.0	0.0	91.6	0.4	195,440	10.5	0.0	89.1	0.4
	~2,000만	488,847	5.0	0.0	94.6	0.4	289,167	4.2	0.0	95.4	0.4	199,680	6.1	0.0	93.4	0.4
	~3,000만	188,786	3.1	0.0	96.4	0.5	114,403	2.8	0.0	96.7	0.5	74,383	3.6	0.0	95.9	0.5
	~4,000만	94,076	2.4	0.0	96.9	0.7	57,701	2.3	0.0	97.0	0.7	36,375	2.7	0.0	96.7	0.6
	~5,000만	58,332	2.1	0.0	97.1	0.8	35,793	2.0	0.0	97.2	0.7	22,539	2.2	0.0	97.0	0.8
	~6,000만	193,782	1.4	0.0	97.8	0.8	126,528	1.4	0.0	97.8	0.8	67,254	1.5	0.0	97.7	0.8
	6,000만 이상	9,117	1.1	0.0	98.3	0.5	7,576	1.0	0.0	98.4	0.6	1,541	1.4	0.1	98.3	0.2

326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부표 5-1〉 특성 집단별 3대 보험 가입 유형(18~59세, 취업자, 2019년) (계속)

(단위: 명, %)

종사 상지 위	소득구간	전체					남성					여성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인구수	의보	의보+ 고용	의보+ 연금	의보+ 연금+ 고용
자영 업자	전체	2,914,026	54.5	0.7	37.7	7.1	1,170,195	51.2	0.6	39.3	9.0	1,743,831	56.8	0.8	36.6	5.9
	100만 미만	1,010,419	82.0	0.6	16.8	0.7	362,644	85.0	0.5	13.8	0.7	647,775	80.3	0.6	18.4	0.7
	~200만	215,475	75.0	1.0	22.7	1.4	76,255	77.1	0.8	20.7	1.4	139,220	73.8	1.1	23.7	1.3
	~300만	182,731	66.7	1.1	30.0	2.2	60,560	69.0	1.0	27.7	2.3	122,171	65.6	1.2	31.1	2.1
	~400만	159,349	60.6	1.1	35.3	3.1	50,948	62.7	1.0	33.0	3.3	108,401	59.6	1.1	36.3	3.0
	~500만	159,104	52.5	0.9	42.7	3.8	49,834	55.3	0.9	39.4	4.3	109,270	51.3	0.9	44.3	3.6
	~960만	445,175	42.0	0.9	50.2	6.9	161,371	44.4	0.8	47.3	7.4	283,804	40.6	0.9	51.9	6.6
	~2,000만	378,454	23.4	0.5	62.7	13.4	185,794	24.6	0.5	61.6	13.3	192,660	22.2	0.6	63.8	13.5
	~3,000만	136,773	10.3	0.3	67.5	21.9	78,144	10.6	0.3	68.4	20.7	58,629	9.8	0.3	66.3	23.5
	~4,000만	68,321	5.4	0.2	66.8	27.6	40,878	5.6	0.2	68.5	25.8	27,443	5.2	0.2	64.3	30.3
	~5,000만	44,215	3.4	0.2	63.8	32.6	27,681	3.3	0.1	65.9	30.6	16,534	3.5	0.2	60.3	36.0
	~6,000만	111,590	2.3	0.1	63.6	33.9	74,111	2.3	0.1	64.8	32.7	37,479	2.4	0.2	61.1	36.3
	6,000만 이상	2,420	2.5	0.2	72.7	24.6	1,975	2.8	0.2	72.8	24.3	445	1.1	0.4	72.4	26.1

[부록 6]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부표 6-1〉 개인의 사업장 단위 종사자 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인	465,292	3.7	465,292	100.0	0	0.0
2~4인	1,365,473	11.0	0	0.0	1,365,473	11.4
5~9인	1,338,086	10.7	0	0.0	1,338,086	11.2
10~29인	1,898,785	15.2	0	0.0	1,898,785	15.8
30~49인	766,485	6.2	0	0.0	766,485	6.4
50~99인	1,164,999	9.3	0	0.0	1,164,999	9.7
100~199인	889,644	7.1	0	0.0	889,644	7.4
200~299인	458,560	3.7	0	0.0	458,560	3.8
300~499인	494,451	4.0	0	0.0	494,451	4.1
500~999인	718,174	5.8	0	0.0	718,174	6.0
1000인 이상	2,902,679	23.3	0	0.0	2,902,679	24.2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명)	5,806.4		1.0		6,031.5	
중위값(명)	63.0		1.0		72.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2〉 개인의 사업장 단위 남성 비율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0%	972,657	7.8	231,303	49.7	741,354	6.2
0% 초과 10% 미만	369,242	3.0	0	0.0	369,242	3.1
10% 이상 20% 미만	667,288	5.4	0	0.0	667,288	5.6
20% 이상 30% 미만	991,521	8.0	0	0.0	991,521	8.3
30% 이상 40% 미만	784,650	6.3	0	0.0	784,650	6.5
40% 이상 50% 미만	971,959	7.8	0	0.0	971,959	8.1
50% 이상 60% 미만	1,405,433	11.3	0	0.0	1,405,433	11.7
60% 이상 70% 미만	1,250,794	10.0	0	0.0	1,250,794	10.4
70% 이상 80% 미만	1,157,758	9.3	0	0.0	1,157,758	9.7
80% 이상 90% 미만	1,682,638	13.5	0	0.0	1,682,638	14.0
90% 이상 100% 미만	1,485,976	11.9	0	0.0	1,485,976	12.4
100%	722,712	5.8	233,989	50.3	488,723	4.1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비율)	0.566		0.503		0.568	
중위값(비율)	0.600		1.000		0.60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3〉 개인의 사업장 단위 평균 연령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8세 이상 25세 미만	119,373	1.0	23,624	5.1	95,749	0.8
25세 이상 30세 미만	420,588	3.4	42,117	9.1	378,471	3.2
30세 이상 35세 미만	1,531,808	12.3	42,631	9.2	1,489,177	12.4
35세 이상 40세 미만	2,996,481	24.0	59,042	12.7	2,937,439	24.5
40세 이상 45세 미만	3,829,841	30.7	62,490	13.4	3,767,351	31.4
45세 이상 50세 미만	1,972,303	15.8	74,510	16.0	1,897,793	15.8
50세 이상 55세 미만	1,054,331	8.5	66,611	14.3	987,720	8.2
55세 이상 60세 미만	468,835	3.8	56,314	12.1	412,521	3.4
60세 이상 64세 이하	69,068	0.6	37,953	8.2	31,115	0.3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세)	41.6		43.8		41.6	
중위값(세)	41.5		45.0		41.5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4〉 개인의 사업장 단위 평균 근무기간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개월 미만	20,047	0.2	7,996	1.7	12,051	0.1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38,196	0.3	14,010	3.0	24,186	0.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1,428	0.4	15,185	3.3	36,243	0.3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58,597	0.5	15,099	3.2	43,498	0.4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65,949	0.5	11,367	2.4	54,582	0.5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1,299	0.7	12,065	2.6	79,234	0.7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154,871	1.2	15,028	3.2	139,843	1.2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230,365	1.8	11,365	2.4	219,000	1.8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70,643	3.8	10,619	2.3	460,024	3.8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874,829	7.0	13,140	2.8	861,689	7.2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2,016,426	16.2	9,418	2.0	2,007,008	16.7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660,780	53.4	12,984	2.8	6,647,796	55.4
12개월	1,729,198	13.9	317,016	68.1	1,412,182	11.8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월)	10.9		10.0		10.9	
중위값(월)	11.4		12.0		11.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5〉 개인의 사업장 단위 평균 월소득 분포

(단위: 명, %)

구분	전체 사업장		1인 사업장		2인 이상 사업장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100만 미만	226,402	1.8	46,180	9.9	180,222	1.5
100만 이상 200만 미만	1,771,496	14.2	248,536	53.4	1,522,960	12.7
200만 이상 300만 미만	2,930,797	23.5	108,929	23.4	2,821,868	23.5
300만 이상 400만 미만	2,444,477	19.6	33,408	7.2	2,411,069	20.1
400만 이상 500만 미만	2,422,280	19.4	12,401	2.7	2,409,879	20.1
500만 이상 600만 미만	1,138,574	9.1	6,384	1.4	1,132,190	9.4
600만 이상 700만 미만	522,434	4.2	2,761	0.6	519,673	4.3
700만 이상 800만 미만	397,392	3.2	1,769	0.4	395,623	3.3
800만 이상 900만 미만	364,006	2.9	1,148	0.2	362,858	3.0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120,534	1.0	745	0.2	119,789	1.0
1000만 이상	124,236	1.0	3,031	0.7	121,205	1.0
계	12,462,628	100.0	465,292	100.0	11,997,336	100.0
평균(천 원)	3,996		2,227		4,065	
중위값(천 원)	3,529		1,800		3,6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6〉 사업장 종사자 수와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인	96.2	87.5	3.1	0.7	9.5	86.7
	2~4인	96.4	88.2	3.1	0.5	8.7	87.7
	5~9인	96.0	88.1	3.6	0.4	8.3	87.6
	10~29인	96.0	87.5	3.5	0.5	9.0	87.1
	30~49인	96.5	87.7	3.1	0.5	9.3	87.2
	50~99인	97.3	89.7	2.3	0.4	8.1	89.2
	100~199인	96.9	89.1	2.4	0.6	8.4	88.5
	200~299인	97.8	90.2	1.8	0.4	7.9	89.9
	300~499인	97.9	90.8	1.7	0.4	7.5	90.4
	500~999인	97.9	90.8	1.6	0.4	7.6	90.3
	1000인 이상	98.2	89.7	1.5	0.3	8.8	89.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7〉 사업장 남성 비율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0%	94.3	86.6	5.1	0.7	8.3	85.9
	0% 초과 10% 미만	92.3	79.7	7.1	0.7	13.2	79.0
	10% 이상 20% 미만	96.0	87.0	3.5	0.5	9.5	86.5
	20% 이상 30% 미만	97.0	80.7	2.6	0.4	16.7	80.3
	30% 이상 40% 미만	96.5	88.9	3.0	0.6	8.1	88.4
	40% 이상 50% 미만	95.8	89.1	3.5	0.7	7.4	88.4
	50% 이상 60% 미만	96.8	89.6	2.5	0.7	7.9	88.9
	60% 이상 70% 미만	97.7	90.5	2.0	0.4	7.5	90.2
	70% 이상 80% 미만	98.2	92.1	1.6	0.3	6.4	91.8
	80% 이상 90% 미만	98.6	92.2	1.2	0.2	6.6	92.0
	90% 이상 100% 미만	98.7	91.3	1.1	0.2	7.6	91.1
	100%	97.0	87.6	2.5	0.5	9.9	87.1
2인 이상 사업장	0%	93.7	86.2	5.6	0.6	8.2	85.6
	0% 초과 10% 미만	92.3	79.7	7.1	0.7	13.2	79.0
	10% 이상 20% 미만	96.0	87.0	3.5	0.5	9.5	86.5
	20% 이상 30% 미만	97.0	80.7	2.6	0.4	16.7	80.3
	30% 이상 40% 미만	96.5	88.9	3.0	0.6	8.1	88.4
	40% 이상 50% 미만	95.8	89.1	3.5	0.7	7.4	88.4
	50% 이상 60% 미만	96.8	89.6	2.5	0.7	7.9	88.9
	60% 이상 70% 미만	97.7	90.5	2.0	0.4	7.5	90.2
	70% 이상 80% 미만	98.2	92.1	1.6	0.3	6.4	91.8
	80% 이상 90% 미만	98.6	92.2	1.2	0.2	6.6	92.0
	90% 이상 100% 미만	98.7	91.3	1.1	0.2	7.6	91.1
	100%	97.3	87.8	2.3	0.4	9.8	87.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8〉 사업장 평균 연령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8세 이상 25세 미만	71.7	69.3	26.2	2.1	4.5	67.2
	25세 이상 30세 미만	91.2	89.0	7.8	1.0	3.2	88.0
	30세 이상 35세 미만	97.4	92.2	2.3	0.3	5.5	91.9
	35세 이상 40세 미만	98.2	92.7	1.5	0.3	5.8	92.4
	40세 이상 45세 미만	98.2	93.6	1.4	0.3	5.0	93.2
	45세 이상 50세 미만	97.6	88.0	1.9	0.5	10.1	87.5
	50세 이상 55세 미만	95.2	77.9	4.1	0.7	18.0	77.2
	55세 이상 60세 미만	92.5	60.2	6.8	0.7	33.0	59.5
	60세 이상 64세 이하	94.0	11.0	5.9	0.1	83.1	10.9
2인 이상 사업장	18세 이상 25세 미만	67.4	64.8	30.4	2.2	4.8	62.6
	25세 이상 30세 미만	90.8	88.5	8.2	1.0	3.3	87.5
	30세 이상 35세 미만	97.4	92.1	2.3	0.3	5.6	91.8
	35세 이상 40세 미만	98.2	92.7	1.5	0.3	5.8	92.4
	40세 이상 45세 미만	98.3	93.5	1.4	0.3	5.1	93.2
	45세 이상 50세 미만	97.6	87.7	1.9	0.5	10.4	87.2
	50세 이상 55세 미만	95.1	76.7	4.2	0.7	19.1	76.0
	55세 이상 60세 미만	92.0	55.4	7.4	0.6	37.2	54.8
	60세 이상 64세 이하	91.9	21.8	7.9	0.2	70.3	21.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9〉 사업장 평균 근무기간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개월 미만	23.9	20.2	72.5	3.6	7.2	16.6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80.3	58.8	18.1	1.5	23.1	57.3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82.5	71.3	16.0	1.5	12.7	69.8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83.8	75.3	14.9	1.3	9.8	74.0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83.3	74.9	15.4	1.3	9.6	73.7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5.6	76.8	13.2	1.2	10.0	75.6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5.6	76.8	13.1	1.2	10.0	75.6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8.9	79.8	10.0	1.1	10.2	78.7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0.6	81.2	8.2	1.2	10.7	79.9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4.2	83.5	5.0	0.8	11.4	82.7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96.7	87.3	2.7	0.6	10.0	86.7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8.9	91.7	0.9	0.2	7.4	91.4
	12개월	98.8	90.8	0.9	0.3	8.3	90.5
2인 이상 사업장	1개월 미만	31.1	24.7	65.8	3.1	9.5	21.6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72.1	53.9	26.1	1.7	20.0	52.1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76.5	65.4	21.8	1.7	12.8	63.7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79.3	70.8	19.3	1.4	9.9	69.3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80.5	71.9	18.1	1.3	9.9	70.6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83.8	74.8	14.9	1.2	10.2	73.6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84.4	75.5	14.3	1.3	10.2	74.3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8.5	79.3	10.4	1.1	10.3	78.1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0.5	80.9	8.3	1.2	10.8	79.7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94.1	83.4	5.1	0.8	11.5	82.6
	10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96.7	87.3	2.7	0.6	10.0	86.7
	1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98.9	91.7	0.9	0.2	7.4	91.4
	12개월	99.0	91.1	0.8	0.3	8.1	90.8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

〈부표 6-10〉 사업장 평균 월소득과 개인 단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개별 사회보험 가입 비율의 평균		사회보험 가입 조합 비율의 평균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건강○ 연금○
전체 사업장	100만 미만	66.7	53.7	30.9	2.4	15.3	51.3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4.1	82.4	4.9	1.1	12.7	81.4
	200만 이상 300만 미만	97.1	87.2	2.5	0.4	10.3	86.8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8.1	92.2	1.6	0.3	6.2	91.9
	400만 이상 500만 미만	98.8	92.1	1.0	0.2	6.9	91.8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9.0	91.1	0.8	0.3	8.1	90.9
	600만 이상 700만 미만	99.1	92.8	0.8	0.2	6.4	92.7
	700만 이상 800만 미만	98.9	93.4	0.9	0.2	5.7	93.1
	800만 이상 900만 미만	99.4	92.4	0.4	0.2	7.2	92.2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99.1	95.3	0.7	0.2	3.9	95.2
	1000만 이상	97.0	91.2	2.6	0.4	6.2	90.7
2인 이상 사업장	100만 미만	61.3	47.8	36.2	2.5	16.0	45.3
	100만 이상 200만 미만	93.6	81.4	5.3	1.1	13.3	80.3
	200만 이상 300만 미만	97.1	87.1	2.5	0.4	10.4	86.7
	300만 이상 400만 미만	98.1	92.3	1.6	0.3	6.1	92.0
	400만 이상 500만 미만	98.8	92.1	1.0	0.2	6.9	91.8
	500만 이상 600만 미만	99.0	91.2	0.8	0.3	8.1	90.9
	600만 이상 700만 미만	99.1	92.9	0.7	0.2	6.4	92.7
	700만 이상 800만 미만	98.9	93.4	0.9	0.2	5.7	93.2
	800만 이상 900만 미만	99.4	92.5	0.4	0.2	7.2	92.3
	900만 이상 1000만 미만	99.2	95.4	0.7	0.2	3.9	95.2
	1000만 이상	97.3	91.6	2.4	0.4	6.0	91.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천근로소득테이블〉/〈건강보험테이블〉/〈연금테이블〉/〈소득 개인단위 테이블〉의 결합테이블, 2019년.